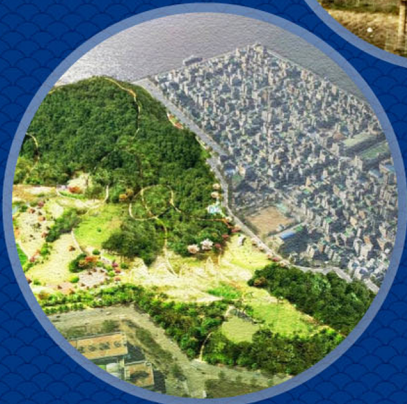


시흥 오이도와 인근 어촌 민속

글 김헌선 외



시흥 오이도와 인근 어촌 민속

글 김현선 외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45만 도시로서 향후 60~70만의 대도시로 이행하는 시점에 서 있다. 선사시대의 유적과 공업단지가 공존하는 문화 도시이자, 산업 도시이기도 하다. 시흥시는 바닷가에 인접한 특성으로 인하여 관련한 유, 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국가 사적 441호로 지정된 ‘오이도 패총’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59호인 ‘시흥 군자봉 성황제’ 등을 보존, 전승하고 있다. 약 100년 전에 섬 인근의 갯벌을 염전 지대로 개발하면서 육지와 이어진 오이도는 약 이십여 년 전에는 해양 관광단지로 개발되었다. 선사시대부터 이어 내려온 오랜 어촌 민속이 자리하던 곳인데, 수도권의 젊은 연인들이 즐겨 찾는 빨강 등대를 상징으로 하는 해양관광단지로 변모하였다.

시흥시는 금년 4월에 국가 사적지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개장하였다. 신석기인들이 조개를 채취하며 생활하던 평화로운 시대를 공원에 부려 놓았는데, 오이도 패총은 학계와 정부의 관심하에 국가 사적으로 보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오이도와 인근 지역의 민속은 서해안 바닷가의 문화를 간직한 소중한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간 합당한 조사 및 발굴이 늦었다. 2017년 들어서야 경기대학교 김현선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오이도의 민속 조사 발굴에 나섰다. 조사 결과 1950년대 말까지 이어온 풍어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래전 기억이지만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던 도당굿과 용왕굿의 연행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구술하였다. 조사 결과를 묶어서 『시흥 오이도와 인근 어촌 민속』을 펴낸다. 오이도를 사랑하고, 서해안 문화에 애정을 지닌 이들과 시흥시의 역사 문화 연구에 뜻을 둔 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공유재를 탄생시켰다. 오이도의 민속자료는 향후 새로운 서해안 문화 창출과 창의적 관광자원 창출의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것이다. 우리는 오이도 어촌 민속을

재인식하여, 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이도의 민속을 이해하려면 오이도에 산재한 선사시대의 유적과 오이도 산정에 위치하던 조선 시대에 봉수대를 주목해야 한다. 외적의 침입을 급히 알리는 서해안 봉수대는 남해안에서 시작한 봉수 신호를 남산 목멱산 봉수대로 보냈다. 오이도 봉수대는 화성시를 거쳐 온 신호를 인천시 문학산 봉수대로 전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오이도 봉수대는 후일 정왕동 정왕산으로 봉수대를 옮겼지만, 처음 봉수대를 세운 오이도는 경기만 지역 내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1920년대에 오이도와 현재의 정왕역(당시 수인선 군자역)을 잇는 조간대에 군자 염전을 축조하여 육로를 개설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 들어서 군자 염전 자리에 시흥스마트허브(구 시화공단)가 들어서면서, 오이도는 도시화의 물결에 휩싸여, 현재는 공단 지역과 배곧 신도시와 연결되어 수도권 관광객이 자동차로 오가는 해양관광단지가 되어 있다. 시흥시 정왕동에서 시화 방조제를 넘어서 대부도로 가는 중간 지점이기도 하다.

오이도 민속 조사를 통하여, 연구팀은 오이도의 민간신앙과 풍어제의 전통유산이 활발하였고, 그 민속을 주민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이도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은 현재의 오이도가 육지화되고 도시화되어 있지만, 당시의 생활상을 되살리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였다. 민간신앙과 갯가 섬사람의 정신 유산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오이도 주민에게 과거나 지금이나 전통적 민속은 그들의 기억 속 중심부에 위치한다. 특히 오이도 도당곳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 있었다. 금번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몇몇 주민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던 것을 밝히어 재현 가능성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라 하겠다. 연구팀은 오이도와 인근 지역의 생활민속을 수집하여 잘 정리하였다. 근대화 시기에 농업과 어업을 삶의 근간으로 한 실상을 확인하였으며, 염전 지대로의 변화, 공단지역으로의 편입과 이후 해양관광단지로의 변모 과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그러한 변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전통 민속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팀은 또한 오이도와 이웃 사람들의 삶, 이야기, 노래를 본 책자에 실었다. 옛이야기의 실상과 노래를 찾아 정리한 것은 또 하나의 수확이었다. 현재의 오이도와 인근 주민의 모습을 충실하게 찾아낸 현장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토박이 또는 이주민들의 삶의 기억과 실재를 편린이나마 정리한 것은 향후 향토사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본 책자의 발간에 수고한 이들이 많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알심이 있는 저작이 탄생하였다. 본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흥시와 시흥시 의회 관계자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본 연구를 진두지휘한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김현선 교수와 연구원 시지은, 김혜정, 김은희 박사를 비롯한 보조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오이도 지역 연구 선행 조사 자료가 적고, 전통 민속이 끊긴지 오랜 세월이 지났기에 토박이 주민의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이도 곳곳을 누빈 연구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협조한 향토사료실 김치성 상임위원과 시흥문화원 이병권 사무국장에게도 감사하다. 『시흥 오이도와 인근 어촌 민속』의 발간으로 모쪼록 오이도 풍어제가 되살아나고, 지역 문화가 부흥하기를 바란다. 시민 모두가 향토사학자가 된 듯이 지역의 역사문화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였으면 좋겠다. 문화도시 시흥시가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2018년 5월 31일
시흥문화원장 정원철

발간사 … 3

1장

오이도 인근 지역의 역사와 변화

1. 오이도 지역개관	11
1) 오이도 개요	11
2) 오이도의 역사	13
2. 오이도의 시대적인 변화	20
1) 오이도와 군자염전	20
2) 오이도와 시화지구 개발	25
3) 오이도와 배곧신도시	27

2장

민간신앙과 풍어제

1. 민간신앙	33
1) 경기도 지역의 민간신앙	35
2) 가신신앙	37
3) 세시절기 의례	40

4) 마을신앙 -----	47
5) 어업 관련 민속신앙 -----	49
2. 오이도의 마을신앙과 풍어제 -----	51
1) 시흥의 마을신앙 전통 -----	51
2) 오이도 도당굿의 실제에 관한 기억 -----	64

3장

오이도와 인근 지역의 생업과 생활

1. 오이도의 농업과 두레 -----	99
1) 오이도의 농업 -----	100
2) 오이도의 두레 -----	101
2. 갯벌과 어업 -----	103
1) 갯벌과 조개 채취 -----	104
2) 건강망과 살막 -----	112
3) 어선활동 -----	121
4) 오이도의 특산 음식 -----	123
3. 군자염전 -----	124
1) 염전의 개발 -----	125
2) 염전개발에 따른 마을 형성 -----	129
3) 염부들의 노동과 삶 -----	132
4) 염전의 매립과 개발 -----	142
4. 개발 이후의 오이도 -----	144
1) 개발에 따른 지형 변화 -----	144
2) 개발에 따른 유적 발굴 -----	147
3) 개발 이후 어업환경의 변화 -----	150

4장

오이도와 이웃 사람들의 삶, 이야기, 노래

1. 개설	159
2. 오이도와 이웃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	165
1) 토착민들의 삶	167
2) 이주민들의 삶	183
3. 오이도와 이웃 사람들이 전하는 옛이야기	193
1) 개요	193
2) 효행설화	194
3) 도깨비 설화	205
4) 전설	212
5) 그 밖의 민담들	215
4. 오이도 사람들과 이웃들이 전하는 옛노래	221
1) 개요	221
2) 노동요	222
3) 유희요	229

5장

오이도 인근 지역 민속의 가치와 내일 ... 239

부록

시흥 오이도 민속조사를 위한 조사·면담 자료 ... 245

오이도 인근 지역의 역사와 변화

1. 오이도 지역개관

1) 오이도 개요

시흥은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안양시, 서쪽으로 인천광역시, 남쪽으로 안산시, 북쪽으로 광명시, 부천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시흥은 바다와 산, 평야가 모두 있는 지역이다. 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구릉성 산지와 함께 완만하게 펼쳐진 평야가 펼쳐져 있고, 남서쪽으로는 해안가에 위치하여 서해안과 인접해 있다. 서해와 습지, 갯벌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생활과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생활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시흥이라 할 수 있다.

시흥은 구석기시대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계수동, 매화동, 월곶동 등에서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먼석기와 찰개 등이 발견된 바가 있다. 또 오이도에서 패총과 주거지 유적이 발견되어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적의 발견 등을 통해 시흥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흥과 관련된 구체적인 첫 기록은 『삼국사기』 권제35 잡지(雜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을 보면 고구려 시대의 시흥의 지명과 신라 시대의 시흥의 지명이 나타

나 있다. 그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며 여러 번의 지명과 행정 지역의 변화가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기존의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흥군이 되었다. 이 때 현재 시흥시의 남쪽지역인 안산군의 마유면과 초산면은 시흥군에 편입되었고, 북쪽지역은 부천군에 속하여 소래면이 되었다. 이때의 시흥군은 지금의 서울 서남부 지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안양, 군포, 안산, 시흥을 모두 아우르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산업화로 인해 시흥군이 관할하던 행정구역들 대부분이 서울시로 편입되거나 독자적인 시로 승격되는 변화를 겪었다. 그렇게 안양, 안산, 광명, 군포, 의왕, 과천으로 분리되고 시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시흥군은 관할 지역이 줄어들고 변화와 축소의 과정을 거쳤다. 1973년 부천군에서 소래읍이 편입되었고 옛 시흥군의 군자면, 수암면과 함께 1989년 시흥시로 승격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이도는 시흥시의 서남쪽 끝에 위치해있는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배곧신도시, 동쪽으로는 정왕동, 동남쪽으로는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가 넓게 자리 잡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시화방조제가 대부도와 연결되어 있고 북서쪽으로는 바다 건너 송도신도시가 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천, 안산, 시화호와 인접하고 있다.

오이도는 현재 경기도 시흥시 정왕3동에 속해 있다. 정왕3동의 인구수는 현재 남자 14,291명, 여자 11,283명으로 총 25,574명이 거주 중이고 11,402세대가 살고 있다.¹⁾ 과거에는 섬이었으나 군자염전과 간척 사업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과거와는 지도 자체가 많이 변해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하며 발견된 패총으로 원래 섬의 자리는 현재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이 되었다. 오이도에 살던 주민들은 원래 살던 섬을 떠나 갯벌을 매워 조성한 오이도 이주단지에 자리 잡아 살게 되었다.

지금의 오이도는 오이도 해양관광단지로 이름불리며 ‘ㄱ’자 형태로 조성된 횃집거리와 조개 칼국수집들이 있다. 그 옆에는 오이도를 대표하는 빨강등대도 있어서 오이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싱싱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또 오이도 어시장에서 횃감과 조개를 구매할 수도 있고, 갯벌에서 조개캐기 체험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관광지이다. 서해에 위치해 있어 서쪽 하늘로 지는 저녁노을을

1) 2018년 1월 기준, 시흥시청 홈페이지 <인구현황>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바라보며 아름다운 해안선과 붉은 석양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선사유적공원과 함께 오늘날 오이도는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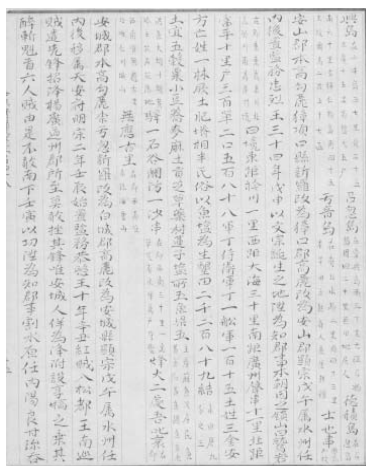
2) 오이도의 역사

오이도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물을 통해 원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드나들며 이용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총, 토기 등의 유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고고학자인 윤무병 박사이다. 윤무병 박사는 1960년 고고미술에 발표한 「烏耳島 具塚(오이도 패총)」에서 오이도에 있던 패총, 토기 등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그는 1949년 10월에 답사한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삼한의 고지명의 현지비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오이도 옆에 있던 石乙注島(돌줄섬)이 마한의 오십 여 국 중 하나인 석색국과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를 밝히고자 왔다가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고 오이도에서 패총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신석기,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되면서 오이도가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터를 잡고 살던 곳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오이도는 조선시대에는 안산군에 속해있었다. 1789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를 살펴보면 안산군 마유면에는 총 9개의 리가 있는데 그 중 정왕리와 오이도리가 있다. 1895년 자료인 『기전읍지』의 안산군 마유면을 찾아보면 8개의 리가 나오고 오이도리는 사라지고 정왕리만 나타난다. 1912년 『구한국 지방 행정 구역 명칭 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서는 12개의 리로 늘어나서 정왕리, 오이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1914년 일제의 행정지역개편으로 안산군 마유면이 시흥군 군자면으로 바뀌며 오이리는



『세종실록』



『세종실록』 지리지의 안산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28a의 안산군 봉수

다시 사라지고 정왕리만 남는다. 그 이후 오이도는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에 속해 있다가 1989년 시흥시 정왕동으로 개편된다. 시흥군 군자면 시절에는 정왕6리에 속해있었지만 시흥시로 승격되면서 정왕3동으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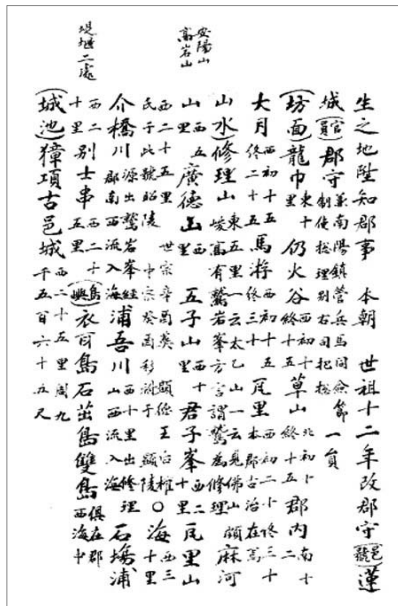
오이도로 추정되는 섬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세종실록』이다.²⁾ 세종 30년(1448) 8월 27일 경진 첫 번째 기사에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하여 상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 기사에서는 소나무를 사사로이 베지 못하도록 재청하며 소나무가 잘 되는 땅을 언급한다. 그 중 안산군의 오일이도(吾叱耳島)라는 지명이 나온다. 이것이 오이도로 추정되는 첫 번째 기록이다. 이 당시 오이도는 안산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안산군조에도 오이도로 추정되는 기록이 나타난다.³⁾ 안산군에는 봉화가 2곳이 있는데 옷애(吾叱哀)와 무응고리(無應古里)라고 이야기한다.⁴⁾ 옷애(吾叱哀)는 안산군의 서쪽에 있고, 남쪽으로 무응고리(無應古里)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仁川) 성산(城山)에 응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옷애가 바로 지금의 오이도일 것으로 추

2)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원문 서비스, 『세종실록』 권121.39b.

3)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원문 서비스, 『세종실록』 지리지 권148.15a.

4) 『世宗實錄地理志-安山郡』, 烽火二處, 吾叱哀, 【在郡西, 南準無應古里, 北準仁川城山。】無應古里。【在郡西, 南準南陽海雲山。】



『대동지지』 권4



『여지도서』 권1의 경기도 중
안산 제 1쪽의 지도

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오이도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⁵⁾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京畿) 안산군(安山郡)조에도 오질이도(五叱耳島)와 석을주도(石乙注島)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산천에서 오질이도는 군 서쪽 47리 되는 곳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석을주도는 군 서쪽 40리 되는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봉수에서도 오질이도봉수(吾叱耳島烽燧)라 하여 남쪽으로 남양(南陽) 해운산(海雲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인천(仁川) 성산(城山)에 응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질리와 옷애, 오질애가 현재의 오이도를 가리키는 이름임은 분명하다. ‘오이도’는 고유어인 ‘오질리’를 간략하게 적기 위해 차자한 ‘오이(烏耳)’를 한자식으로 다시 풀어낸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지리학자 김정호가 마지막으로 편찬한 지리지인 『대동지지』 권4에는 안산지역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그 중 의이도(衣耳島)와 석출도(石茁島), 쌍도(雙島)의 기록과 함께 군의 서해 가운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의이도가 지금의 오이도를

5) 한국고전종합DB 인터넷원문서비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안산군.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여지도서』 안산군조에서도 오이도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여지도서』는 영조 33년인 1757년부터 영조 41년인 1765년에 전국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서 만든 전국 단위의 읍지이다. 책의 앞에는 지도가 실려있는데 이 지도에는 ‘오이도’로, 각 읍지에 대한 서술 내용에는 ‘오질이도’로 나타난다. 오이도와 오질이도를 같이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기지』에는 『대동지지』와 같이 옥구도(玉龜島)로 나와 있고, 『경기읍지』와 『기전읍지』에는 오이도(烏耳島)로 나와 있다. 특히 『기전읍지』 안산군 산천조에 “오질이도는 지금의 오이도로서 군의 서쪽 40리에 있다(五叱耳島 今烏耳島 在郡西四十里)”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오질이도와 오이도가 같은 섬이란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경기읍지』 권1. 60a-b의 안산읍지

이 외에도 다양한 지도에서 오이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해동지도』(古大4709-41) 중 경기도 안산군⁶⁾



『광여도』(古4790-58) 중 경기도 안산군⁷⁾



김정호의 『대동여지도』⁸⁾



『팔도군현지도』 중 경기도 안산⁹⁾

다양한 지도에 오이도(烏耳島) 또는 의이도(衣耳島)로 기록되어 있다. 또 『대동여지도』에는 오이도 위에 봉화를 의미하는 빨간 삼각형 모양의 표시까지 되어 있어서 오이도에 봉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오이도와 함께 석줄도(石茁島)도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있다.

1914~1918년 사이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제작한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

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고지도 중 해동지도의 경기도 안산군 일부.

7)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고지도 중 광여도의 경기도 안산군 일부.

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고지도 중 대동여지도 일부.

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고지도 중 팔도군현지도의 경기도 안산 일부.

形圖(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에서도 오이도가 확인된다. 군자염전이 생기기 전의 모습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오이도 옆에 있는 옥구도는 현재 옥구도도시자연공원(옥구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현지 주민들은 이 섬을 ‘돌주리’라고 부르고 있다.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 기록은 『동국여지승람』의 ‘석을주도(石乙注島)’이다. 세로로 쓰인 ‘石’과 ‘乙’을 한글자로 합치면 ‘돌(乙)’이 된다. 따라서 석을주도는 돌주도(乙注島)를 풀어서 기록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여지도서』와 『기전읍지』에는 석을주도로 기록되어 있고, 『대동지지』에는 석줄도(石茁島), 『경기지』 안산군조에는 석옥귀도(石玉龜島)로 기록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옥구도를 가리키던 고유 명칭은 ‘석을주도’와 ‘석줄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을주도’의 경우에는 돌주리라는 명칭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석줄도’ 또한 석(石)에서 돌이라는 뜻을 새기고, ‘줄(茁)에서 주리라는 뜻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옥구도가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한자로 쓰인 기록은 바로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이다. 별칭으로 석줄도를 함께 기록하였고, 발음을 ‘トルチルアム(돌출암)’ 즉 ‘돌출바위’라 기록하였다. 『근세한국오만분의일지형도』의 저본(底本)에 해당하는 1911년의 『舊韓末韓半島地形圖(구한말한반도지형도)』에는 옥구도의 명칭을 ‘석줄도’라고만 기

록하였다. 그 발음도 ‘トルツツヨム(돌주섬)’이라고만 하여 특이하다.

1911년 지형도에서는 석줄도라고만 표기하던 것을 1918년에는 옥구도라고 하고 별칭으로 석줄도를 표기하였다. 이는 1911년에서 1918년 사이에 일본인들에 의해 옥구도가 정식 명칭으로 공식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918년 지형도에 옥구도로 기록된 이후로 일제가 발행한 모든 지도에 옥구도가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늘 옥구도가 아닌 ‘돌주리’ 혹은 ‘돌주리섬’으로 부르고 있다.

각종 문헌에 기록된 오이도와 옥구도의 명칭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典據	오이도	옥구도
『세종실록』 30년(1448) 8월 27일	오질이도(五叱耳島)	—
『세종실록』 「지리지」	오질애(吾叱哀)	—
『동국여지승람』(1481)	오질이도(五叱耳島)	석을주도(石乙注島)
『여지도서』(1760년대)	오이도(烏耳島)· 오질이도(五叱耳島)	석을주도(石乙注島)
『경기지』(1843)	옥구도(玉龜島)	석옥귀도(石玉龜島)
『대동지지』(1864)	의이도(衣耳島)	석줄도(石茁島)
『경기읍지』(1871)	오이도(烏耳島)	—
『기전읍지』(1894)	오이도(烏耳島)	석을주도(石乙注島)
『舊韓末韓半島地形圖』(1911)	옥귀도(玉貴島)	석줄도(石茁島)
『近世韓國五萬分の一地形圖』(1918)	오이도(烏耳島) [옥귀도(玉貴島)]	옥구도(玉鉤島) [석줄도(石茁島)]
『조선지리지』(1919)	옥직섬(烏耳島) 一名 옥귀도(玉龜島)	—
「인천부를 중심으로 한 명소 교통도회」 『仁川の景勝』	오이도(烏耳島)	옥구도(玉鉤島)

오이도에는 봉수대가 있었다. 15세기 오이도에 봉수대가 축조되었다가 1759년 폐지되었다고 한다.¹⁰⁾ 오이도에 봉수대가 있었다는 것은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이나

10)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2. 시흥의 전통시대』(시흥시, 2007), 127~128쪽.

『대동여지도』 등의 고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봉수대를 기억하는 마을주민도 많았다. 오이도는 봉수대가 있을 만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마을주민들은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이 봉수대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오이도산 정상에 레이더 기지가 생긴 것은 1972년이다. 관측을 더 강화하기 위해 AOP 관측소가 생겨난 것은 1980년대이다. 레이더 기지가 기계로 읽지 못하는 부분을 초병이 직접 망원경을 이용하여 관측하였다. 날아가는 비행기 기종과 방향을 무선으로 레이더 기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오이도 해안 경비초소인 소대가 있어서 오이도 전체 해안을 경계 근무하기도 하였다. 안살막 전체에 대공화기인 발칸포 사격연습장이 있어서 밤낮으로 총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하였다. 돌주리산부터 오이도 해안까지 초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해군 경비정이 상주해 있었다. 오이도는 매우 중요한 요지였다.

오이도산 정상에 있던 성황당도 1972년 레이더 기지가 들어오면서 없어졌다. 군인들이 당집을 허물어 버렸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이유 없이 군인들의 사고가 이어져 레이더 기지에서 30m쯤 떨어진 곳에 당집을 새로 지어주었다.¹¹⁾

2. 오이도의 시대적인 변화

1) 오이도와 군자염전

서해안은 염전을 조성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고, 복잡한 해안선과 함께 크고 작은 섬이 많으며 간석지가 넓게 발달해 있다. 그렇기에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소규모의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농경지나 염전으로 이용되어 왔다. 과거 시흥은 염전이 많기로 유명했다.

대표적인 염전이 1925년에 조성된 오이도와 육지 사이의 군자염전과 1937년에 조

11) 『오이도 마을 이야기』(강범모 외 13인, 하이비전, 2016)에서 “오이도와 군부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성된 소래염전이다. 인천의 남동염전과 함께 남한 제일의 염전지대를 형성했다. 일찍부터 이 지역의 해안 일대에 천일제염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인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바닷물을 쉽게 끌어들이 수 있는 것과 함께 넓은 간석지가 분포했던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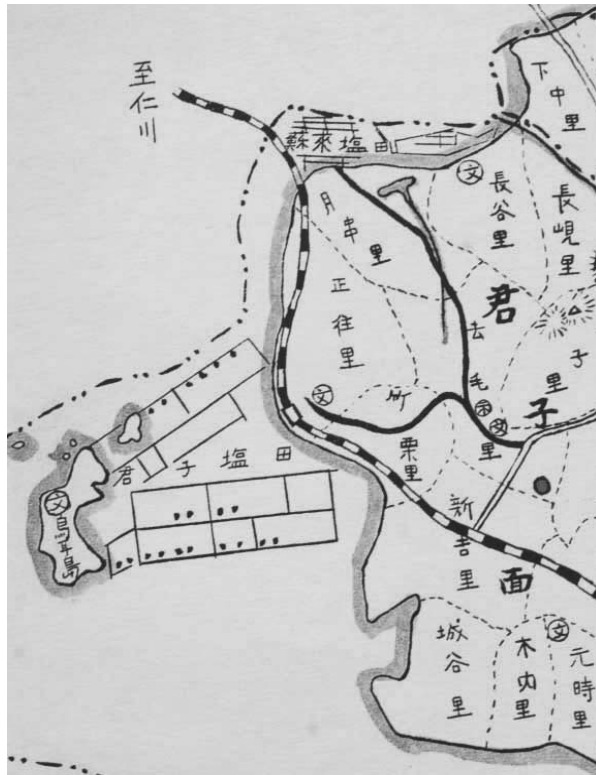
또한 시흥은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지이다. 내륙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해안지역으로의 이동도 매우 편리하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까지 경기만 해안지역은 바다 뱃길과 내륙을 잇는 하운(河運), 이들을 연결하는 포구가 발달하였다.

이처럼 소금을 만들기 좋은 환경을 지닌 경기도에 일제는 소래염전, 군자염전 등의 많은 염전을 만들었다. 시흥은 넓은 갯벌 조간대, 완만한 경사도, 염전에 유리한 토질, 높은 염도의 해수, 큰 조석간만의 차, 일조량과 장기간의 청정일수, 서울, 수도권, 해외(일본·만주) 등의 유통에 유리한 위치 등 염전을 만들기 위해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오이도까지 연결되는 군자염전으로 인해 오이도는 섬에서 벗어나 육지화되었다. 주민들은 물론 염전일을 하기 위해 외지에서도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등 염전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일본은 1907년에 인천 주안에 중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시험용 염전을 만들었다. 1909년 평안남도 광양만에 염전을 만들었다. 이것이 염전 제1기라 할 수 있다. 10년 뒤인 1919년에 평안남도 덕동과 인천 주안에 추가로 염전을 건설하였다.

염전 제3기는 1921년부터 시작된다. 제3기가 바로 시흥의 염전시대이다. 군자염전은 1921년 착공되어 1924년에 완공되었다. 제3기에는 인천시 남촌동, 남동염전과 군자염전이 들어섰다. 군자염전은 575정보의 대규모로 제3기 염전의 46%에 해당한다. 남촌의 염전까지 포함하면, 제3기 염전은 시흥 일대를 중심으로 하였다. 10여 년 뒤인 1934년에 제4기 염전이 시작되어서 해방이 되던 1945년까지 연백(1,250정보), 귀성(1,036정보), 소래(549정보)염전이 들어섰다. 소래염전은 제일 늦은 시기인 1937년에 생겼지만 그 면적은 군자염전과 비슷하였다.¹²⁾

1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3.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시흥시, 2007), 282쪽.



시흥군 관내도(1962년)에 표시된 군자·소래염전¹³⁾



군자염전 전경¹⁴⁾

13)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6.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시흥시, 2007), 277쪽.

14) 시흥시청 홈페이지, 〈시흥시 사이버역사관〉, “향토자료실-사진으로 보는 이야기”
(<http://history.siheung.go.kr/cybr/MainIndex.jsp>)

오이도 사람들 역시 바닷일과 함께 군자염전에서 일하였다. 『시흥시사』 6권의 구술 자료에 따르면 광양만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군자염전으로 내려와 일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군자역 근처에는 평안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당시 평안촌이라는 마을도 있었는데 평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름 지어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 1909년부터 1914년 광양만염전 축조과정에서 일하던 일부 기술자들이 15년 뒤 군자염전 조성에 함께 일했음을 알 수 있다. 평안도 기술자들이 정착한 것은 해방 이전의 일인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으로 인해 피난을 내려와 자리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겹치며 호수가 늘어난 것이다.

관염이었던 일제강점기와 달리 해방 이후에는 관염과 민염이 병존하다가 전매청에서 대한염업으로 이관되었는데, 그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957년 소금생산이 과잉상태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1961년 12월 31일에 ‘염관리임시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민간에 의한 염업 개발의 허가제와 염의 수급비상관리를 규제하면서 전매제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1962년 1월 1일부터 완전 민영화를 실시하였고, 1963년에 국유염전을 대한염업주식회사로 이관시켰다.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시흥의 염부들은 대부분이 대한염업에서의 작업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전매청 시절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염전이 대한염업주식회사로 이관되면서는 염전을 다녀도 큰 돈벌이가 되지 못했다. 민영화 이후 소금은 흥작과 풍작을 반복하였다. 제3공화국의 무분별한 민간염전 허가와 개발이 맞물리며 염전수급은 매우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수급 불균형이 반복되다가 소금값 폭락이 연일 일어났다. 그러면서 수입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끝내 한국의 염업은 사양산업이 되었다.

군자염전은 시흥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올라와서 일하였다. 오히려 오이도 사람들은 염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염전 일을 많이 했다. 150여 호였던 돌주리는 순수하게 염전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살았다. 그 마을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사람이 많았고 100% 외지인이었다. 정왕동 토박이나 오이도 토박이는 살지 않았던 곳이었다. 돌주리는 집이 없었던 곳이었으나 염전이 생기면서 염전관사와 함께 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염전이 만들어지며 생겨난 동네라는 것이다. 옛 사진에서 일본인들이 지은 염전관사 20여 호가 있다. 이들 관사는 매립공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존속하다가 매립공사와 함께 사라졌다.



옥구도의 염전사택



1980년대 시화지구 개발 이전의 군자염전 © 수자원공사

100% 외지인으로 구성된 염전마을인 돌주리와는 다르게 인근의 농사짓는 마을에서는 부업으로 염전에 다녔다고 한다.

1980년을 기준으로 대한염업주식회사는 소래염전 저수지만 75ha, 군자염전은 182ha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남동염전 135ha와 더불어 경기도 내의 최대였다. 특히 군자염전 182ha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컸다. 이러한 군자염전에 고용된 노동력이 540명이었고 대부분이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염전이 쇠락하면서 1987년 군자염전부터 막을 내렸고 소래염전도 폐염전지로 변하였다. 염전이 없어지며 돌주리에 있던 민가들은 안산에 마련해준 1필지(70평)를 보상받고 이주하였다. 염전의 소멸은 많은 이들을 실직 상태로 만들었다. 포동이나 정왕동은 농업 이외에 염전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이 일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염전은 삶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이런 염전이 없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염전이 사라질 즈음 염전에는 젊은층이 아닌 중년층이 염전일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들은 별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만성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¹⁵⁾

2) 오이도와 시화지구 개발

시화국가산업단지(이하 시화공단)는 우리나라 중서부에 위치한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계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시흥시 정왕동(80%)과 안산시 신길동(20%)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시화공단과 안산 반월공단은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웬만한 사람은 어디가 시화공단이고 어디가 반월공단인지 문패를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주로 조립금속제조업종이 입주하여 있으며 총면적은 1,644만3,000㎡이고 그중 산업시설구역은 1,064만 3,000㎡, 지원시설구역이 146만8,000㎡, 공공시설구역이 351만 7,000㎡, 녹지구역이 81만 5,000㎡로 이루어져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전문 산업단지로, 반월국가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와 함께 3대 중소기업 산업단지로 꼽힌다. 시화공단(시화공업단지), 시화산단이라고 불리다가 현재는 시흥 스마트허브와 안산 스마트허브로 불린다.

15)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6.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을 참고하여 오이도와 해당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시화공단이 위치해 있는 시화지구 역시 1976년부터 농업진흥공사(현 농어촌공사)가 농경지 조성을 위하여 간척사업을 계획하였던 곳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를 아우르는 광활한 간척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국토확장사업으로서 시화만에 방조제 5개소를 12.6km에 걸쳐 축조하여 식량 공급을 위한 농지를 조성하고 5,650ha의 담수호를 조성하여 1억 8,000만t의 수자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농업진흥공사는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고, 1982년부터 1984년까지는 기본조사설계를 끝낸 후 1985년 3월부터 1986년 6월까지의 실시설계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1985년 3월 건설부는 3저 호황에 따른 경기 호조에 힘입어 시화지구 매립추진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사업 목적을 이전까지의 농경지 조성에서 공업단지 조성, 도시개발과 농경지 조성으로 변경하였다.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산업재배치의 일환으로 조성된 반월국가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목적을 변경한 것이다.

시화방조제 역시 이 간척사업으로 생겨났다. 시화방조제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동 방아머리를 잇는 방조제로 길이는 11.2km이다. 농어촌진흥공사가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6월부터 1994년 2월까지 6년 만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인 갯벌이 사라지고 망가지고, 바다 역시 망가져 주민들은 큰 불편과 고통을 얻었고, 삶의 터전마저 잃게 되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염전근로자, 어업종사자와 토지소유자가 시화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 토지소유자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민 단지를 조성하여 이주하기로 하였다. 사업시행 기간을 1992년 4월부터 1996년 12월로 잡고, 보상대책으로 1997년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택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자원공사는 허가건물 소유자와 이전부터 거주한 무허가 가옥의 소유자에게도 조성단지 내에 주택용지를 70여 평씩을 분양하였다.

시화공단 건설 초기에 입주한 기업체들은 전기, 통신,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다. 또 군자염전을 매립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지반이 약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대중교통의 부재와 극심한 교통체증, 주거와 교육환경, 도시기반시설의 미흡으로 극심한 인력난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당면한 문제점들인 환경문제, 행정규제문제, 근린시설 및 지

원 문제, 물류수송문제, 교통문제, 인력수급문제, 공단의 경쟁력 문제 등에 대해 기업체의 견해를 듣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시화공단이 생기며 정왕동에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고 시화공단으로 인한 기존 주민들의 이주와 함께 외지인이 많이 들어왔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시화공단 사업장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없이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곳도 많다. 특히 시흥시 농촌지역에 위치한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중소기업, 내수산업, 전통제조업의 위기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6월에 소사-원시선 개통으로 시화지구는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안산, 시흥시와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가하여 스마트허브 제조 경쟁력강화 등에 대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대책으로는 산업단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시내버스노선 확대, 단지 내 주차장 확장, 지하철과 단지 내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의 도입 타당성 검토 등이 제시되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¹⁶⁾ 소사-원시선 개통을 통해 시화공단은 다시 한 번 발전하고 재도약할 기회로 삼고 있다.¹⁷⁾

3) 오이도와 배곧신도시

배곧신도시는 지난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주)한화가 화약성능시험장으로 매립하여 1997년 1월 준공하였던 땅이다. 그러나 2003년 국방부로부터 한화의 화약성능시험장 설치허가가 취소되고 2006년 시흥시가 (주)한화에게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시흥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워 2012년 10월 13일 ‘배곧신도시’ 명명식과 기공식을 하였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예정), 상권 등이 발달하여 있다.

16) 경기일보, 구재원 기자,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교통 ‘환골탈태’」, 2017년 12월 7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20987>)

17)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7. 시화공단과 노동자들』(시흥시, 2007)과 두산백과의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방조제〉 등의 항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7년 12월 7일 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캠퍼스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선포식을 개최한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2018년 4월 시험수조연구센터의 개원을 시작으로 하여 기초과학 캠퍼스(글로벌 복합연구단지 등), 미래기술 스마트 캠퍼스(미래모빌리티센터 등), 사회공헌 캠퍼스(교육협력지원센터 등), 통일평화 캠퍼스(통일평화대학원 등), 행복 캠퍼스(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교직원 아파트 등) 등 6개의 선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배곧신도시는 저밀도 친환경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2015년 개장한 배곧 생명공원은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기수역 공원으로 그 독창성을 인정받아 세계조경가협회(FLA) 아태지역총회에서 조경계획부분 의장상을 수상하였다. 또 배곧 한울공원에는 갯벌체험장, 물놀이시설, 캠핑장, 리모델링한 해안초소가 6km 수변에 펼쳐져 있다. 배곧신도시는 도시 곳곳의 공원과 녹지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순환 도시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¹⁸⁾

2017년 4월에 오픈한 신세계사이먼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도 복합 쇼핑 리조트로 수도권, 경기 서남부를 대표하는 쇼핑·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넓은 부지를 이용하여 쇼핑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방문하여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등으로 꾸며 가족단위 쇼핑객을 모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렛과 함께 대규모의 상권이 형성되어 도시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¹⁹⁾

배곧신도시의 발전으로 도시 곳곳에 기반시설이 생겨나고 있다. 오이도가 종점인 현재 4호선을 시흥 차량기지까지 연결하고 배곧역을 건립할 계획도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²⁰⁾ 또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에 문예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공연장의 성공적 건립과 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립 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운영콘텐츠 확보를 위해

18) 배곧신도시 홈페이지, “배곧신도시 소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9) 한국경제, 김아름 기자, 「신세계 시흥 아울렛...“쇼핑센터 아닌 가족 휴식공간”」, 2017년 4월 5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057019g?nv=o>)

20) 중부일보, 김형수 기자,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지하철 4호선 ‘배곧역’ 건립 본격 추진」, 2017년 12월 24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6795>)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공연장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²¹⁾

배곧신도시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해 더 큰 도시로 발전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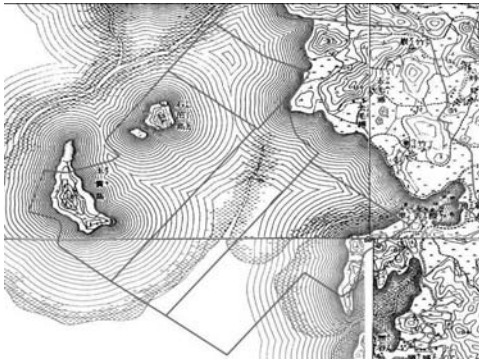
변화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오이도의 전통적인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전통적인 문화의 터전을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에 의해 염전에 내어주었고, 염전이 사라진 후에는 산업단지에 내어주었다. 산업단지 개발과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오이도의 전통이 사라졌다.

오이도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이도 마을 이야기』,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를 통해 자신들이 기억하는 오이도의 전통을 잃지 않기 위해 구술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였다. 자신들의 전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오이도 주민들을 위해 이번 민속지가 오이도의 전통, 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작업이 되었으면 한다.

(집필: 지연화)

21) 경인일보, 김영래 기자, 「시흥 배곧신도시에 600석 공연장 짓는다」, 2017년 12월 21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220010006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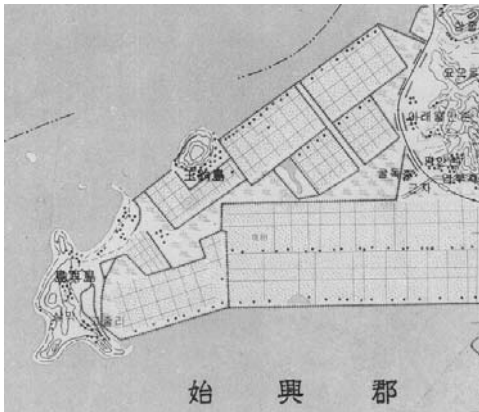
● 오이도 지형의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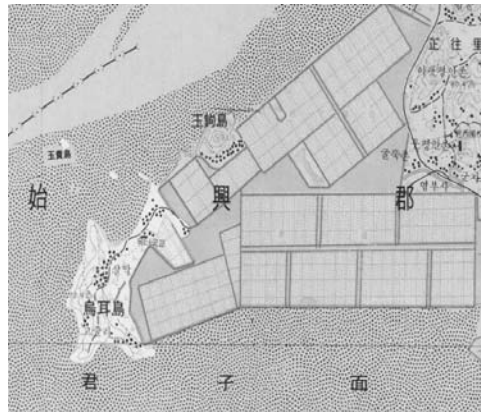
1890년대²²⁾



1910년대²³⁾



1960년대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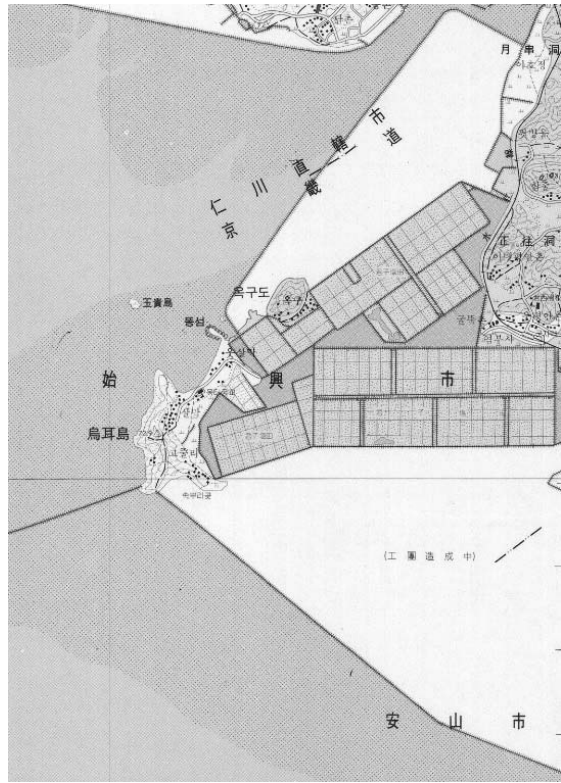
1970년대²⁵⁾

22)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1.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시흥시, 2007), 226쪽의 사진 재수록.

23) 『시흥시사 1.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226쪽의 사진 재수록.

24)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25)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1980년대²⁶⁾



2000년대²⁷⁾

26)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27) 『시흥시사 1.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228쪽의 사진 재수록.

민간신앙과 풍어제

1. 민간신앙

민간신앙은 민족적 특성이 강한 민속종교나 신앙이라 할 수 있다. 넓은 범주에서 민간에 기반하고 있는 신앙적인 형태의 것들을 더불어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신앙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에는 대개 종교적 측면에서 민족적 전통을 드러내는 요소가 많이 있다. 이를 고유한 종교라는 측면과 통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에는 민속적인 측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신앙 안에는 다분히 원시성의 면모가 중요한 기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 서민들을 통해서 전승되고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의 범주 가운데 중요한 것들로 사회적 차원에 의해서 전승된 가신신앙, 시간에 의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세시절기 의례, 혈연 및 지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전승되는 마을신앙, 특정 계층에 의해서 전승되는 무속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우리민족의 민간신앙으로 오랜 세월 유지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그 전통적인 전승 형태가 약화되거나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삶의 양태가 농업의 기계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큰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리하여 그 양태가 이제는 거의 사라져서 찾아볼 수 없는 것에서, 변화된 모습으로만 찾아지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수도권 또는 거대 도시 인근 위성도시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극렬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전통적인 민간신앙의 면모를 과거의 모습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많은 경우 이러한 노력이 미치지 못해서 사라져버린 사례가 더 많다. 다만 그나마 민간이 주도하거나 관에서 주도하여 전통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라면 전통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동안 경기도 지역은 매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역적 발전과 보존을 이어왔다. 경기도 지역의 마을 소도시들은 신도시 개발과 산업도시로서의 성장 속에서 지역적 특성을 잃어버린 면모가 매우 많은데, 이러한 속성은 시흥과 오이도 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이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소금생산의 주요한 산지로서 지정되면서 생업과 생활민속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인 민간신앙의 면모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시작된 외지인들의 유입은 이후 6·25 한국전쟁과 반월공단 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전승되던 문화는 거의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50~1980년대에 오이도와 인근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민간신앙이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 또는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오이도 지역과 인근 어촌의 민속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민속신앙과 풍어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다. 기왕에 정리된 자료들을 통해서도 민속신앙에 대한 부분이 단편적으로만 정리되고 있으며, 또한 제보자들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억보다는 단편적인 기억과 몇 가지 정황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면모들은 오이도와 인근 어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에 기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로서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후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거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혈연과 지연이 아닌 관계라고 하더라도 지역공동체라는 단위가 오늘날의 사회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오이도와 인근 어촌 지역 사람들의 민간신앙에 대한 면모는 가정신앙, 세시의례, 마을신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정리를 위해서는 기존에 조사된 관련 자료들과 함께 마을주민들의 증언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민간신앙 가운데 특히 마을신앙에 해당하는 도당굿(풍어제)의 경우, 오이도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매우 중요한 민간신앙의 하나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하여 오이도 지역의 민간신앙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당굿(풍어제)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오이도 도당굿(풍어제)의 형태와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먼저 현재까지 조사된 민간신앙과 풍어제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지역의 민간신앙

한반도의 역사에서 경기도는 일찌감치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터전을 마련했던 곳으로, 선사시대 유물은 물론하고, 강화도의 단군신앙 유적, 삼국시대 영토분쟁의 격전지, 조선시대의 기전지역으로서의 역할까지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지되었다. 경기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된 것이 이미 삼국시대이며, 고려시대에는 이미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더욱이 6·25 한국전쟁 이후 경기도는 서울을 수반하는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기도의 역사적 배경은 그 생활문화와 민간의 삶을 형성하는 데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민간의 생활문화와 민간신앙의 측면에서 경기도의 전통에는 백제 이전의 무속, 고려시대의 불교, 조선시대의 유교를 바탕으로 살아온 서민들의 삶의 양태가 녹아 있는 것이라고 할만하다.

경기도 지역의 민간에서 유지되어 온 서민들의 삶의 양태를 확인할 수 있는 민간신앙의 형태를 확인해 온 자료 중 전통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1978년도에 정리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9책-경기도편』(이하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을 들 수 있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우리나라 각지의 민속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정리한 전국단위 사업으로,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다

양한 민속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이 중 제9책의 경기도편에는 197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경기지역의 민속자료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이 중 제2편에 민간신앙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경기도 관내 285개 부락에 발송한 「민속종합조사질문서」 중 167개 마을에서 답변(회수율 59%)을 얻어서 정리한 민간신앙 전승 상황에 대한 개황이다.¹⁾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에서 차례를 지내는 시기는 정월 초(151개 부락)와 추석(137개 부락)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극히 적게는 단오(1개 부락), 추석 후 적당한 시기(3개 부락), 한식(2개 부락), 시제(2개 부락) 등이 확인되었다.

가신(家神)의 경우 167개 부락 중 91개 부락만 응답을 보내온 결과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신을 모시고 있다고 대답한 사례가 40개 있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성주’와 ‘터주’로 각기 54개 부락에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석’이 14개 부락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외의 가신들의 경우는 극히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1970년대에 벌써 전통적인 가신신앙의 면모들이 약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에 당시 조사된 답변지를 통해 가신들이 집안의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 정리하고 있어서 이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안방 : 제석(14), 조상(5), 삼신(2), 안방대감(2), 신조묘(1), 칠성(1), 천주교(1)

부엌 : 조왕(8), 엽(2)

변소 : 터주대감(2)

마루 : 성주(54), 터주(4), 사당(2), 대감(2), 조상(1), 상청(1), 지청(1)

곳간 : 대감독(2), 광대감(1)

뒤결 : 터주(54)

대개 집안의 제액초복(除厄招福)의 의미를 목적으로 해서 모시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집안의 행운, 가족 구성원들의 장수복록(長壽福祿), 기자(祈子), 남아다산(南兒多産), 자녀의 성장·건강·입신출세, 기원성취, 제액, 무병, 병환회복, 수재(水災) 및 화재(火災) 예방, 농산물의 풍작 기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신제는 크게 고사와 안택의

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9책-경기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86~105쪽.

두 가지 형태로 제사되는 것이 확인된다. 대개 고사는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매년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전통적인 통과의례의 하나로 가내의 제신들에게 감사의례를 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안택제는 정월에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필요에 따라 임시 또는 수시로 거행되기도 하며, 대개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불안이나 질병 또는 기타의 불안한 것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대개의 가신제들은 가정의 주부에 의해서 거행된다.

이러한 경기도의 보편적인 전승형태를 기반으로 간략하게 경기도지역의 전승개황을 세부적으로 가신신앙, 세시풍속에 대해 정리하고 어업 관련 민속신앙을 더불어서 정리하고, 마을신앙에 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가신신앙

가신신앙은 집안의 각 처에 신이 자리해서 집안을 보살펴주는 것이라 믿고 이들 신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의례를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집안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신앙·가택신앙·집안신앙이라고도 한다. 집안에 있는 신을 가신(家神)·가택신(家宅神)·집안신이라 부른다.³⁾ 서민들이 자신들의 가까이 일상적으로 머물면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민간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시흥시는 과거에 안산, 인천, 군포, 광명, 과천, 안양 등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경기도 남서부 지역의 지역적 특징을 담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시흥은 서해안 인접 지역으로서 해양의 안전을 수호하며, 해상 교통의 주요한 지리적 역할을 담당한 지역이었다. 특히 시흥지역은 인근의 한강 이북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 이러한 거점 지역으로서의 면모는 시흥이 경기 남부문화의 일정한 경유지로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기도의 전통적인 민속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민속신앙에

2)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집문당, 1983), 18쪽.

3)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Ⅱ 신앙편』(경기도박물관, 1999), 36쪽.

대한 면모를 확인하면서, 특히 시흥지역에 관해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역시 실제 민간신앙의 전통의 대다수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이미 사라지고 있었던 경기도의 보편적인 상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서 시흥시 또는 오이도 지역 일대의 민간신앙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기도의 보편적인 전승양상을 기반으로 민간신앙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시흥은 각 가정에서 가내안녕을 기원하는 가신신앙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신앙전통의 맥락을 따르면서 전승된 것으로 확인된다. 오이도와 인근 어촌지역의 가신신앙 역시 대체적인 경기도 지역의 일반적인 면모와 그 맥을 같이한다. 대개 가신신앙은 가옥의 구조 속에서 그 위치에 따라 수호신들이 좌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가신은 성주, 제석, 조왕, 터주, 칠성 등이며 그 외 측간귀신, 손각시 등이 있다. 이들 가신은 각처에 좌정하는 위치와 그 신격에 따라 일정한 형태의 신체를 만들어 모시기도 한다.

가신신앙의 전통적인 전승 형태가 이미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1970년대 후반의 상황을 정리한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에 정리된 것을 통해 경기도의 민간신앙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⁴⁾

성주

성주는 가신들 가운데 최상위의 신으로, 하위의 다른 가신들을 총괄하면서 가택의 안강수호를 가져오는 신이다. 대개 성주대감 또는 상량신으로 불리며, 보통 집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위치한다. 그 신체는 집의 신으로 집의 주인으로 인식하여 집을 지을 때 상량고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모신다. 성주신의 신체는 대들보에 성주대를 말아서 모시거나, 성주종을 붙이기도 하며, 때로는 쌀을 항아리에 담아서 성주독을 모셔두기도 한다.

4) 이하의 가신신앙에 관한 내용은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 87~88쪽에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터주

터주는 집터의 신으로 터주대감, 지신, 후토주임 또는 터주대주라고도 불리는 신이다. 사람이 사는 터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신체는 작은 병이나 항아리에 쌀을 넣어서 짚으로 주저리를 만든 터주가리를 장독대 모퉁이나 집의 뒤편에 안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대개 일 년에 한 번씩 새로 주저리를 틀어서 바꾼다. 새로 터주가리를 트는 때는 고사를 지내는 날의 오전으로, 남자들이 이를 담당한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터주가리 1~2개 정도는 다 있었다고 한다. 현재 덕섬에 거주하는 박용덕 어른의 경우에도 예전 거주하던 오이도 집에 3~4개의 터주가리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제석

제석은 집안사람들의 수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방안의 다락 위어나 부엌의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단지를 모셔두는 것으로 신체를 모시기도 한다. 때로는 자루에 쌀이나 조를 넣어서 형겔조각을 느리어 놓은 형태로 안치되기도 하며, 제석항아리를 모시기도 한다.

조왕

조왕신은 불의 신으로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물 일체에 관여하는 신이다. 부엌의 그릇을 올려놓는 선반 위에 바가지를 얹어서 그 속에 삼베조각을 넣어두는 것으로 신체를 모시기도 하고, 부엌의 한쪽 벽에 백지나 형겔조각을 붙여 놓기도 한다.

업

업위신(業位神)이라고도 불리는데, 대개 재물신으로 집안의 재물과 복을 주관한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대개 창고나 광의 한 귀퉁이에 콩이나 팥 등의 곡물을 넣은 용기를 안치하는 것으로 신체모시기를 한다.

조상

조상신을 대개 조상대감이라고도 불리우는 조상을 모시는 것이다. 이 조상신은 기제사의 범위를 벗어난 조상 중 자손의 보호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상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러한 가신 외에도 측간신, 손각시 등의 신들에 대한 가신신앙의 전통이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편찬한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역에 세시절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신신앙의 양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정월달의 성주고사, 정월 열나흘날 우물가에 밝혀두는 ‘우물밝히기’, 정월 대름날 우물에서 진행하는 ‘용알뜨기’, 정월 열나흘날의 ‘조왕제’, 평상시의 조왕물 올리기, 평상시 터주에 정화수 올리기 등을 진행하는 전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 그리고 이러한 가신신앙의 전통은 대개 특정 세시절기와 연계해서 진행되는 의례와 평상시 의례의 양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례는 비밀성 또는 은밀성이 중요하므로 난잡하거나 소란스러운 것을 피한다. 이러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의례는 대개 집안의 안주인인 어머니가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어머니의 주도하에 가족들이 동참하여 진행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가신신앙의 형태는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상당부분 소멸하였다. 또한 삶의 근거지가 달라지고 핵가족화되면서 가택구조가 변화하는 등 가정 형태의 변모에 따라 그 흔적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세시절기 의례

세시의례는 세시절기에 때에 따라 직접 의례를 거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특정한 형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세시의례는 열두 달 24절기와 명절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의례이다. 세시풍속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생산과 소비의 내용, 즉 생계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의 경우는 농업적 세시풍속을 바탕으로 발달되었다. 특히 논농사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였다. 논농사는 집약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봄의 모내기, 여름의 김매기, 가을의 추수와 같은 농번기에는 고된 노동이 이어진다. 때문에 체력회복과 휴식을 위한 오락적인 성격을 띤 풍속이 행해졌다. 개인차원에서는 특별 음식이 마련되고, 마을의 차원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협동성을 높이는 놀이로 나타난다. 반면에 농한기에는 가정단위, 마을 단위의 제의를 통하여 조상과 신들을 대상으로 의례를 행한다.

5)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2004). 정월달 의례만 정리한 것이다.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에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에 대한 정리도 기록되어 있다.⁶⁾ 이 정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은 오랫동안 궁중행사로 펼쳐진 세시풍속 의례나 놀이가 민중으로 침투하여 민속적인 형태로 굳어진 것들이 많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고구려의 풍속적 영향이, 동남방에는 신라의 풍속이, 서남지역의 백제의 유풍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북쪽으로 황해도 지역의 풍속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풍속과 유사한 면모가 서남쪽으로는 충청남도와 서해안 지역 특유의 문화와 유사한 면모가 있다고 한다. 또한 그 중간의 서울지역의 풍속과의 연관성 등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특징이 서구의 영향 등을 급속히 받아들이는 통로로서의 구실을 담당했으므로, 구체적으로 풍성했던 과거의 풍속이나 놀이를 찾는 것이 또 한 어려운 지역으로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왕에 정리된 우리나라 민간의 세시풍속의 보편적인 현상 속에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현재에 더욱 막막함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 정리되는 세시절기를 신앙적인 의례 행위를 기본으로 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경기도 내의 세시풍속의 형태를 유사하게 전승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월별 세시의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① 정월

정월달의 세시풍속으로 대표적인 것은 설날이다. 한 해가 시작되는 달로, 상서롭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빌고, 조상이나 어른이나 이웃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여러 행사와 놀이가 진행된다. 설날에 설빔을 해 입고, 차례를 지낸 후에 도소주를 먹고, 산소에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하며,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는 세배를 한다. 설날이 되기 전날에는 복조리를 사서 벽에 걸어두거나, 야광귀를 쫓아 보내기 등을

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9책-경기도편』, 108~447쪽.

7) 전통적인 세시의례의 형태는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전통적인 면모를 기록하는 기록서로써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일반적인 개황이 정리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9책-경기도편』과 『경기민속지』를 비롯해서 시흥지역에 대해서 정리한 『시흥군지』(하)에 수록된 경기도와 군자동 일대의 전통적인 세시의례와 생활의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하며, 머리카락 사르기 등을 하기도 한다.

또한 정초에는 십이지신의 동물들에 해당하는 특정한 날에 의미를 부여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금기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쥐날에는 들에 나가 논두렁에 쥐불을 놓고 끄지 않고 돌아오는 날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깡통에 불을 넣어 돌리는 쥐불놀이로 바뀌게 되었다. 소날에는 농사일에 소가 가장 큰 몫을 하도록 소가 연장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연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인(寅)날은 사람날이라고 해서 이른 아침에 여자가 바깥출입 하는 것을 삼가게 했으며, 토끼날 역시 여성들의 바깥출입을 금해야 하고, 뱀날에 머리손질을 하면 집안에 뱀이 들어온다고 하여 머리빗기를 금해야 한다. 또한 닭날에는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고 한다.

정월 의례를 설날 다음으로 중요한 때가 정월 대보름과 그 하루 전인 정월 열나흘날이다. 정월 열나흘은 일명 작은 보름이라고 하며 대보름날과 함께 다양한 행사나 놀이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일을 아홉 번 반복하기, 오곡밥·복쌈 먹기, 세 집 이상의 남의 집밥 먹기,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 하여 경쟁하며 밤새우기를 하며 노는 등의 놀이를 했다.

본격적인 정월 대보름날에는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 전에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름이라고 하여 딱딱한 껍질로 된 땅콩·밤·호도 등을 깨물어서 버린다. 또 쌀·수수·조·팥·콩을 넣은 오곡밥을 먹으면 일 년 내내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보름에는 묵은 나물을 많이 먹어서 밭에서 나는 곡식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했다. 그 외 더위팔기, 다리밟기, 귀밝이술 마시기, 달맞이 등의 놀이 등을 진행했다. 시흥 일대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달집태우기는 하지 않았고 마을의 높은 곳이나 집 마당에서 달맞이를 했다고 한다.

대개 정월달에는 널뛰기, 윷놀이, 윷점치기, 연날리기 등과 같은 놀이를 즐겼다.

또한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국태민안 가급인족(國泰民安 家給人足)” 외의 다양한 축원을 글귀가 적힌 입춘첩을 써 붙인다. 또한 이날에는 입춘축을 마친 후 보리뿌리를 캐서 보리 뿌리의 생장을 확인하며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② 이월

초하루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날로 여겨지며 여러 가지 의례적인 행위를 한다. 초하루가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라고 여겨져서 이와 관련된 관념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으며, 머슴날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농사를 준비를 위해 머슴을 위로하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다리 하루다지라고 하여 식구들이 나이대로 숟가락으로 쌀을 떠서 나이떡을 해서 나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먹는 나이떡 먹기를 하여 일 년 무병과 만사형통을 기원하기도 한다. 그 외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으며 콩을 볶아서 먹기도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노래기를 막기 위해 청솔가지를 구해다가 구석진 곳, 눅눅한 곳에 던지기, 좀생이 별 보기 등을 한다.

대개 음력 2월에 들어 있는 한식에는 겨울을 보낸 조상의 산소를 돌보며, 더운밥을 먹지 않고 찬밥을 먹는다.

한식 즈음에 청명절(淸明節)이 들어 있어서 새로운 농사를 짓기 위해 논에 범씨를 뿌리기 전에 못자리고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범씨는 한식(寒食) 무렵에 물에 담갔다가 곡우 전에 논에 뿌리기 때문에 고사는 그즈음에 행해진다. 이는 직파를 하던 파종의 방식이 남아 있던 시기의 의례형태라고 한다.

③ 삼월

삼월에 가장 중요한 날인 삼짇날은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이다. 이즈음이 되면 경기도 일대에서는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때이며, 산과 들에 온갖 짐승과 나물들이 나오는 때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산과 들에 보이는 짐승들 중 어느 것을 먼저 보느냐고 신수점을 치기도 했다. 또한 산과 들에 지천으로 널린 풀로 호드기를 만들거나 풀로 장난감을 만들어 풀각시 놀이, 풀싸움을 하거나 빨기 뽑기를 하기도 했다. 또한 소나무 속껍질로 송기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음력 삼월은 곡우 절기와 맞아떨어지므로, 대개 곡우 때가 되면 범씨를 담그고 못자리를 준비하는데, 이는 이앙법이 시작된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또한 집안에서는 손 없는 날을 정해서 장 담그는 것이 중요하다.

④ 사월

사월달의 의례로써 초파일(初八日)은 석가모니의 탄생일로 절에 가서 재를 올리고 탑돌이를 하거나, 등(燈)놀이를 한다. 가정에서는 가족 수대로 등을 만들어 촛불을 밝히는데, 이때 등간(燈竿)을 세우고 그 꼬트머리에 꿩꼬리 털을 꽂고 비단으로 기를 만들어 달아 호기(呼旗)라고도 했다고 한다.

음력 사월은 경기도 지역의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논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농가에서는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시기로 매우 바쁘고 빠르게 지내게 된다.

⑤ 오월

단오(端午)는 음력 오월 초닷새로 단양(端陽), 천중절(天中節), 수릿날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날이다. 이날에는 쑥이 아주 흔할 때이므로 쑥으로 청개피떡을 해서 먹는다. 또한 이날 청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며, 그네뛰기를 하거나, 봉선화 물들이기, 씨름을 하며 즐긴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때로 특히 논농사에서 가장 힘든 김매기가 시작되는 때이다. 그로 인해 세시절기에 맞춰 건강과 위생, 체력 보강을 위한 풍속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⑥ 유월

유월 유뚝날(流頭日)은 장마철에 대비하여 산소를 돌보고 성묘하는 날이기도 하다. 『동국세시기』에 ‘동류두목욕(東流頭沐浴)’이라고 기록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맑은 개울을 찾아가서 목욕을 하고 머리 감으며 하루는 즐기는 오래된 전통이 있는 날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행위를 통해 불길한 것을 쫓고 여름을 무사히 보내기를 기원한다. 또한 농가에서는 머슴들의 명절날이라고 하여 떡과 술을 베풀어 일꾼들을 위해 먹거리를 베푸는 날이기도 했다.

대개 음력 유월에 삼복(三伏) 더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는 더위를 식이기 위해 복다림의 다양한 행위를 한다. 특히 이 시기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로서 밀전병, 밀떡 등 밀가루로 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으면서 더위를 달래기도 했다.

⑦ 칠월

칠월 칠석(七夕)은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이 일 년에 한 번씩 만나는 날이다. 이날에는 장독대나 마루에서 밀전병과 수박·참외 등의 과일을 올리고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칠석날에는 옷과 책을 밖으로 꺼내서 장마에 젖은 묵은 것들을 햇볕에 말리면서, 불길한 것을 제거하기도 했다고 한다. 별도로 칠석맞이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백중날인 칠월 보름은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날로, 절에서는 우란분재를 지내서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달래거나 방생으로 그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함께 농가에서 백중날 즈음에는 대개 논김매기가 끝나는 때로 두레 또는 김매기에 함께한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호미씻이를 하는 풍속이 있다.

⑧ 팔월

팔월 추석(秋夕)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때에 차례상에 햇것을 올리며 감사의례를 한다. 특히 추석에는 속에 밤·깨·대추·콩팥 등을 넣은 송편을 만들어 올리며 풍년 감사와 기원을 바란다. 추석날 아침 추석빔을 입고, 햇곡으로 빻은 송편과 술, 외에 삼색과일을 차려서 차례를 올리며 조상들의 묘를 찾아서 성묘를 올린다. 저녁이 되면 보름달을 보며 여러 놀이를 즐기기도 하며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거북놀이, 소놀이 등을 하며 놀이를 즐긴다.

⑨ 구월

음력 구월 구일은 일명 중구절(重九節) 또는 중양절(重陽節)이라고 하여 양(陽)이 성한 날이다. 이 시기에 만발한 국화꽃잎을 따서 술을 빻은 국화주, 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단자를 만든 국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또한 이 시기에 뜯는 구절초(九折草)가 약효가 좋다고 해서 구절초 뜯기를 하기도 했다.

⑩ 시월

시월은 추수가 끝나는 때로 상(上)달이라고도 부르며, 여러 신들과 조상들께 감사의 고사와 시제를 올리는 시기이다. 가을고사는 음력 10월에 좋은 날을 잡아 집에서 지내

는 고사로, 대개 성주가 모셔져 있는 대청에 제물을 차리고 집안 곳곳의 가신이 있는 곳에 제물을 바치거나, 조상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가을 떡이라 하여 무시루 떡을 해서 터주신에게 바치는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과거에는 음력 시월의 첫 말날[午日]은 말을 위하는 날이어서, 팔떡을 해서 미곳간 앞에 차려 놓고 말의 건강을 빌기도 했다고 한다.

그 외 음력 시월달에는 날을 잡아 집안에서 시제를 올리기도 하며, 겨울맞이를 위해 집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다.

⑪ 동짓달

동짓달은 본격적인 한겨울로 접어드는 시기로, 이 중 동지(冬至)는 양력으로 대개 12월 20~23일경으로 해가 가장 짧은 날이다. 동지는 한편에 새롭게 해가 길어지는 날이기도 하므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서 집 안팎의 여기저기에 뿌려 나쁜 액운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액(妨厄)의 방편으로 삼았다.

⑫ 선달

음력 십이월은 선달로 불리는 달로, 일 년의 마지막 달이다. 소한과 대한 등 추위의 절정인 때로 특히 일 년의 마무리를 잘 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달 그믐날 밤에 묵은세배를 하거나 조상 묘에 성묘를 하면서 묵은 해를 보내는 인사를 올린다. 또는 한밤중에 생대를 꺾어서 불에 태우는 대불을 피우며 큰 소리를 내면서 집안에 숨은 악귀를 몰아내서 집안을 깨끗이 하거나, 온 집안에 불을 밝히고 밤새우기를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세시풍속에 진행되는 세시절기의 의례와 놀이는 이제 그 흔적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앞서 가신신앙에서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리에서 확인된 상황들은 과거 30~40년 전의 모습이다. 이후 일정한 모습들이 전승되기도 했으나 온전한 전승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 흔적만 남아 있거나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생활터전이 변화하였고, 전통의 질서가 더 이상 삶에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 다룰 마을신앙의 전통을 더욱 심각한 훼손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4) 마을신앙

마을신앙은 마을 단위의 신앙을 말한다. 이를 달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례는 대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다. 마을신앙은 생활공간인 마을을 정기적으로 신성화하기 위한 통과의례이다.

마을신앙에 대한 경기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은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⁸⁾ 당시 경기도 내에서 마을의 신앙의례가 이루어지는 제당이 384군데 있었으며, 그 명칭은 당, 도당, 산신당, 산제당, 삼신당, 상당, 서낭당, 우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에 산신당이 52%, 도당이 10%, 서낭이 9% 등으로 확인되었다. 연간 의례가 거행되는 횟수는 455회이며, 시기적으로 10월에 가장 많고, 1월, 9월, 7월 순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시흥군이었던 지역에서는 총 19곳에서 당제를 지낸 상황이 확인되는데, 전체 27회가 거행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10월이 가장 많았다.⁹⁾ 구체적으로 시흥시에서는 당제, 산제, 산신제 등으로 마을신앙을 불렀으며, 제일은 음력 10월 초순경이 대부분이다. 의례는 연간 2회를 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은 연간 1회 의례를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민들은 의례 외에도 당 주변에서는 다른 행동을 삼갔고, 제의가 소멸된 곳에서도 당 주변의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인식했다.

그 이후인 1970년대 후반에 경기도의 총 167개 마을에서 회수한 응답을 정리한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¹⁰⁾에는 총 86개 부락에서 부락제(당제)를 지내고 있지 않고,

8)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1권 - 서울·경기도편』(국립민속박물관, 1995).

9)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Ⅱ 신앙편』(경기도박물관, 1999), 5~7쪽.

53개 부락은 여전히 지내고 있으며, 14개 부락은 몇 년 전까지 지냈으나 이제는 지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신앙인 부락제 역시 10년 사이에 심각하게 그 전승력이 약해진 상태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 정리에 따르면 당시까지 전승된 부락제의 경우 그 명칭으로 <산신제>가 가장 많은 20개 부락(37.7%)에서 전승되었으며, 산고사(9)와 산치성(9) 등이 그 뒤를 이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경기도 지역에서 산신제가 강한 전승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부락제의 형태로는 당제(5), 당고사(3), 정제사(3), 도당굿(2), 정신제(2), 기우제(1), 사포제(1), 도신제(1), 동외치성(1), 부락제(1), 대동굿(1) 등이 확인된다.

2005년도에 정리한 『시흥시사 5』에 따르면¹¹⁾, 마을신앙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곳은 방산동 방골, 도창동 강창말, 광석동 둔대곡과 나븐들, 과림동 부라위, 군자동 구준물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마을의 특징은 타지역에 비해 원주민의 변화가 거의 없고 대체로 전통적인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타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하고 있다. 시흥시 마을 의례는 대체로 남성들이 주관하는 유교식 제사의 형태로 남아있으나, 과거에는 무속굿의 형식으로 유교식 제사는 한 부분에 속하였으나, 대부분의 마을에서 굿이 사라지면서 유교식 제사만 남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마을제의가 무속제의형식으로 남아있는 마을로는 군자동 등이 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중반에도 여전히 마을신앙에 해당하는 의례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점 또한 확인된다. 특히 군자동의 경우 과거부터 오랫동안 성황신을 모신 곳으로서의 위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략화된 유교식 제사의 형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전승력에 있어서의 약화된 모습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이하의 본 장의 “2. 오이도의 마을신앙과 풍어제 1)시흥의 마을신앙 전통”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10)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9책-경기도편』, 88~89쪽.

11)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5. 시흥 농촌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시흥시, 2007), 99~100쪽.

5) 어업 관련 민속신앙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서해안의 중부지역에 속하며 이 구간에는 해안지역은 물론 크고 작은 여러 섬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으로는 황해도와 남으로는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해양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서해안에는 리아스식 해안선으로 인하여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어서 일찌감치 어업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에서 정리한 <2017년도 해양수산 통계연보>¹²⁾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연안지역(연안습지) 중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김포시, 화성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가 포함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습지 총면적 2,487.2km² 중 이들 5개 시의 연안습지 총 면적은 6.67%에 해당하는 165.9km²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8년도의 153.5km²에 비해 12.4km²나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시흥시는 2013년 현재 6.2km²로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업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원천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적 신앙 또는 그 외의 개별적인 어장이나 배에서 지내는 고사들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어장이나 선상은 어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업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생업의 안정과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술적인 도움에 기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로 생각될 수 있다.

특히 바다는 달의 주기에 따라 물때가 달라지면서 어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시흥 인근의 해상에는 크고 작은 섬이 28개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바다의 자그마한 변화도 그들의 삶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시흥의 해안지역에서는 ‘살막고사’ 혹은 ‘그물고사’로 일컫는 의례가 대개 물이 많이 드는 물때인 서 매에 진행되었다.¹³⁾ 서 매는 대개 바다의 물이 불어나는 기점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살막고사의 경우 오이도에 거주하며 건강망을 하던 사람들이 서매날 자기네 그물을 매고 살막 안에 간단하

12)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의 해양수산부통계정보에서 제공하는 통계연보 및 e-나라지표에 제시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13)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6.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97~100쪽.

게 포와 막걸리 떡을 놓고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한 절기에 대개 두서너 번쯤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살막고사에 대해서는 오이도에 거주했었던 주민인 김영웅, 정용택 등에 의해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¹⁴⁾ 이러한 형태의 정월달 살막고사와 같은 형태가 서산지역에서는 참봉고사라는 명칭으로 진행된다. 참봉은 곧 도깨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깨비가 드면 운수가 좋다고 하여, 풍어와 행운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고사를 지낸 것에서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살막고사는 1980년대 중반까지 지어져 왔으나 시화공단이 개발되면서 오이도가 매립되고, 건강망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사라져버렸다.

오이도의 소금밭 일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던 봄철 행사 중의 하나가 소금고사였다.¹⁵⁾ 봄이 되어 첫 소금이 나오면 간단하게 소주와 먹을거리를 사와서 상을 차려 놓고, 염부장이 축원하며 비손하고 절을 올린다. 먹을 것이 많거나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염부장이 염부들에게 한 잔 내는 정도로 생각한다.

최근에 달라진 민속으로 오이도나 옥구도에서 배를 부리지 않던 주민들이, 이주 후 어선을 통한 어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월곳이 크게 성장하게 되어서 개별신앙의 차원에서 ‘뱃고사’ 등과 관련된 의례를 하고 있다는 송선일의 제보가 있다.¹⁶⁾ 과거 옥구도 시절에는 배가 5집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지내는 방식으로, 일 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 무렵에 직접 배를 부리는 선주들이 선상에서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뱃고사를 한다. 뱃고사는 배를 직접 부리는 경우에 배 안에 배서낭을 모시고 무당을 별도로 청하지 않고 배 위에서 선주가 거행하는 기원의례이다. 대개 새해가 되면 첫 배를 띄우기 전에 간단하게 막걸리와 돼지머리, 시루떡, 과일, 북어포 등을 올려놓고 절을 올리는 것으로 진행한다. 이때 상(上)기를 걸어 놓고 풍어를 빈다. 뱃고사는 각 선주에 따라서 특별히 정해진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인근 지역인 안산시 신길동에 봄에 바다로 나가기 전에 뱃고사를 올리는 전통과도 같은 내력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14) 2017.12.18, 2017.12.21, 김영웅·정용택 면담, 오이도경로당.

15)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6.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339쪽.

16) 2017.12.21, 송선일 전 어촌계장, 월곳어촌계사무실.

17)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 5권』(안산시, 2011), 189쪽.

2. 오이도의 마을신앙과 풍어제

1) 시흥의 마을신앙 전통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경기 북부와 경기 동남부, 서부지역의 민속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특히 경기도 서남부지역의 경우 서해안지역의 해양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일정한 문화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신앙은 공동체의식을 통해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례의 하나였다. 공동의 삶의 양식을 공동의 행위와 종교적인 기반을 통해서 유지해 온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이어진 매우 중요한 관습적 규범에 속하기도 하다. 이러한 마을신앙은 일부 무속적 행위와 연관되면서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시대에 안산지역이었던 시흥의 바다와 관련된 삶의 모습을 또 1718년에 안산군수로 부임한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이 지은 「원당사에서 여필의 운에 차운한 시(元堂寺次汝弼韻)」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바닷가 사람들 풍속을 살펴보니 / 사람들을 언제나 바다에서 만나네 / 터진 그물로는 음식을 덮고 / 배가 부서지면 다리를 보수하네 / 삼시간에 똑딱 초가 한 칸 엮어 내고 / 흰 갈대로 담을 둘러 바람을 막네 / 안개와 풍토병 속에서 한 세상을 사는데 / 시집장가 보낼 때 모두 뱃사나이를 고른다네”라고 하여 안산 바닷가 어민들의 생활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당시 안산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 중 바닷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¹⁸⁾ 또한 시흥 군자봉과 관련된 기록은 일찍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안산읍지』 등의 기록을 통해서 다수 확인되고 있어서 안산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많은 무속적 전통들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무속적 전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무녀에 대한 기록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무녀들에게 무세(巫稅)를 거두었다는 것이다.¹⁹⁾ 1894~1895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기전읍지(畿甸邑誌)』 「안산 조」에 “무포전(巫布錢) 9

18)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2. 시흥의 전통시대』(시흥시, 2007), 384쪽.

19) 위의 책, 387쪽.

냥을 거두어 관리의 봉급[俸]에 보탠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²⁰⁾ 당시 안산에서 거두어들인 무세의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안산에서 거두어들인 무포전을 통해 3~4명 안팎의 무녀에게 징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안산에 거주하는 모든 무녀가 무포전을 지불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안산지역에 무포전을 지불할 만큼의 인정을 받은 무녀가 3~4명이며, 그 외의 무녀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한 정황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기는 어려우나, 현대에 조사된 여러 기록에서 시흥시의 여러 마을에서 마을신앙이 지속되었으며, 이 중 무녀에 의해서 거행된 마을신앙이 있었다는 기록을 본다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1990년대 후반까지의 시흥지역의 민간신앙 전승 현황을 정리한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²¹⁾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던 시흥지역의 마을 민간신앙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과림동(果林洞)
 - 가. 과림동 부라위마을 산고사
 - 나. 과림동 부라위마을 옷우물
- 2) 군자동(君子洞)
 - 가. 군자동 군자성황제
- 3) 대야동(大也洞)
 - 가. 대야동 옷대야리 당제와 기우제
 - 나. 대야동 옷대야리의 소나무 치성
 - 다. 계수동(桂壽洞) 안골 장승고사
 - 라. 계수동 안골 삼신우물(三神井)
 - 마. 계수동 건지물(乾支井) 도당굿
- 4) 목감동(牧甘洞)
 - 가. 조남동(鳥南洞) 양달말 산신제
 - 나. 조남동 을미·새미·방화·소릉뽕마을 도당굿

20) 『畿甸邑誌-안산군』, 俸廩; 『邑誌』 10(아세아문화사, 1985), 695쪽.

21) “3. 동별민속현황”,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51~79쪽에 정리된 내용을 동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 다. 조남동 을미마을 우물고사
- 라. 산현동(山峴洞) 당제
- 마. 물왕동(物旺洞) 안골 당제
- 바. 물왕동 월미마을 당고사
- 사. 논곡동(論谷洞) 논줄마을 군웅제(軍雄祭)
- 5) 매화동(梅花洞)
 - 가. 금이동(錦李洞) 당제
 - 나. 도창동(道倉洞) 도당굿
 - 다. 매화동 도당굿
- 6) 신천동(新川洞)
 - 가. 신천동 용해(龍海) 부리마을 우물고사
- 7) 신현동(新峴洞)
 - 가. 포동(浦洞) 새우개 당제
 - 나. 포동 새우개 도당굿
 - 다. 방산동(芳山洞) 당제
 - 라. 방산동 고잔마을 당제
 - 마. 방산동 방골·마루미·다니·황골마을 당제
 - 바. 방산동 고잔마을 김경희 집 미륵과 산신제
- 8) 연성동(蓮城洞)
 - 가. 하중동(下中洞) 관곡(官谷)마을 당제
 - 나. 하상동(下上洞) 요골(龍谷) 당제
 - 다. 광석동(廣石洞) 나분들 산고사
 - 라. 광석동 둔대곡 도당굿
 - 마. 화정동 너빌마을 마산(麻山) 산신제
- 9) 은행동(銀杏洞)
 - 가. 안현동(鞍峴洞) 당산제
- 10) 정왕동(正往洞)
 - 가. 정왕동 오이도(烏耳島) 당제

위에 정리된 시흥지역 마을신앙의 사례는 총 20개 마을의 32종에 달한다. 특히 과림동, 대야동, 계수동, 조남동, 물왕동, 포동, 방산동, 광석동 등은 한 마을에 산고사 또는 산신제와 함께 당제나 장승고사, 우물고사 등의 의례를 동시에 전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1967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시흥시의 마을신앙이 산신제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정황을 정리한 것과 거의 같다. 이때 마을신앙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산신제이며, 또 다른 형태가 도당굿이다. 예를 들어 대야동의 계수동 건지물 도당굿, 목감동의 조남동 을미·새미·방화·소릉피마을 도당굿, 신현동의 포동 새우개 도당굿, 연성동의 광석동 둔대곡 도당굿 등에서 명확한 경기도 남부지역의 마을의례 전통인 도당굿이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시흥지역에 포함되었던 안산지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2001년 2월 현재를 기준으로 정리한 〈시흥시 마을신앙 자료 일람〉 총 48곳의 사례 정리와 관련지어 본다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마을신앙 자료일람²²⁾

(2001.2월 기준)

동 명	자연마을 명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의 장소	비 고
거모동	거무개·배우물	도당고사	(음) 10월	배우물 도당제	일제강점기 중단
계수동	건지물	당고사	(음) 10월 3일	마을입구 참나무앞	1980년대 중단
	안골	장승고사	(음) 10월 초	마을입구 지석묘·참나무앞	1980년대 중단
과림동	중림	당고사	(음) 10월 초	안말 도당나무앞	1970년대 중단
광석동	둔터골	당고사	(음) 10월 초	마을서북쪽 참나무앞	제의 지냄
	나분들	산신제	(음) 10월 초	축실·서낭고개·마을뒷산	2년마다 제의 지냄
군자동	구지정	성황제	(음) 10월 3일	군자봉·김부대왕당	제의 지냄
금어동	거멸	산신제	(음) 10월 3일	거멸산	3년마다 제의 지냄
	도리재	산신제	(음) 10월	운흥산 아래	제의 지냄 (무속인 중심)
논곡동	논줄	군웅고사	(음) 10월 1일	군웅집·큰우물	1998년 중단
능곡동	두일	나무고사	(음) 3월	마을서쪽 느티나무앞	1940년 중단
도창동	강창리	도당고사	(음) 10월 3일	마을동쪽 산 정상	3년마다 제의 지냄
	도두리	산신제	(음) 정월 초	마을북쪽 도당산	1960년대 중단
매화동	매채기·샛터말·섬말	도당고사	(음) 1월·10월	마을뒷산·터주加里앞	1960년대 중단
목감동	모감	당고사	(음) 10월 2일	마을뒷산 고저지산	1980년대 중단
	뱅갈	산신제	(음) 10월 초	마을뒷산 잣고개	1940년대 중단

22)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4. 시흥의 생활문화』(시흥시, 2001), 305쪽.

무지내동	신흥동	우물고사	(음) 7월 초	대동우물	1970년대 중단
	중동	우물고사	(음) 7월	상나무박이	1940년대 중단
물왕동	능골·안말·장자골	나무고사	(음) 10월 초	인말 도당나무앞	2년마다 제의 지냄
	월미	당고사	(음) 10월 초	마을중앙 도당터	2년마다 제의 지냄
미산동	구시미	당고사	(음) 10월 초	마을뒷산 터주가리앞	1980년대 중단
	옛터골·월촌·창동	우물고사	(음) 7월 1일	대동우물	1970년대 중단
방산동	다니·마루미·방골·황골	당고사	(음) 10월	바우박이산 터주가리앞	2년마다 제의 지냄
	다지골·산우물	당고사	(음) 1월 14일	마을 뒤 도당터	제의 지냄
신천동	새말	우물고사	(음) 7월 1일	도당우물	1990년대 중단
안현동	길마재	도당고사	(음) 10월	마을중앙 김치인 묘 아래	1960년대 중단
	양지편	우물고사	(음) 10월	대동우물	1970년대 중단
	가뎃말	산신제	(음) 10월	마을 서쪽	1950년대 중단
은행동	검바위	당고사	(음) 10월	옛 공동묘지 아래	1960년대 중단
	웃터골	당고사	(음) 10월 3일	소나무앞	1980년대 중단
	찬우물	우물고사	(음) 7월	대동우물	1960년대 중단
장곡동	매골(숲속마을)	산신제	(음) 2월·7월	상양산 중턱	1970년대 중단
	섬말	당고사	정월	마을 뒷산	1980년대 중단
	진말	도당고사	(음) 10월	마을 북쪽 산기슭	1995년 중단
정왕동	사래이	산신제	(음) 10월 초	마을 뒷산	1980년대 중단
	오이도	당고사	부정기	안말 뒷산 당집	1980년대 중단
조남동	남왕	우물고사	(음) 7월	대동우물	1980년대 중단
	묘재	산신제	(음) 10월	마을 남쪽 산기슭	1950년대 중단
	을미	우물고사	(음) 10월	대동우물	1980년대 중단
	장군재	산신제	(음) 10월 1일	장승백이 뒷산, 웅단말 초입	제의 지냄
죽율동	정촌	우물고사	(음) 8월	마을 뒷산	1980년대 중단
	큰말	산신제	(음) 10월	당집	일제강점기 중단
	한배미	당고사	(음) 10월	마을 뒷산	19680년대 중단
포동	새우개	당고사	(음) 7월	당집	1990년대 중단
하상동	요골(연꽃마을)	산신제	(음) 정월	마을 뒷산	1999년 중단
	하지골(연꽃마을)	당고사	(음) 10월 초	느티나무앞	제의 지냄 (무속인 중심)
하중동	관곡	당고사	(음) 정월·7월	향나무앞	제의 지냄
	셋말(참이슬마을)	나무고사	(음) 10월	마을 동쪽 산기슭 질뽕나무앞	일제강점기 중단

이 자료는 시흥시 향토자료실에서 정리한 것으로 시흥시 관내의 자연마을 단위에서 전승하고 있던 마을신앙의례를 제의 명칭, 제의 시기, 제의 장소, 비고(제의 주기·의례 형태·중단 시기 외)로 정리한 것이다. 앞서 정리한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시흥시의 마을의례의 전승현황을 한 눈에 보여준다.

〈시흥시 마을신앙 자료일람〉에 따르면 총 48개 자연마을에서 마을신앙이 전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시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마을은 13개 마을로 전체의 27%에 해당한다. 또한 전승되는 마을신앙 의례의 명칭으로 도당산 또는 도당 등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어서, 과거 경기도 지역의 마을신앙과 유사한 도당신 중심의 마을신앙이 확인되는 것을 5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당고사’ 17개, ‘산신제’가 12개, ‘우물고사’ 9개, ‘나무고사’ 2개, ‘장승고사’ 1개, ‘군웅고사’ 1개, ‘성황제’가 1개가 있다. 이를 볼 때 시흥시의 마을신앙은 당고사와 산신제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과거 공동우물을 사용하던 전통에 입각하여 우물고사가 강력하게 남아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시흥시의 마을 신앙이 거행되는 시기를 보면 음력 시월달에 거행되는 것이 32개로 전체의 66.7%에 달해서 거의 대부분이 시월 초, 또는 시월달에 날을 잡아서 거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확은 보편적인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 의례가 상달로 여기는 시월달에 거행되는 것과 일치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월달과 함께 정월달 5개, 이월달 1개, 삼월달 1개, 사월달 1개, 칠월달 6개, 팔월달 1개, 부정기적인 사례가 1개 있다. 즉 시월 상달에 진행되는 당고사 또는 산신제 등과 달리 대개의 우물고사가 칠월 또는 팔월달에 연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물고사가 칠월이나 팔월에 진행되는 것은 아마도 한여름을 지내고 우물을 청소함으로써 이끼나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냄으로써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시흥시 마을신앙이 거행되는 제의 장소를 분석해보면, 당집 또는 도당터 등의 공간에서 거행하는 경우 8개, 대동우물 또는 도당우물 8개, 도당나무 또는 특정한 나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거행되는 경우 11개, 그 외 특정한 산·또는 산의 정상·산 아래·산 중턱·산기슭·갯고개 15개, 산의 터주가리앞 2개, 묘지 2개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볼 때 시흥시의 마을신앙을 거행하는 장소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가 산을 중심으로

산 위, 중턱, 아래, 기슭, 터주가리를 세운 곳, 나무가 있는 곳 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적 특징은 곧 위에서 살펴본 마을신앙이 도당신 또는 산신을 중심으로 하는 당고사와 산신제, 나무고사 등등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었던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안현동 길마재의 경우 마을 중앙에 있는 김치인의 묘 아래에서, 은행동 검바위의 경우 옛 공동묘지 아래에서 도당고사 또는 당고사가 거행된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들 마을에서 묘지와 연관해서 마을신앙이 거행되는 것이 본래적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변화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시흥시 마을신앙 자료일람〉에 총 48개 자연마을의 마을신앙이 정리되어 있으나, 그것이 매우 소중하면서도 안타까운 점 중의 하나는 이미 대다수의 의례가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즉 시흥시 향토사료실에서 마을신앙 전승현황을 정리한 시점까지도 사라지는 중이었다. 그리하여 2001년 2월 기준 총 48개 마을 중 13개 마을에서만 전승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증언에 따르면,²³⁾ 오구도에도 돌주리산에 있는 제단에 올라가서 마을주민들이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있다. 대략 정월 대보름 경에 돌주리산에서 마을 어른들 몇 분만 참여해서

옥구도 돌주리산의 제단



진행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돌주리산에 제단은 남아 있으나 당제는 사라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포동 새우개 당제의 경우 시흥시의 노력으로 그 역사적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정리함으로써 전통적인 모습을 일부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흥시의 민속신앙 가운데 포동 새우개 당제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또한 오이도의 풍어제 또는 도당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 마을신앙 자료일람>에는 정왕동의 오이도에 당고사가 부정기적인 형태로 전승되고 있었으며, 1980년대에 중단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민속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이도의 마을신앙은 당고사와 함께 당굿 즉 도당굿이 거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포동의 새우개 당제와도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 앞에서 정리한 48개 자연마을의 마을신앙이 대개 ‘고사’, ‘제’의 명칭이 붙어서 전승된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의례의 형태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례의 명칭에 ‘고사’나 ‘제’가 붙어 있어서 유가식 제례를 독립적으로 진행한 형태인지, 유가식 제례와 무속식의 굿을 병합하여 진행한 것인지, 유가식 제례와 무속식의 굿에 농악대의 의례가 혼합된 형태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표에 정리된 자연마을 중 금이동 도리재의 산신제는 ‘제’라는 명칭으로 전승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례의 형태는 무속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상동 하지골(연꽃마을)의 당고사는 ‘고사’라는 명칭으로 전승되고 있으나 무속인 중심의 의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위에 정리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연행되면서 전승된 의례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동의 새우개 당제 역시 당제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의례의 형태는 당제와 도당굿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마을의례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한 근거로 1978년도에 정리된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에 기록된 <시흥군 소래면 포리의 당제>와 정승모가 정리한 포동 새우개 도당굿²⁴⁾을 들 수 있다. 이들 자료에 따른 소래면 포리의 당제는 이미 1950년대 후반에 단절되었다가

24) 정승모, “의례에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과정에 관한 일연구”, 『인류학논집』 5(서울대 인류학연구회, 1979), 74~80쪽.



새우개 당집(1960년대)²⁶⁾



새우개 당집의 길지(1960년대)²⁷⁾

1970년대에 다시 거행되기 시작했으나, 도당곳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으며 과거에 대한 기억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 전승되는 형태로 확인되는 것은 포동 새우개 당제이다. 이에 대한 기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 포동 새우개 당제는 당집과 당집

앞의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당산목인 소나무가 주요하게 기능한다. 당집 앞의 은행나무와 당산목은 마을 앞에 펼쳐진 만의 입구에 위치하며 정왕동 오이도에서 몰려오는 액운을 막기 위하여 마을 언덕에 심은 것이라고 한다. 실제 당제는 음력 정월과 7월에 주민들이 모여서 지냈는데, 새우개 서편마을 북쪽 산기슭에 있는 당산목인 소나무에서 진행된다. 1950년대까지 새우개 당제는 마을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포동 새우개 당제에 관해 최초로 정리한 기록이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에 있고,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소래읍 포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순과 7월 초순에 두 번씩 부락제를 지내는 ‘동제’ 또는 ‘당제’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당제를 지낸 후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도당굿을 거행하던 형태였던 것임을 확인한다. 이전에 당제를 지낸 후에 연달아 거행되었던 도당굿에서는 소를 한 마리 잡아 지냈으나 그 후 돼지 한 마리로 규모가 줄어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한 가구당 500원 내지 1,000원씩 추렴하여 고기 몇 근을 포함한 제물을 구입해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포리에서는 당제를 지내기 15일 내지 20일 전에 부락민 중의 50~70세 전후의 노인들이 모인 중노방에서 당제를 주재할 제주 1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제주는 수를 보아서, 즉 제주의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맞추어서 제일(祭日)을 정하며, 그리고 또 제주를 도와줄 사람으로 당화주, 당주를 뽑는다. 제주의 집 문지방엔 황토를 칠하여 부정한 사람을 금하는 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정해지면 마을에서는 우물들 중에서 당제에 사용할 물을 걷는 두 개의 당우물에는 물을 모두 퍼내고 우물청소를 한다. 특히 칠월 당제시에는 ‘우물정자’라고 하는 우물고사를 당제를 지낸 후에 음식을 차려 놓고 지낸다. 이때 사용하는 제물을 당제에 올렸던 것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포동 새우개의 당집은 과거에 위엄이 높아서 옛날에는 당집 옆을 말을 타고 지나지 못했다고 하는 영험담을 전하고 있다. 과거의 당집에서 위치는 옮겨졌으나 현재에도 당집 근처는 성스러운 곳으로 믿어진다.

25) 포동 새우개 당제에 관한 개요와 절차에 대해서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 92~99쪽에 정리된 내용을 포함하여 『시흥시사 6.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81~97쪽에 정리된 내용을 재정리한다.

26) 출처 : 『시흥시사 6.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85쪽.

27) 출처 : 『시흥시사 6.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85쪽.

당제는 원칙적으로 3일간에 걸쳐 거행되었는데, 당집에서 지내는 제사일이 결정되면 당제에 사용할 우물은 이를 전에 청소해서 깨끗하게 덮어두며, 마을 사람들은 당제가 끝날 때까지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둘째 날은 제일 전날로 제주는 목욕을 하며 부정을 씻어내고, 제주와 당화주, 당주 등은 당제가 끝날 때까지 당집에 머무르면서 제사음식을 직접 만들게 된다. 당제기간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 당집 근처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둘째 날에 제물로 사용할 조라술을 만들어 저녁에 당에 바치는데, 이를 ‘피고사’라고 부른다.

실제 제일은 삼 일째 되는 날로, 제일 당일 새벽 1시나 자정쯤에 제를 올린다. 이때 제주가 주된 역할을 하는데, 당제사의 제물은 메 24그릇으로 정해져 있다. 이때 제사를 받는 신들은 새끼줄에 창호지를 걸어 놓은 걸립이라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이를 보완할 만한 연구로 이용범의 글을 들 수 있다. 이용범은 “새우개 당제의 제의과정과 특징”²⁸⁾에서 조라치성의 대상은 당 안의 신들과 당 밖의 신들로 나누었다. 당 안의 신은 다시 당집 밖의 터주와 당집 안의 신들로 나뉘고, 당집 안의 신은 길지를 받아 길지로 신체가 확인되는 걸립을 포함한 8위의 신과 길지나 다른 제물로도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신 1위가 있다고 한다.²⁹⁾ 또한 당집 안에는 길지가 바쳐지지는 않았지만 제물로 화장품, 천, 실 등을 받는 소당아가씨도 확인되었으나, 조라치성의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이와 함께 당 밖에 있는 신은 당 옆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정리하고 있다.

새우개 당제와 관련해서 또한 다른 수호신으로 장승이 있다. 장승은 포리의 어귀와 끝에는 각기 세워져 있는데, 원래는 밤나무로 만들었으나 후에는 소나무를 쓰고 있다고 한다.

각 신이 거처하는 장소에 당제를 모시고 나면 당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올라와 함께 음복(飮福)을 한다. 이대 제주와 당화주, 당주는 당제 때 쓴 고기와 모든 음식들을

28) 이용범, “새우개 당제의 제의과정과 특징”, 『시흥역사문화총서 3 - 시흥 포동 새우개 당제』(시흥시, 2010), 187쪽.

29) 이용범의 논리에 따르면, 새우개 당제에서 위하는 신을 정리하면 호랑이 사신의 성격을 갖는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어부들이 배에 모시는 소당아가씨,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친구들, 걸립(대감), 터주 등이 있다. 그 외 명확하지 않은 신들이 포함된다.

마을 내의 가구 수에 맞게 등분하여 모든 집에 보내게 된다. 이는 곧 동신(洞神)에 바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서 곳의 공동체 정신과 연관된 것이며, 신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당제의 형태가 1970년대 이후에도 정리될 수 있는 것과 달리 1950년대에 사라진 도당곳에 대해서는 증언과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옛날 도당곳이 정월에 연행되었는데, 서울이나 외지에서 놀이패를 불러서 줄타기를 하는 등 큰 놀이판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한 이용범의 결과를 들어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정리는 새우개에 전해오는 마을문서 2편(〈大正十二年陰正月初三日 당스시쇼용괴〉, 〈庚午正月初三日禱堂神祠時下記〉), 문화재관리국의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 정승모의 “의례에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과정에 관한 일연구”³⁰⁾에 기록된 새우개 당제의 도당곳 절차에 관한 것을 살펴 재정리한 것이다. 그 결과 새우개 도당곳이 거행된 시기에 따라 각각 4종류의 도당곳으로 정리된다.³¹⁾

1920년대 후반 도당곳		1950년대 후반 도당곳	
1923년 도당곳	1930년 도당곳	1977년 조사	1979년 조사
부정		부정	부정
시루고스	시루고사	시루돋음	시루돋음
장승, 우물(고스)	장승, 우물(고스)	똥똥이	똥똥이
쥬회향식		山바라기	山바라기
터즈비		공구리	공구리
손곳	손곳	제석곳	제석곳
공거리	공거리	군웅곳	군웅곳
쥬회향식		손곳	손곳
군웅곳	군웅곳	양푼뛰기	양푼뛰기
고사치	고사치	뒷전	왕당대올리기

30) 정승모, “의례에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과정에 관한 일연구”, 『인류학논집』 5, 76~79쪽.

31) 이용범, “새우개 당제의 제의과정과 특징”, 『시흥역사문화총서 3 - 시흥 포동 새우개 당제』, 194~195쪽.

주회형식		왕당대올리기	당굿
왕당			팽매고사(뒷전)
뒤전	뒤전		
굿속수	웃당		
	굿속수		

이 표를 통해 1920년대부터 1930년대, 1950년대 후반에 연행된 도당굿에 대한 정보를 일정 부분 비교할 수 있다. 마을에서 정리한 문서의 경우 일부 굿거리가 많이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굿채와 연관되어서 굿채가 지불된 굿거리와 그렇지 않은 굿거리가 구분되면서 생긴 차이로 보인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하면³²⁾, 1920년대 후반의 새우개 도당굿은 ‘당마당 굿+당집 굿’의 이중구조로 구성된 것이라고 정리된다. 당마당 굿과 당집 굿을 연결시키는 것은 ‘왕당대올리기’이다. 이를 통해 굿이 전환되는 것은 1950년대 역시 이러한 구조로 확인된다. 곧 새우개 당제의 도당굿은 당마당 굿과 당집 굿이 통합된 형태로, 특히 어업과 연관해서 선주들이 봉기를 들고 당으로 올라가는 왕당대 올리가 매우 중요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기존 포동 새우개 당제에 대한 몇 가지를 자료를 통해서 도당굿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일정한 경기도 남부지역의 전통적인 마을굿의 형태인 도당굿에 기반하여 연안지역 마을굿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존 도당굿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는 굿거리들로 부정, 시루고사(시루돋움), 뿔뿔이(장승·우물고사), 터즈비(공구리), 손굿, 군웅굿, 뒷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굿거리 중 특히 시루고사(시루돋움)와 터즈비(공구리) 등은 경기도 남부의 도당굿에서만 등장하는 굿거리 명칭으로 경기도 남부지역의 마을신의 전형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만하다. 또한 손굿과 군웅굿, 뒷전은 타 지역의 마을굿에서도 확인되지만, 경기도 도당굿의 예술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굿거리로서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손굿의 손님노정기나 군웅굿의 군웅노정기, 뒷전의 정애비와의 씨름과 판패개제 성음 등은 경기도 도당굿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³³⁾ 이러한 굿거리를 통해 곧 새우개 당제가 경기도

32) 이용범, “새우개 당제의 제의과정과 특징”, 『시흥역사문화총서 3 - 시흥 포동 새우개 당제』, 203쪽.

남부 도당곳의 전통을 잇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경엽이 “새우개 사람들의 생업·공동체 생활과 당제”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새우개 도당곳에서 내륙지역의 도당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붕기 경주와 배치기가 확인된다.³⁴⁾ 이 두 절차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마을신앙의례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다. 는 왕당대올리기와 함께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이 강항도의 외포리 꽃창곳이나 충남 황도의 풍기풍어제 등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포동의 새우개 당제는 서해안 지역에 전승되는 연안지역 마을곳의 전형적인 구조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남부지역의 도당곳이 그 주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오이도 당제의 경우 현재 당제, 도당곳, 풍어제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정리되는 것을 일단락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오이도에서 연행된 도당 관련 마을의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도당에 관한 과거 거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할 필요가 있다.

2) 오이도 도당곳의 실제에 관한 기억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오이도에서는 안말의 뒤편에 있는 당산 정상에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모시고, 마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 신앙행위를 했던 것은 확인된다. 그러나 그 명칭이 ‘당고사’라는 이름으로 부정기 의례로 거행되었는데, 1980년대 이후 사라져서 그 명확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당고사와 관련해서는 매년 정월달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몇몇 오이도 거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이도 당곳에 대한 증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이도의 토박이들은 이 오이도 당곳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어떤 마을 보다는 큰 규모의 의례를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거행했으며, 대단위 놀이판이 벌

33) 김현선, 『경기도 도당곳 무가의 현지연구』(집문당, 1995).

34) 이경엽, “새우개 사람들의 생업·공동체 생활과 당제”, 『시흥역사문화총서 3 - 시흥 포동 새우개 당제』, 153쪽.

어지면서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만 살아있는 오이도의 당제, 도당굿, 풍어제는 그 실체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 오이도에 거주했던 토박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오이도의 마을신앙의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래 오이도는 오질이도, 오이도, 의이도, 옥직섬 등으로 불린 섬으로 15세기에 봉수대가 축조되었다가 1759년 폐지될 때까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봉수대가 있던 자리는 1970년대에 레이더 기지가 생겼으니 약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오이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오이도 패총 등이 발굴된 것으로 볼 때 최소한 신석기부터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축조되면서 오이도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18세기 중반에 봉수대가 정왕산으로 옮겨지면서 지역 거점지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이도가 본격적으로 확인된 것은 조선시대이며, 이후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군자염전이 생기면서 그 중요도가 더 높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군자염전의 염전이 서울의 인근 지역이면서 인천과 인접해 있고, 또한 대단위의 규모로 염전을 형성함으로써 오이도는 본격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1920년대 이후 군자염전에 염부로 복역하기 위해서 남하한 이북지역의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 피양촌이라는 마을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오이도의 소라펄과 같은 마을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북지역에서 남하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이후 변화된 오이도의 모습은 1978년도에 정리된 『민속종합보고서-경기도편』³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시 오이도는 해발 총 50m의 낮은 야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동편으로는 군자역에 이르는 도로 양옆으로 총 603정보에 이르는 광대한 염전이 펼쳐져 있었다. 서쪽과 남쪽으로 바다에 면해 있었는데, 오이도에는 총 고두리, 신포동, 가운데 살막, 소라펄, 철호염전 등의 5개 자연부락, 총 220가구, 1,035명이 살고 있었다. 당시의 오이도 주민들은 어업 136가구, 농업 36가

3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9책 - 경기도편』, 213쪽.

구로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했으며, 일부 비어농가 중 어류판매업 15가구, 상업 10가구, 기타 23가구 정도였다. 이중 주민들이 소유한 어선이 41척으로 동력선이 28척, 무동력선이 13척이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새우, 게, 조기, 전어, 민어, 숭어, 농어 등을 주요 수입으로 삼았으며, 가무락, 배갑, 동죽 등을 양식할 수 있는 30ha 규모의 어장을 어촌계에서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당시의 기록은 현장에서 만난 오이도 거주 주민들의 증언과 연결해서 보면 시간의 차이로 인한 세대수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일치한다. 제보자 박용덕(남, 75세)에 따르면, 약 50~60여 년 전에는 오이도에 약 300여 세대 정도 살았는데, 이중 100여 세대는 전쟁 이후 피난 내려온 피난민들이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과는 많이 어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이도의 토박이들은 오이도 당고사 또는 당제/도당굿에 대한 기억을 증언하고 있다. 매년 칠월달에 진행한 당고사 또는 당제 형태의 유가식 제례와 함께 4년에 한 번씩 음력 2월에 거행한 도당굿에 대한 기억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이중 도당굿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도 매우 활기찬 축제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이도에서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도당굿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이도에는 당시까지 각성받이가 살았으나, 특히 밀양 박씨 충헌공파가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증언한 사람은 박용덕으로, 밀양 박씨 충헌공파 14대손으로 오이도에 거주하였다. 박용덕의 증언에 따르면 밀양 박씨 충헌공파가 오이도로 들어오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오이도에 봉화가 들어서게 된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런 사정은 밀양 박씨가 오이도에 세거하고 살면서 봉수대를 지키는 막중한 책임으로 인해 마을의 중심 세력으로 살았다는 것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다. 오이도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건강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위치를 밀양 박씨 집안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

오이도 도당굿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마을주민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이도 도당굿의 연행과정에 대한 기억과 함께 당집에 대한 기억, 굿을 하던 무당들에 대한 기억 등 그 기억의 폭이 좁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

다. 실제 오이도 도당굿에 대한 증언은 박용덕을 비롯한 김영남(남, 76세), 정용택(남, 80세), 이성분(여, 93세), 김연하(여, 91세) 등을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오이도 당집과 도당굿의 전승



현재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과 오이도 당산

- ▶ 사실 저희가 도당굿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 혹시 언제 처음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 ▷ 박용덕 : 4살 때 봤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7~8살 때는 행사가 워낙 커서 도지사, 군수 이런 분들이 다 오셨기에 기억이 생생해요. 한 1950년도 정도 돼지. 그때는 당굿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사(神祀)당굿이라고 했어요. 병굿이 아니라 재수굿을 한다는 뜻이에요.

위의 증언은 박용덕의 것으로 자신의 기억으로는 1950년대에 도당굿을 본 기억을 전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까지 오이도 도당굿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몇 차례 노력한 것을 보면, 도당굿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제보자들이 도당굿에 대해서 거의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이도 당집은 오이도 도당굿이 전승되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당집에 당신을 모시거나 일정한 의례행위를 했던 장소로서의 기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이도의 당집이 있던 위치와 당집에 대해서 여러 제보자들의 증언내용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 (김영웅) 여기 제일 높은 산이 당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2년에 한 번씩 소도 잡아 놓고 나중에는 돼지도 잡고 모시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랬었어요. 도당굿이라고 그랬어요.

(정용택) 레이다 기지에 당집도 있었어요. 지금은 레이다 기지 세우느냐고 허물고 아래로 조그맣게 옮겼어. 예전에는 당집이 크게 있어서 당집 앞에서 삼현육각을 치더라고. 그래서 깃발을 가져와서 거기다 꽂아놓고 그 아래서 삼현육각을 잡히고 소머리 삶아서 당고사 지내지.

(박용덕) 그 당집은 우리 신의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집이고 현재 당집은 시멘트로 만들어졌지만, 나 어렸을 때는 나무로 길게 만들어져서 사람이 한 40~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집이 이렇게 길게 있고 그 옆에는 팽나무도 있었고 옆에 있던 돌은 지금도 있는 것을 봤어요.

(박용덕) 평소에 당집에는 깃발만 있었고 또 동네에서 만든 만장기가 있어서 그것만 당에 걸어두었죠. 우리 아버지, 우리 동네 어른들이 만든 것만 당에다 걸어두었어요. 모양은 그냥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오색으로 해서 길게 되어있는데, 4년 지나서 신사 드릴 때 다 태우고 쓸어내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죠.

(정용택) 그 당기는 내버려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니까 이제 버리고 하지. 예운식 씨라고 그 양반이 붓글씨를 잘 썼거든. 아주 명필이야 그분이 글을 쓰지. 기다랗게 크게 써서 깃발을 만들어서 대나무에다 붙들어 매 가지고 다니고. 그래 소나무 가지 갖다가 깃봉을 만드는 거지. 당고사(도당굿) 지낼 적에만 새로 만드는 거야. 기는 당고사 지내고 당집의 처마 안쪽 천정 석가래 옆으로 길게 올려서 묶어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또 올리고 하지. 기는 그냥 광목하얀 데다가 뭐라고 썼고 지네발 그런 거 없었어. 이 양반[예현규] 할아버지가 기를 형짚 떠다가 그 양반이 썼어. ...(중략)...깃봉에다가 꿩깃털 같은 거는 안 달고 그냥 솔가지에다 '농자천하지대본'같이 그와 똑같은 대나무에다 달아서 그 위에 솔가지 달고

글씨를 쓰셨는데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우리가 애들 적이라 모르겠어.
 (이성분) 큰 나무가 있어서 당고사를 드리면 거기에 제일 먼저 기를 세웠어요. 하얀
 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기를 그냥 크게 해서 깃대 해서 세웠어요. 대나무도
 있었어요. 기는 당에 보관하다가 당고사 드릴 때 내어다가 세워뒀어요. 당집이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김연하) 당집에 만신이 그림을 가져와 걸었어요.
 (이성분) 사람 그림은 안 그리고 당집 그리고 그 앞에 나무 세워놓은 걸 그려놓고
 했어요. 당에 있던 나무는 올라가다 쉬는 쉬나무입니다. 당고사 드리러 올라가다
 가 쉬는 거예요. 지금은 군인이 다 헐었어요.

당집은 오이도 당산의 맨 꼭대기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과거에는 2년에 한 번씩
 당집에서 굿을 하거나, 정성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박용덕은 예전에
 당집 옆에 팽나무와 돌이 있었고, 길게 만들어져서 40~50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
 도의 대규모로 지어져 있었다고 말한다. 이를 박용덕은 우리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
 의 집이라고 표현한다. 정용택과 이성분 역시 박용덕과 마찬가지로 당집 옆에 큰나무
 가 있어서 당고사를 드렸으며, 거기에 당기가 있어서 굿을 할 때는 도당기를 꺼내서
 걸었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이 당집에 있던 깃발은 도당굿을 드릴 때마다 태우고
 새로 만들어서 바친 것으로 박용덕은 기억한다. 당기는 오색으로 길게 물들여 만들어
 진 것이므로 마치 그 형태가 만장기와 같은 것이었다고 하니, 대개 서해안지역의 배에
 꽂혀 있는 만장기와 같은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굿을 할 때는 만신이 그
 림 그린 것을 가져와서 당집의 쉬나무에 그림을 세워 놓고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박용덕은 어머니가 얘기한 기억으로 이 당집에 대한 영험으로 고사지낼
 떡쌀을 찧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쌀알을 쪼아 먹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기도 했다는
 말로 미루어 보면 주민들이 당시에 당신(堂神)을 얼마나 엄중하게 위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당집을 허물고 군부대가 들어올 당시에
 도 폭탄이 잘못 터져서 군인이 죽어 나가는 일도 있었다는 것으로 도당신의 영험성을
 확대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당신의 영험함에 대해서는 김영웅과 정용택을 비
 롯한 여러 제보자들도 함께 증언하는 바이다.

본래 오이도 당산의 꼭대기에 있던 당집은 당나무와 돌 등의 자연물을 섬기며 대규

모의 당집의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가, 레이더 기지를 오이도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이전하게 되었다. 이때 좁은 땅에 당집을 짓다 보니 당집의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된다.

▶ 당집은 어떻게 언제 옮기게 되었나요?

▷ (김영웅) 옛날 사람들 같았으면 반대를 했겠지.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 저 레이더가 수도권 방위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 심한 반대 없이 수용했어. 레이더는 김신조 들어왔을 적에[김신조사건은 1968도이다.] 그때 동네에 해군 레이더가 들어왔어요. 레이더가 들어오면서 오이도 맨 꼭대기 거기다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당집을 허물고 거기다가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어. 해군에서 처음 들어올 때는 컨테이너로 들어왔는데 해군이 나가고 육군이 들어왔어요. 육군이 벽돌로다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 육군에서 레이더 기지를 짓느라고 다 허물어 버렸다고. 원래 봉화대도 있었는데 다 허물어버렸죠. 그때 동네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 ‘당집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그 벽돌 남은 것으로 그 밑에다가 다섯 평인가 여섯 평 정도 지어 놔어요. 당집을 꼬끄맴게 블록을 찍어서 레이더 기지 바로 아래다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옮기고 원래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안 지냈어요. 우리가 원래 살던 마을이 개발돼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지가 벌써 17년이에요. 저쪽 넘어 살적서부터 25년 전에 레이더가 들어왔으니까. 그때까지는 도당곳을 지내지는 않았어도 당집이랑 다 보존하고 있었지.

김영웅의 증언에 따르면 레이더 기지를 짓기 위해 마을의 당집과 봉화대가 사라지게 되자,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전부에 당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원래 당집이 있던 장소의 아래쪽에 약 5~6평 정도의 땅에 당집을 짓게 되면서 당집이 이전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은 1970년대 당시에 당집이 허물어지고 마을의 근간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고, 오이도 주민이라는 주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 구심점으로 오이도 당집을 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오이도 인근 지역이 매워지고 산업단지로 조성하였으나, 오이도의 당집과 당산은 여전히 살아남은 것만 확인할 수 있다.

곧 오이도 당집은 과거 레이더 기지가 있는 산꼭대기에 대규모의 건물로 위치해

있었으며, 그 안에는 많은 물품이 없고, 단지 만장기 형태의 당기와 활 등 도당곳을 할 때 소용되는 기물들이 모셔져 있었다. 그러나 1972년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면서, 봉수대와 함께 당집이 헐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마을주민들이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온 곳에 당집을 지어주기를 정부에 요청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당집이 5~6평 규모로 축소되어 시멘트 블록 건물로 지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도당곳이 온전하게 전승되었던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전승이 멈춘 도당곳을 복원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도당곳은 당집을 새로 지은 후에는 도당곳을 안한 것인가요?

▷ (정용택) 그렇지요.

(김영웅) 1959년도까지는 계속 지경래 씨가 와서 지내고 끝냈고, 쪽 안하고 있다가 부락에서 우리 할아버지 또래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손들이 ‘우리가 동네에서 당고사를 한번 지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1977~8년도에 김금화 만신이 와서 딱 한 번 지냈어요. 그때는 레이더 기지 있었는데도 지냈다.

(정용택) 김금화 만신이 와서 했는데 그 양반이 황해도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해도 사람이 여기서 사니까 이양반[예씨 할아버지] 처갓집이 그 양반하고 연결이 되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황해도 식으로다가 한 번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지.

(이성분) 시집을 오니 1년에 한 번씩 당고사를 지냈어요. 큰아들 낳고 안고 가서 당고사 드리는 것을 구경했어요. 안 한 지 40년도 더 되었고요.

국방부에서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기도 한참 전인 1960년대부터는 도당곳 전승이 이미 끊기고 있었던 것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박용덕이 1950년대에 도당곳을 보았던 기억을 증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용택·김영웅 등 역시 1950년대 말에 도당곳의 맥이 이미 마을에서 끊기고 있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이도의 주민들이 도당곳과 당고사가 끊기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1977~1978년도 경 황해도곳을 하는 무당인 김금화를 불러서 곳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당시에 행했던 황해도곳이 오이도 도당곳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현재 당집의 모습(위, 아래)

즉 황해도곳의 형식을 통해서 황해도의 대동곳 형태의 곳을 진행한 것이므로, 도당곳 형식의 곳과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2) 도당곳의 내력과 도당신에 대한 관념

실제 오이도 도당곳이 마을을 수호하는 마을신에 대한 전통적인 민간신앙의 차원에서 전승된다고 볼 때 마을 사람들이 도당곳과 도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 것인지

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증언에 참여한 분들이 대개 도당곳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억을 갖고,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증언해주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그들이 오이도 도당곳과 도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증언을 통해서 토박이 주민들의 인상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할아버지, 할머니께 언제부터 도당곳을 지내기 시작했는지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 (박용덕) 그건 몰라요. 600년 안에 있다고 봐야겠죠.

▶ 풍어를 위한 도당곳을 4년에 한 번씩 지냈나요?

▷ (박용덕) 이게 워낙 큰 대동굿이라서 해마다 하면 없이 사는 사람은 거덜나죠. 소도 세 필 잡고, 돼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다가 마을 291세대가 모두 참여하는 품앗이에요. ...(중략)...

인근의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다발을 들고 왔어요. 오이도 신사 드릴 때면 돈을 자루에 담아 배에 실고 운수 받으려고 오는 거죠. 운수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12마당 중에서 끝 마당에 작두 타는 마당이 있는데 작두 탈 때 작두 위에서 운수를 받아요.

잘 맞추기도 하고 그게 맞아 들어가요. ...(중략)... 이렇게 잘 맞추니까 그게 신주이고 신이에요. 무당의 말씀이 곧 신이죠.

위에 길게 증언한 박용덕의 증언을 통해서 오이도 도당곳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밀양 박씨들이 오이도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특히 과거의 사람들이 자연을 관찰함으로써 1년의 운수를 점치는 방식으로 살아왔었고, 그것이 오이도 사람들의 건강망과 1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당시의 오이도 주민 약 300세대가 품앗이로 도당곳에 참여하면서 각각 도당곳에 들어가는 제물을 분담하거나 일을 분담했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참여적인 도당곳의 현장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현장은 인근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도당곳 12마당에서 사람들의 운수를 봐주기도 하면서 주술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이도 주민들은 건강망을 통한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고, 운수를 지켜주는 존재로서 도당신을 매우 중요한 신으로 여겼다는 것을 아래 박용덕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 생각하시기에 예전 당에 모셨던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 ▷ (박용덕) 당집에는 깃발만 있었고, 따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를 비유하자면 내 마음에 친가보다 외갓집이 더 가깝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같아요. 외가집에 가면 두 분은 늘 쓰다듬어주고 예뻐해 주셨는데,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도 마치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처럼 친근하게 느껴져요.

(3) 도당굿의 준비와 마을주민의 참여

앞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오이도 도당굿은 1959년 즈음에 그 맥이 끊긴 것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 김금화를 불러서 한 곳은 황해도굿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므로, 오이도의 도당굿의 전통적인 형식과 분명하게 달랐다고 보여진다. 여러 증언자들에 의해서 오이도에서 1959년경까지 거행된 도당굿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먼저 도당굿을 준비하는 과정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들이 나왔다.

- ▷ (박용덕)우리 집에서 주도를 하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날짜를 잡지요.
- (김영웅)우선 연세가 많아야 되고 깨끗한 어른 이런 사람들이 당주를 봤어요. 부락에서 의견을 내는데 ‘누가 당주를 하시오. 그 사람이 괜찮지 않느냐 집안도 다 포근하고 생기복덕하니’ 이런 사람들 정해 주면 그 사람이 이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달에 동네 유지 어른들이 날을 잡고 당주를 선정을 하면 그 분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거지. 저기 당 밑에 가면 합작굴이 있는데 거기서 샘물이 나와요. ‘합작굴’은 옛날 노인네들이 이름을 지은 건데, 당주로 정해지면 깨끗하게 매일 목욕하고 해야 되요.
- 우리 아버님이 한 번 당주 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 전에 목욕탕 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매일 큰 솥에다가 물 데워가지고 매일 씻고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당주

는 깨끗한 몸으로 정성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성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당주를 했어요. 당주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많
 아요. 초상집에 안 가고 나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해요. 당주는 일
 년에 한 번씩 보는데 술,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예요. 우리도 당주를 봤는데,
 당주는 구경하는 사람이고 만신이 당고사를 해요.

박용덕의 경우 밀양 박씨 집안에서 오이도 도당굿의 준비와 진행을 전반적으로 주
 도했으며, 마을의 어른들이 날짜를 정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것들을 나누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김영웅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정월달에 동네 유지 어르
 님들이 날을 잡아서 당주를 선정하는 것을 주관하고, 당주가 되면 목욕재계하기를 게을
 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 정해진 장소에서 목욕재계를 하는데, 그 장소 이름이 ‘합작
 굴’이라는 곳이었다고 기억한다. 대개 당주무당과 연락한 후에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날잡기와 당주 선정이 진행되는데, 당주 선정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 마을주민들이 모
 두 참여하여 적절한 인물을 선정하게 된다. 이성분 역시 당주 선정에 대한 기억을 갖
 고 있는데, 당주를 맡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운수가 좋고 몸이 깨끗한 사
 람으로 뽑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이와 같은 도당굿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경비가 필요
 한데, 이를 담당했던 것은 오이도 주민공동체의 몫이었다.

▶ 바다에 아홉바탕의 주인 분들이 추렴을 더 많이 해요?

▷ (정용택) 아~ 그렇지는 않아요. 동네에서 일제히 쌀 있는 사람은 쌀 내고 돈 내는
 사람은 돈 내고 재물을 각자 저저 하지. 그 당주가 그걸 다 총괄을 하는 거지.

▶ 풍어를 위한 도당굿을 4년에 한 번씩 지냈나요?

▷ (박용덕)이게 워낙 큰 대동굿이라서 해마다 하면 없이 사는 사람은 거덜나죠. 소도
 세 필 잡고, 돼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데다가 마을 291세대가 모두 참여하는
 품앗이예요. 누구네 누구네 삼십집이 감주, 누구네 누구네가 두부, 누구네 누구
 네가 콩나물 기르기, 누구네 누구네가 숙주나물 등으로 일을 분배해서 참여하죠.
 당시에 그렇게 진행한 걸 따로 장부로 기록해서 남은 것은 없지만, 내가 본 것은
 우리 집이 가장 잘 살아서 보면 우리가 돈을 내고, 다른 분들에게는 품앗이로

일을 나눴죠. 술 열 집, 감주 열 집, 콩나물 열 집, 숙주나물 열 집, 두부 열 집 이렇게 일을 나눴어요. 그럼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도지사, 군수, 영감님, 면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기부를 했어요.

즉, 곳에 소용되는 비용과 물품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추렴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현금을 기부하기도 하며, 품앗이로 각자 술, 감주, 콩나물, 숙주나물, 두부 등을 나누어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내에서 모든 제물을 준비한다. 현금의 경우 마을에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추렴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실제 곳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모아진 비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부르는 별도의 명칭이 ‘과방주’였다.

▶ 고향 때 마을에서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분들도 있었나요?

▷ (박용덕)있었어요. 동네에서 그런 진행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하면 과방주예요. 결혼식 하면 과방에서 음식이 다 나오니까 과방주가 제일 세죠.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고 박복일 씨라고 그분이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가 귀할 때 고기 한 접시를 더 타고 싶어서 달라고 하면 어디냐고 묻고 확인하고 내어 줬죠. 그냥 평범한 분이셨는데 일을 잘 했어요. 손 벗고 나서서 동네일을 잘 하신 분이었죠. 우리 집안 어르신인데 동네에서 신뢰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과방주는 마을의 큰 잔치나 행사가 열릴 때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박용덕은 예전에 과방주를 맡았던 분으로 박복일을 들고 있다. 과방주를 맡는 사람은 손발 벗고 나서서 동네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분이다. 과방주는 전체에 소용될 경비를 관리하여 살림을 맡는 인물이다. 경우에 따라서 큰 행사의 성패는 이러한 인물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과방주라 하겠다.

이와 같이 마을주민들의 주도로 준비된 실제 도당곳은 일정한 공간을 옮기면서 유교식 제례와 무당의 곳이 교차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오이도 도당굿과 당나무

오이도의 도당굿을 진행한 장소 중의 하나가 바로 당집 또는 도당굿을 하는 장소와 연관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는 곳이다. 앞서 정리한 시흥지역의 여러 마을의 마을신앙 의례에서 특정한 나무와 연관돼서 의례를 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이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의례 장소로 팽나무, 소나무, 쉬나무, 참죽나무 등을 들고 있다.

도당굿과 관련해서 확인된 당나무에 대한 증언은 다음과 같다.

▷ (정용택) 당나무도 있었는데 당나무는 죽었어. 뱃가죽나무 같은 그걸 당나무라고 그래요. 당나무가 옛날에 뱃가죽나무데 외래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정용택) 당집 옆에 팽나무가 있었는데, 이거는 당굿이란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당집 옆에 있는 것이었고, 불탄 나무가 당고사 지내는 당나무예요.

(예현규) 내가 이사 오니까는 부지깽이만한 거를 거기다가 심어놓고 터주가리를 엮어서 매 달아 났더라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게 너보다 한 살 더 먹은 거다’ 그러시더라고. 지금 내가 87세니까 그 나무는 88년 된 거죠. 엄청 컸는데 당나무가 이렇게 벌어져도 함부로 자르지도 못해. 그나마 고사지내는 날 자르든지 제사 지내고 잘라야지 가지치기 하는 것도 암대로 자르지도 못해. 함부로 자르면 죽을 까봐.

▷ (박용덕) 꼭대기에서는 당굿을 안 하고 끝에 깃발에 했던 만장기만 거기에 걸었지요. ...(중략)... 그런 집이 이렇게 길게 있고 그 옆에는 팽나무도 있었고 옆에 있던 돌은 지금도 있는 것을 봤어요. ...(중략)... 거기서 내려오면 군부대 고갯길이 있는데 여기에 큰 소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에서는 자신의 재수소망을 비는 소원지를 걸어두죠. 그 모습은 울긋불긋하며 엄청나죠. 지금도 이 소나무는 남아있고 이 길을 통해서 가면 대동우물도 있고 참죽나무가 있어요. 이 참죽나무는 신성이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니까 참죽나무는 원래는 그냥 비어있는 나무인데, 굿할 때만 거기다 굿당처럼 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무 주변에 돌바위가 세팅어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굿당을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 광목으로 만든 차일막을 치고, 2박 3일 동안 굿을 했어요.

(박용덕) 어려서 기억으로는 우리동네 여기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참죽나무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당신주나무라고 했어요.

(이성분) 동네에 정씨네 집 앞에 큰 쉬나무가 있어서 한 거리를 하고 당에 올라가서 한 뒤, 또 내려와서 거기서 한 거리를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옥귀섬 안말 동네에 당 올라가는 길거리에 쉬나무가 있었는데 이주하면서 없어졌어요.

(이성분) 당은 산꼭대기에 있고 내려와서 가운데살막 넘어가는 곳, 순택이 밭 자리에서 했어요.

(김성용) 지금은 불에 탄 우물 위에 큰 나무는 당나무, 산 꼭대기 제단 있던 데에 큰 고목나무는 당산나무라고 해요. 레이더 기지 만든다고 제단을 부수고 당산나무를 잘랐어요. 당산나무 자른 병사가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증언에 따르면 오이도 당산에 당고사를 지내는 당나무가 있었던 것은 정용택, 박용덕, 김성용 등을 통해서도 모두 확인된다. 당나무의 수종에 대해서 정용택은 뱃가죽나무로 증언하고 있으며, 박용덕은 참죽나무로 증언한다. 그 수령은 제보자 예현규의 나이와 비슷한 것으로 미루어 약 1930년경에 심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나무 역시 당집과 같이 영험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주민들의 믿음이 함부로 자르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말에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박용덕은 팽나무는 당집 옆에 있는 나무로, 도당굿을 했던 당집 옆에 있던 나무이다. 따라서 일정한 의례장소의 기표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나무와 관련된 의례장소로 소나무 앞을 들 수 있다. 소나무는 당산에 올라가는 초입에 있었던 것으로, 평소에는 아무 것도 없다가 당굿을 할 때 주변에 소원지를 걸어 놓기도 하고, 그 앞에서 굿을 하기도 한다. 쉬나무는 이성분의 증언에서 확인된 것으로 당산에 올라가는 곳에 있어서, 굿을 하는 장소이다. 안말 동네에서 당에 올라갈 때 쉬어가는 나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참죽나무는 당집이 있던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대동우물이 있는 곳 근처에 있는 나무를 말한다. 참죽나무 근처에는 돌바위 큰 세 덩어리가 있어서 나무와 바위를 자연신으로 섬기는 형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굿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참죽나무 옆에는 저녁에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두기도 하고, 여러 선주들이 갖고 온 뱃기들을 가득 걸어두어서 큰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고 한다.

박용덕 제보자와 이성분 제보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오이도 도당굿에서는 마을의 공동우물 옆인 참죽나무 앞에서 굿이 시작되고, 소나무 앞을 지나치면서 한 거리 하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 복원된 오이도 공동우물 - 1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 복원된 오이도 공동우물 - 2

고, 쉬나무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굿을 한 거리 한 후, 당집으로 올라간 후에 도당굿을 하고, 다시 쉬나무를 거쳐서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굿판을 또 펼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용덕과 이성분이 각각 박씨 집안 조상 시제터라는 곳과 순택이 발자리, 정씨네 집 마당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 장소는 짧게 굿을 진행하거나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놀이판을 펼쳤던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현재, 화재로 인해 타다가 남은 참죽나무

특히 박용택 제보자가 증언한 참죽나무를 ‘당신주나무’라고도 불렀다고 하고, 정용택은 이를 당나무라고 한 것을 볼 때, 참죽나무가 있는 공간이 중요한 장소로 인지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박용택이 ‘당신주나무’라는 명칭을 통해서 당신을 모시는 신주(神主)를 모시는 나무로서 참죽나무가 기능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김영웅이 제보한 내용 중 당굿을 할 때는 당나무에 터주가리를 짚으로 만들어서 원새끼로 꼬아서 묶어 두었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참죽나무는 곧 도당굿을 진행할 때 참죽나무에 당신의 신주를 모시는 공간으로 인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참죽나무에 대해서는 김영웅이나 정용택 역시 유사하게 마을 전통과 관련해서 소중한 기억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당나무 옆의 터주가리는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 ▷ (정용택) 쪼그마하게 고사 지내는데 짚으로다 요만하게 해서 당나무에다 붙들어 매.
- ▷ (김영웅, 정용택) 터주가리에 있는 짚은 당고사할 때만 새로 바꾸는 게 보통이고, 또 누가 와서 정성 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바꿔주기도 하고.

- ▷ (김영웅, 정용택) 터주가리는 세워두면 안 되고, 당나무에다가 붙들어 매달아뒀어. 새끼줄은 원새끼로 꼬고 창호지로다 해서 요렇게 살 끼워서 해 가지고, 나무가 있으면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바짝 붙잡아 매는 거야.

현재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서 오이도 산으로 올라가는 길 초입에는 과거 오이도 주민들이 공동우물로 사용했었던 공동우물이 재현되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상단에 불에 타다가 남은 참죽나무가 세워져 있다.

▶ 당나무가 지금 타버렸던데 왜 그렇게 된 것이에요?

- ▷ (정용택) 그 나무가 타기 전에 먼저 죽었는데, 그 나무가 왜 죽었냐 하면 우리가 거기(오이도)서 살다가 이주를 해 오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거기다 공단을 만든다고 포크레인으로 뚫나봐. 그 사람들이 우리 우물도 쓸어 매우고, 그 나무뿌리 쪽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부러져서 그 나무가 그렇게 죽은 거야. 아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굽어서 원래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나무가 불에 탔어.
- ▷ (김영웅) 원래 다 죽었는데 불까지 난 거지 그것도 누가 정성을 들이러 왔다가 촛불을 거기다 놔둔 것이 바람이 불면서 초물이 흐르면서 탔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 누가 실수로 그랬지.

증언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에서 공단을 만들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우물도 매우고 참죽나무의 뿌리를 건드리면서 죽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죽은 참죽나무가 그나마 고사목으로 유지되었으나, 언젠가 누군가가 와서 고사를 지내고 갔는데, 그 자리에 타고 있던 촛불이 옮겨붙어서 그만 나무가 다 타버리게 된 것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타다가 남은 참죽나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또 한편으로 미안하게 여기는 감정들을 갖고 있었다. 즉 이러한 감정을 갖는 것은 곧 그들에게 참죽나무가 당신주나무 역할을 한 것을 기저에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즉 오이도를 지키는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의 신주를 모셨던 나무로써, 자신들의 과거 삶의 흔적을 담고 있는 나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나무가 타다가 말았다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비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5) 오이도 도당굿의 실제

오이도 토박이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서 도당굿의 준비과정부터 구체적으로 도당굿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선 박용덕의 증언에 따르면 도당굿을 했던 장소는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가 있는 당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40~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이라는 것을 볼 때 충분히 당 안에서 일정한 규모의 의례가 거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용덕 어머니가 했다는 떡방아 찿을 쌀을 쪄아 먹다가 죽은 새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당집이 제물 준비를 위한 장소였음을 짐작하게 하며, 그 규모면에서 볼 때 당집이 단순히 제물 준비 장소로서만 기능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오이도 도당굿이 당집에서 거행되었으나, 당집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의례 장소가 변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도당굿은 언제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용덕) 도당굿은 음력 2월 달에 잔디가 나오기 전에 지내요. 2월 초순으로 2월 초순이면 2월 1일에서부터 10일 안에 지내는 것이에요. 날씨는 매해 달라지지만 2월 초는 분명하지요. 2박 3일 동안 두드리면서, 삼현육각까지 하면서.

옛날에 봤을 때는 돈이 하늘로 날아다녔어요. 돈다발이 날아다녔다니깐. 무당 한 번 껴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중략)... 신사 한 번 드리면 인근 각처의 섬에서 배 있는 사람들이 다 운수를 받으려고 온다. 잔머리(젓머리)는 게임도 안되요. ...(중략)... 그 동네 사람들이 신사굿이 있으면 여기로 보러 왔었고, 배 하시는 분들도 왔었지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단한 행사를 한 거죠. ...(중략)... 2박 3일 굿을 하면 징, 팽과리를 치고 만장기가 수백 개, 수천 개 걸렸지요. 잔머리, 웅섬, 제오리 이런 섬에서 배의 망주들이 플랜카드를 해가지고 와서 전부 걸어두는데, 자기 배 이름을 쓰고 풍어를 그려서 걸어 두죠. 그런 것이 오색기로 대단했는데, 그걸 첫 번째로 여기 참죽나무 있는 데다 대나무로 해서 걸어요.

여기다 빙 둘러서 나무를 위시해서 두고, 한쪽에는 동네 사람들이 밤 세울 굿당을 하나 지으면 여기서부터 12마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니까 굿을 하는 것이 12머리라고 하고 그걸 보고 12머리 마당이라고 한대요.

특히 여기(참죽나무 앞)는 만장기가 대단했어요. 각처에서 오고, 그때는 우리

가 굿당을 써 붙이면 잔머리, 웅섬, 제오리 이런 곳에서 배하는 사람들이 참죽나무 주변에 만장기를 가져다가 많이 걸었어요.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듯이 보기 좋도록 걸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죠. 그날 아침에 지내고 이 길을 통해 올라가는데, 무당에서부터 만장기를 들고 고개를 올라가는 거예요.

첫날 아침이 되면 밑에서 4마당을 하고 올라가는데 여기 참죽나무에서부터 치면서 도당까지 올라가고 위에는 그 이전에 떡방아니 뭐니 다 찌고 만들어놔 있을 거예요. 당집(도당)에서도 당굿을 하는데, 여기 도당에서 도당굿은 몇 마당 안 하고 다시 내려와서 소나무 있는 데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돈 버는 굿을 하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놀죠.

굿 시작할 때는 소머리도 올리는데, 머리는 잘라서 이미 굿당에 올려두죠. 그리고 소머리는 고아서 우묵(편)을 만들어서도 올려요. 감주, 술 등 모든 음식을 여기다 놓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굿이 시작하는 거예요. 첫 굿머리할 때 음식도 다 가져다 놔야 해요.

굿을 처음 시작할 때는 소나무[참죽나무의 오류] 4마당을 하고 여기서 다 지내고, 당집에 가서 하는 것을 도당굿이라고 말해요. 도당굿을 지내고 내려와서 여기(소나무 앞) 와서부터 1막2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 굿을 하다가 마지막에 무당이 작두 타고, 작두에서 다 자기 운세를 무당에게 들어요. 그리고 나서 용왕님에게 띄우는 배를 크게 만듭니다. 거기서 하는 것을 용왕굿이라고 했어요. 그 배에다가 모든 음식, 먹을거리를 실어서 들물, 물이 밀었을 때 만들어서 썰물, 물이 빠질 때 띄웁니다. 아마 그 배가 크게 하나만 짚으로 만든 거예요. 폭이 1m정도이고 길이가 2m정도 되니까. 거기에 음식을 다 실어서 띄워서 용왕님께 바치는 거죠.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배 하시는 분 전부 가서 비손하고 그래요. 굿할 때 올리는데, 소고기, 넓적다리, 돼지고기 해서 띄우는 배에다 올리죠. 돼지는 통 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올렸어요. (박용덕) 이걸 용왕굿이고 용왕에게 가는 물건들로 굿을 하고 그 이튿날, 굿이 끝나면 물건 전부를 띄우는 거죠.

(김영웅) 정월달에 뱀 나오기 전에, 모든 곤충이 나오기 전에 삼사일씩 했죠. 그전 옛날에는 일주일씩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광대가 줄도 타고 뭐.

(정용택) 당고사는 삼부예요. 동네 안녕고사, 당고사, 용왕님제사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날은 동네 안녕을 위해서 삼현육각을 잡히고 동네 우물고사를 지내는데 우리동네 당골네인 지경래 씨를 불러와서 피리 장구 등 삼현육각을 잡혀서 동네

안녕을 위해서 먼저 우물고사를 지내는 거지. 첫째 날에 낮에 우물고사를 지내는 데 그 전날에 먼저 우물을 다 치워요. 대동 우물이 있어요. 동네 큰 우물 그제 한 100세대 가까이 먹었을 거야. 그 우물을 다 퍼내고 돌로 전부 쌓아 으니까 그거를 싹 깨끗하게 씻어서 다 해 놓고, 새물을 받아요. 아마 도당굿하기 한 삼일 전에 물을 푸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에 낮에 동네 안녕을 위해서 공동으로 먹는 동네 우물고사를 지내죠. …(중략)…

처음에 무당이 마당에서 예운식 씨 그 양반네 마당에서 하루 그걸 하는 거지. 원래는 장군님 땅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건데, 따로 이름은 없고, 그냥 장군님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 앞집에서 하는 거예요. 하루를 장군님 당에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삼현육각을 앞세워서 당깃발을 들고 그걸 앞잡이를 해서 삼현육각을 쳐주면서 이제 당산으로 차고 올라가. 깃발을 세우고 당으로 올라가서 밤새 도당굿을 지내요.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계시는 데서. 당깃발에는 지금 같으면 쓰인 글씨를 유심히 볼 텐데 옛날에 글씨가 뭐라고 크게, 지금 ‘농자 천하지대본’처럼 그런 깃발 있잖아요. 거기서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당고사를 지내죠. 낮부터 시작하면 하루 저녁하고 당 안에는 삶은 소머리 놓고 고사만 지내는 것 같고, 당집 앞에서 굿을 밤새 한다고.

세 번째는 공터만택에서 공테라고도 하는 거기서 줄타기를 해요. 줄타기를 할 때면 외부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많이 와요. 이제 내려와서 공테라고 공지(空地)가 있어서 그곳에서 광대들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줄타기를 하고 놀아요. 그 공지에서 구경꾼이나 외부 인사들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당산에 올라가서 제사지냈던 제물인 소머리로 국을 끓여서 전부 나눠 먹고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어장고사 지내는 거야. 어장고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면 그 짚으로다가 배를 두서너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도당굿한 떡, 사과 꺾감 같은 제물을 실려가지고 용왕님한테 용왕제사 지내는 거야. 제물을 담아서 용왕님한테 바다에다 띄우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 달라고 기원을 하지. 그제 용왕님제사야.

여기 어장이 여덟 바탕인가 아홉 바탕이 있어요. 그걸 건강망이라고 하고, …(중략)…그래서 고기 많이 잡히게 해 달라고 용왕님한테 고사를 지내는 거죠. 바다 아홉 바탕에 주인이 있어서 그분들 준비를 다 해서 용왕님 고사를 지내는 게 마지막이야.

위에서 확인된 증언을 길게 인용하였으나, 이 증언들에 의해 오이도 도당굿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도당굿의 제일과 진행 일정에 관한 것이다. 이는 먼저 증언한 박용덕의 증언을 통해 도당굿이 음력 2월 초순경에 날을 받아서 진행하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의견과 달리 김영웅은 정월달에 진행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때 김영웅이 ‘뱀 나오기 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볼 때, 세시절기로 경칩 이전을 말하므로, 음력 2월 초순경이거나 그 이전을 말한다. 김영웅의 앞서 제보 내용 가운데, 정월달이 되면 동네 어른들이 날을 잡고 당주를 선정한다는 것으로 볼 때, 도당굿을 준비하는 것이 정월달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도당굿을 하는 해가 되면, 정월달에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도당굿의 준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이때 당주무당인 지경래 씨를 불러서 함께 날을 잡고, 당주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도당굿을 하는 날짜는 2월 초순경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 또한 도당굿을 진행하는 일정이 김영웅의 증언대로 본래 도당굿이 일주일 정도로 장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이미 줄어들어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서 실제 도당굿의 진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언을 한 제보자가 박용덕, 정용택이다. 두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일부의 내용에서 김영웅의 증언 내용을 일부 첨부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각각의 증언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이도 도당굿의 실제에 대한 증언

장소 및 절차	박용덕	정용택
도당굿의 주기 및 구성	4년에 한 번한다. 열두 마당이다.	(2년에 한 번한다. - 김영웅) 세 마당이다. - 동네 안녕고사, 당고사, 용왕님제사
참죽나무 (거리부정, 돌돌이)	참죽나무 옆에 밤새울 막을 짓는다. - 주변에 만장기를 많이 세워둔다. - 열두 마당 중 네 마당이 시작된다.	첫째날 : 첫째마당 - 첫날 동네 안녕을 위해 삼현육각을 잡히고 우물고사를 지낸다. - 장군님 땅(타다 만 당나무가 있는 곳)이나 후에 예윤식 씨 집 마당에서 굿을 한다. 따로 이름은 없다.

당집 :도당굿-1- 도당모시기 (상당굿)	악기 치며 당기 들고 당집으로 올라간다. - 당집에서는 몇 거리만 진행한다. - 예전에는 당집이 커서 그 안에서 굿을 했다.	둘째 마당 - 저녁에 삼현육각을 앞세워 당짓발을 들고 당산으로 올라간다. - 당집 앞에서 밤을 새워서 도당굿을 한다.
소나무 앞 공터 : 도당굿-2 (하당굿)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 - 본격적으로 돈 버는 굿을 한다. - 작두 타는 굿도 한다.	둘째 날 : 셋째마당 - 공터만택이라고 해서 공터에서는 줄타기를 하면서 논다. - 제물로 올린 소머리로 국을 끓여서 나눠 먹는다.
용왕굿	용왕님에게 띄우는 배를 만들어서 썰물 때 띄워서 보낸다. 용왕굿을 하고 용왕님에게 띄워서 보내는 배는 용왕님에게 드리는 음식으로 푸짐하게 준비한다.	셋째 날 : 어장고사 - 짚으로 배를 두서너 개 만들어 요왕제사(용왕굿)를 지낸다. - 짚으로 만든 배를 띄워 보낸다.

위에 정리된 것에 따르면, 박용덕과 정용택 제보자가 각각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따져보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제보한 내용을 중심으로 증언의 내용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당굿의 주기와 전체 구성에 대한 증언이다. 다섯 가지의 의견 중 가장 의견이 다른 것 중의 하나이다. 박용덕은 굿의 주기가 4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고 있으나, 정용택과 함께 제보한 김영웅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도당굿을 했다고 증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택과 김영웅의 의견이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년에 한 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더 유력하게 보인다.

도당굿의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당굿의 구성에 대해서 역시 두 사람이 다른 내용을 증언한다. 즉 박용덕은 도당굿의 전체 구성이 열두 마당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정용택은 세 마당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즉 전체 일정을 크게 2박 3일 일정으로 보았을 때 날짜별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연행하는 것을 큰 절차로 나누자면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정용택 제보자의 의견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보 내용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실제 의례는 세 마당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실제 둘째 날의 경우 당집에서 진행되는 것이 둘째 마당, 공터로 내려와서 노는 것을 셋째 마당으로 증언하고, 어장고사를 지내는 것에는 별도의 마당에 편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박용덕의

증언으로 보완해서 적용할 수 있다. 즉 전체 열두 거리 또는 열두 마당이라고 증언한 박용덕의 굿거리 구성은 정용택의 증언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정용택 제보자가 첫째 마당에서 간단하게 우물고사가 진행된다고 제보한 내용이 박용덕의 경우에는 네 마당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박용덕 제보자가 오이도 도당굿이 열두 마당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굿거리를 일반적으로 열두거리라고 표현하는 통념상의 표현 방식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박용덕과 정용택이 각각 세 마당, 열두 마당이라고 한 것을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굿거리를 구체적으로 구분한 박용덕과 굿을 하는 장소에 따라서 구분한 정용택이 같다고 본다.

대신 좀 더 구체적인 굿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 거리부정과 돌돌이에 관한 증언이다. 두 사람의 제보내용에서 박용덕은 우물이 있는 참죽나무 앞에서 약 네 마당(거리)을 진행했다고 증언한다. 이와 좀 다르게 정용택은 우물고사를 동네안녕을 위해서 비는 것이라고 한다. 이때 예를 올리는 곳이 예전 장군님 땅이었던 곳에서 진행하는데, 후에 마당이 넓은 예윤식 씨네 마당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두 사람의 제보내용이 각각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의례의 진행 과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도당굿의 시작은 당주집에서 당주굿을 하고, 악기를 치면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거리부정을 치는 것이다.³⁶⁾ 당주굿은 대개 당주집에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마을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공간을 지정하고 지정하기도 한다. 현재 오이도 도당굿에 관한 증언에서 당주굿과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일정한 마을의 경계를 돌면서 부정한 것을 풀어내는 과정에 해당하는 증언은 명확하게 거리부정과 돌돌이(돌돌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을의 동서사방으로 특정한 장소나 큰나무가 있는 곳 등에서 부정을 푸는 과정을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무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리부정’이라고 한다. 곧 박용덕이 증언한 바대로 참죽나무가 있는 곳에서 일정한 네 마당 정도를 하는 것이 정용택이 말한 장군님 땅에서 하는 의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정용택이 제보한 내용은 마을의 안녕을 비는 고사라는 측면에서 돌돌이

36) 김현선,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연구』, 34~46쪽.

의 형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돌돌이는 달리 푼돌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을 지키는 여러 장소에 돌면서 일정한 의례를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상황이 정용택이 증언한 우물고사와 분명하게 일치한다고 하겠다. 곧 두 번째 제보 내용은 두 사람 모두 굿의 서두에 시작하는 부분의 거리부정과 돌돌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당집 도당굿에 대한 증언이다. 두 제보자는 공통적으로 돌돌이를 마치면 삼현육각을 울리면서 당집으로 올라가서 도당굿을 진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용덕의 경우 당기를 들고 악기를 치면서 당집으로 올라가서 몇 거리를 진행한다고 하였다고만 증언하고 있으나, 정용택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즉 도당굿의 앞부분으로 이는 도당모시기에 해당한다. 즉, 오후에 마을에서 굿이 시작되면 돌돌이를 돌아서 우물과 큰나무 앞에서 고사하는 것을 진행한 후 당집으로 올라간다. 돌돌이를 할 때 대개의 경우 도당기 등을 모시고 삼현육각을 길군악으로 연주하면서 이동하게 되고, 이동하면서 특정 장소에서 고사를 지내게 되므로, 소나무나 쉬나무 등을 만나면 고사를 지낸다. 곧 이어서 당집에 도착하게 되면 도당기를 팽나무에 모시고, 본격적으로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신을 모시는 도당모시기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집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대개 도당모시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박용덕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거리를 진행하지 않고 몇 거리만 진행하고 곧 하당인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고 하고, 정용택은 당집 앞에서 밤을 새워서 도당굿을 하고 날이 밝은 후에 내려온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 다른 지역에서 진행한 도당굿을 통해서 도당모시기의 형식을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소나무 앞에서 진행하는 하당굿과 참죽나무 앞에서 펼쳐지는 놀이판에 대한 증언이다. 실제 정용택은 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신 굿하는 이틀째에 공터가 있는 곳에서 공터만택이라는 것이 진행된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무당들의 굿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로, 추정컨대 박용덕이 증언한 참죽나무 앞으로 보인다. 이 장소에 만장기를 수십~수백 개 세워두고 사람들이 모여서 당집에 올렸던 제물인 소머리를 삶아서 국을 끓여서 나눠 먹는다는 등의 증언으로 볼 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도당굿 이틀째는 공간이 둘로 갈라져서, 소나무 앞으로 내려

와서 도당굿을 이어가는 부분과 공터만택이라고 해서 놀이패 등을 불러서 줄타기 등의 놀이를 펼치는 놀이판으로 나뉜다고 보여진다. 두 공간은 크게 멀리 떨어진 공간은 아니다. 전날 밤에 당집에 올라가서 도당모시기 등의 일정한 굿거리를 진행한 후 하당인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굿이 진행되는 과정을 박용덕 제보자가 정리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날 소나무 앞에서 하는 굿이 박용덕의 증언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돈 버는 굿’이다. 즉 당집에서 하는 굿과 차별적인 굿의 양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집에서 밤에 하는 굿이 조용한 가운데 엄중하게 진행된다면, 소나무 앞에서 진행되는 굿은 밝고 활기차며 신명 넘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작두굿과 같은 굿거리를 진행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면서 주술적인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굿판의 한쪽에 떨어진 참죽나무 앞에서는 사람들이 즐겨 구경할 수 있는 놀이판이 펼쳐짐으로써 다양하게 연출된 축제의 한 장면을 정용택 제보자가 증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즉 네 번째 증언 내용은 2박 3일의 전체 도당굿 일정 중 둘째 날부터 셋째 날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굿판과 놀이판이 펼쳐지는 광경에 대한 증언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구성을 알 수는 없으나, 작두굿과 돈 버는 굿이라는 박용덕의 증언과 줄타기와 소머리국이라는 정용택의 증언을 통해 일정 부분 그 현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도당굿의 마지막 날 삼 일째의 용왕굿에 대한 증언이다. 이 증언에 있어서만큼은 박용덕과 정용택의 증언이 거의 일치한다. 곧 오이도가 섬이며 어업을 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이 굿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업의 안정적인 수급, 즉 풍어 기원과 해양안전을 기원을 위한 절차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용덕이 용왕굿이라고 증언한 내용과 정용택이 어장고사 또는 요왕제사, 요왕굿이라고 증언한 내용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왕굿의 절차의 의미에 대해서 정용택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당굿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풍어와 해상안전을 기원하는 용왕굿을 진행하는데, 용왕굿의 구체적인 절차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두 제보자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은 짚으로 만든 띠배를 바다에 띄워서 용왕님께 보낸다는 것이다. 이 박용덕에 증언에 따라 용왕님에게 제물로 마련한 음식을 띄워 보내기 위해서 띠배를 만든다고 한 것은 정용택이 증언한 것과 거의 같다. 다만 정용택은 2~4개의 띠배를 만든다고

하였으나, 박용덕은 1개만 만든다고 해서 개수의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박용덕 역시 용왕님께 바치는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띠배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기억하는 정용택의 증언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절차는 서해안 지역의 타 지역 마을굿의 후반부에 나타는 절차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오이도 도당굿의 해안지역적 특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정용택) 무당들이 당굿이 끝나고 용왕님께 용왕제를 지낸다고. 용왕제는 오이도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십사라고 해서 짚으로다가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 도당굿한 제물을 떡, 사과, 산자 뭐 이런 거를 거기다 집어넣고 물이 들어왔을 적에 그거를 용왕님한테 띄워 보내는 거야. 거기에 여러 나물이나 고기 같은 거는 안 넣고, 사과, 배, 떡 이런 거 해서 고사 지내는 것처럼 고사물을 거기다 다 싣지. 하나로는 안 되니까 짚으로 한 서너 개 만드는데, 배를 따로 이름 지어서 부르지는 않았어. 그렇게 굿한 제물을 싣어서 배를 띄워 보내면, 용왕제로 당굿이 끝나는 거야. 마지막이야.

그 외 제보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확인되는 것 중의 하나는 오이도 도당굿에 사용하는 제물의 종류이다. 제보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머리를 삶아서 올리는 것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박용덕의 경우 삶은 소머리를 편육으로 만들어서 올린다고 하였으나, 정용택은 소머리 째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 도당굿을 연행하고 있는 현재 여러 지역의 사례로 볼 때 소머리 째 제물로 바치는 것이 더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이성분 등의 증언을 추가하면 도당굿의 제물로는 숙주나물과 콩나물 등의 삼색나물, 거피를 한 팔 등으로 만든 편떡, 흰쌀을 갈아서 찌고 다시 쪄어서 모양을 낸 달떡, 막걸리, 감주 등이 소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오이도의 용왕굿 형식의 의례 뒤에 배를 띄워서 보내는 것은 현재 행정구역으로 안산에 속한 풍도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산의 풍도에서는 정월 열나흘날이 되면 배마당이라는 바닷가에 천막을 치고 굿을 하고, 짚으로 마을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돛을 달고 기를 꽂고 바다에 띄워 보내는 전통이 있다.³⁷⁾ 풍도의 경우가 대승배 안에는 떡, 음식, 지폐와 동전, 술, 고기를 잔뜩 넣고, 홍역 앓는 아이를



위도 원당제의 뱃기(출처: 다음 백과)



위도 원당제의 뱃기(출처: 네이버 뉴스)³⁸⁾



위도 원당제의 띠배(출처: 다음 백과)³⁹⁾

둔 어머니는 제웅을 만들어서 넣기도 한다. 이를 풍도에서는 ‘대승굿’, ‘대승뱃놀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풍도의 의식은 한 편에서는 용왕에게 풍어를 비는 것이며, 다른 한편에는 나쁜 것을 마을에서 싣고 바다로 가져가 버리라는 의미가 이중적으로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의 증언에서 확인되는 추가적인 정보로 굿을 할 때 무당들이 삼현육각으로 음악

37) 정형호, “풍도의 정초 민속에 나타난 신년맞이 정화의식과 놀이-어당이탈놀이와 대승배 띄우기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31집(공연문화학회, 2015), 37~62쪽.

38) 출처 : 네이버 뉴스, 프레시안, “안홍량이 잔잔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기사입력 2016-05-23 17:46 최종수

을 연주하고, 팽과리를 치고 만장기를 걸어서 굿을 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과 함께 광대들을 불러서 놀이판을 펼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때 즐겨 볼거리가 줄타기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도당굿의 진행에 있어서 직접 연행을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김영웅, 정용택, 박용덕이 동일한 증언을 한다. 즉 도당굿을 맡아서 했던 당주무당 즉 단골네를 지경래 씨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모든 제보자의 의견이 같다. 지경래는 평택과 수원, 화성, 안성 등지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지씨 집안의 일원으로 확인된다. 제보자들은 모두 지경래 씨가 거무개 금호동에 거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당굿을 할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일체의 과정을 함께 상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단골관계는 지경래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박용덕에 의하면 지경래 씨가 돌아가신 후에 지경래 씨의 아들 지왕건과 지경래 씨와 함께 굿을 다녔던 광옥이 아버지 등이 이어받아서 진행했다고 한다. 굿을 할 때는 무당 일행 중 남자는 많지 않고, 여자 무당들은 7~8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박용덕은 기억한다.

이와 같은 증언의 내용을 통해서 실제 1950년대 후반까지 진행된 오이도 도당굿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오이도 도당굿은 경기도 남부지역 도당굿의 전형적인 형식에 입각하여 해안 지역의 굿의 특징을 담고 있다. 즉 오이도 도당굿의 내용과 형식이 경기 남부지역의 도당굿의 형식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안지역 굿의 특징인 만장기 세우기, 용왕굿, 띠배 띄우기 등의 절차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오이도 도당굿은 기본적으로는 인근 지역의 마을굿인 포동 새우개 당제와 닮은 면모가 있으며, 더불어 북쪽으로는 강화도, 남쪽으로는 충남 지역의 섬지역의 도당굿(마을굿)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새우개 당제의 경우 새우개 당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가 오이도에서 몰려오는 액운을 막기 위해서 심은 것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상징한

정 2017-11-01 22: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mid=sec&sid1=004&oid=002&aid=0002015168>

39) <http://100.daum.net/search/multimedia?q=%EC%9C%84%EB%8F%84%EB%9D%A%EB%B1%83%EB%86%80%EC%9D%B4&index=0>

다고 여겨진다.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오이도가 봉화가 생기면서 조선 조정에서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게 되었고, 마을이 점점 성하게 되면서 새우개와 일정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관성이 새우개의 마을을 수호하는 상징인 당나무를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우개 당제가 정월달에 도당굿을 했던 것과 달리 오이도 도당굿이 2월 초순 경에 굿을 했다는 것 역시 이러한 숨겨진 연관성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오이도와 새우개의 문화적 토대는 동일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도당굿을 거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공유하는 면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새우개 당제의 절차는 경기도 도당굿의 형식적 구성과 해안지역 굿의 내용적 구성 안에서 전승된 것임을 앞선 이용범과 이경엽의 정리 등을 통해서 확인했다. 오이도 도당굿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면모는 또 서해안이라는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서해안의 여러 섬과 연안 마을에서는 마을굿을 구성할 때 자신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굿을 구성하면서 그 안에 해안지역 굿의 특징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일치한다. 이들 지역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오이도 도당굿, 새우개 당제와 함께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확인되는 지역은 서해안의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는 지역의 마을굿으로 강화도 외포리, 화성 안섬, 서산 창리영신당제, 태안 황도봉기풍어제, 부안 위도원당제가 해당한다.⁴⁰⁾

40) 홍태한, “서해안굿의 존재 기반과 변화”, 『바다, 삶, 무속』(민속원, 2015), 232쪽에 기존의 서해안 지역의 강화도 외포리, 화성 안섬, 서산 창리영신당제, 태안 황도봉기풍어제, 부안 위도원당제 등의 마을굿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있다. 이 자료와 함께 앞서 이용범이 포동 새우개 당제에 대해 정리한 절차 중 1979년 조사 내용을 비교를 위해서 함께 정리한다. 이들 자료를 모두 오이도 도당굿의 절차와 비교하여 재정리한다.

〈서해안 지역 마을곳의 절차〉

오이도 도당곳	새우개 당제	외포리 꽃창곳	안섬 풍어곳	창리 영신당제	황도 봉기풍어제	위도 원당제
1. 거리부정, 돌돌이 (우물고사 포함 4거리)	1. 부정 2. 시루돋움	1. 수살맞이곳 2. 돌돌이 3. 거리부정	1. 당주곳 3. 거리부정 5. 부정곳	2. 부정곳	2. 피고사 4. 부정풀이 5. 부정거리 7. 영정물림	
2. 도당모시기 (당집-상당곳)	2. 도당모시기 (당집-상당곳)	1. 수살맞이 4. 얇은부정 5. 가망청배 6. 진적	2. 당오르기 6. 본당곳	1. 당오르기	3. 당오르기 9. 초감홍	1. 당오르기 2. 고사
3. 도당곳 2 (소나무-하당 곳)	3. 도당곳 2 (소나무-하당 곳)	7. 산신도당거리 8. 칠성제석거리 9. 장군거리 10. 대감거리 11. 성주거리 12. 대신거리 13. 창부거리 14. 소당애기거리	7. 대동곳	3. 당곳	9. 성주거리 10. 소대감거리 11. 성수거리 12. 밤제모시기 13. 타살거리 14. 대감거리	3. 성주곳 4. 산신곳 5. 손님곳 6. 지신곳 7. 서낭곳
4. 용왕곳 (배 띄우기)	4. 용왕곳 (띠배 띄우기)	15. 선주곳 16. 군웅곳 17. 막뒤놀이 *뱃기축원	8. 어망곳 9. 지석곳 11. 명도가리기 12. 뱃기내림 배고사	4. 배치기	15. 시숙나누기, 배고사	8. 선주곳 9. 용왕뱃던지기, 주산돌기 10. 용왕곳 11. 띠배보내기
(5. 뒷전)	(5. 뒷전)	18. 뒷전	10. 하전곳		16. 뒷전 17. 용신곳	9. 문지기곳

위에 정리된 표에 따르면 오이도 도당곳의 절차는 허술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면모를 종합하여서 정리한다면 곳의 절차를 구성하는 데 있는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곳의 서두에 해당하는 부정곳 부분, 당신을 맞이하는 부분, 여러 제신들을 대접하는 부분, 용왕신을 위한 부분, 곳을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총 5가지 절차로 나뉜다. 이를 통해서 오이도 도당곳이 서해안 지역 마을곳의 보편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오이도 도당곳은 인근 섬마을 지역의 공동의 대동축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했다. 여러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이도 도당곳은 오이도의 마을곳이었으나 인근 지역의 어민들에게 큰 행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박용덕이 제보한 내용에서

확인되는 참죽나무 근처에 세워진 만장기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즉 이 만장기들은 오이도에서 아홉 바탕의 건강망을 운영하는 분들의 것이지만, 그 외 오이도 인근 수십 개의 마을에서 찾아온 선주들의 뱃기에 해당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오이도에는 건강망에 필요한 몇 척의 배 외에는 본격적으로 배를 띄워서 원거리로 출항해서 어업을 하는 배는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뱃기를 띄우는 것은 없었는데, 오이도 도당굿을 할 때 이러한 뱃기를 띄운 배들이 오이도로 찾아와서 참죽나무가 있는 곳에 뱃기를 세워서 복을 받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이도 도당굿에서 봉기와 관련된 의례가 제보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어 포동 새우개 당제의 경우 선주들이 봉기를 들고 당으로 올라가는 왕당대 올리기가 있다. 이 절차는 새우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배에 띄웠던 뱃기를 봉기에 묶어서 복을 받는 것으로, 아마도 오이도의 참죽나무 주변에도 이러한 봉기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측면이 박용덕이 이야기한 군자봉성황제나 잿머리성황제의 성황제군계통과 다른 오이도 도당굿만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성황제가 아닌 해안의 풍어제적 면모가 곧 오이도 도당굿의 주요한 특징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김영웅, 정용택, 박용덕의 주요 제보자와 이성분, 김성용 등의 제보자를 통해서 오이도 도당굿의 실체에 대해 재정리해 보았다. 실제의 오이도 대동굿이 1950년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있었고, 이후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정 부분 증언을 통해서 재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구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해 시흥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오이도 도당굿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더욱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6) 오이도 도당굿의 복원

앞에서 오이도 토박이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오이도의 도당굿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오이도 도당굿은 매년 9~10월에 거행되었던 당고사와 함께 오이도의 주요한 마을신앙으로 어촌 민속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오이도의 당고사는 1980년대까지 이

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도당굿은 1950년대 말까지 진행되었다가 중단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에는 당고사만 지냈다가 1970년대 후반에 한 번의 복원 노력이 있었으나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지냈다는 형식으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오이도 도당굿은 주기적으로 간격을 두고 4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열렸으며, 2박 3일에 걸쳐서 큰 규모의 굿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놀이판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인근 해안 지역에서 찾아올 정도로 알아주는 굿이었던 것임을 확인하였다.

오이도의 토박이 중 몇몇 제보자는 오이도 도당굿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과거에도 노력했었던 흔적들에 대해서 증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지나치게 상업적인 환경이 오이도의 옛터전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에서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용덕 제보자의 경우 오이도 당굿에 대한 애정을 갖고, 복원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인물이다. 차후 오이도 당굿(풍어제) 복원에 관한 개인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 인물로, 여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제보자들 역시 오이도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는 점에 힘겨워하고 있는 측면이 또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이도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이도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측면에서 오이도 도당굿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차후에 오이도 도당굿을 통해 오이도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과 함께 지역축제로서의 면모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복원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오이도 도당굿의 복원을 위해서는 오이도 도당굿의 실체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제보자들의 증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미 1959년경에 마지막으로 연행된 오이도 도당굿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리다 보니 일부 증언 내용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어떤 것은 다시 생각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도 있으나, 결국에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오이도 도당굿이 어촌 민속으로서의 당위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이도 주민들의 증언을 비롯해서, 인근지역 주민들 가운데 선주들이 기억하는 오이도 도당굿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배와 관련한 기내림, 뱃고사 등에 대한 의례적 기능을 추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오이도 도당의 지역적 가치와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이도 봉수대의 기능에 대해서도 더욱 명확한 지역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 봉수대와 관련된 일정한 마을 공동체 의례가 전승되는 서울시 중랑구의 〈봉화산도당굿〉의 사례를 볼 때 주요한 면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리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욱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도당굿의 실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굿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복원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경기도 남부지역 도당굿의 일반적인 성격에 해안지역의 마을굿 특징에 해당하는 굿거리 등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필: 김현선, 김은희)

오이도와 인근 지역의 생업과 생활*

1. 오이도의 농업과 두레

현재 오이도는 간척과 도시화로 아파트와 공단이 들어서 농사 현장을 좀처럼 찾을 수 없고, 이전 시흥 지역의 농촌생활과 농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오이도 농업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의 조사로 오이도의 농업이 시흥의 다른 마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으며, 저수시설이 없어 천수답을 경작해야 했던 사정이 드러났다. 또한 농지가 적고 바다에 의존도가 높은 생활로 인해 두레와 같은 조직적인 노동조직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적지만, 마을에 풍물 악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 이 장의 내용은 2017년 12월에 오이도 주민들과의 면담과 현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개발되기 전 오이도 주민의 생업과 생활에 관한 내용은 『시흥시사 5.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와 『시흥시사 6.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을 참고하고 인용하였다. 인용문이 빈번하게 사용되므로, 편집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인용문을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시사 5, *쪽) 또는 (시사 6, *쪽)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필자) 필자 소장과 촬영

(오이도 어촌계) 오이도 어촌계에서 제공받은 사진

(시사 5) 『시흥시사 5.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사 6) 『시흥시사 6.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 100년 1)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1. 시흥의 역사와 행정』

(시흥 100년 2)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2. 시흥의 어제와 오늘』

적어도 해방 후 수년 동안에는 정월 지신밧기가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오이도의 농업

오이도에 전답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6·25를 전후해서 오이도에 거주하는 250여 가구에 각각 1,000~2,000평 정도의 논밭은 있었고, 4,000평 또는 천섬지기에 이르는 대농은 열 집 미만이었다. 농사를 짓는 작물로는 쌀이 가장 많았고, 밭에 보리·콩·수수·밀·조 등 다양한 작물을 심었다.

은행동·하상동·매화동 등 호조벌 일대와 광석동·장곡동·하중동 등 장현천 일대는 물 공급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모내기 시기가 일정한 반면, 저수시설이 없는 군자동이나 오이도 쪽은 가뭄이 들면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해서 모내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먼저 모내기를 마친 다른 마을 사람들이 군자동이나 오이도로 모뎀을 팔러 오기도 하였다.(시사 5, 171쪽, 195쪽)

1970년대 오이도 안말(오이도 어촌계)





마을 앞으로 논이 펼쳐진 오이도 안말(오이도 어촌계)

오이도는 벼농사의 경우 4월 20일경인 곡우에 볍씨를 뿌려서 40일 정도 키운 모를 6월 초에 모내기를 한다. 모를 낸 후 15일에서 20일 정도 후에 호미로 김을 맨다. 애벌 김매기는 호미로 논바닥 흙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못논맨다’ 혹은 ‘못논판다’고 한다. 애벌김을 매고 나서 15일에서 20일 정도 후에 풀 뽑는 것을 흙친다고 한다. 다른 마을에서는 손으로 논을 흙칠 때 맨손으로 논바닥을 긁으며 풀을 뽑으면 손톱이 금세 닳기 때문에 ‘어시래집(어스렁이고치, 밤나무벌레가 지은 고치)’을 골무처럼 열 손가락 끝에 끼고 무명실로 동여 맨 다음 논바닥의 풀을 뽑으면 3~4일은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시사 5, 184쪽) 7월 초중순 경인 초복 즈음에 다 자란 벼 사이에 섞여 있는 피를 손으로 뽑아주는 피사리를 하면 농번기가 끝나고 추수를 기다리게 된다.

2) 오이도의 두레

기존 조사에 의하면 은행동 찬우물·광석동 둔터골·장곡동 긴마루·하중동 셋말·방산동 방골·군자동 산뒤·새터말·금이동 거멀 등에서는 두레조직의 운영이 흔하게 확인되며, 김매기를 하면서 다른 마을의 두레패를 만나면 두레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벌 김매기를 다 마치면 칠월칠석을 전후해서 날을 잡아 ‘두레파작’을 하면서 두레 품값을 계산하는 일종의 호미씻이를 행했다고 한다.(시사 5, 198~199쪽)

그러나 오이도 어르신들 기억으로 오이도에 논농사를 공동으로 책임지며 활동하는 두레라는 조직은 없었다. 호조별 일대와 장현천 일대의 거의 모든 마을에 1970년대 정도까지 품앗이와 더불어 두레 활동이 확인되는 것(시사 5, 194쪽)과 비교하면, 갯가 마

을이며 염전으로 개발되어 논농사가 많지 않았던 오이도에 두레 활동이 없었던 것이 이해되기도 한다. 다른 마을에서 여름철 삼복(三伏) 음식을 한다거나 칠석이나 백중날에 대동우물을 청소하는 등의 세시풍속이 있지만, 염전이 있었던 방산동·포동 등에서는 여름이 소금채취에 가장 바쁜 철이어서 여름철 세시풍속을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시사 5, 284쪽)고 한다.

섬이어서 갯벌 작업이나 어선활동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염전활동이 주된 생업이었지만, 마을에 풍물패와 농기가 있었고 정월대보름에는 지신밟기를 했다고 하는 증언들이 있다. 바다와 갯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오이도도 안말 중심으로 논농사가 이루어졌었고, 위와 같은 증언들이 있으니 어르신들 기억 이전에 오이도에도 두레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이도에서 사용했던 농기는 예전에 정월 오이도 도당굿을 지내기 위해 당에 올라갈 때 썼던 것으로, 당집의 처마 안쪽에 보관했다가 도당굿을 할 때 꺼내 올라갔다고 한다. 이 기는 흰색 천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고 대나무에 매달았으며, 지네발이나 꿩장목 같은 장식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에 적힌 문구가 ‘농자천하지대본’이지만, 이러한 농기의 형태는 다른 지역의 두레패가 사용하는 농기와 비교했을 때 형태나 장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난다. 두레가 사라지면서 두레에서 사용했던 농기가 원래의 기능을 잃고 도당굿의 신간(神竿)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도당굿의 신간을 만들면서 농기의 형태를 본따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오이도 도당굿에서 사용했던 이 기의 글귀는 마을의 예현규 어르신이 썼다고 한다.

해방 이후 정월대보름에 집집을 돌아다니며 고사를 지내고 축원덕담을 해 주는 일이 행해졌다. 다른 지역에서 정월에 행하는 지신밟기 또는 마당밟이이지만, 오이도에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팽과리·징·장구 등의 악기를 치며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 집집마다 쌀 한 말씩을 차려놓았고 그 앞에서 상쇠가 축원덕담을 하는 식이었다고 하니 정월 지신밟기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12일 오이도 제2 경로당에서 만난 이성분 어르신은 ‘정월에 여기도 젊은 사람들이 고깔해서 징, 팽과리 다 쳤다’면서 ‘우리 노인네가 장구를 잘 쳤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치면 쌀 나오고 돈이 나왔고’ 정월 명절 쇠고 시작해서 보름까지 했는데, 다른 동네는 안 가고 동네 안에서 나올만한 집은 가고 싫어하는 집은 안 갔으며’

‘북, 장구, 팽과리, 제금치고, 피리 불고 갔어요. 다 마을 사람이었어요.’라고 기억하고 증언하였다.

1925년생인 이성분 어르신은 17세에 오이도의 30세 신랑에게 시집을 왔으니 이 기억은 적어도 1940년대 초중반의 기억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집돌이가 언제까지 행해졌는지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오이도 토박이 어르신들의 기억과 거의 일치하는 정월 풍속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분 어르신과 함께 면담에 응해주신 김연하 어르신은 ‘상모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상수집이도 있었어요.’라고 하여 오이도 마을 풍물패가 상쇠를 비롯한 징, 장구, 북, 제금, 태평소 뿐 아니라 상모집이도 갖춘 모양새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지신밟기’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례이지만, 오이도에서는 지신밟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풍물 악기 혹은 풍물 악기 치는 것을 특별히 ‘유물’, ‘품화’라고 불렀다고 한다. 해방 이후 정월 집돌이는 도당곳에서 사용하는 기에 글귀를 썼던 예현규 어르신 집안의 예씨 어르신이 상쇠를 하고 약방을 운영하던 박용선 어르신이 태평소를 불었다. 이러한 정월대보름 집돌이는 1947년이 지나서는 행해지지 않았다고 기억하는데, 집돌이가 정기적인 의례로 치러졌다고보다는 해방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행해졌던 것이라고 증언한다.

2. 갯벌과 어업

오이도는 1920년대 간척을 통해 군자염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온전한 섬이었다. 경사면이 낮은 해저면과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경기·충청·전라의 서해안 일대는 갯벌을 생업의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오이도 역시 갯벌과 인근 연안에의 어선 활동으로 생활을 꾸려나갔던 세월이 참으로 짧지 않았다.

시화방조제 건설로 시작된 개발과 잇따르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한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바다밭 갯벌은 터무니없이 작아졌고 어선활동의 폭이 좁아졌으며, 오이도 주민들은 정왕동 주민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밭으로

서의 갯벌과 바다가 의미 있게 남아있기에 짧지 않았던 오이도의 갯벌과 어업활동을 현재적으로 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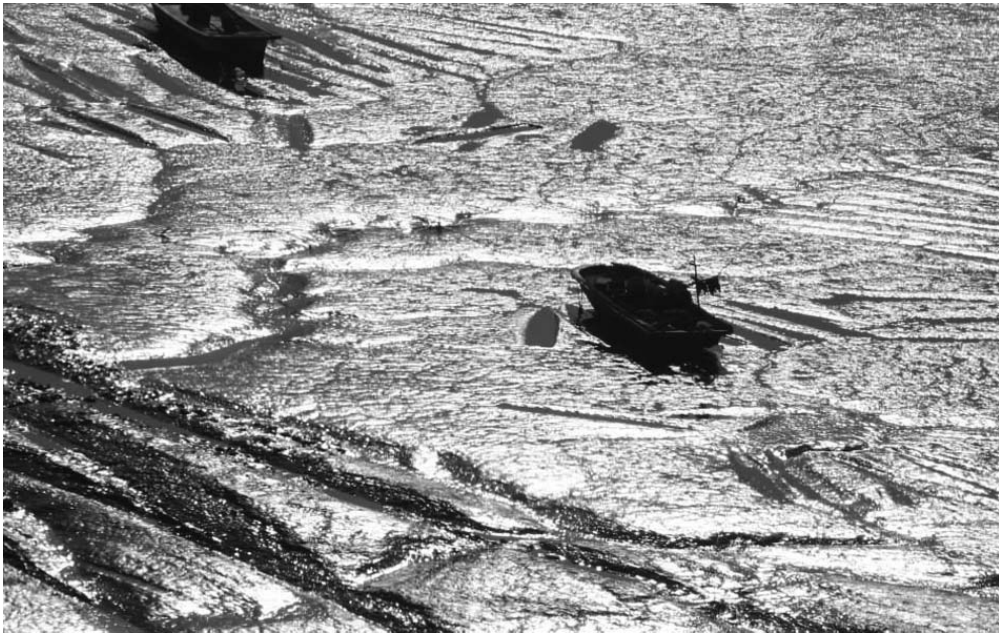
1) 갯벌과 조개 채취

(1) 갯벌에서의 채취물

경기만 일대는 지역적으로 넓고 그에 따른 갯벌의 면적도 넓어서 다양한 종류의 조개를 채취할 수 있었다. 조개 채취는 자연 서식하는 조개를 잡는 것으로, 밑천 없이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오이도 앞바다에 물이 빠지면 주민들은 조개 채취에 나선다. 쪼신을 신는다든가 양말을 신으면 그래도 나은 편이었고, 갯벌에는 맨발로 들어가기 일쑤였다. 1960년대를 전후해 고무장화가 나오면서 갯벌에 고무장화를 신고 들어갈 수 있었다.

조개를 캐는 도구로 기본적으로 손이었고, 굵은 철사로 작은 쇠스랑처럼 만든 조개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시사 6, 152쪽)





오이도 갯벌(시사 6, 172쪽)

호미로 갯벌을 긁어 조개를
쓸어 모으고, 끝이 휘어진
호미로 바위의 굴을 따고,
손잡이가 짧고 날이 길고 두
가닥으로 갈라진 낙지호미
로 갯벌 속에 숨어있는 낙지
를 끌어 올린다. 맛이 낙지



갯벌에서 동죽 잡기(시사 6, 162쪽)

보다 더 깊이 들어가 살기 때문에 낙지호미보다 가늘고 길며 중간이 둥그렇게 휘어져
있어 갯벌에 잘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오이도 앞바다에서 잡히는 조개류로는 동죽, 가무락(모시조개 종류), 빼죽이(바지락
종류), 함박조개, 맛, 피조개, 바지락, 소라, 굴 등이 있다. 맛은 둥그랗고 조그만 감맛,
기다란 가릿맛 그리고 조그만 괴밋맛 세 가지가 잡혔고, 크기가 무척 크고 껍질이 얇
고 붉으며 함지박만처럼 생긴 함박조개는 깊이 들어가 있어 다른 조개에 비해 땅을
깊이 파야 잡을 수 있다.

오이도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개류가 잡히는데 그 중 동죽과 가무락이 많이



소달구지에 종패를 싣고 양식장으로
운반하는 모습(시사 6, 198쪽)



종패를 뿌리고 막걸리를 부어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시사 6, 198쪽)



종패를 뿌린 직후의 오이도 갯벌(시사 6, 199쪽)

잡히고 수입원의 주를 이루었다. 특히 가무락은 가격이 비싸서 갯벌에 뿌린 씨조개(種貝)가 성장하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작업을 했다. 짬뽕에 많이 들어가는 동죽은 오이도에서 잡힌 것을 신선도와 맛 면에서 알아주어 노량진 같은 큰 시장에 많이 팔았다.

조개류 외에 낙지와 굴도 채취한다. 굴은 수온이 올라가면 먹을 수 없어 보통 9월 하순에서 4월 말까지 채취한다. 굴 따러 가는 걸 ‘해초 간다’고 하는데, 동력선을 타고 쌍섬(지금 대부도 가는 전망대 앞)에 가서 따기도 하고, 갯벌에 석화양식장을 만들어서

굴을 따기도 했다. 쌍섬은 말 그대로 두 개가 나란히 있어서 붙은 이름으로 큰가리기섬과 작은가리기섬이 있었는데, 작은가리기섬 자리에 방조제와 조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큰가리기섬만 남았다.

물이 빠진 갯벌을 나가면 서말바위에 갈 수 있는데, 이곳에서 굴을 따면 쌀 서말과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람은 살지 않고 황새들이 모여 앉아 바위를 싸고 있는 것 같아서 이름이 붙여진 황새바위 안쪽으로 서말바위가 있었는데, 바위가 그만큼 널찍해서 굴을 많이 딸 수 있었고, 굴 외에 낙지도 많이 잡을 수 있는 장소였다.

갯벌에서 채취하는 조개의 서식지를 육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갯벌에서 채취할 수 있는 조개는 동죽이며 조금 더 멀리 가면 뼈죽이를 잡을 수 있다. 피조개는 물이 쭉 빠진 ‘감(감물,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때의 물)’에서 잡을 수 있고, 맛살 같은 경우는 넓게 분포하지 않고 서식지가 따로 있어 부분적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조개는 빨을 갈퀴로 긁어서 캐 수 있는 반면, 맛조개는 깊이 들어가 있어 화살처럼 만든 꼬챙이나 철사를 집어넣어 캐다. 잡힌 맛살은 금방 죽기 때문에 잡힐 때 꼬챙이에 찢리면서 몸속에 들어간 빨이나 모래가 잘 해금되지 않는다. 지금은 빨을 깊이 파서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졌다.

바지락류의 뼈죽이는 사시사철 캐서 먹을 수 있지만, 여름에는 살이 연하고 풍부하

황새바위(시사 6, 71쪽), 이 바위 안쪽으로 서말바위가 있다고 한다.



여 맛이 좋은 반면 겨울에는 살이 적고 질기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가 채취의 적기이다. 그 중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는 산란기이므로 채취를 삼가야 한다. 맛은 봄부터 여름까지 채취하는데 찬바람이 불면 알을 낳기 때문에 삼가야(시사 6, 168쪽) 하는 등 조개류에 따라 채취의 적기가 다르므로, 갯벌은 사시사철 어민들에게 생산을 기쁨을 주는 텃밭이었던 셈이다. 시화방조제를 짓고 나서 6~7년은 조개 채취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6~7년 정도 지나니 채취량과 더불어 어획량도 회복되었으나, 절대적으로 갯벌이라는 바다밭의 면적이 줄어든 것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2) 갯벌 작업

1980년대에 갯벌에 조개 채취를 나가면, 소 5~6마리가 우마차 달구지로 250명의 어촌계원이 캔 조개 250자루를 하루 종일 실어 나를 정도로 조개 채취량이 많았다. 시흥 관내의 어촌계로는 웅진수협에 속한 오이도 어촌계와 월곶 어촌계가 있으며,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수산물 어획고의 비율을 보면 1,058t 중에 조개류가 612t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밖에 연체류, 어류, 갑각류의 순인 것을 보면(시사 6, 32~33쪽) 시흥 특히 오이도 갯벌에서 조개류 채취가 생업으로서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확

조개잡이 나가는 사람들, 1950년대(시사 6, 115쪽)





겨울철 갯벌에서 일하기 위해 나온 어민들(시사 6, 206쪽)

인하게 된다.

조개 채취량은 조개를 구입하는 상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령 ‘언제 어떤 조개가 얼마큼 필요하다’고 하면, 어촌계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할당을 한다. 갯벌에서 한 종류만 채취를 하면 혼잡하기도 하고 과잉채취가 될 우려도 있어서 어촌계원들을 A조, B조 두 조로 나누고 구역도 나누어 작업을 한다. 오늘 A조가 동죽을 잡고 B조가 가무락을 잡는다면, 다음날에는 A조가 가무락을 잡고 B조가 동죽을 잡는 식이었다.

상인들 주문량에 맞춰 어촌계에서 조합원들에게 그때 그때 100Kg, 50Kg, 30Kg씩 배당을 주면 조합원들은 배당받은 만큼 조개를 채취하고 어촌계에 납품을 한다. 채취한 조개를 담는 자루는 상인들이 사다 주고, 조합원들은 맡은 양만큼 조개를 캐서 자루에 이름을 써 놓으면 우마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자루를 모아 싣고 갯벌을 나간다.

어촌계는 포구에서 조개 자루를 받으면서 자루에 적힌 조합원 이름을 보고 전표를 떼어 놓는다. 조합원들의 채취량을 모두 모아 어촌계에서 상인에게 납품하고, 납품이 끝나면 조합원들은 조개를 채취한 양에 해당하는 값과 껍질을 깠 값까지 받는다. 조합원에 따라 전표를 끊은 지 열흘 만에 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가무락 같은 경우는 갯벌에 워낙 많아서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고,

할당량보다 더 많이 잡는다고 돈을 더 받을 수도 없었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잡으면 갯벌에서 우마차가 있는 곳까지 이고 나오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할당량보다 더 많이 잡을 필요는 없었다. 손이 저울보다 나아서 할당받는 무게만큼 정확한 양의 조개를 채취할 수 있었고, 불가피하게 할당량보다 많은 양을 채취하면 그만큼의 몫은 어촌계 공동기금으로 잡혔다. 1980년대 당시 동죽을 50kg 잡으면 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어민들에게 적지 않은 소득을 안겨주었다. 1980년대에는 동죽 채취량이 무척 많아서 오이도 어촌계 1년 수입이 2억 정도에 달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가무락 채취량도 많아서 채취한 가무락을 당일애 다 못 실어 나갈 정도였다. 갯벌 작업은 이와 같이 어촌계가 상인과 거래를 하는 계통판매와 더불어 어민이 상인과 직접 거래하는 비계통판매도 이루어졌다.



어촌계의 가무락 매입: 계통판매(시사 6, 200쪽)



상인과 직접 거래: 비계통판매(시사 6, 200쪽)

조개를 채취하면 우마차가 갯벌을 돌아다니며 조개 자루를 싣는데, 갯벌 어디든 우마차가 다닐 정도로 단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고 우마차가 계속 다니면서 단단해지는 길이 생기는데, 조개 자루를 싣기 위해 우마차는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마차로 실어 나른 조개류는 수인선 협궤열차를 이용하여 도시로 운반되어 판로를 찾았다.

대합(상합)은 조개 중에서도 고급 조개에 속해서 갯벌 채취를 하러 다니다가 대합을 잡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몇 년 자란 대합은 손바닥만 할 정도로 컸고, 가격이 좋아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갯벌에서 채취한 조개를
소달구지로 운반하는 모
습(시사 6, 216쪽)



소래포구와 시흥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수인선(시사 6, 142쪽)



2) 건강망과 살막

오이도 안말에는 약 250여 호가 살았다. 그 중 200여 가구는 어업과 농업을 겸했고 나머지 염전에 종사하는 가구가 50가구 정도였다. 염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오이도 뿐 아니라 군자역전, 본동, 죽울동, 정왕 1동과 2동 등에도 많이 거주하였다.

오이도에서 어업활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선활동과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 그물을 쳐서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썰물 때 그물에 가두어 잡는 건강망 활동이 그것이다. 어선활동으로 잡는 것은 주로 대하, 꽃게이며 전어를 비롯한 다양한 고기들은 대부분 건강망으로 잡았다. 배를 탄다고 해도 동력선을 타고 바다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동력선을 타고 노를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잡아오는 정도여서 오이도의 어업은 건강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 건강망의 종류와 설치: 봄 그물과 가을 그물

건강망은 전통적으로는 수숫대나 싸리나무, 땃가지 등을 촘촘하게 엮은 ‘살’을 울타리처럼 바다에 치는 어살의 변형된 형태이다. 어살의 분포는 충청도, 황해도, 경기도 및 전라도 서해안 등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곳에 몰려 있었다. 시흥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이 외에도 수심이 얕고 만이 잘 발달되어 있어 설치가 용이하여 당연히 어살이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사 6, 189쪽)

지금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이 활동하던 1970~1980년대에는 전통적인 어살이 아니라, 긴 나무를 바다 바닥에 말뚝처럼 박고 그 말뚝에 그물을 매는 건강망(健干網)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오이도 박갑록(1918년생)의 경우 싸리나무로 만든 살(簾)로 청어도 많이 잡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극히 전통적이고 소박한 싸리나무살은 사라지고 본격적인 건강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건강망 역시 조간대 갯벌에 말장을 박고 물때에 따라 고기를 잡는다는 기본 구조는 살과 동일한 어법이다. 다만 일제가 들어오면서 어구·어법이 변화하였고 수산업을 통제하고 운영상 법제화시키면서 건강망이란 이름을 얻었을 뿐이니, 건강망은 전래의 살에서 진화된 ‘개량 어살’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박갑록이 12~13세가 될 무렵인 1930년대 초반까지 오이도에서는

싸리나무로 발을 만들어 고기를 잡던 ‘어살’ 어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조선후기의 전통적인 정치어구가 이어지고 있던 셈이다. 그러다가 1930~1940년대에는 건강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시사 6, 226쪽, 227쪽)

안말 250여 가구 중 건강망은 9가구만 운영을 했다. 건강망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논이나 밭과 같이 큰 재산이어서 재력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다. 건강망을 운영하지 않는 집에서는 품을 파는데, 일정 기간 건강망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을 ‘그물 동사’라고 한다. 어살을 사용했을 때 어살을 운영하는 사람을 살주(箭主)라고 했던 반면, 건강망을 운영하는 사람은 망주(網主)라고 했으며, 배에 고용된 ‘뱃동사’에 대응하는 표현인 ‘그물동사’는 건강망을 설치하는 일과 그물에 걸린 고기를 털어 지고 오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오이도 안말에서 건강망은 오이도를 바라보고 오른쪽부터 박용문, 이진성, 정영, 최선봉, 김계창(김영웅부친), 박갑록, 박봉길, 박용현, 박오득 9가구에서 소유·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중간에 다른 집의 건강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망을 운영하는 가구 중 박씨가 많은 이유는, 오이도에 밀양박씨가 세거한 지 300여 년 되면서 일정한 재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건강망 어장 하나를 한바탕이라고 하는데, 오이도에는 위와 같이 모두 아홉 바탕의 건강망이 운영되었던 것이다. 건강망 한바탕에 그물이 많게는 열다섯 틀이 들어가는 데 하나의 길이가 300m에서 800m로 다양하다. 한 바탕에 그물을 제일 크게 집어넣는 것이 열다섯 틀인데 그 길이가 1,000m 외에 250m, 300m, 400m, 450m, 500m, 600m, 800m짜리도 있었다(시사 6, 232쪽)고 하는 예전의 조사와 비교할 때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건강망은 봄에 매는 그물과 가을에 매는 그물로 구분된다. 봄에 매는 그물은 음력 정월 15일부터 5월 5일 단오까지 4개월 정도 매는 그물로, 이 시기에 물고기들이 산란을 하러 올라왔다가 단오가 지나면 해수 온도가 올라가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업을 중단한다. 단오에 그물을 걷어내고 음력 7월에 다시 그물을 맨다. 가을에 매는 그물은 음력 7월 보름에서 10월 초 정도까지 3개월이 남짓 사용하고 걷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날이 추워서 물고기도 줄어들어 조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봄에 그물을 매면 정월달에는 주로 숭어가 많이 잡히고, 3월 즈음 때에는 대하·꽃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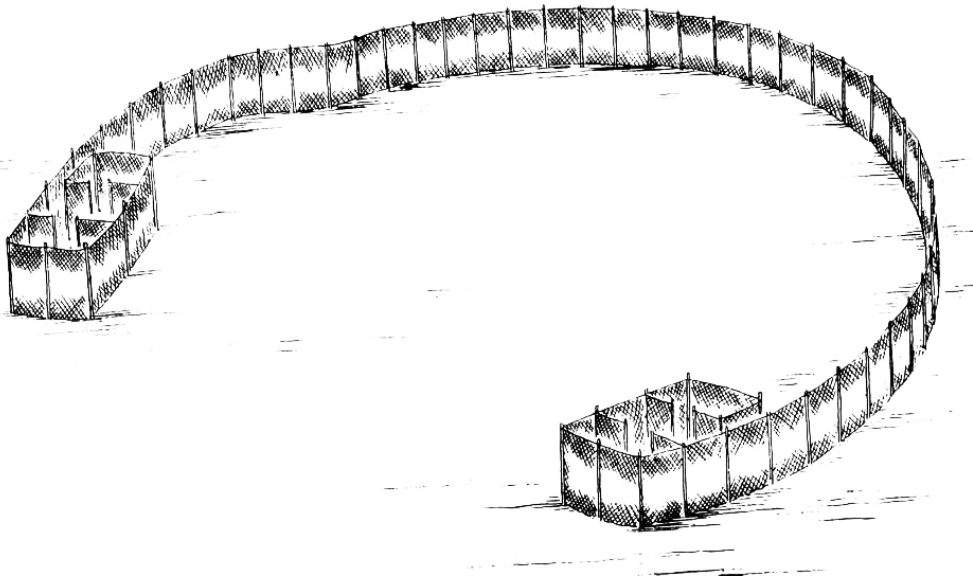
·전어·농어·민어·갑오징어·붕대이새우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 가을 그물에는 게·망둥어·새우를 비롯해서 작은 어종의 잡어들이 잡힌다. 건강망에 잡히는 어종 중에 대하가 가장 가치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대하는 부피가 작으면서도 서울과 같은 도시에서 가장 선호하여 가격이 꽤 비싸게 매겨졌기 때문이다. 건강망 작업을 농사에 비유하자면, 봄 그물을 맨 4개월의 수확으로 한 해 농사의 풍흉을 가를 정도로 가을 그물에 비해 봄 그물의 어획량이 많다. 그래서 봄 그물을 큰 그물이라고도 했다.

1978년의 경우, 시흥에서는 해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의 어군이 이동하는 도로에 말장을 박고 그물을 설치하여 하루에 두 번 물을 보고 있었다. 3월 입춘 전후에 설치하여 4월이나 5월에 성어기가 되고, 8월이 되면 거두어들였다. 이후 9월경에 다시 설치하였다가 11월에는 완전히 철수하였다. 당시에 잡히는 어종은 새우가 가장 많고, 이 외에 전어·꽃게·숭어·망둥이·민어·농어 등이 있는데 연간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시사 6, 191쪽)는 예전 조사 내용과 비교해 보면 봄 그물과 겨울 그물로 건강망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어종을 잡은 것이 1970년대에서 성행했고, 적어도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망은 기본적으로 말뚝처럼 생긴 말장(말짱)과 그물로 설치한다. 말장은 굵기 30cm 정도의 참나무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가까운 수암면(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이나 강원도·충청도 지역에서 구해 와야 했다. 참나무를 쓰는 이유는, 구하기 쉬운 소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등은 바닷물에 박아 놓으면 물에 떠서 빠져나가는데, 참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물에 잘 뜨지 않고 단단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30cm 정도 굵기의 참나무를 8m에서 12m 높이로 잘라 만든 말장을 바다에 10m 간격으로 박아 놓는다. 말장은 육지 쪽을 향해서 둥그렇게 벌려 세우는데, 그래야 썰물 때 나가는 물을 받아서 고기를 걸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박은 말장에 그물을 두르면 건강망이 만들어진다. 건강망 초기에는 면사그물을 사용했는데 면사그물은 바닷물에 잘 썩어 오래 사용하지 못해서 갈나무 껍질을 끓인 물을 들여서 사용하곤 했다. 면그물에 갈물을 들이면 그물이 썩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면그물은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나일론그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물에 대한 부담은 훨씬 적어졌다.

봄에 매는 그물 한 틀은 400m에서 800m정도, 가을에 매는 그물 한 틀은 200m에서



건강망을 친 모습(시사 6, 190쪽)

300m정도로 계절에 따라 필요한 그물의 크기와 말장의 수가 달라진다. 말장은 한 번 구입하면 3년 정도 쓸 수 있지만, 봄에 사용한 그물을 걷으면서 말장 역시 뽑아내야 한다. 말장에 따개비처럼 달라붙은 ‘적’(또는 구적)이 매달려 말장이 바닷물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장을 뽑아내서 물 밖에서 말리면 이 구적이 다 죽는데 그 후에 단단하게 달라붙은 적을 낫이나 호미로 긁어낸 다음 말장을 보관했다가 다시 가을 그물을 댈 때 사용한다.

2017년보다 10여 년 앞선 조사 내용과(시사 6, 191쪽) 2017년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건강망 설치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말뚝을 일정한 간격(약 4m)으로 박고 그 사이 사이에 그물을 두른다’고 하여 말장의 간격에서 차이가 보이며, ‘그물 20발 40m의 길이를 ‘1떼’라고 하며 대개 20떼 400발 800m 정도의 길이로 건강망을 치는데’라고 하여 건강망 한 바탕에 800m 정도 길이 ‘한 틀’ 또는 ‘1떼’의 그물이 20여개 설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물은 옷베리, 아랫베리에 의해 지탱되며 그물 자체는 덧망이 안팎(안덧망, 바깥덧망)으로 되어 있어 고기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물에서는 ‘베리’가 제일이라는 속설도 나오고 있다’고 하여, 건강망의 구조와 함께 ‘곱장’이라고 하는 봄에 매는 건강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봄에 매는 그물은 큰 그물이라고도 하는데, 처음 그물을 매는 정월에는 앞쪽 바다에 8m 짜리 말장을 박아서 그물을 치고, 2월 초에는 그 뒤쪽으로 12m 짜리 말장을 박아서 그물을 친다. 앞쪽 바다에는 전어가 걸리기 알맞은 그물눈의 ‘칠절 그물’을 치고, 뒤쪽 바다에는 전어보다 작은 고기가 걸리도록 더 작은 그물눈의 ‘십이절 그물’을 친다. 이렇게 이중으로 그물을 치는 것을 곱장이라고 한다. 봄에 이렇게 이중으로 그물을 매는 곱장을 치는 반면 가을 그물은 8m 짜리 말장만 박아서 그물을 치는 것으로 끝난다. 8m 높이의 말장은 꽤 높은 편인데, 이 말장의 높이가 예전에는 4~5m 정도였다가 점점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물 높이가 차츰 높아져 1.5m 정도의 낮은 건강망으로도 많은 고기를 잡다가 자원이 줄어들면서 4~5m 높이까지 높아져 갔다(시사 6, 237쪽)는 조사 내용을 참고하면, 더 오래전 건강망그물은 높이가 훨씬 낮았으며 더 많은 어획을 위해 또는 어종의 고갈로 건강망 그물의 높이가 높아졌고 더불어 그물을 매기 위한 말장의 높이도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건강망 작업

건강망 작업은 건강망을 설치하고 물때를 기다려 건강망에 걸린 물고기를 거둬들이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물이 두 번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물이 나가면 어김없이 건강망에 걸린 고기를 거두러 가야 한다.

봄 건강망을 설치하면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이 전어이다. 주로 5월에 잡히는 전어는 500m 정도 되는 그물 폭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많이 걸렸다. 전어가 그렇게 많이 잡혔어도 판로가 많지 않아서 팔 수 있을 만큼만 실어오고 나머지는 버리고 와야 했다. 그 외에도 그물 아래쪽으로 꽃게, 농어, 민어, 숭어, 뱀뱀이, 망둥어 등이 걸렸다.

‘전어 판다’고 표현하는 전어를 거둬들이는 작업은, 초저녁에 시작되면 날이 셀 때가 되어야 마무리가 된다. 칠절 그물에 걸린 전어는 그물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되면 도리어 그물에 전어가 더 깊숙이 끼게 된다. 8m 높이의 말장에 걸린 그물을 흔들어 그물에 끼인 전어를 빼내는 작업은, 추운 겨울밤에 장갑도 없이 그물을 잡고 흔들다가 치다가를 반복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건강망(시사 6, 162쪽)

전어에 얼굴을 맞아 상처가 나기도 십상이었다. 갯바닥에 떨어진 전어는 개흙이 잔뜩 묻어 있어서 개골창에 흔들어 씻어 담아야 했다. 그물에서 떨어진 전어는 지게에 실어나르다가 마차로 나르고 나중에는 리어카에 실어 날랐다.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면, 하루에 다 실어 나오지 못 하고 갯벌을 파서 묻어놔다가 다음날 꺼내 오기도 했다. 빠졌던 물이 다시 들어와도 갯벌에 묻은 물고기들이 떠내려가는 일은 없었다.

정월 보름에 설치한 그물은 봄바람이 불면 말장도 쓰러지고 그물도 끊어지기 다반사였다. 쓰러진 말장을 다시 박고 그 꼭대기에 그물을 다시 매야 하는데, 말장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물을 늘어지지 않게 팽팽하게 매는 일도 무척 힘이 드는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면사 그물이 나일론 그물로 바뀌어 조금 가벼운 그물로 작업을 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건강망으로 잡힌 물고기나 게, 대하 등의 수산물은 처음에는 어민이 개인적으로 상인에게 팔았다. 봄 건강망을 치기 전에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어민들에게 일종의 예약을 하고 먼저 약간의 돈을 맡겨 놓는다. 건강망을 설치할 그물을 사거나 하는 준비를 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다가 차츰 어촌계에 위탁판매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어살, 즉 건강망어법은 오이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어법으로 근자에까지 이어졌

으며, 이는 내만(內灣) 어업시대의 유산으로 여겨진다. 내만어업은 조간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어법으로 갯벌 간척 등으로 조간대 파괴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시사 6, 162쪽)한 것과 같이 오이도의 건강망 어업 역시 사회방조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3) 살막과 살막고사

예전에 오이도는 250여 세대가 살았는데 모두 열 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졌었다. 고주리, 신포동, 골말, 가운데살막, 안말, 언덕밑, 작은소라폴(소래벌), 큰소라폴(소래벌), 배다리, 칠호가 그것이다. 오이도 안말을 벗어나 건강망을 설치한 갯가 주변을 세 개로 나누어 부르기도 했다. 오이도 오른쪽 두 개의 건강망이 있는 곳을 뒷살막, 가운데 세 개의 건강망이 있는 곳을 가운데살막, 왼쪽 네 개의 건강망이 있는 곳을 아랫살막이라고 했는데, 가운데 살막에서 고기가 가장 많이 잡혔다고 한다.

지금은 정왕동이 된 오이도의 옛 지명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시사 6, 69~70쪽) 가운데살막은 오이도 큰말(안말)의 서남간에 위치하며 오이도에서 어업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고주리는 신포동 동쪽에 있던 마을로 배의 닻줄을 높이 놓은 곳이라 하여 배가 정박하고 있다는 뜻이며, 1988년 폐동되었다. 신포동은 가운데살막 남동쪽이며 큰말 아래라고 하여 아래살막이라 불렀는데,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연백, 웅진 등지의 난민들이 이곳에 새로 집터를 잡고 어업을 시작하자 새로 생긴 포구라 하여 신포라고 개칭되었다. 소래벌은 일제 강점기 간척사업이 끝나고 생긴 마을로 인근의 소래염전을 따서 소래벌이라 불렀다. 큰말은 오이도에서 가장 큰 마을로 봉수가 설치되었던 산봉에서 마을의 도당제를 지냈으며, 안말 또는 안동네라고 칭했다.

살막은 망주들이 바닷가에 세운 일종의 움막이다. 갯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땅을 파고 그 흙을 양쪽으로 돋우어 놓고, 말뚝(주로 8m 자리 말장을 사용한다고 한다)을 박은 다음 그 위에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얹어 만든 움막을 살막이라고 한다. 어살 작업을 하던 시기에 붙은 ‘살막’이 건강망으로 바뀐 후에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살막은 건강망이나 갯벌 작업을 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할 수 있다. 마치 농촌의 오두막처럼 일터와 가까운 곳에 세운, 작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오이도 살막(시흥 100년 2, 160쪽)

공간인 썸이다. 가령 물때보다 바다에 먼저 나왔든지 작업을 하다가 물이 들어와서 물때를 다시 기다려야 할 때 살막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바다에 들어간다. 추위를 피하거나 간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살막을 이용한다.

갯가 주변을 뒷살막, 가운데살막, 아랫살막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이도 갯가에는 살막이 세 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살막이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갯벌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일종의 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살막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곳으로 가면 갯벌에 빠지기 십상이다. 정월에 건강망을 새로 설치할 때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끼는 등 날씨가 껏을 때 살막을 통해 나가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 소나무 등을 꽂아서 길을 표시해 두기도 하였다.

살막 사람들은 안말의 도일장(지금의 시화장)을 가려면 고개를 넘어서 가야 했고, 차가 다니게 되었어도 고개를 넘어야 차를 탈 수 있어서 장에 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논과 밭이 있는 안말과 달리 가게 하나 없이 갯가에 자리 잡은 살막 사람들은 쌀을 사기 위해서도, 김치거리를 사기 위해서도, 호미나 팽이 같은 것 하나를 마련하기 위

해 대장간을 가기 위해서도 늘 안말의 장에 다녀야 했다.

정월 대보름에 봄 그물(큰 그물)을 매고 나서 살막에서 간단한 고사를 지내는 것을 살막고사라고 한다. 사과, 배 등의 과일과 북어포 그리고 시루떡, 송어찜 등을 올려놓고 용왕님께 절을 올리는 단순한 형태이다.

건강망 그물은 서멧날¹⁾(음력 13일)에 맨다. 조금 때에는 물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서메부터는 다시 물이 불어난다. 어민들은 ‘물이 살아난다’는 의미로 서메를 ‘산짐’이라 부르기도한다.(시사 6, 152쪽) 서멧날 물이 다 빠지면 말장과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매고 나서 고사를 지내기 때문에 ‘서멧고사’라고도 부른다. 보통 첫 그물을 땔 때 고사를 지내고, 정성이 지극한 사람은 물이 많이 들어왔다 빠지는 사리 때(음력 보름과 그믐) 다시 한 번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고사를 지내는 곳은 살막 근처의 나무이다. 살막 근처의 나무를 하나 정해서 짚으로 만든 터주가리를 나무에 잡아 묶고 그 나무를 용왕님 삼아 고사를 지낸다. 기원의 내용은 차린 음식 잘 잡숫고 그물에 고기 많이 잡히게 해 달라는 것이 다이다. 예전 조사 내용을 통해 살막고사에 대해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살막고사가 사라진 것도 따지고 보면 시화공단 생기고 인제 바다가 전부 다 수렴되고 고기 못 잡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살막은 일찍 사라졌어도 그 자리에다 가서(고사를) 지냈지.’(정왕동 강인구 구술) - 시사 6, 98쪽

‘서멧날 되면은, 고사 지내느라고... 서메가 물이 사는 거야. 서멧 날이 처음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 처음 잡을 때야... 봄엔 그렇게 하고, 가을 그물 같은 건 안 해. 그물이 쪼끄맏거든. 소나무에다 이렇게 해서 터주가리라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서 짚으로 엮어서 소나무에다 이렇게 매 놓거든.’(정왕동 김승범 구술) - 시사 6, 99쪽

1) 오이도의 물때 이름은 음력 8일이 조금, 9일이 무시, 10일은 한메, 12일은 두메, 13일은 서메라고 한다. 오이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역의 물때에 대해 다음 내용을 참고하였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물때 이름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서해안 지역의 물때도 각 지역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물때 이름은 같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물때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낱짜는 음력이다. 음력 1일은 일곱메, 2일은 여덟메, 3일은 아홉메, 4일은 열메, 5일은 열한메(한꺼기), 6일은 두꺼기, 7일은 세꺼기, 8일은 네꺼기(무시), 9일은 무시조금, 10일은 한메, 11일은 두메, 12일은 서메, 13일은 너메, 14일은 다섯메, 15일은 여섯메이다.’(화성시향토 문화연구 <http://cafe.daum.net/hsculture>)

오이도에 건강망은 모두 9개였고 살막은 뒷살막, 가운데살막, 아랫살막이 있었다. 뒷살막은 오른쪽 두 개의 건강망, 가운데살막은 세 개의 건강망, 아랫살막은 네 개의 건강망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다. 살막마다 고사를 지내기 위한 터주가리를 묶은 나무가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있었으니, 건강망을 가진 망주들이 거의 하나씩의 고사 나무(터주가리 나무)를 가지고 있던 셈이다.

‘사라진 거? 이 시화공단 생기면서 전부 사라진 거지. 저기 아랫살막 주민들이 이주를 했으니까. 이게 80 한 4~5년에 전부 사라진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안산시 선부동으로 전부 이주시켰죠. 일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산으로. 아랫살막이 일차적으로 매립이 됐으니까.’(정왕동 강인구 구술)

- 시사 6, 100쪽

오이도 인근의 개발로 아랫살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살막은 1997년~1998년에 최종적으로 없어졌다. 살막이 사라졌어도 한동안은 어업을 위해 살막고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간척사업과 개발로 인해 건강망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다.

3) 어선활동

오이도의 어선활동은 건강망과 함께 오이도의 주요한 어업이었다. 갯벌이 파괴되면서 오이도 사람들도 더 이상 어살어업에만 전념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평균 2t 정도의 작은 발동선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시화지구 완공으로 갯벌이 급격히 변화한 직후인 1993년의 경우, 건강망류는 전부 사라지고 유자망, 연승, 낭장망만이 남았음을(시사 6, 186쪽) 알 수 있다.

오이도 어선활동은 크게 유자망과 중방그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장망은 흘림그물이라고도 하는데, 오이도나 소래·월곶포구 일원에 정박한 자그마한 배에 걸린 그물들이 대개 유자망이다. 그물 윗부분에 부포를 달아 부포가 둥둥 뜨고 그물 아랫부분에는 납봉을 달아 밑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다. 위로 뜨고자 하는 힘과 아래로 가라앉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그물은 서 있는 상태가 되고, 고기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물에 걸려



오이도 어민의 고기잡이(시사 6, 30쪽)

들어 잡히게 된다. 오이도에서는 유자망을 ‘자망’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동해안에서 쓰는 거대한 자망과는 다른 것이다. 1976년의 경우, 오이도에서는 직사각형의 그물을 이용하여 위에 옷기를 띄우고 아래는 쇠줄을 달아 조수를 받았다. 그물은 저녁 해질 무렵 물이 나갈 때 쳐 놓았다가 이튿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거두는데 주로 게와 새우를 잡았다. 정왕리에서는 1976년에 게만으로도 일 년에 약 300만 원의 수입을 거두는 등(시사 6, 193쪽) 자망으로 인한 수입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어구 중에 중방그물이 있다. 건강망이 조간대의 드넓은 개활지에 길게 설치하여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한 물의 운동을 이용한다면, 중방그물은 골을 흘러내리는 물의 운동을 이용한 일종의 개막이다. 중방그물도 시화호 간척사업 때 같이 사라졌다고 한다.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방사업을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수렴해서 보상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시사 6, 244쪽, 247쪽) 허가가 취소되고 나서도 한동안 중방그물을 매어 두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4) 오이도의 특산 음식

갯벌 채취를 하고 건강망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조개류와 어류를 이용한 음식을 늘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외 모든 오이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일종의 특산물을 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오이도에서 나는 갖가지 조개와 다양한 물고기들은 오이도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만들어 냈다.

감칠맛을 내는 조개들: 빼죽이, 가무락

미원 같은 조미료가 없었을 때에는 국에 바지락류의 빼죽이 몇 개만 넣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맛이 좋았다. 빼죽이는 맛이 아려서 날로 먹기는 어려운데 특히 김치국에 넣어 끓이면 아주 맛이 좋아서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았고, 떡국을 끓이는 데 최고의 감칠맛을 냈다. 조개류는 다 맛이 좋은데 빼죽이와 가무락은 특히 국물 맛을 내는데 아주 좋았다. 빼죽이는 납작하고 까만 조개이고 가무락은 까맣고 반들반들하게 생긴 모시조개류이다. 빼죽이나 동죽 같은 조개를 김치를 담글 때 넣지는 않았다.

회: 밴댕이회, 전어회, 동죽 회무침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오이도에서 밴댕이가 많이 잡혔다. 건강망에 걸린 밴댕이 크기가 남자 어른 손바닥만하게 크고 맛이 무척 고소했다. 강화도에서는 밴댕이를 회무침으로 먹었지만, 오이도에서는 주로 회로 먹었다. 무쇠로 만든 시커먼 부엌칼을 항아리에 덕덕 갈아서 밴댕이를 회로 쳐서 고추장에 찍어 먹었던 기억이 추억으로만 남아 있고, 이제 오이도에서 밴댕이는 좀처럼 잡히지 않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밴댕이 대신 전어가 많이 잡혔다. 처음에는 잡힌 전어를 지게로 저 나르다가 어획량이 급증해서 나중에는 소가 끄는 달구지에 실어올 정도였다. 어획량은 많았지만 전어는 값이 싸고 손질하는 데 손이 많이 가서, 전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품값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전어는 회로 먹거나 구워 먹었다.

민어나 송어 같은 생선은 회를 떠서 초고추장에 찍어먹는데, 특히 뱃일 하는 사람들의 소주 안주로 애용되었다. 싱싱하고 맛있는 회 덕분에인지 ‘뱃일하는 사람들이 소주 힘이 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동죽을 생으로 까 놓고, 시큼하게 익은 김치를 잘게 썰어 꼭 짜서 넣은 다음 마늘, 식초, 설탕, 참기름, 고춧가루 등과 함께 무치면 맛있는 동죽회무침이 된다. 새콤달콤한 동죽회무침은 찬바람이 있을 때 먹을 수 있으므로, 여름을 제외한 봄·가을·겨울에 일품인 음식으로 먹었다. 시흥 과림동이 집이었던 故 제정구 국회의원이 별세하고 상을 치른 후 삼우제를 지낼 때, 다른 음식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큰 들통 두 개에 담근 동죽회무침이 가장 빨리 동이 났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젓갈: 순정파리젓, 빠리젓, 뽕대이젓

다양한 수산물이 풍부하게 잡히는 만큼 오이도에서는 수산물을 이용한 젓갈을 담가 먹는다. 순정파리젓, 빠리젓, 뽕대이젓 등을 담근다. 순정파리는 전어 비슷하게 생겨서 등이 푸르스름하고 납작하고 작은 물고기이다. 순정파리로 젓갈을 담그면 기름 없이 담백하고 국물이 달짝지근하다. 이 순정파리 젓갈은 주로 김장할 때 넣고, 밥에 찌 먹어도 맛있었다. 빠리는 7cm~10cm 정도 되는 물고기로 기름기 많아서 젓갈을 담그면 김치에 넣기보다는 잘게 썰어서 무쳐 먹었다. 오이도에서 새우젓은 담그지 않았다고 한다.

이 외에 오이도에서는 한철 음식이지만 꽃게탕도 즐겨 먹었고, 굴은 싱싱할 때 조금씩 생질이 해서 입맛을 돋우는 반찬으로 좋았다고 한다.

3. 군자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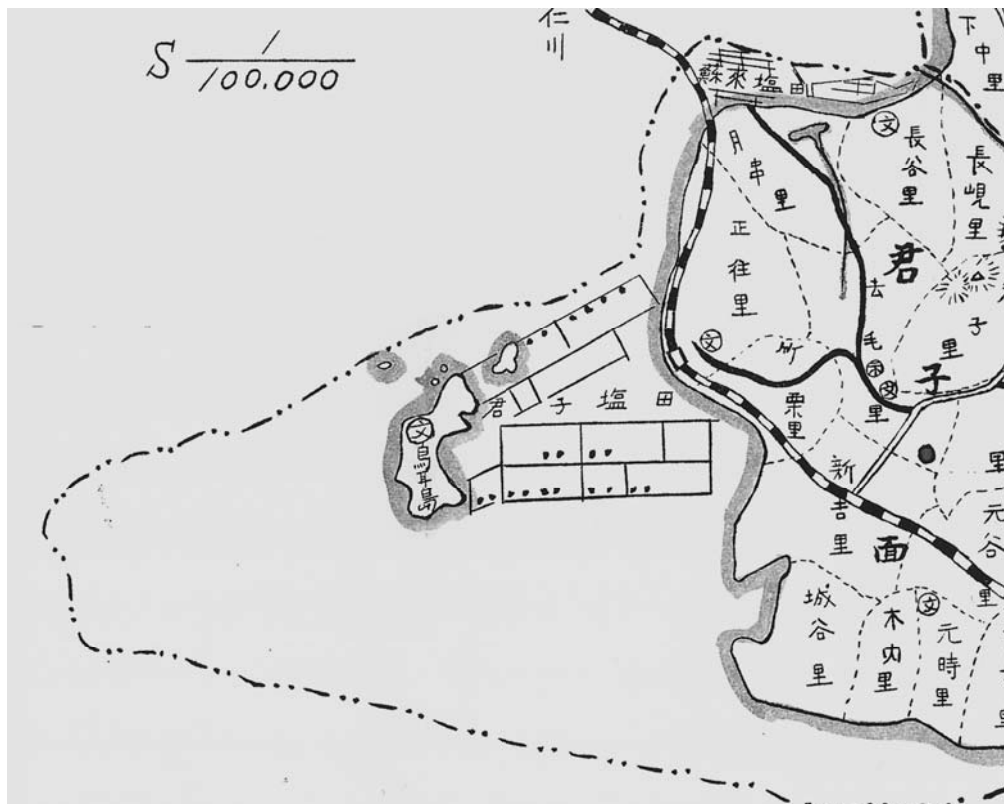
오이도가 온전한 섬에서 육지와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군자염전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였다. 염전이 생기면서 오이도에는 염부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주민들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었고, 염전을 조성하고 염전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과 한반도 북쪽과 남쪽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다. 그에 따라 이주민들이 정착한 마을들이 생겨나고 염전 관사들이 지어졌다. 농사와 어선 그리고 갯벌 작업으로

살아가던 오이도에 이렇듯 큰 변화를 일으킨 염전의 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에 대해 정리해 본다.

1) 염전의 개발

시흥에는 일제강점기에 군자염전과 소래염전이 개발되었다. 군자염전은 1920년대 초반에, 소래염전은 1930년대에 조성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군자염전, 소래염전, 남동염전, 주안염전, 서산염전 등 인천과 시흥의 바다를 이용한 염전들이 있었고, 그 중 군자염전이 바닷물이 육지 가까이 깊숙이 들어가서 가장 큰 염전으로 알려졌다. 오이도 일대 주민들은 일제가 이 지역에 염전을 많이 개발한 것이 비가 가장 적게 오는

1962년 시흥군 관내도 일부(시흥 100년 2, 22쪽), 오이도와 정왕리 사이에 염전이 조성되어 있다.



지역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오이도에 염전이 생긴 것은 주민들의 생각과 같이 강수량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염전개발에 적합한 조건들이 충족되었다.

경기만 일대에 이렇게 염전이 대폭적으로 개발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기만 일대는 갯벌의 경사도가 1/1,000 정도로 매우 평탄하므로 염전을 만들기에 유리하다. 서해안의 조차는 세계적이다. 평균조차는 5.84m, 가장 낮은 수위일 때 -1.02m로 그 차는 6.86m나 된다. 그러므로 대조(大潮) 때에는 필요한 바닷물을 공급받아 수분을 충분히 증발시켜 농도가 짙은 함수(鹹水)를 얻을 때까지 바닷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 경기만 일대는 북동·남서 방향의 산맥이 뻗어 나와 해안선의 형태가 매우 복잡하다. 경기만으로 유입하는 하천의 하구는 나팔모양으로 바다를 향해 벌려져 있고, 만 안쪽에는 많은 섬들이 산재한다. 그러므로 만의 입구를 막거나 섬을 연결하면 염전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시사 6, 16쪽)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조성된 오이도와 육지 사이의 군자염전과 1937년에 조성된 소래염전은 인천의 남동염전과 함께 남한 제일의 염전지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서해안에 이렇게 염전이 많아서인지 시흥과 오이도 주민들은 전라도의 신안염전은 알지도 못했다. 군자염전은 현재의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4동, 정왕역, 오이도역 일대에 603정보(약 5,980,165m²)의 넓이로 형성되었다.

시흥에서 염전의 등장이 갖는 의미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상정된다.

첫째, 천일염전의 축조는 근대적 공간과 직선적 경관의 창출을 의미하였다. 곡선의 미학으로 이루어진 어촌의 풍경 안에 바둑판처럼 가로지르는 염전경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천일염전의 가운데테를 가로지르는 신작로 그리고 물을 끌어들이고 증발지, 결정지 등에 공급하는 질서 정연한 배수로 등은 직선 그대로였다. 20세기 전반기에 이들 염전을 받아들이는 시흥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신기하고, 또한 경이로운 것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사실 갯벌이 염전으로 바뀐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누대로 조개 채취, 낙지잡이, 어살 등으로 꾸려온 천혜의 어장을 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또한 염전은 1차 산업이기는 하지만 영농, 어로와는 달랐다. 소금 생산을 매개로 한 집단적 노동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소래염전, 군자염전의 운영은 지주적 경영이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경영주체로서 직접 관장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직선적 경관을 연출하는 군자염전(시사 6, 45쪽)

전매청을 통한 국가적 경영에 놓여 있었다. 한적한 어촌마을에 국가적 경영단위가 도입되고 직선의 공간 속에 마을 사람들이 염부로 편입되어 간 것은 분명한 변화였다. 즉 시흥 사람들은 자연적인 해안으로부터 근대적 염업공간의 창출, 염업공간의 도시적 경관으로의 변화라는 변화 축을 지난 100여 년간 밟아 왔다. 이에 따라 이들 공간에서 살아온 민중들의 삶도 ‘어민 → 염전노동자 → 도시민’이라는 변모를 겪고 있다. 물론 이같은 발전경로와 무관하게 어업이나 농업에만 종사한 이들도 있으나, 시흥지역의 민중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위의 발전경로를 밟아 왔다.

둘째, 염전의 축조과정에서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인 기술자, 노무자들까지 들어오는 국제적 관계가 시흥해역에서 설정되었다. 염전을 건설하기 위하여 중국인 노동자가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염전 노동자로 취업하게 된 이들이 몰려오면서 평안도촌, 신촌 등의 특수 마을 집단이 형성되었다. 염전의 건설은 초기부터 막대한 노동자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순전히 염부로 활동하는 인구의 이입을 불러 왔다. 염전이 운영되어 나가면서 충청도, 전라도를 위시한 남도지방에서도 인력



군자염전, 1977년(오이도 어촌계)

이 들어왔으며, 염전기술자들이 평안도에서도 들어왔다. 국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새로운 인구동이 일어났다. 단순한 어촌인구 구성에서 복잡다단한 구성으로 넘어가고 있었으니 여느 한적한 어촌과 다른 것이다.(시사 6, 45~47쪽)



수인선 협궤열차(시흥 100년 4)

위의 사진은 1977년 군자염전과 소금을 실어나르는 가시령차의 모습이다. 300구 9호에서 소금을 운송하는 것이며 오른쪽의 독은 ‘테부독’이라 불렀는데,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하여 약 25리나 되는 바다를 독으로 막아서 군자염전을 만든 것이다. 바다 쪽의 석축은 일정한 크기의 돌로 쌓아 만들었는데, 몇 십년이 지나도 하자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기술을 볼 수 있다.

인천과 시흥 등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운반하기 위해 놓여진 열차가 바로

수원~인천간 수인선 협궤열차였다. 협궤열차는 7~8량의 작은 기차로, 소금을 수원이 나 아래 지방으로 운송하기 위한 용도였지만 사람이 타는 기차칸도 있었다. 화물차를 사용하게 되면서 협궤열차를 이용하지 않게 되자 동차 2~3량 정도만 운행하기도 하다가 염전이 없어지면서 1990년대에 운행이 중단되었다. 오이도에서는 1시간을 걸어가야 군자역에 가서 협궤열차를 탈 수 있었다.

2) 염전개발에 따른 마을 형성

군자염전이 조성되면서 중요한 것은 염전 조성에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남한보다 일찍 염전 축조가 시작된 평안도에서 염전기술을 쌓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남하하여 평안촌을 꾸렸다. 평안촌은 군자역 주변의 마을로 1922년 군자염전 축조사업을 할 때 평안도 용강 등지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와서 취락을 형성하였으며 일명 ‘피양촌’이라 불렸다. 군자역 서북쪽 지역은 웃평안촌, 군자역 북쪽지역은 아랫평안촌이라 각각 불렸다.(시사 6, 49쪽)

염전이 개발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현재의 옥구공원 아래에 사택을 짓고 살았다. 사택에는 염전을 관리하는 일본인 관리, 염전 일을 하는 조선인들도 살았다. 옥구도에

평양촌, 1980년대(시사 6, 49쪽)





염전이 펼쳐진 옥구도(시사 6, 69쪽)



옥구도의 염전사택, 일제시기부터 군자염전이 매립될 때까지 염전노동자들이 살았으나
염전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시사 6, 320쪽)

는 염전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뱃일을 하는 사람들도 살았는데, 염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인이 지은 염전에서 살 수 있었고,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을 따로 지어서 살아야 했다. 옥구공원 중심지에 있던 샘물(생금우물)은 옛날부터 폐병 걸린 사람들이 먹고 나올 정도로 효험이 좋아 병 걸린 사람들이 휴양차 머물기도 했었다. 일제



군자염전 축조 때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형성된 정왕동 오동나무골, 1980년대(시사 6, 46쪽)

강점기 때는 일본인들이 그 샘물을 조선인들은 먹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만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일제가 전쟁에 패망하면서 일본인들이 염전을 두고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염전은 한동안 전매청에서 관리하다가, 5·16 쿠데타 이후 대한염업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군자염전과 염전사택, 1977년(오이도 어촌계)



대한염업(주) 직원들(시사 6, 289쪽)

서 군자염전은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3) 염부들의 노동과 삶

오이도 주민은 농업과 어업 그리고 염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았다. 전통적으로는 농업과 어업 그 중에서도 갯벌을 중심으로 한 어업이 주된 생업이었으나, 염전이 조성되고 나서는 염부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나 염전은 겨울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여 동안 계절적 실직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염부 생활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므로 농업이나 어업을 겸해야 했으므로, 오이도 주민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겸업을 했어야 했다.

천일염전은 염전을 축조하고 해수를 도입하여 태양열과 풍력 등 자연력에 의존하여 염의 약 44배에 상당하는 수분을 증발시키고 해수 중에 용해된 2~3%의 염을 결정시키는 제염법이다. 일제가 시흥 일대에 염전을 조성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흥 일대의 조간대의 기울기가 평탄하고, 점토가 40~50% 섞이고 모래가 50~60% 섞여 있어 염전으로의 전환이 손쉬운 갯벌이라는 점 그리고 시흥 연안의 현격한 조수간만의 차이도 염전 조성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강물과 같은 민물이



군자염전(시사 6, 285쪽)



1960년대의 군자염전과 염전사택 풍경(시사 6, 320쪽)

섞이지 않은 높은 염도의 해수를 저장하기에 유리하며, 일조량과 장기간의 청정일수도 염전에 유리한 조건이었다.(시사 6, 278~279쪽)

염전구성은 저수지, 제1증발지(난치), 제2증발지(늦태), 결정지(든물칸)로 사분된다. 저수지는 바닷물을 가두는 곳이며, 제1증발지는 6단 2열 12배미이며 ‘난치’라 부른다.



군자염전, 크기가 다른 각 배미의 구조가 한눈에 보인다(시사 6, 297쪽)

제일 위가 상난치, 그 다음이 5방 난치, 4방 난치, 3방 난치, 2방 난치, 쌀난치가 된다. 제2증발지는 4단 4열 16배미이며 ‘늦태’라 부른다. 바닥에 따라서 토판 4방, 3방과 껌파리 2방, 1방으로 나뉜다. 토판은 바닥이 흙이며, 껌파리는 웅기나 사기 등을 자잘하게 깨트려 토판에 박은 상태이다. 결정지는 ‘든물깁’이라 부르며 4단 4열의 16배미로 되어있고 바닥은 모두 껌파리이다.(시사 6, 295쪽)

소금의 질은 소금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처음에는 검은 갯벌의 소금판에서 소금을 거두었다. 흙판은 늘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 봄철에는 다대기작업을 하여 단단하게 눌러 주어야 소금판이 들뜨지 않고 수분 누수율도 없고 증발 속도도 좋아진다. 흙판의 약점은 늘 손질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도 소금빛이 검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깨진 사기 파편인 ‘껌파리’이다.

1980년대에 타일이 등장하여 이 껌파리를 대체하기 전까지 껌파리가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금판은 토판에서 껌파리, 껌파리에서 타일 그리고 장판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시흥에서는 비닐장판을 까는 소금판이 보급되기 전에 염전이 소멸하여 타일에서 끝이 났다.(시사 6, 305쪽)

바닷물이 보름에 한 번, 즉 한 달에 두 번 사리가 되면 밀물 때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서 물을 모아 둔다. 물을 가득 집어넣으면 양수해서 도랑을 통해 염판으로 들여 보내고, 다시 계단식으로 쭉 내려 보내게 된다.(시사 6, 150쪽)

염판에 가둔 바닷물의 염도가 24도가 되어야 소금이 되는데, 보통 아침이면 염도가

22도이고 정오 쯤이면 24도, 저녁 무렵이면 28도가 되기 때문에 오후에 채렴(소금걷기)을 하려면 물을 섞어서 염도를 계속 조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염전 노동은 물푸기, 물 조정하기, 소금 거두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푸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염도가 높아진 염전의 바닷물을 웅덩이 창고에 모았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수리채로 퍼내는 작업이고, 물 조종하기는 물을 빼거나 희석시키는 것으로 소금의 염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소금 거두기는 넓적한 널빤지인 대파로 소금을 밀어 모아서 양쪽에 광주리가 달린 목도에 담아 어깨에 메고 소금창고에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타일 염전바닥, 1977년(오이도 어촌계)





수차(시사 6, 309쪽)



대파(시사 6, 312쪽)



목도채를 이용하여 소금을 운반하는 풍경은
우리나라 염전과 중국의 연관성을 보여 준다.(시사 6, 314쪽)

수차는 물판에 연결된 발판을 밟아 돌려 함수류에 고인 물을 퍼 올리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수레차, 수리채 등으로도 불렸다. 수차를 이용해 소금을 만들면 감탕물이 들어가 소금의 색과 질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1980년대 양수기가 도입되자 수차는 바로 사라졌다. 대파는 결정지에 소금을 내는 도구로, 긴 자루가 달린 참나무로 만든 고무래의 일종이다. 소금을 만들 때 소금판의 가운데를 밀어 가장자리로 물이 밀려나게 하면, 가운데에서 소금발이 돌아난다. 소금을 거두는 용도 외에 소금판을 평평하게 할 때도 사용한다. 목도채는 소금을 운반하는 긴 막대기로 채줄에 광주리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목도채와 광주리를 연결하는 4개의 목도줄, 목도채에서 광주리 밑으로 이어진 채줄로 연결한다.



염전도구들(시흥 100년 4, 256쪽)

수차가 많은 양의 물을 푸는 도구라면 염전바가지는 적은 양의 물을 푸는 염전도구이다. 염전에 물을 채우거나 도랑을 칠 때 사용하며, 나무통을 사용하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는 철모를 바가지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후에는 플라스틱바가지로 바뀌기도 하였다. 삼태기는 결정지에서 긁어모은 소금을 담는데 사용한다. 물이 잘 빠지도록 대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며, 염판이 흙에서 깨진 사기인 껌파리로 바뀌면서 삼태기 대신 삽을 사용하게 되었다. 물러는 원통형의 돌에 나무를 대고 끈을 달아 끌고 다니는 것으로 염전 바닥을 고르게 하기 위한 작업에 사용한다. 염판이 반듯하고 단단해야 물의 침투를 막고 소금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염전에서 일하는 염부들은 일하는 능력과 경력에 따라 C급, B급, A급, 난치반장, 부반장, 반장, 감독으로 나뉜다. C급은 주로 소금을 삽으로 퍼서 담는 아주 초보적인 일을 하며 여성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B급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간에 일할



군자염전의 소금창고(오이도 어촌계)

수 있는 사람, A급은 젊은 청년이나 일 잘하는 사람, 난치반장은 소금이 형성될 수 있게끔 바다에서 들어온 물을 줄여서 염도를 맞추는 사람을 말한다. ‘저수지’에 가두어 놓은 바닷물이 불순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위에 뜨면 증발지인 ‘난치’로 물을 빼서 염도가 맞을 때까지 바닷물을 ‘줄이는’ 것이다. 태양열과 바람



결정지에서 채염작업을 하는 염부들, 염전에서 실질적인 노동을 담당하는 염부들은 대개 일용직이었다.(시사 6, 326쪽)

에 의해 바닷물의 염도가 27도에 이르면 소금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때 물꼬를 수시로 여닫아서 소금의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난치반장의 주된 역할이다.

반장은 1호의 염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호당 부반장과 반장이 있고, 열 명의 부반장과 반장을 관리하는 직책이 감독이다. 감독은 주로 염전을 순찰하고 염부들을 감독하는 역할이어서, 술을 마시거나 판청을 부리다가도 감독이 자전거 타고 순시 온다고 하면 전부 다 일하는 척 하기도 했다고 한다.

염부들의 직책과 업무에 대한 이전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전의 일용직은 물도 퍼 나르고 소금을 걷어 창고에 실어 나르는, 염전의 제일 밑바닥 일에 종사하였다. “염전일이란 건 공통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을 퍼서 댔다가 소금 앉으면 소금 걷고, 소금 걷은 거 운반해서 나르고 창고에 갖다 쌓고 그런 게 일상적인 염전 일이죠”라는 증언이 일반적이다. 반면 정규직에 속하는 반장 이상의 고정직과 임시직의 차이도 엿보인다. 염전의 기본단위는 10정보마다 1호로 엮인다. 1호가 10개 모여서 100정보가 되면 1구가 되며, 구의 제일 높은 사람을 ‘감독’이라 칭한다. 군자염전은 6개 구역이므로 감독도 총 6명이다. 감독 1명에 10명의 반장이 딸렸으므로 반장 총 수는 60명이다. 반장 밑에는 부반장과 증발수, 염부들이 있었다. 반장은 실질적으로 염부들을 관리한다. 부반장 밑으로는 중국말로 ‘난치빠투’라 불리는 증발수가 있는데 염도조정과 유수 관리 등 제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 염부는 3등급으로 나뉘는데, 물푸기·채렴·목도일 등 숙련도에 따라서 반장이 평가하여 나눈다. 정보당 1인 꼴로 10정보 1호의 경우 10명이 일하게 되는데, 5~7월 최성기에는 12~1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시사 6, 325쪽)

2017년 조사내용과 이전 조사를 비교해서 정리하자면, 군자염전에는 10호당 반장이 한 명씩 있고, 10호가 10개 모인 100정보를 1구라고 하며 1구 즉 10명의 반장을 관리하는 직책이 바로 감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독이 군자염전에 6명, 즉 6구의 염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염전은 1호가 약 10정보 즉 3만평 넓이였고, 각 호마다 소금 창고가 1~2개 동씩 있었으며 100정보를 1구라고 하였다. 염전 노동자의 직책은 염부, 난치반장, 부반장, 반장, 염부장, 감독으로 구분되었다. 염부는 수리채로 물을 푸거나 목도로 소금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며 경험과 능력에 따라 상염부와 하염부로 나누기도 하였다. 난치반장은 바닷물을 염판까지 내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물을 조정하는 일을 하였고, 부반장은 염판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반장은 10정보(1호) 당 1명 꼴로 있어서 염도 측정 및 감독을 했으며, 염부장은 40정보 정도를 감독하는 사람, 감독은 100정보(1구) 정도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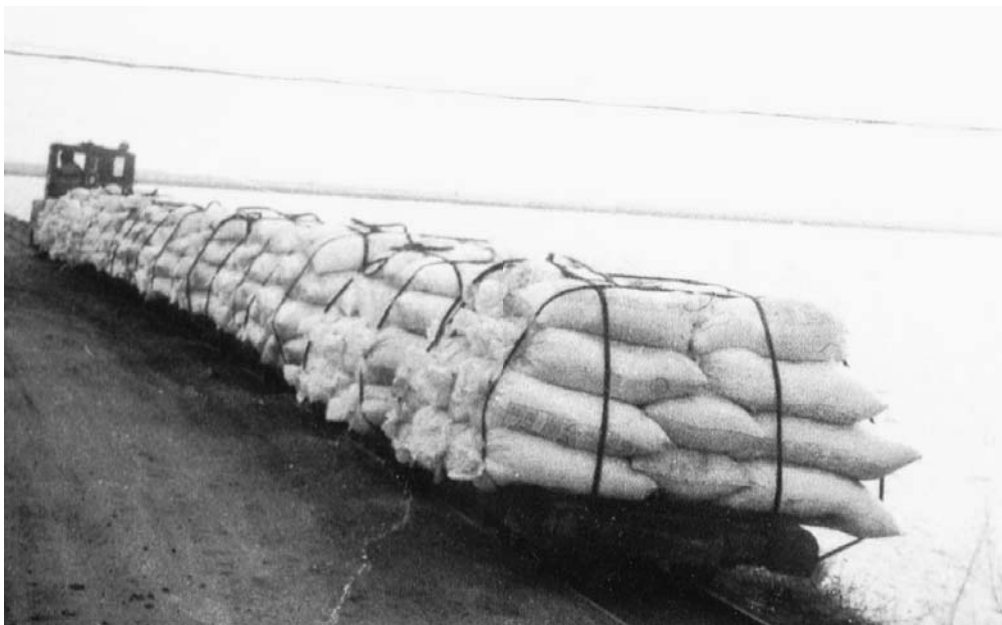
염부들 중에서 ‘난치빠투’ 근래에는 ‘난치반장’이라고 하는 증발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바닷물의 염도를 조절하여 소금꽃을 피우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증발수가 하기 때문이다.

소금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다른 염부들은 밤늦게까지 소금을 거두어들인다. 다음 날 부족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느라 점심시간이 여유있게 주어지지만, 난치반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염도를 조절하면서 수문을 관리해야 했다. 게다가 비가 오면 ‘비 설거지’라고 해서 물레방아로 물을 다 퍼내야 했고,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리 때에는 각 호의 난치반장들이 모두 교대로 이틀 동안 수문을 열어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야 했다. 한 달이면 보름에 한 번씩 사리가 드는데 ‘조금 사리’ 말고 ‘사리’에 가장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며, 그렇게 많은 물을 가두어야 한 달 동안 소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을 가두고 염도를 조절하고 빗물을 퍼내는 작업 등을 수시로 관찰하고 관리하는 일을 난치반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염전에서 난치반장은 가장 고된 직책이라 할 수 있다.

이전 조사에서 ‘반장들은 자기 구역의 물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도수별로 물을 함수 구덩이에 몰아넣느라 밤을 새웠다. 그래서 “그 아무리 세상없어도 뛰어 나간다”고(시사 6, 303쪽) 한 것은 바로 난치반장 임무의 중대함을 표현한 부분이다. 또한 ‘염부들은 스스로를 기상관측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에도 정확하게 날씨를 알아 맞혔기 때문이다. 오랜 경력의 염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적인 민속지식으로 구름의 위치와 모양, 해지는 풍경 등을 보고 날씨를 예감한다. 염전과 빗물은 상극인지라 이를 정확히 예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염부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으며, 이를 예견하는 것이 하나의 민속지식으로 자리 잡았다’(시사 6, 303쪽)고 하는 것과 같이 바닷물의 염도를 맞춰 소금을 생산해 내는 일이기에 날씨에 민감하고, 그에 따른 물리적인 대안들이 필수적으로 뒤따랐음이 확인된다.

온 몸으로 날씨에 대응하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바닷물을 밀어 증발을 촉진시키는 노동 끝에 소금을 거두어서 내는 날이면 염부들은 외상으로라도 고기를 사다가 삼위에 올려 자신들이 직접 거둔 소금을 뿌려 구워먹었다. 한 달에 두세 번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염부들에게는 맛있는 휴식이었다. 상품으로 소금을 내면 가시렁차에 실어서 군자역전으로 이동한다. 군자역에 있던 소금공장에서 시중에 판매하게끔 소금을 상품으로 만들었다.

염전 직원들 중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날 아내가 염전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인천, 수원 등지에 내다 팔기도 했다. 이렇게 염전의 직원이나 가족들이 소금을 무단으로



가시령차(시사 6, 352쪽)

가져가 팔았기 때문에 정작 납품해야 할 소금은 늘 부족했다. 염전 주변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기도 했지만 소금의 무단 반출은 막기 어려웠다. 이러한 염부들 혹은 염부의 가족에 의한 소금 장사는 이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금값이 높고 귀하던 시절에는 소금을 훔쳐 팔던, 이른바 ‘야매소금’이 조심스럽게 행해졌다. 소금이 전매되는 조건에서 염부들 손을 거쳐 소금이 시중으로 흘러나왔다. 염전 끝내고 밤에 들어올 때 소금 한 자루를 슬며시 지고 온다. 그 당시에는 소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소래나 군자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처분이 가능하였다. “월급 갖고는 택도 없어. 염전 댕기는 사람들이 그걸로 버틴 것이지 월급 갖고는 어떻게 버텨”라며, 이러한 소금 훔치기가 일반화되었음을 증언한다.(시사 6, 332쪽)

이러한 내용들로 염부의 삶이 고된 만큼 넉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소금을 ‘훔쳐 파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금 반출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한다. 소금을 사러 갈 때는 어두운 길을 다녀야 했고, 무거운 소금을 서로 이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 대여섯이 모여서 이동했다. 소금을 구하러 갈 때 해가 넘어갈 무렵에 출발해서 완전히 어두워지면 돌아왔는데, 이는

몰래 빼돌린 소금을 찾으려는 염부장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남자들은 지게에 지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다니며 소금을 팔았으며 남자들 중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남자들이 지게에 보통 소금 대여섯 말 정도, 여자들은 서너 말 정도를 이고 다녔는데, 자전거로 다니는 사람들은 두 가마 이상의 소금을 싣고 다닐 수 있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었다. 해방 이후 시흥 주민들이 소금 장사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시흥이 영등포·안양·광명·과천 등과 인접해 있어 상품 유통에 유리했던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4) 염전의 매립과 개발

1980년을 기준으로, 대한염업주식회사는 소래염전 저수지만 75ha, 군자염전 182ha(1,820,000m²)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군자염전 182ha는 남동염전 135ha와 더불어 당시 경기도 내의 최대였다. 군자염전에 고용된 노동력만 해도 540명에 달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차츰 염전이 쇠락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1987년에 군자염전부터 막을 내렸고 소래염전도 공단 및 도시로 변화였다.

군자염전 부지는 손쉽게 아파트단지 등으로 전환하였다. 이미 기초가 다져져 있고 독이 완성되어 있어 해수범람이 없는 안전한 조건 속에서 염전부지는 그대로 도시에 편입되었다. 반월공단이 조성되면서 가장 먼저 개발이 시작된 곳은 군자 지역이다. 초기의 군자염전은 시화지구 개발사업공사에서 토지의 일부로 편입되어 중단되었다. 당시 군자염전은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토지보상 대상이 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시사 6, 64~65쪽)

염전의 소멸로 시흥 주민 상당수는 실직상태로 접어들었다. 포동이나 정왕동에서는 농업 이외에도 염부로 적절한 수입을 올려 왔다. 염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었기에 많은 이들이 염전에 기대어 생계를 꾸려 왔으나 염전의 소멸로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당시 염업은 사양 산업이므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길 수도 없으며, 다른 직종과 연계성이나 호환성을 지니는 직종도 아니었기에 실업은 글자 그대로 실업 그 자체였다. 게다가 염전이 사라질 즈음에는 젊은층보다는 중년층이 주로 염밭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년층으로서는 딱히 다른 것으로 직업을

전환할 수 없었다. 만성 실업자가 시흥의 염부 사이에 속출하였고, 그 이후 노인정에서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내는 염부들이 대부분이다.(시사 6, 335쪽)

1960년대까지 성했던 시흥의 천일제염업은 서서히 쇠퇴하여 1996년 완전히 폐쇄되었다가, 소래염전 자리에 2003년부터 조성된 시흥갯골생태공원에 염전체험장이 마련되어 역사와 추억의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자염전이 있던 자리에는 공단과 아파트단지가 세워졌다.

매립된 군자염전(시사 6, 43쪽)



4. 개발 이후의 오이도

1) 개발에 따른 지형 변화

오이도 인근에는 옥구도 같은 섬이 별도로 존재했다. 그러나 시화방조제 건설이 시작되면서 섬들은 연육되었으며 갯벌이 막히면서 ‘옥구공원’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1920년대에 군자염전이 등장하면서 1차적인 간척이 이루어졌다면, 60여 년 뒤인 1980년대에 제2의 간척으로 지도 자체가 변하였다. 군자염전이 놓였던 광활한 간척지는 모두 아파트 및 공단으로 변하였고, 오이도 자체도 시화호 개발과 더불어 지형이 변하였다.(시사 6, 109쪽)

오이도의 개발 과정을 시기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21년~1924년: 군자염전 착공과 완공
- 1987년~1994년: 시화방조제 착공과 준공
- 1990년: 송도국제도시 건설을 위한 간척
- 1992년~1997년: 인천 LNG 기지 건설

시화방조제 건설을 시작으로 오이도 앞 바다와 인근 바다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위와 같은 공사로 오이도의 갯벌은 그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1987년과 1995년 오이도 중심의 시흥 지도를 살펴보면 오이도 인근의 군자염전만이 확인되지만, 1995년 지도를 보면 오이도를 중심으로 간척이 이루어지고, 매립이 된 땅에 시화공단이 조성되고, 왼쪽으로는 길게 시화방조제가 건설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오이도 어촌계에서 제공한 오이도 지형 변화 사진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더

20세기 서해안 개발의 상징인
시화방조제 물막이공사(시사 6, 36쪽)





1987년 시흥군 행정지도 일부(시흥 100년 2, 28쪽)



1995년 시흥시 행정지도(시흥 100년 2, 35쪽)

육 확실해지는데, 1988년 사진에는 오이도와 군자염전만이 확인되지만, 1992년 사진에서는 오이도와 인근 갯벌과 연안이 매립되어 육지의 면적이 확장되는 장면을, 2015년 사진에서는 매립된 땅에 공단과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이 들어섰음을 볼 수 있다.





오이도의 주민들은 시화방조제를 시작으로 오이도가 개발되기 시작하자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황해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살던 신포동과 고주리 마을 사람들은 1990년경에 안산 등지로 나가고, 안말과 소래폴(작은소래폴, 큰소래폴)은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인천 등지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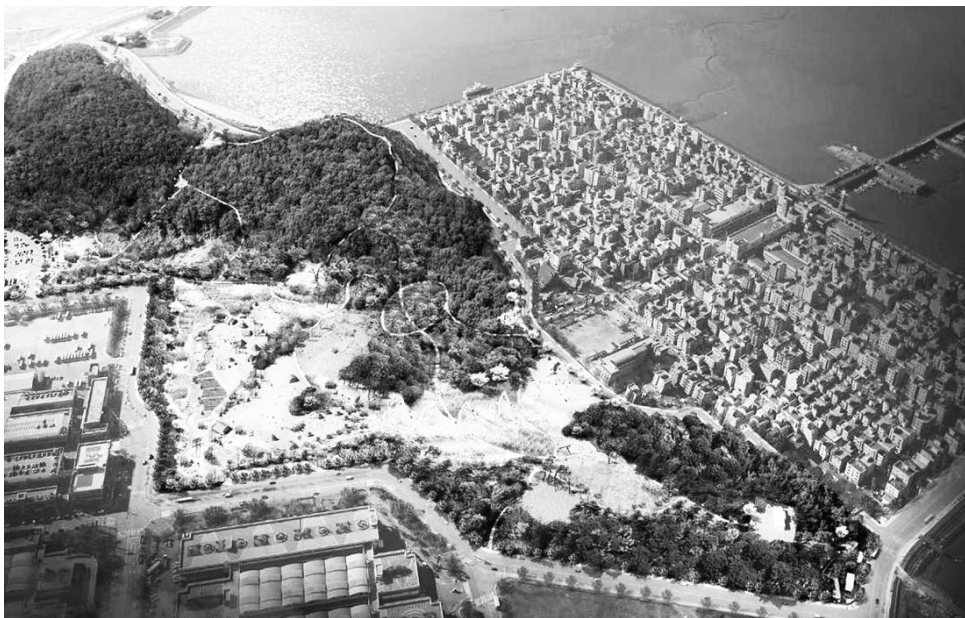
선사 유적들이 발견된다. 오이도의 유적 또는 유물로는 패총이 있다. 오이도 패총은 개발에 즈음하여 군사기지 주변에서 발굴되었다. 오이도 안말터 전체가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안말 뒷산에 있는 패총도 묻힐 가능성이 컸다. 이한기, 이화섭 등 향토사학자들의 노력으로 이 패총은 2002년 4월에 선사유적지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오이도 안마을의 일부가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정리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 오이도 패총이 상징하는 것처럼 시흥에서도 오이도는 유달리 폐류 채취어업이 성했던 곳이다. 오이도 전역이 조개밭이었고, 낙지 같은 연체동물이 지천이었다.(시사 6, 195쪽)

오이도의 유적과 유물이 발굴된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60년: 안말 패총 확인
- 1994년: 소래벌 패총 발견
- 1999년: 가운데살막 패총 발견
- 2001년: 작은소라벌 패총 발견
- 2002년: 오이도 패총 선사유적지 지정(국가사적 제44호)
- 2012년: 선사 해양문화특구 지정
- 2015년~2018년 4월: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착공과 개장



오이도 패총 유적(시사 6, 160쪽)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조감도²⁾



오이도 선사유적공원(필자)

2) 뷰티플시흥 179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ausiheung&logNo=>)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서 내려다본 오이도 이주단지(필자)

오이도 유적은 이처럼 1960년 안말의 패총이 발견된 이래 지속적인 발굴 작업으로 최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오이도 유적은 중서부 해안지역의 해안생활 복원에 매우 적합한 유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오이도 섬 전체에 유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유적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 하겠다.³⁾ 오이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지만, 이러한 유적을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3) 개발 이후 어업환경의 변화

1980년대 이후 쇠락하기 시작한 군자염전이 1987년에 폐쇄되면서, 군자염전 부지는 이미 잘 다져진 탓에 시화공단과 아파트 건설에 이용되었다. 소래염전 역시 군자염

3) 김대홍, 「오이도 유적정비」(강범모 외 13인, 『오이도 마을 이야기』, 하이비전, 2016), 256~260쪽 참고.

전에 이어 폐쇄되었으나 시흥갯골생태가 조성되면서 염전체험장이 추억과 체험의 장으로 남아있으나, 군자염전 부지는 모두 공단과 아파트 부지로 전환되었다. 더 이상 군자염전의 터에서 염전의 흔적과 생활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980년대 초 시화호 매립 보상으로 건강망어업은 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한 동안은 시화호 간척 후에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건강망이 존재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갯벌이 파괴되면서 오이도 사람들도 더 이상 건강망에만 전념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평균 2t 정도의 작은 발동선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시화지구 완공으로 갯벌이 급격히 변화한 직후인 1993년의 경우, 건강망류는 전부 사라지고 유자망, 연승, 낭장망만이 남았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나일론 그물이 등장하면서 일명 삼마이그물, 저인망그물 등이 바다를 ‘씩쓸이어법’으로 휩쓸게 되었다.(시사 6, 186쪽)

오이도 주민들은 면사 그물이 나일론 그물로 바뀌고 나서, 아랫녘 사람들이 오이도 인근으로 올라와 유자망(流刺網)으로 어업을 하면서 물고기 씨가 마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



바다호 최경민 선장⁴⁾



바다호 그물에 올려진 전어떼⁵⁾

4) 시흥아카이브,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시흥시청, 2016), 469쪽.

5) 위의 책, 470쪽.

도 오이도에는 자망 중심의 어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객을 위한 낚시배 운영도 적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

오이도에서는 1993년 법적인 어업이 종료되기 훨씬 이전인 1987년에 시화호 안의 면허어업에 대하여 어촌계 명의로 보상이 이루어졌다. 어촌계원인 가구들은 600만 원씩의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안산 중앙동의 23평형 아파트가 800만 원이었다. 군인, 경찰관 등 외지에서 전입한 일부 세대들도 ‘부인’들 명의로 400만 원씩의 보상금을 받았다. 1992년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LNG기지 건설로 인한 생물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어촌계 각 가구당 500만 원씩 받았다. 2003년 6월에는 10년간 끌어오던 관항어업 보상금에 관한 재판이 끝나, 갯벌에서 2년 치의 맨손어업 수익에 상당하는 500여만 원의 보상금이 분배되었다. 그러나 유수의 갯벌어장을 잃게 되면서 맨손어업에 의한 조개채취나 낙지잡이 등은 사라졌다.(시사 6, 203쪽)

현재 오이도 앞의 갯벌은 어업권 등이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촌계가 이를 관리할 수 없다. 외지인이나 관광객에 의해 무단채취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오이도어촌계는 종래 호미를 이용하여 조개를 캐던 마을어업(제1종 공동어업) 분야에서 한정면허를 받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한정면허의 종료 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을 우려하는 사업권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시사 6, 210쪽)

이와 같이 오이도 인근의 개발과 개발에 따른 매립으로 오이도 주민들은 일정정도 보상을 받았다. 보상을 받고 안산이나 인천, 시흥 정왕동 아파트로 이주한 주민들도 있으나, 오이도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갯벌어장을 잃은 상실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웠다.

조개 채취가 사라지자 오이도 여성들(노인들)은 곳곳에 세워진 움막 안에서 조개 까는 일로 소일한다. 조개는 사라졌어도 가공노동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들 조개는 오이도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다. 오이도의 조개들은 대개 횃집 조개구이용 등으로 나가고, 깐 조개들은 사실 오이도산이 아니라 외지산이다. 이것은 어족자원이 고갈되었고 관광어촌으로 변모하면서 외지인 출입이 잦아져 조개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멀리 군산 등지에서 들여 온 조개를 이곳에서 간이움막 등을 빌려서 겨울철 소일거리로 하는데, 거의 전업에 가깝다.(시사 6, 208쪽)

계속되는 갯벌 매립에 대한 반대시위를 2000년에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뺨에서 낙지와 굴을 캐서
선창가로 이동하고 있는 할머니들⁶⁾



낙지, 굴, 전복 등을 캐서
선창가에서 팔고 있는 이순래 씨⁷⁾

갯벌과 어장에 대한 면허 신청을 시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2005년에 오이도 체험마을로 선정되고 난 후, 2007년 갯벌과 어장에 대한 한정면허를 신청했으나 실패하고, 2013년 마침내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2009년 중단되었던 어촌체험마을을 재가동하게 되었다.

1989년부터 시화 방조제 사업이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자,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 근처에 원룸 등을 얻어서 생활하고 다른 가족들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호미만 있으면 갯벌에서 낙지, 조개 등을 캐 수 있으니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다. 갯벌일은 원래 여성들이 전업으로 하고, 남성들은 염전, 뱃일 아니면 직장을 다녔지만, 요즘에는 염전과 뱃일을 할 수 없으니 남성들도 갯벌일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합이 가격이 좋아 소득에도 도움이 되겠어서 2015년에는 오이도 어촌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합 양식을 시도해 보았다. 만평 정도의 갯벌에 종패를 뿌리고 1m 간격으로 그물을 치고 망도 치는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경기도와 시흥시 그리고 오이도 어촌계가 함께 사천만원~오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인 대합 양식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오이도와 대부도 등의 공사와 공단 입주 등으로 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갯벌이 안정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6) 위의 책, 474쪽.

7) 위의 책, 475쪽.

한편 오이도 어촌계에서는 시·정부 보조를 받아서 2014년과 2015년 갯벌 10ha에 각각 동죽 종패 35톤, 43톤을 살포하여 동죽 어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갯벌이 좁아져서 조개 양식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요즘 들어 동죽 양식은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동죽 가격이 높지 않아 가계 소득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2017년 12월 20일 김성용 오이도 어촌계 김성용 체험사무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오이도 어업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들을 수 있었다.

현재 오이도 갯벌에서는 낙지도 굴도 파고 있다. 작년에는 굴이 상품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굴이 썩 좋은 편이다. 굴은 날이 따뜻해서 수온이 올라가면 질도 떨어지고 먹을 수 없게 되니 작업 기간은 보통 9월 하순에서 4월 말 정도까지 이루어진다. 굴은 바다에 직접 나가지는 않고 갯벌에 돌을 깔아 만든 석화장을 만들어서 양식을 한다.

오이도 어촌계에서는 시·정부 보조를 받아서 동죽 종패를 살포해서 동죽 어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장이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또한 어촌계에서는 오이도 체험장을 만들어서 그 곳에 염전이라든가 건강망 그리고 살막 같은 것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

오이도의 개발에 따른 갯벌의 어업환경을 기존 조사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동죽, 가무락, 뼈죽이, 맛, 피조개 등 조개를 캐는 것이 주 수입원이었던 오이도는, 시화호를 만들고 대부도까지 간척 사업을 하고 송도 신도시를 만들면서 갯벌 어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송도, 인천, 남동공단 앞의 갯벌에서 조개들이 산란을 많이 했는데, 갯벌이 줄어들면서 조개도 사라졌던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어촌계에서 시·정부 보조를 받아서 동죽 종패를 살포해서 어장을 살려보려 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갯벌 어장이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4) 오이도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⁸⁾

시화방조제가 건설되고 염전이 매립되면서 시화공단이 조성되고 정왕동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오이도 이주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오이도는 관광해양단지와 주거단지 그리고 공단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10여 년 전에 건립된 빨강등대를 상징으로 오이도를 관광당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났지만, 오이도 이주단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와 상업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주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주민 편의와 기반시설 그리고 복지시설이 부족했다. 대중교통도 다양하지 못하고 문화교육시설, 청소년시설 등도 전무해 주거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오이도 선착장의 빨강등대(오이도 어촌계)



선착장 앞에 자리 잡은 횡집들(오이도 어촌계)

오이도 이주단지에는 오이도에 오래전부터 살아오던 사람들 외에 교육, 환경, 노후, 사업, 직업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낮으니 들어왔다가 이주하는 주민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오이도에서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기관으로서의 문화센터 건립이 결정되었다.

이에 2011년 오이도문화복지센터가 완공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오이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방과 후 학생들의 교육과 보육을 함께하는 꿈나무안심학교, 친근한

8) 이 항목의 내용은 류은미, 「오이도 문화복지센터는?」(강범모 외 13인, 『오이도 마을 이야기』, 하이비전, 2016), 128~147쪽과 시흥시오이도문화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oidocommun.org>)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독서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 취미·건강·자격증 등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강좌, 청소년동아리·아동청소년특강 등의 아동청소년 사업, 주민동아리·마을축제·주민자치대학·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의 지역공동체 사업 등 변화한 오이도 주민들의 소통·향유·성장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 복지 사업들로 변화한 오이도가 새롭고 안정적인 거주지로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옛 생활과 전통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현재의 삶에 품고 가기를 바란다.



시흥시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시흥시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꿈나무안심학교



시흥시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지역공동체사업

(집필: 시지은)

〈3장. 오이도와 인근 지역의 생업과 생활〉을 작성하는 데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과의 면담 자료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되었다.



제보자 성명: 김영웅(金英雄)
제보자 나이: 1942년생(말띠, 임오생), 76세
제보자 고향: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내오이도 140번지
면 담 일 시: 2017년 12월 18일, 12월 21일
면 담 장 소: 오이도 1경로당
제 보 내 용: 오이도의 농업, 어업



제보자 성명: 정용택(鄭龍澤)
제보자 나이: 1938년생(호랑이띠, 무인생), 80세
제보자 고향: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 내오이도 127번지
면 담 일 시: 2017년 12월 18일, 12월 21일
면 담 장 소: 오이도 1경로당
제 보 내 용: 오이도의 농업, 어업



제보자 성명: 이성분
제보자 나이: 1925년생(소띠, 을축생), 93세
제보자 고향: 인천시 석바위
오이도 생활: 17세 때 오이도의 30세 신랑에게 시집을 왔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동네일을 많이 했다.
면 담 일 시: 2017년 12월 12일
면 담 장 소: 오이도 2경로당
제 보 내 용: 오이도의 농업



제보자 성명: 김연하
제보자 나이: 1928년생(무진생, 용띠), 90세
제보자 고향: 화성시 남양면 기안리
오이도 생활: 20세 때 오이도로 시집 옴
면 담 일 시: 2017년 12월 12일
면 담 장 소: 오이도 2경로당
제 보 내 용: 오이도의 농업



제보자 성명: 김성용
제보자 나이: 1957년(닭띠, 정유생), 61세
제보자 고향: 오이도 고주리
면담 일시: 2017년 12월 20일
면담 장소: 오이도어촌계 사무실
제보 내용: 오이도의 어업, 염업



제보자 성명: 강범모
제보자 나이: 1968년생(원숭이띠, 무신생) 50세.
제보자 고향: 오이도 가운데살막
면담 일시: 2017년 12월 20일
면담 장소: 오이도 팔도 횃집
제보 내용: 오이도의 어업



제보자 성명: 송선일
제보자 나이: 1964년생(용띠, 갑진생), 54세
제보자 고향: 옥구도
면담 일시: 2017년 12월 21일
면담 장소: 월곶 촌계 사무실
제보 내용: 오이도의 염업, 어업

오이도와 이웃 사람들의 삶, 이야기, 노래

1. 개설

현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오이도 지역은 본래 이름 그대로 섬이었다. 오이도는 낮은 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좁은 농지, 섬을 둘러싼 갯벌,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한 살을 갯벌에 설치해서 게, 대하, 민어, 송어 등을 낚고, 가무락 조개, 동죽 조개, 맛 등의 패류를 채취하여 인천과 수원, 부평, 서울 등지로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일제강점기가 되어, 일제에 의해 이 지역 바다의 일부가 메워져 섬이 육지가 되는 변화를 겪는다. 이와 동시에 대규모로 군자염전이 설치되고, 일본과 서울, 경기 등에 소금을 제공하는 소금생산지로 변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염전 노동에 종사할 인력들이 각지로부터 오이도 인근으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이주민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또 배와 현대화된 그물을 이용한 연근해조업이 점차 두드러지고, 전통 어구인 살, 건강망 방식의 갯벌 조업이 점차 위축되어가기 시작한다.

해방 이후에도 대한염업주식회사를 통해 일정 기간 유지되던 오이도 인근의 염전 사업은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점차 남부 해안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1980년을 전후로 염전사업을 대신하여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시작되어 오이도와 옥구도 인

근의 28개 크고 작은 섬을 연결하는 대대적인 간척사업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오이도, 옥구도를 비롯하여 시흥 앞바다의 여러 섬들과 자연적인 해안선이 사라지고 오이도는 현재와 같이 내륙이 되어 정왕동의 일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근의 28개 크고 작은 섬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왕본동 정왕1,2,3,4동으로 이주하거나 군자동, 안산, 인천 등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옛 오이도 지역이 거쳐 온 이러한 역사적 변화는 오이도 지역의 민속과 전통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어족과 패류가 풍부하여 원주민에게 풍요를 가져다주었던 오이도의 자연 조건은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해양산업과 물류의 중심인 인천과 가깝다는 교통지리적 이점, 28개 크고 작은 섬을 매립하여 염전과 간척지를 만들기 용이한 해안선, 서울에 인접한 산업지역적 여건 등으로 오이도와 인근 지역은 급격하게 개발되고, 변모되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오이도와 인근 지역이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적인 민속과 문화는 그 뿌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오이도와 인근 지역에 누대에 걸쳐 살았던 사람들, 새롭게 이주해 왔지만 오이도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은 시흥시와 힘을 합쳐, 오이도역사공원을 조성해 앞장서고, 오이도역사학교(시흥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오이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을 결성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며 오이도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오이도와 그 인근 전통과 민속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통과 민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요한 전통과 민속을 복원하는 것에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조사보고서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오이도와 인근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을 탐문하고, 그들을 통해 오이도의 민속과 전통 문화를 고증하고 복원할 수 있는 소중한 증언을 채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이도의 민속과 전통을 고증하고 복원하려는 이러한 노력과 애정은 과거의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이도 지역은 지역적 특성상, 근대 이후 급격한 역사적 변화를 겪었던 지역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근대 이후 오이도 지역의 변화를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인식하고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당시의 염전 산업에 대한 증언, 해방 이후 염전산업에 종사했던 이주 노동자들의 삶, 건강망을 이용한 조업했던 어업종사자들(남성)과 패류를 채취했던 어촌민들(여성)의 삶, 전

통 어업이 쇠퇴한 이후 소형선박을 이용한 조업활동, 대한염업주식회사의 폐업에 따른 염전산업 종사자 집단의 해체, 오이도와 옥구도 등 28개 섬에서 정왕동으로 이주해온 주민들의 정착과정, 토박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정왕동 일대에 새롭게 들어선 공업단지에 유입되는 과정 등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모두는 오이도와 인근 지역에 전통적으로 거주해왔거나 근현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롭게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게 된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사보고서는 전통과 민속에 대한 옛자료를 탐문하고 수집하고, 조사해서 복원하려는 노력과 함께, 근현대 이후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의 변화를 함께 조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는 토박이 어르신들의 삶, 기억, 옛이야기, 노래뿐만 아니라 근래 새롭게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삶과 기억, 옛이야기, 노래까지 함께 담고 있다. 토착민의 전통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새로움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오이도의 전통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오이도의 변화와 발전을 증언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기록될 오이도 역사는 섬이었던 오이도와 육지였던 오이도를 하나의 역사로 기록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자들은 가급적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의 옛 전통과 문화를 상세히 증언해 줄 수 있는 제보자를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오이도와 그 인근에 사셨던 분들이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왕본동, 정왕1,2,3동 등을 중심으로 연로하고 경험이 풍부한 제보자를 섭외하기 위해 노인정, 어촌계를 중심으로 현장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 인터뷰에 응한 제보자는 대략 29명 정도에 이르며, 이들 중에서는 2회 방문해서 조사한 경우도 있다. 29명의 제보자를 연령, 성별, 고향, 인터뷰장소(거주지), 이주계기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오이도 현지 조사 제보자 출신지 및 이주 내력

	이름(나이, 성별)	인터뷰 장소(거주지)	고향(이전 거주지)	이주 계기(연도)
1	윤팔혁(84세, 남)	동남아파트 경로당	안양 박달동	재개발
2	조정자(81세, 여)	동남아파트 경로당	청주(안양 석수동)	1999년 정왕동으로 이주
3	조명순(90세, 여)	동남아파트 경로당	서울 수표동(광명시)	이주
4	김영자(95세, 여)	동남아파트 경로당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불명확함)

5	최유순(85세, 여)	동남아파트 경로당	강원도 강릉(서울 사당동)	2003년 아들 따라서 이주
6	이성분(93세, 여)	오이도 제2경로당	인천 석바위	17세에 오이도로 시집옴
7	김연하(90세, 여)	오이도 제2경로당	화성시 남양면 기안리	20세에 오이도로 시집옴
8	이분남(?세, 여)	동보아파트 경로당	경북 대구(울산)	딸 따라서 이주
9	김금자(70세, 여)	동보아파트 경로당	경북 경주(강원도, 서울)	퇴직하고 이주
10	이귀상(83세, 여)	동보아파트 경로당	화성 반월군 원암리(인천)	97년 이주
11	주씨(80세, 여)	신호아파트 경로당	신의주 신안주(서울 서대문)	아들 따라서 이주
12	박승자(85세, 여)	신호아파트 경로당	전남 나주시 다시면(서울 구로)	아들 따라서 이주
13	은옥화(80세, 여)	군서 경로당	경기도 수원시	24세에 혼인하여 이주
14	박옥분(81세, 여)	군서 경로당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수원시)	10년전 정왕본동으로 이주
15	안종례(88세, 여)	군서 경로당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죽율동 토박이
16	안영림(75세, 여)	군서 경로당	(불명확함)	(불명확함)
17	김용길(80세, 남)	정왕 큰솔 경로당	인천시 동구 화수동	2004년 자녀(직장) 따라 이주
18	윤영자(85세, 여)	정왕 큰솔 경로당	경북 상주시 와서면	(불명확함)
19	김순금(65세, 여)	그린 경로당	전라북도 전주(서울, 부평)	2003년 이주
20	홍복선(84세, 여)	그린 경로당	충남 서천군 마산면(인천)	2012년 큰 아들 따라서 이주
21	오영화(84세, 여)	장수 경로당	평북 백청군 양가면(서울 관악구)	20년 전 이주
22	홍용자(79세, 여)	장수 경로당	용인군 남사면 창리(성남시)	15~6년 전에 이주
23	김영웅(76세, 남)	오이도 경로당	오이도 안말	오이도 토박이
24	정용택(80세, 남)	오이도 경로당	오이도 안말	오이도 토박이
25	예현구(87세, 남)	오이도 경로당	오이도 안말	오이도 토박이
26	강범모(50세, 남)	팔도회집	오이도 가운데살막(충북 보은)	오이도 토박이
27	김성용(61세, 남)	오이도어촌계사무실	오이도 고주리	오이도 토박이
28	송선일(54세, 남)	월곶어촌계사무실	옥구도(돌출이)	옥구도 토박이
29	박용덕(74세, 남)	덕섬 조개구이집	오이도 안말	오이도 토박이

29명의 제보자를 통해 조사된 설화와 민요, 생애담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설화] : 32편

- ① 조명순 : 도깨비불1,2,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지렁이로 효도한 며느리
- ② 김영자 : 도깨비에 홀린 사람1, 시어머니와 며느리 화해시킨 아들

- ③ 최유순 : 도깨비에 홀린 사람2, 호랑이가 불 밝혀 준 이야기, 개똥 씻어 밥 차린
며느리
- ④ 김금자 : 팔죽 먹는 호랑이, 호식당할 팔자, 눈길 끌어준 호랑이, 영월엄씨와 단종,
도깨비의 장난, 부정 타면 마르는 물줄기
- ⑤ 이귀상 : 용이 못된 구렁이
- ⑥ 주씨 할머니 : 엽구렁이 보여 망한 집1
- ⑦ 박승자 :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뱀 먹고 태어난 아이, 시어머니 속여 벌 받은 며느
리, 꼬마신랑1
- ⑧ 김용길 : 생금정의 유래, 흘치기에 홀린 사람
- ⑨ 홍복선 : 여우에 홀린 사람, 도깨비불3
- ⑩ 홍웅자 : 호랑이가 데려다 준 사람, 꼬마신랑2, 우렁각시, 지렁이로 효도한 며느리,
귀신말 들은 소금장수, 도깨비에 홀린 사람2, 엽구렁이 보여 망한 집2

[민요] : 20편

- ① 조정자 : 대추나무 노래
- ② 조명순 : 다리세기 노래1
- ③ 김영자 : 다리세기 노래2, 영감 놀리는 노래
- ④ 최유순 : 고무줄놀이 노래1
- ⑤ 김금자 : 정선아리랑
- ⑥ 박승자 : 시집살이 노래
- ⑦ 박옥분 : 다리세기 노래3, 춘향이 내리는 노래, 고무줄놀이 노래2, 방아깨비
부리는 소리
- ⑧ 안종례 : 너영나영1
- ⑨ 은옥화, 안종례 : 너영나영2
- ⑩ 박옥분, 안영림 : 별 삼형제
- ⑪ 윤영자 : 다리세기 노래4, 모심는 소리, 물레 노래, 진주난봉가, 고무줄놀이 노래3,4
- ⑫ 오영화 : 고무줄놀이 노래5

[생애담] : 6편

- ① 박용덕 : 오이도에서 16대를 이어 살아온 삶
- ② 김성용 : 오이도 대동굿과 갯벌에서 조개잡기, 건강망 어업에 관한 기억
- ③ 송선일 : 옥구도에서의 추억과 염전 노동 경험, 그리고 어선 조업 활에 관한 이야기

- ④ 김연하 : 오이도로 시집 와서 겪은 일들
- ⑤ 은옥화 : 해방 후 월남한 이야기, 굴 모르고 장난 친 이야기
- ⑥ 주씨 할머니 : 타이피스트가 된 계기와 대한염업주식회사 근무 시절 이야기

위에 제시된 설화와 민요, 생애담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면에서 각각 중요한 의미가 있다. 32편의 전통 설화 중에서 김용길이 구연한 <생금정의 유래>는 실제 증거가 되는 우물이 옥구공원에 ‘생금우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역 전설로서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밖에 31편의 설화와 20편의 민요는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되는 구비전승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닌다. 즉,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이한 이야기와 노래가 존재하는 것이라 보편성을 지닌 이야기와 노래가 두루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도깨비 이야기와 효(불효)에 관한 이야기가 각각 8편, 4편씩 조사되고 있어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보편성을 지닌 설화와 민요는 점차 우리가 잃어가는 옛이야기, 옛노래에 대한 잃어버린 전통과 문화를 일깨우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너무도 소중한 자료이다.

생애담은 오이도와 정왕동 일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삶의 과정을 소중히 듣고 들려주신 삶의 이야기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살아온 삶의 내력을 여쭙었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개개인이 겪은 삶의 희로애락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조사자들이 만난 29분 어르신 개개인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근현대역사였고,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에 변천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현재 정왕본동, 정왕1~4동에 살면서 오이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면담조사를 통해 오이도의 전통과 민속을 조사하고, 그 전통과 민속에 대한 기억을 기록하는 것이 본 조사의 목적이다. 이러한 조사와 기록을 통해 오이도의 전통과 민속을 되살리며 동시에 오이도를 비롯해 시흥 해안의 섬 문화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다가올 시대를 예비하고자 한다.

2. 오이도와 이웃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

오이도와 그 일대의 전통과 민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면담하였다. 그분들 중에는 오이도에서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타지역에 살다가 혼인이나 직장 이전, 자녀를 따라 오이도로 이주하신 분들도 있으시다. 또 6.25 한국전쟁으로 가까운 황해도나 또는 더 멀리 평안남도 안주시 등지에서 피난을 나와 오이도와 정왕동 일대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으시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은 전라남도 나주, 경상북도 상주, 강원도, 용인 등이 고향이지만 서울과 인천, 수원 등을 거쳐 오이도와 정왕동 일대로 이주해 오신 분들이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이 들려주신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듣고 기록하여 생애담으로 정리하였다. 생애담은 크게 보면 오이도와 옥구도, 정왕동이 고향인 토착민들의 삶의 이야기와 타 지역이 고향이지만 혼인이나 전쟁, 자녀의 전입 등 특별한 계기로 오이도와 정왕동 일대로 이주해오신 이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분들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는 매우 다채롭다. 가령 6.25 전쟁으로 인한 전쟁체험담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보다 더 빈도가 잦은 편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전쟁체험담이 빈도가 높은 것은 오이도와 인근 지역이 이북 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고, 또 1.5 후퇴 때 황해도 웅진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이 오이도 신포동에 모여 살았던 역사와도 관계가 있다.

한편, 서울에서 이주해온 주씨 할머니와 옥구도 출신 송선일이 구연한 생애담에서 모두 염전 또는 대한염업주식회사에서 근무했던 일화가 녹아져 있는 것은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만이 지닌 특수성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는 증거이다. 주씨 할머니는 월남해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이도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그러나 대한염업주식회사에 타이피스트로 취직하면서 군자염전에 조사 겸 견학을 오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현재는 정왕3동에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

송선일의 경우, 옥구도가 고향이며, 인근에 염전이 있었던 관계로 전통적인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으로서의 삶과 염전에서의 노동자로서의 삶을 모두 경험한 과정이 생애담에 담겨져 있다.

주씨 할머니와 송선일의 삶은 이주민과 토착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염전업에 종



1970년대 오이도 신포동 일대

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은 근현대 시기를 거쳐 오이도와 그 인근에서 살아온 토착민과 이주민의 삶을 전형적으로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용덕의 경우는 오이도와 그 인근에 거주해온 토착민으로서, 또다른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박용덕은 밀양 박씨 충헌공파 후손으로, 현재 손자까지 16대를 오이도에서 살아온 대표적인 토착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삶의 내력을 청취하고 생애담으로 정리하는 것은 개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의 과거를 새롭게 반추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일의 다름 아니다. 오이도의 옛 과거와 그 전통과 문화를 온전하게 되살리는 것은 교과서와 역사책, 행정 지도와 각종 통계자료만으로 갖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이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혼인하고 일하고 자녀를 키웠던 개개인 모두의 기억, 오이도의 변화 과정

중에 타지에서 이주해 들어와서 오이도와 그 일대의 발전과 변화에 건설적으로 참여했던 이주민들 모두의 기억이 온전히 합쳐져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오이도와 그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토착민들의 삶, 이주민들의 삶으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토착민들의 삶으로는 박용덕, 김성용, 송선일 세 분의 생애담을 소개한다. 박용덕 어르신과 김성용 오이도 어촌계 사무장님의 생애담을 통해서 오이도에서의 학창시절, 대동굿, 건강망 어업, 오이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송선일 선장님을 통해서 옥구도에서의 성장과정, 염전 노동, 오이도와 군자동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주민들의 삶으로는 김연하, 주씨할머니, 은옥화 세 분의 생애담을 소개한다. 김연하 어르신은 혼인을 통해 오이도로 이주한 경우이고, 주씨할머니는 대한염전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오이도, 정왕동과 인연을 맺으신 경우이다. 또 은옥화 어르신은 수원이 본적이지만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을 통해 강원도와 함경북도 무산시까지 이주와 정착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정왕동을 삶의 터전으로 마련하신 분이다. 이주민 세 분의 삶은 각각 다르게 시작되었으나 오이도와 정왕동으로 최종적인 삶의 터전으로 마련하시게 되는 과정은 오이도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는 사라져버린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의 옛 역사와 문화, 전통을 다시금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1) 토착민들의 삶

(1) 덕섬의 박용덕 어르신

- 조사일시: 2017년 12월 22일(금)
- 조사장소: 시흥시 덕섬 조개구이집 가게 홀.
- 제 보 자: 박용덕(朴龍德, 남, 75세 1944년생, 원숭이띠)

박용덕(朴龍德) 어르신은 1944년생으로, 오이도가 고향이다. 조상 대대로 600년 가까이 오이도에서 살아왔다. 본관은 밀양 박씨 충헌공파로, 할아버지는 존함은 박은봉

(朴恩奉)이고 아버지 존함은 박갑록(朴鉅綠)이며, 본인은 14대이다. 집안이 넉넉한 편이어서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로 유학을 가서 아현초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나왔다.

박용덕 어른신 집안의 조상분들은 처음에는 남양주 지역에 사시다가 대략 600년 전에 오이도에 입도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략 오이도에 봉수대가 세워진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면, 봉수대를 세우면서 밀양 박씨들이 오이도로 이주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오이도 일대가 매립되기 전, 오이도에는 300여세대가 살았었다. 그 중에 290세대가 일가친척이었는데, 박씨가 주축을 이루고 박씨 집안 딸들이 물으로 시집을 갔다가 그 사위들과 함께 오이도로 돌아오면서 타성이 형성되어 함께 어울려 살았다. 그 나머지 100여 세대는 이북 용진반도 등에서 피난오신 분들인데, 오이도 큰소라펄에 주로 살았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오이도 일대가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박용덕 어른신은 1986년, 오이도에서 떠나 덕섬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현재는 덕섬 안에 조개구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쳐 본인에 이르기까지 오이도의 역사와 변화를 몸소 겪었기 때문에 주변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 매우 해박하시다.

박용덕 어른신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군자염전이 만들기 위해 일제가 오이도 일대에 독을 쌓기 이전에는 크고 작은 28개의 섬들이 존재했었다고 한다. 지금 정왕역 있는 곳에서 보면 그 28개의 섬이 다 보였고, 그 중에서 오이도가 가장 컸다. 현재는 웅섬과 제우리는 남아있고, 쌍섬 중에 하나인 작은 가리섬은 시화방조제 독과 도로를 놓는 바람에 없어지고, 나머지 하나인 큰 가리섬은 남아 있다.

현재의 덕섬 앞에 있는 뚝도 대략 100년 전에 일본인들이 ‘군자염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쌓아진 것인데, 삼백정이라고 불렀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는 지금의 옥구공원 자리에 대한제국의 염전을 총괄하기 위한 관서를 설치했었다. 이곳에서 당시 590만 정보의 엄청난 넓이의 군자염전을 관리했으며, 군자염원 일대는 병원도 있고 전기



덕섬 입구에서 인터뷰 중인 박용덕 어른신

불도 들어와서 굉장히 변화했었다.

오이도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옥귀섬이라고 불렀다. 옥귀를 ‘까마귀 오’를 쓰는데 아마 갈매기들이 많아서 ‘오’자를 붙인 것도 같다. 옥귀섬이었다가 옥귀도라고 바뀌고, 현재와 같이 오이도로 바뀌게 되었다.

오이도 지형은 삼태기 모양이다. 그래서 오이도는 삼태기로 재물을 끌어 들여서 잘 사는 동네로 정평이 났다. 본래 오이도에는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 안말 또는 큰말이라고 불리는 안동네가 오이도의 중심이며 제일 컸고, 200여 세대가 살았다. 그리고 지금 해양단지가 지어진 곳에는 큰소라펄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큰소라펄 백사장은 이 일대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대부도를 만들면서 망가졌다. 그 옆으로 배다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배가 들고나는 곳이어서 배다리(구 선착장)라고 했다. 이곳으로 수많은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나무도 가져와 팔고, 쌀도 가져와 파는 등 물물교환이 아주 성하고 대단했다. 섬 반대편으로는 고주리라는 곳이 있었는데 섬의 끝쪽에 해당한다.

옛날에 어려서 기억을 더듬어보면, 주변의 모든 섬에는 배가 있어도 오이도 주민들은 배가 없었다. 오이도 사람들은 배로 조업하는 어선어업이 아니라 갯벌에 살을 설치해서 조업하는 건강망어업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워낙 어족이 풍부해서 오이도 사람들의 삶은 전체적으로 풍족했다. 갯벌에 나가기만 하면 사시사철 별이가 되니까 2시간만 일해도 남들 1년 농사짓는 만큼 벌었다. 그래서 인심도 좋았다. 가령 오이도에 장사꾼들이 들어오면 오이도 사람들은 물건을 산 후에, 잔돈도 받지 않고 ‘그냥 갖고 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인심이 넉넉했다. 오이도가 이렇게 풍족한 것은 풍수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설명이 된다. 오이도는 섬의 모양이 삼태기 형태여서, 재물을 삼태기로 끌어 모을 정도로 풍족하게 된 것이라고들 했다.

당시 조부이신 박은봉(朴恩奉) 할아버지도 건강망을 하셨다. 갯벌에 말뚝을 박고 밀물에 든 고기를 썰물에 잡았다. 당시에는 고기가 워낙 풍부해서 민어, 농어 등 일본 사람들이 회로 먹기 좋아하는 것들만 잡아서 팔아도 살림살이가 풍족했다. 잡은 고기를 쪽지게에 지고 서울역 인근의 중림동에 있던 시장에 가서 팔았다. 교통이 좋지 않아서 오이도에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서 오가셨다. 지금의 정왕역 바로 위에 우피양촌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함줄이인데, 함줄이를 지나 소래와 포리를 거쳐 뱀나장터를

통과해서 가면 지금은 부천이라고 부르는 소사가 나온다. 소사에서 오류동을 지나 오목내 고개 즈음에 이르면 그곳에서 아침식사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영등포를 지나서 서울역 뒤로 해서 가면 중림동이 나온다. 당시 중림동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중림동에는 지금의 노량진수산물시장처럼 한국에서 가장 큰 어시장이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건강망으로 잡은 생선을 매일같이 중림동 어시장까지 쪽지게로 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생선도매업을 하는 일본 사람에게 넘겼다.

박은봉 할아버지는 매우 성실하셨고, 또 언제나 품질이 좋고 신선한 생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생선도매업을 하는 일본인에게 신임을 얻게 된다.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쪽지게에 민어를 지고 오는 것에 감탄하여 어느 날인가는 일본인이 할아버지에게 제안해서 직접 오이도를 직접 방문하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인은 할아버지에게 자본을 대주고, 할아버지는 그 돈을 밑천 삼아 땅도 사고 집안도 크게 일으키게 되었다.

아버지의 존함은 박갑록(朴鉀祿)이신데, 아버지께서는 이 지역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시며 평생을 보내셨다. 군부대가 박용덕 어른의 집안의 땅에 사용료 없이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셨고, 군인들 먹는 것, 막사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셨다. 또 시흥시에서 2000년도에 한화매립지와 덕섬, 오이도를 매립을 하기로 했을 때도 적은 보상을 받으면서 집안 땅 많이 수용되는 것을 허락했다. 당시 시흥시에서는 보상이 너무 적어서인지, 박용덕 어른의 집안이 덕섬을 소유하고 식당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것을 허가해주었다. 이후 덕섬 인근 지역을 매립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여러 해를 기다렸지만 배곧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면서 덕섬 인근 지역 개발은 중단된 것 같다.

박용덕 어른은 오이도의 민간신앙과 풍속에 대해서도 소중한 증언을 해주셨다. 현재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안에 자리한 야산 꼭대기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곳은 당집이 있던 자리이다. 그래서 당집은 현재, 군부대 옆쪽으로 옮겨서 세워져 있다.

박용덕 어른이 기억하기로는 어릴 적 오이도에는 성대한 규모의 풍어제 굿이 거행되곤 했었다. 풍어제 굿은 오이도에 사는 밀양박씨 충훈공파 사람들의 주도로, 오이도에 사는 291세대 사람들이 모두 품앗이 형태로 참여했다. 4년에 한 번, 2월 초에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삼현육각을 갖추고 소도 잡고¹⁾, 떡도 하고, 집집마다 감

주, 두부, 숙주 등등을 품앗이로 나눠 분담하면서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그 당시 굿이 참 볼만해서 무당이 작두도 타고, 풍물패가 풍물도 치고, 광대가 줄도 타는 놀이판도 함께 벌어졌다. 도지사, 군수, 면장 등과 같은 지역인사들도 기부를 하면서 상당히 큰 규모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오이도 풍어제 굿을 거행할 때면 오이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섬의 선주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했었다. 당시 당집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당신주 나무가 있었는데, 굿판이 벌어지면 인근 섬의 선주들이 가지고 온 만장기 수백 개가 당신주 나무에 걸려 장관을 이뤘다. 오이도 사람들은 건강망이 잘 되도록 축원했다면 인근 섬의 선주들은 배로 하는 조업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고 운수를 받아갔다.

또 매년 정월보름날 저녁이면 오이도 사람들은 음식이나 별다른 제구(祭具)를 갖추지 않고 당에 올라가 ‘탐복’을 했다. 연로한 어르신들은 정월보름날에 당에 올라 그해 일기를 보고, 달을 보고 각 집안의 운수를 점치는 것을 ‘탐복’이라고 했다. 어르신들은 당에 올라가 각자 자신이 소유한 어망을 살펴보면 파랗고 초록빛이 나는 도깨비불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그 도깨비불이 어느 어망, 어느 바탕으로 들어가면, 그 어망에는 그물일 터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들어 운수가 트게 되는 것을 점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도깨비불이 들어간 어망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든 것을 목격했었기에 어르신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2) 김성용 오이도 어촌계 체험 사무장

- 조사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 조사장소: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135번길 39 수협은행 2층 오이도어촌계사무실
- 제 보 자: 김성용(金聖龍, 남, 61세 1957년생, 답띠)²⁾

김성용 어르신은 오이도 고주리에서 태어나셨다. 아버님 성함은 김종문이시고, 어

1) 오이도에서 행해지던 당굿에서는 돼지를 잡지 않고 소를 잡아 제물로 사용했다.

2) 본래는 1957년생, 원송이띠인데, 어머님께서 40살에 김성용 어르신을 낳자 아버님이 연로하신 것을 걱정하며 일찍 효도를 받겠다고 면사무소에 가서 한 해를 앞당겨 호적신고를 했다고 한다.

머님 성함은 정계원입니다. 오이도에는 안말, 소라벌, 신포동, 가운데살막, 고주리와 같은 마을이 있었다. 안말은 오이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대략 200호 정도의 가구가 살았었다. 신포동은 낮은 야산을 끼고 있었고, 신포동을 넘어가면 고주리가 나온다. 김성용 어르신이 살던 고주리에는 옛날에 군자염전 저수지를 끼고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오이도어촌계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이신
김성용 사무장님³⁾

김성용 어르신의 아버님은 일찍 작고하셨다. 아버님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신 세대라 노역도 많이 당하셨고, 사는 것이 힘들어 술도 많이 드셨다. 그 바람에 건강이 좋지 않아 일찍 돌아가신 것이다. 부모님께서서는 5남매를 두셨는데, 큰 형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1943년생 누님, 1945년생 누님은 현재 생존해 계신다. 그 아래로 누님이 한 분이 더 계셨다고 하는데, 역시 어려서 죽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머니 연세 40이 되셨을 때 김성용 어르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무척 귀한 아들이었다.

김성용 어르신은 오이도에 있던 옥터초등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는 인천으로 다녔다. 군자동, 거모동 쪽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었지만 오이도에서 보면 군자동으로 가나 인천으로 가나 거리는 비슷했다. 그래서 인천으로 중고등학교를 통학했다. 당시에는 수인선 협궤열차를 타고 학교를 갔는데, 기차가 워낙 느려서 뛰어서 타고 뛰어서 내렸던 기억이 새롭다.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인천으로 다닌 것 외에는 오이도와 정왕동 일대를 떠나신 적이 없다. 28살이 되던 1985년에, 3살 아래의 아내와 만나 혼인하셨고, 슬하에 2남을 두셨다.

예전 오이도를 생각하면, 군자염전, 오이도 대동굿, 갯벌에서 조개잡기, 건강망 어업 등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지금은 염전이 다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옥구도, 오이도에서부터 지금 정왕역, 신길온천역이 있는 곳까지 모두 군자염전이 있었다. 지금의 정왕역이 있는 자리는 수인선 군자역이었는데, 그곳에서 소금을 도시로 실어 날랐다.

3) 김성용 사무장님은 오이도어촌계 체험 사무장일을 맡고 계신다.

안말 입구에는 큰 당나무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 안말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다. 만신은 안말에 있는 당나무와 우물, 오이도 산 위에 있는 당산나무와 당집⁴⁾ 등을 거쳐 가며 굿을 했는데, 그것을 대동굿이라고 했다. 김성용 어르신은 고주리에 살았지만 안말이 큰말이기 때문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당고사, 우물고사 등을 보게 되었는데, 어릴 적이라 떡 같은 것을 얻어먹는 재미로 구경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어느 날 안말에 있던 당나무가 벼락을 맞았다고도 하고, 불이 나서 타버렸다고도 한다. 현재에도 그 당나무는 까맣게 그을려 죽은 상태로 예전의 그 자리에 있다.



오이도 안말 당나무⁵⁾ : 현재 오이도선사유적공원 內 위치

지금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안에 있는 산꼭대기에는 군부대 레이저 기지가 있는데, 예전에 그곳에는 군자봉이나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 있는 것과 같이 제를 올리는 제단 같은 것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봉화도 하고, 매년 대동굿을 했다. 1967~8년 정도까지도 대동굿하는 것을 봤던 기억이 있다. 오이도에 만신이 여러 있었는데, 칠월 칠석이나 정월 그믐 때가 되면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당집으로 올라가 대동제를 지냈다. 그러나 대동굿을 진행하는 우두머리 만신은 김금화 만신과 같이 소래나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고, 실력이 뛰어났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대략 1969년 정도 됐을 때인데, 군인들이 들어와 레이저 기지가 설치되면서 다 없어졌다. 당시에는 배를 하거나 건강망을 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제물을 올리고 제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

4) 김성용 어르신은 당집은 상여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면서 달리 상여집이라고도 불렀다.

5) 사진 원편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 정상부근에 당집이 나온다.

오이도 사람들은 배는 거의 없고 주로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설치해서 조업하는 건강망을 했다. 건강망은 높이가 두 길이고, 길이는 500m 정도 되었다. 각 시기마다 잡히는 고기의 종류가 달랐는데, 5월에는 주로 전어가 잡혔다. 썰물이 빠지면 두 길 높이의 건강망이 하얗게 볼일 정도로 전어가 많이 잡혔다. 또 꽃게, 숭어, 농어, 수수망둥어 등도 건강망에 걸렸는데, 워낙 많이 잡혀서 그 중에 상품성이 좋은 것들만 골라서 우마차에 실어 내다 팔았다.

오이도 사람들이 배를 하지 않은 것은 배를 마련하고 기계를 마련하는 것에 많이 비용이 드는 것도 있었지만, 갯벌이 워낙 좋아서 건강망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큼 수확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갯벌에서는 건강망 조업뿐만 아니라 조개도 많이 채취했다. 조개를 채취하는 조업을 포패업(捕貝業)이라고 한다. 동죽, 가무락, 뼈죽이, 비지락, 맛, 피조개 등을 많이 잡았다. 가무락 같은 경우는 종패(種貝)를 뿌렸다가 일정 크기로 자라면 마을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작업했다.

한편, 오이도 사람들은 쌍섬⁶⁾으로 굴을 따러 많이 갔다. 굴 따러 가는 것을 ‘해초 간다’고 하는데, 쌍섬 인근에는 갯바위가 많아서 굴이 많았다. 또 오이도 갯벌에 돌을 깔아놓고 석화장이라고 해서 굴이 자라는 터전을 만들어 굴을 채취하기도 했다. 현재 쌍섬 중에서 큰가리섬만 남아 있고, 작은 가리섬은 시화방조제로 포함되어 시화나래 조력공원으로 바뀌었다.

정왕동으로 이주를 나갈 때까지도 오이도에는 동죽이나 기타 여러 조개류가 꽤 많았다. 그런데 시화지구개발사업, 남동공단, 송도 신도시개발 등으로 오이도 인근 지역이 모두 매립되면서 모래벌이 없어져버렸다. 동식물들이 산란하던 모래벌이 없어져버리니까 결국은 어패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말았다.

현재는 오이도 어촌계에서는 시·정부 보조를 받아서 동죽 종패 등을 살포해서 어장을 살려보려고 노력 중인데, 아직은 결과가 시원치 않다. 사실 오이도 사람들은 오이도 일대를 매립하고 정왕동쪽으로 이주해나가면서 손해가 컸다. 오이도에 살 때는 갯벌에 나가기만 하면 건강망이나 포패업으로 매일 돈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다.

6) 큰 가리섬과 작은 가리섬을 가리킨다.

(3) 송선일 전 월곶어촌계 사무장

- 조사일시: 2017년 12월 21일(목)
- 조사장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205 월곶 어촌계 사무실
- 제 보 자: 송선일(남, 54세 1964년생, 용띠)

송선일 선장님은 고향이 옥구도이다. 옛날 주소로 옥구도는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5리이며, 현재는 매립되어 옥구도자연공원⁷⁾이 되었다. 옥구도는 본래 이름인데, 사람들이 돌이 많은 돌산이라고 해서 돌주리라고도 불렀다. 혹은 돈이 많아서 돈줄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월곶어촌계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이신 송선일 선장님

송선일 선장의 부친은 황해도가 고향이시고, 어머니는 서울토박이다. 부친께서는 6.25 전쟁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금방 남한에 갔다 오라고 해서 내려오셨다가 영영 돌아가지 못하셨다. 당시에 큰집 가족들, 작은집 가족들은 모두 내려왔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황해도에 남으셨다. 그 이후 한 번도 황해도 고향에 가보시지 못하신 것이 평생의 한이셨다. 당시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은 시흥에도 더러 있지만 주로 인천 만석동에 많이 정착했다.

옥구도에는 대략 90호쯤 살았다. 송선일 선장님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섯 분 정도는 어업을 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염전 일을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집을 짓고 살았고, 염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염전에 딸린 일본 사택에서 살았다.

옥구도에는 살았던 90세대는 아랫말과 윗말에 나뉘어 살았다. 아랫말과 윗말 중간에 일본 사람들만 마셨던 우물이 있었다. 그 우물은 365일 마르지 않았고, 겨울엔 물이 뜨겁고, 여름엔 시원했다. 우물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벚꽃나무도 있었던 기억

7) 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58.

이 나는데, 지금은 다 배어버렸다. 지금도 옥구공원 중심지에 가면 그 우물이 남아있다. 오래전부터 그 우물물은 폐병에 효과가 좋은 약수 우물이라고 소문이 났다. 어른들 말씀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독차지하고 한국 사람은 마시지 못하게 하였고 일본사람들만 마시게 했다고 한다. 그럴 정도로 약효가 좋은 물이어서 그런지 송선일 선생님이 옥구도에 살았을 때만해도, 폐병 걸린 사람들이 옥구도에 와서 우물물을 마시면서 휴양하고 병이 나아서 돌아가고는 했다.

옥구도에 버스가 들어온 것은 1978~1979년 정도이다. 당시에 ‘엄마 없는 하늘 아래’(1977년)라는 영화를 옥구도 인근 염전 사택에서 촬영했는데, 그 이후로 버스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된다. 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년)도 돌주리에서 촬영했다.

옥구도에 전기는 버스가 들어온 시기보다 앞선다. 그러나 상수도는 들어오지 않았다. 각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은 열 가구 공동으로 쓰는 물 저장고가 있어서 당번을 정해 물을 틀고 잠그는 일을 하면서 나눠 썼다. 먹는 물의 경우,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약수 우물에서 각자 알아서 길러 먹었다. 그러다가 오이도, 옥구도가 매립되고 개발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지게 되었다. 현재에도 옥구공원 안에 돌주리산 올라가는 길목에 그 약수 우물이 있다. 지금은 우물을 수도 방식으로 바뀌서 시에서 관리하는데 음용수 적합 여부에 따라 시에서 물을 잠그기도 하고 틀기도 한다.

송선일 선생님은 오이도 옥터초등학교를 다니셨다. 예전에 군자역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이도나 돌주리 사람들을 촌사람이라고 잘 대우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오이도나 돌주리 젊은이들이 군자역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쪽 사람들이 괜히 시비 걸어서 서로 힘자랑을 하곤 했다. 반대로 군자역 인근 젊은이들이 오이도나 옥구도 쪽으로 오게 되면 이곳에 사는 젊은이들도 군자역 쪽 젊은이들을 경계하고 시비가 붙기도 했다. 또 돌주리 안에서도 아랫말과 윗말이 나눠져서 서로들 힘자랑하기도 했는데, 현재에도 옥구공원 돌주리산에 가보면 당시에 만들어 놓은 요새가 몇 개 있다.

송선일 선생님은 군자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자염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염전이 매우 컸는데, 오이도부터 지금 안산역 있는데 조금 못 미치는 곳까지가 모두 염전이였다. 염전은 구역을 나눠 100구, 200구, 300구, 400구, 500구, 600구까지 있었는데, 가령, 현재 옥구공원이 있는 곳에서부터 오이도까지는 100구, 시화공

단 MTB산업이 있는 데까지가 200구, 300구 이렇게 쭉 돌아서 현재 오이도역 있는 데까지가 400구, 정왕역 있는 데가 500구, 600구 이럴 정도로 넓었다.

또 일의 숙련도에 따라 염전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A급, B급, C급이 있었다. A급은 일을 가장 잘하는 숙련된 인력이다. B급은 아줌마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냥 중간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애들이며, C급은 소금을 삽으로 퍼서 담는 등의 가장 단순한 일을 하는 아줌마 인력이다. A급 인력 위에는 난치 반장⁸⁾이 있으며, 그 위로 부반장, 반장이 있으며, 맨 위에는 감독이 있다. 100구에 감독이 한 명씩 있고, 그 아래 반장과 부반장 둘이 있어서 반반씩 일을 관리한다. 이런 구획과 인력 구조는 일제강점기 때 군자염전이 만들어지면서 일본사람들이 마련한 것이 이어져온 것이라고 한다.

그 당시 염전에는 큰 저수지가 딸려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리 때에 저수지 수문을 열어두면 바닷물이 저수지로 들어오게 된다. 염전의 바닥을 토바닥, 또는 토판이라고 했다. 저수지에 있는 바닷물을 맨 위의 토판에서부터 맨 아래 단계 토판에까지 점차적으로 흘려보내면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것이다. 가령, 염전의 가장 위쪽에서 바닷물을 처음 증발시키는 곳의 토바닥이 1000평 이라면, 맨 아래 소금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곳의 토바닥은 10평 정도이다. 그러니까 1000평에서 물을 증발시키고, 또 증발시키다보면 처음에 바닷물의 염도가 2도 정도였다면, 2도에서 3도, 6도, 10도 이렇게 쭉 염도가 오르면 맨 마지막 소금 결정지에 오면 바닷물의 염도가 대략 27도 혹은 29도가 되면 소금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난치반장은 이처럼 넓은 염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고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 언제쯤 물을 내려야 할지 등을 결정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며 가장 신경 쓸 것이 많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C급이 일단 월급이 제일 적고, 그 다음은 B급, A급, 난치반장, 부반장, 반장, 감독 이런 순으로 월급이 높아진다. 감독은 대체로 일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했는데, 가령 인부들은 일하는 도중 잠깐 쉬면서 술을 먹다가도 감독이 감독하러 나오면 술 마시는 것을 멈추고

8) 염전은 일반적으로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구성되어 있다. 저수지는 바닷물을 가두어두는 곳이며, 증발지는 대략 1~7단계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염도를 높이는 공간이며, 결정지는 증발지를 거쳐 염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소금 결정체가 되는 공간이다. 난치는 이 중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1차 증발지를 말한다.

다시 일에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곤 했다.

송선일 선생님은 나중에는 난치반장까지 했었다. 사실 송선일 선생님이 염전일을 시작했을 때는 나이도 어리고 기술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난치반장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원래 좀 부지런한 성격이라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염전에서 같이 일하던 아저씨들이 ‘네가 부지런하니까 난치를 봐라.’라고 해서 난치반장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난치반장을 하면서 받은 월급은 대략 9만 원 정도였으니까 적지 않았다.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햇빛만 좋으면 바닷물은 저절로 증발되는 것이니까 한낮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고, 점심시간도 3시간이나 되었다. 그래서 A급 인력 이하 사람들은 한낮에는 잠도 자고 술도 먹고 집에도 다녀오고 했는데, 난치반장은 계속해서 증발지를 돌아다니며 물을 대야 했으니까 쉴 틈이 없이 일을 했다.

소금은 매일 매일 얼마가 생산되는지 양을 기록했는데, 매일 생산되는 양은 대체적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너무 추운 날, 비 오는 날, 습한 날 등은 소금을 만들기 적절하지 않다. 가령 날이 흐리면 죽소금이 만들어졌다. 죽소금은 소금결정체가 좀 덜 단단하고 작은 것을 말한다. 날이 좋으면 소금결정체가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왕소금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죽소금, 왕소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소금창고로 옮겨 함께 저장한다.

소금창고에 저장해둔 소금은 한 달에 2~3번 정도 출하하게 된다. 감독이 ‘소금 몇 백 가마니 내.’라고 지시를 하면 염부들이 소금을 가마니나 포대에 담는다. 그러면 가시령차가 와서 소금을 실어서 갔다. 가시령차는 맨 앞에 운전사가 타서 운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12칸짜리 짐을 싣는 화물칸이 달려 있는 형태이다. 가시령차에 실린 소금은 군자역으로 가게 된다. 예전에 군자역에는 소금 공장이 있었는데, 가시령차에 실려 온 소금은 그 소금공장에서 다시 닦고 정리해서 완제품을 만든다. 완제품 소금은 군자역에서 수인선 협궤열차에 실어 출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금을 출하하는 날이면, 염부들은 신이 난다. 가장 일이 서투르거나 막내인 사람을 시켜 자전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사오게 하고, 숯불을 피워 삼에 고기를 얹어 구워 먹는 날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회식인 것이다. 소금을 살살 뿌려 고기를 구워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염전의 사장은 정동근이라는 분이었는데, 송선일 선장님이 일하시던 군자 염전은 물론, 소래염전, 남동염전 등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대한염업주식회사의 사장이었다. 정동근 사장이 염전을 둘러보러 올 때면, 늘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송선일 선장님은 얼마 동안 했던 염전 일을 그만두고 배를 타게 된다. 그 이후 현재 까지 37년째 배를 타고 있다. 실질적으로 염전에서 일한 것은 2년 내외로 길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염전 일을 그만 둔 이후로도 친구가 염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끔씩 비설거지⁹⁾를 하러 염전에 가곤 했다.

새롭게 시작한 뱃일은 염전 일과 비교해보면, 더 힘들고 위험하지만 벌이는 훨씬 낫다. 그러나 뱃일은 우선 배를 장만해야 한다는 면에서 목돈이 드는 일이라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또 염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염전 일을 천직으로 알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당시에는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 염전 일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열심히들 일했다. 이후 오이도와 옥구도 일대가 매립되면서 염전이 폐쇄되고 염전 일을 하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 갔다.

송선일 선장님이 염전 일을 그만두고 뱃일을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아버님 영향이 있다. 본래 옥구도에서 아버님은 어업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뱃일 쪽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선일 선장님은 염전 일을 그만두고 얼마 정도를 다른 사람의 배를 타면서 뱃일을 익혔다. 그러다가 아버지 몰래, 그 당시 나이가 스물네 살쯤 되었을 때, 배를 샀게 되었다.

급작스럽게 배를 사게 된 계기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뱃일을 다닐 때 덕적도 앞바다에 홍어가 터진 것이다. 원래 홍어는 이 근방에서는 안 나고 흑산도 쪽에서 나던 건데, 시흥 앞 바다에서 터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선주들은 떼돈을 벌었는데, 송선일 선장님이 생각하기에, ‘나도 내 배만 있으면 금방 떼돈을 벌겠구나.’라고

9) 비설거지는 비가 내리면 염전에 있던 소금물이 빗물과 섞이지 않도록 소금물은 해수 구덩이로 보내고 빗물은 도랑으로 보내 바다로 흘러가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비가 그치면 물레방아 모양의 수차 또는 수리채를 이용해서 해주의 물을 다시 염판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비교적 일의 강도가 세고 고되다.

여겨졌다. 당시에 홍어가 하루에 보통 수백 กิโล씩 잡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처음 구입한 배는 5톤짜리 목선이었다. 5톤짜리 목선은 덕적도¹⁰⁾ 까지 조업을 갈 수 있었다.

사실 그 배 값이 만만치 않는데, 처음에는 아버님 몰래 배를 외상으로 구입했으나 결국에는 아버님이 배 값을 치러주셨다. 그 당시 시화지구개발사업이 발표된 전후로 서울이나 도시 사람들이 오이도와 옥구도 일대에 와서 집을 짓으며 땅을 매입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집을 팔았다고 하셨다. 당시 시세가 6~700만 원 정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현찰로 1400만을 받고 집을 팔았다고 했다. 꽤 잘 받고 판 셈이다. 아버님께서 집을 팔고 받은 1400만 원은 결국 송선일 선장님이 배를 사는 밑천이 되었다.

처음 배를 사서 뱃일을 할 때는 매우 의욕적이었다. 그래서 면장이나 주변 분들이 젊은 사람이 배를 타고, 기특하게 일을 잘 한다고 추천을 해서 최연소 농어민후계자가 되었다. 그 당시가 전두환 대통령 때였는데, 농어민후계자로 뽑혀 부산에 있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가서 6일 동안 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뱃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쉬운 것이 아니었다. 특히 송선일 선장님이 그 당시 배를 구입한 것은 여러 모로 좀 이른 감이 있었다. 뱃일 경험도 더 쌓아야 되고, 배뿐만 아니라 그물, 쇠 줄, 이런 도구까지 싹 다 잘 갖춰야 하는데, 다른 사람 말을 믿고 좋은 어구를 갖추지 못한 배를 산 것이다. 그래서 큰 낭패를 보았다. 주로 조업을 나갔던 덕적도 인근은 물살이 아주 센데, 송선일 선장님이 마련한 어구들은 너무 약해서 거센 물살에 다 망가지고 만 것이다. 선원을 사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구가 좋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다보니 계속 조업 성적이 시원치 않았고,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 뱃일을 이어가다가 빚만 지게 되었다. 그렇게 3년을 고생하다가 결국 배를 팔아서 빚을 갚게 되었다. 당시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그때 꽤 고생을 했다.

그렇게 배를 사서 손해만 보았고, 배를 팔고 난 이후에는 다시 돌주리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92년도 정도에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돌주리, 오이도 일대를 매립하게 되면서 옥구도를 떠나게 된다. 그 당시 염전 사택에 살던 사람들도 다 보상

10)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도.

을 받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집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배를 구입하지 말고 염전 사택을 구입해서 살았더라면 보상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당시 염전에서 일하던 충청도, 전라도 출신 염부들은 공단이 생기자 공단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었다. 염전에서는 힘들게 일하고 월급도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이 공단에 일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니 더 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송선일 선장님은 배를 판 이후에 남의 배를 탔다. 그러다가 좋은 계기가 있어 조업허가증을 얻고 어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당시 남의 배를 타면서 또 스스로 마련한 작은 나룻배로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는 영세 어민들에게 조업허가증을 주기로 공약을 했고, 1998년에 이 공약을 이행하면서 그 덕분에 조업허가증을 발급받아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되었다. 그때 만약 조업허가증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해양 자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조업허가증을 많이 내주면 남획하게 되고, 결국은 물고기 씨가 마르는 것을 경계한다. 따라서 조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척 어렵다. 만약 조업허가증을 따려고 한다면 현재 시세로 6~7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그렇게 1998년 조업허가증을 발급받아 정식으로 조업에 나서면서 어업에 전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점차적으로 시흥과 인천, 안산 일대가 개발되면서 어업 환경이 더 나빠졌다. 현재 오이도 앞바다에는 시화조력발전소가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 항만청, 인천 항만공사 등등이 서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일대 해역에서는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흥, 인천, 안산 지역 소형 어선 선주들은 피해보상과 생계를 위해 소형선박보상대책위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송선일 선장님이 간사를 맡고 계신다. 이 소형선박보상대책위에는 총 510척이 소속되어 있으며, 폐업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일을 진행 중이다. 한꺼번에 모든 선박을 폐업할 수는 없어서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2017년 12월까지 현금보상이 끝나서 510척의 소형선박들은 모두 폐업을 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510척의 소형선박 선주들에게 현금보상을 지급하고, 별도로 생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송도에 2만 2천 평을 준주거용지로 불하해주었다. 이를 토대로 소형선박 선주들은 생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월곶어촌계는 회원이 153명인데, 중간 중간 빠진 회원을 빼면 10년 전부터 대략 15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각종 규제나 어족 고갈 등으로 조업이 어렵고, 또 보상 협상이 타결되어서 실제 조업을 하는 배는 대략 20척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월곶 포구는 거의 힘을 잃었다. 인근의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선주가 배로 조업도 하고, 조업한 생선을 도매로 넘기기도 하고 포구에서 직접 소매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수입이 괜찮다. 그러나 월곶 포구는 상권이 거의 죽어있다고 봐야 한다. 소래어촌계 회원들은 350명 정도 될 것이다. 여기에 소속된 배들은 규모도 크고, 그래서 조업 실적도 좋아서 하루에 경매 부르는 게 십억이 되기도 한다. 보통 경매액의 2%를 어촌계에 내는데, 그래서 어촌계도 꽤 활성화되어 있다.

장차 월곶포구는 국가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포구에 24시간 물 들어오게 깊이 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월곶포구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곶 포구는 본래 바다가 있던 곳이며, 지금과 같은 포구가 아니었다. 시흥시에서 월곶 일대를 도시로 조성하면서 1997년경 월곶 포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곳에 배가 24시간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는데 밀물이 들어올 때 갯벌 흙도 들어오고 물만 나가면서 갯벌 흙이 가라앉다 침적되다보니 지금처럼 밀물에만 배가 들고나는 형태의 포구가 된 것이다. 선주들이 시흥시에 포구의 갯벌을 파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지만 시흥시 입장에서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 엄두를 못냈다. 그런데 이번에 월곶 포구가 국가항으로 지정되었으니, 아마도 국가가 수시로 갯벌 흙을 파 줄 것이다. 화성시 궁평항도 국가항이 되어서 포구가 갯벌 흙으로 메워지면 국가가 나서서 파주고 있기 때문이다. 월곶 포구도 대략 5년 후쯤이면 24시간 배를 댈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포구 인근에 좌판도 서고 다시 상권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월곶항과 월곶어촌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 이주민들의 삶

(1) 김연하

- 조사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 조사장소: 시흥시 오이도로 215-1 팔도횃집
- 제 보 자: 김연하(여, 90세 1928년생, 용띠)

김연하 어르신은 화성시 남양면 기안리¹²⁾가 고향이다. 스무 살 되던 해에 혼인하여 오이도로 이주해 들어오셔서 가운데살막에 정착하셨다. 가운데살막은 12~13가구 정도 살았다. 오이도의 중심지는 큰말이라고도 불리는 안말이었다. 안말은 농사를 지을 땅도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대로 건강망도 운영했기 때문에 비교적 부유했다. 그래서 안말에는 주로 오이도 토박이들이 살았고, 김연하 어르신이 살던 가운데살막에는 새롭게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이 살았다. 김연하 어르신이 시집 올 당시, 시댁은 송곳 하나 꽃을 땅도 없을 만큼 너무도 가난했다.



팔도횃집에서 인터뷰 중이신 김연하 어르신¹¹⁾

스무 살 꽃다운 청춘에 혼인하여 오이도에 들어와 70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4남 2녀를 낳아 길렀다.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오이도 일대가 매립되면서 가운데살막에서 정왕동으로 이사를 나온 지가 21년째이다.

김연하 어르신은 오이도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자식들을 어렵게 키웠던 일, 도일장까지 20리 길을 걸어서 장을 보러 다녔던 일, 갯벌에서 부지런히

11) 팔도횃집(경기 시흥시 오이도로 215-1)은 강범모(오이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님이 운영하는 횃집인데, 김연하 어르신은 오이도에 살 때부터 강범모 오사모 회장님의 모친과 친분이 깊어 팔도횃집을 자주 방문하신다고 한다.

12) 현재는 화성시 기안동이다.

조개를 캐면서 생업을 이어갔던 일, 계절마다 해먹던 음식 등에 대한 기억이 특별하다.

김연하 어르신은 일찍 남편과 사별했다. 남편은 45살 되던 해에 육남매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20살에 결혼해서 20년을 살았는데, 실제로는 같이 산 세월이 20년이 못 된다. 군대에 가서 5년을 살고, 재군병으로 가서 1년을 사느라 떨어져 살았다, 돌아와서는 염전에서 난치 일을 봤는데, 비가 오면 비설거지한다고 염전에 나가고, 밤에 염전을 지킨다고 나가고 해서 같이 산 날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흔다섯 되던 해 9월 18일 날에 남편이 세상을 떴다. 남편의 나이는 마흔다섯 살이었고, 김연하 어르신은 스무 살에 시집와서 20년 되었을 때니까 마흔 살에 혼자가 되신 것이다. 자녀가 4남 2녀였는데, 사내아이들이 4명이라 장난도 심했다. 형편도 좋지 않아서 바지저고리에 양말도 없이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옷이고 양말이고 자주 구멍이 나서 밤마다 옷을 기우는 것이 일이었다. 그렇게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운 것이 었그제 일만 같다.

당시 오이도에는 가게나 시장이 없었다. 그래서 호미 하나를 사더라도 도일장¹³⁾, 지금의 시화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야 했다. 가운데살막에서 도일장을 가려면 당산 옆쪽 마루터기를 넘어 안말을 지나가야 했다.¹⁴⁾ 이후에 버스가 생겼지만 여전히 가운데살막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어가서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가운데살막에서 옛 군자역¹⁵⁾까지의 거리가 10리 정도였고, 군자역에서 도일장까지는 다시 10리였다. 그래서 가운데살막에서 도일장까지는 20리가 넘는 거리이다. 그 거리를 오가면 쌀이며, 반찬거리를 사서 나르는 것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었다. 오이도에는 가게나 시장이 없어서 사는 것이 매우 불편했는데, 김칫거리, 굴지¹⁶⁾ 같은 거를 사려면 무조건 고개를 넘어 도일장으로 가야만 했다. 도일장에는 대장장이가 있어 굴까는 작은 칼이나 발가는 팽이를 사기 위해서도 도일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애들이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게 되어 잔치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도일장을 가기도 했다. 또 지금과 같이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김칫거리도 많이 사와서 저장해놓고 먹을 수가 없어 그때그때 조금씩 사다가 해먹을 수밖에 없어 더 불편했다. 아이들에게 시장에 같이 가자면

13) 시흥시 거모동에 위치한 재래시장.

14) 현재 그 마루터기는 오이도선사유적공원 내 야산 등성이로, 그곳에는 군부대가 위치해 있다.

15) 옛날 수인선 군자역. 지금의 정왕역.

16) 굴을 집는 도구.

너무 멀어서 안 가겠다고 했다.

이처럼 가운데살막에는 농사지를 땅도 없고 가게도 없어서 곡식이나 야채, 생필품 등을 사려면 어쩔 수 없이 도일장에 갈 수밖에 없었다. 또 운반 수단이나 저장도구가 없어서 한꺼번에 많이 사올 수도 없어서 도일장에 가는 횟수가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살막 사람들을 보고 안말 사람들은 ‘아니 가운데 살막사람들은 맨날 장에 뭘 사러 그렇게 가는지 모른다.’고 흉을 보곤 했다. 김연하 어르신이 아직도 기억하기로는 현재 93세 되신 어떤 할머니는 당시에 안말 길가에 사셨는데,

“아니 뭘 사러 그렇게 맨날 도일장을 가냐?”

고 묻곤 했다.

그러면 김연하 어르신은

“쌀도 사야죠, 보리쌀도 사야죠, 김칫거리도 사야죠.”

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이렇게 안말 사람들은 묻는 것은 가운데살막 사람들의 사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안말사람들은 논도 있고 밭도 있으니까 쌀이며, 김칫거리 등을 사러 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가운데살막에는 밭이고 논이고 전혀 없고, 오직 갯바닥에서만 어패류를 잡아 그것을 팔아 때거리를 사먹어야 했다. 그래서 매번 장이 서면 농산물을 사러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니, 뭐하는데 가운데 살막사람들은 맨날 장을 다니냐?”

고 하면,

“우리는요, 간장, 고추장만 안 사고요. 다 사야 돼요.”

라고 대답했었다. 간장, 고추장은 담가놓으면 1년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간장, 고추장도 담그려면 콩도 사와야 했다. 콩을 사서 메주 썬서 고추장 담그고, 간장도 담갔다. 지금은 참 편한 세상이다. 그냥 돈만 있으면 배달을 시키면 되고, 또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맘대로 골라 사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젊은 사람들이 ‘뭐가 힘들다, 뭐가 힘들다.’ 그러면 나는 그런다.

“세탁기가 빨래해주고, 전기밥솥이 밥 해주고, 가스레인지가 다 해주고 뭐가 힘든 게 뭐가 있냐? 힘들 거 하나 없다. 뭐가 힘들어?”

김연하 어르신을 비롯해 가운데 살막 사람들은 갯벌이 삶의 터전이었다. 예전의 오이도 갯벌은 오이도 사람들에게는 화수분과 같았다. 김연하 어르신은 오이도 갯벌에서 주로 낙지, 소라, 뽕죽이¹⁷⁾, 가무락¹⁸⁾, 개미맛, 참맛, 감맛, 기상맛, 굴 등을 채취했다. 채취한 조개는 겨울에는 얼기 쉽고, 여름에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그날 안에 바로 수집상에게 넘긴다. 당시 가운데살막에는 어패류 수집상이 있었는데 매일 채취한 어패류를 넘기면 5일이나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정산을 해 주었다. 김연하 어르신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두었다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정산을 받았다.

오이도 사람들이 즐겨 해 먹던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꽃게가 날 철에는 꽃게찌개를 즐겨 끓여먹었다. 또 오이도에서 많이 나는 뽕죽이와 동죽조개가 국물 맛이 좋아서 많이 끓여 먹었다. 굴이 나는 철에는 날배추에 굴을 넣어 생절이¹⁹⁾도 만들어 자주 먹었다.

(2) 은옥화

- 조사일시: 2017년 12월 14일(목)
- 조사장소: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54번길 4 군서경로당
- 제 보 자: 은옥화(여, 80세 1938년생, 범띠)

은옥화 어르신은 1938년생으로 수원 남창²⁰⁾이 고향이다. 24살 되던 해에 혼인을 하면서 정왕동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 은옥화 어르신은 일제강점기 당시 부모님을 따라 강원도, 함경도 등지로 가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

은옥화 어르신의 부친은 존함이 은천봉이시고, 어머니는 박안녀이시다. 본래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수원이 고향이시다. 그런데 은옥화 아버님이 외아들이신데, 친할머니

17) 뽕조개. 오이도 사람들은 ‘비지락’이라고도 한다.

18) 모시조개.

19) 겉절이.

20) 현재는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이다.

께서는 일제강점기에 외아들이 징용가게 될 것을 걱정하셨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외아들을 일찍 혼인시키시고 일제가 손이 덜 미칠 것 같은 강원도로 아들 내외를 데리고 이주하셨다. 그래서 부모님이 혼인할 당시, 어머님 나이가 겨우 열네 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서경로당에서 인터뷰 중이신 은옥화 어르신

부모님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강원도로 이주해서 얼마간 살게 되셨는데, 그곳에서 은옥화 어르신이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에서 얼마가 사시다가 강원도에도 징용을 뽑으니까 다시 함경북도 무산으로 가게 되셨다. 은옥화 어르신이 8살 되던 해에 무산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다시 온 가족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함경북도 무산은 눈이 많이 내렸던 곳으로 기억된다. 눈이 오면 솥에 눈을 넣어서 그 눈을 녹여 물을 먹었다. 또 부엌과 방의 구분이 없이 부뚜막과 방이 하나였다. 그래서 방안 부뚜막에서 밥을 짓거나 불을 때고, 그 자리에서 먹고 놀았다.

무산에 살 때, 아버지는 마을의 구장이셨다. 구장이면 지금으로 치면 동네 반장, 동장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 그 당시 면사무소에서 사람이 나와서 굴을 나눠줘서 처음으로 굴을 먹어봤다. 그러나 처음에는 굴이 무엇인지 몰라서 먹을 줄도 몰랐다. 그때 은옥화 어르신은 여섯 살, 동생은 다섯 살이었는데, 굴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던지고 놀았던 기억이 난다.

또 은옥화 어르신의 가족이 무산을 떠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송별회를 해주었다. 송별회 때 음식과 술이 있었는데, 은옥화 어르신과 동생은 술이 뭔지도 모르고 마셨다가 둘 다 기절을 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다가 8살 되던 해에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함경북도 무산에서부터 강원도를 거쳐 수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중간에 석탄 실은 기차를 타기도 했다. 기차에 실린 석탄 위에 앉아서 타고 오면서 그대로 눈을 맞기도 했다. 또 이런저런 차도 가끔씩

언어 왔다. 그렇게 내려오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한 번은 걷는 도중에 트럭이 지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트럭을 잡으라고 성화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트럭을 잡아 태워달라고 간청하자, 운전수가 태워줄 수 없다고 더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단념하고 그냥 걸어서 가게 되었는데, 어디 만큼 와서 어떤 강가 모래사장에 도착했는데, 사방에 피투성이로 죽은 사람, 목숨은 붙어 있지만 여기저기 다쳐서 피범벅으로 기어다니는 사람이 짝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련²¹⁾ 차가 사람들을 마구 치고 달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혹했다. 그래서 트럭만 보면 붙들라고 야단이었던 할아버지는 다시는 차를 잡아타고 가자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이후 기차를 타고 한 정거장 정도 갔다가 다시 내려서 걷고 다시 기차를 타고 하면서 강원도까지 내려왔다.

무산에서 강원도를 들르지 않고 수원으로 바로 왔으면 좀 더 길이 쉬었을 것인데, 그 당시 할아버지의 첩이 강원도에 살고 계셔서 들르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가 일제에 징용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강원도로 이주해서 살았을 때 그곳에서 할아버지께서 첩을 얻었다. 그곳에서 다시 징용을 피해 함경북도 무산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무산으로 갔을 때, 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셨고, 할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첩과 함께 남으셨다. 무산에서 살고 있을 때 남동생이 이질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 남동생은 삼대독자 귀한 아들이었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강원도에 계신 할아버지께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편지를 받은 할아버지께서 무산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이 되어 온 가족이 다시 수원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강원도에 있는 작은 마누라 집에 가야 한다고 성화했고, 역정을 내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식구들이 길을 빙 둘러 강원도까지 갔던 것이다. 무산에서 내려올 때, 엄마는 배가 부른 상태였다. 강원도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동생을 낳았다. 그래서 또 얼마간

21)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줄여 소련이라고 불렀다.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은 1991년 발트 3국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를 시작으로 독립과 분리를 시작하여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등 15개 국가로 분리되었다. 소련은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 우방세력으로서 북한을 지원하면서 참전하였다. 나무 위키(<https://namu.wiki>) “소련” 항목 참조.

강원도에 머물게 되었다.

얼마 뒤 가족들은 다시 강원도를 떠나 수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당시는 38선이 그어진 상황이었다. 38선이 얼마나 긴 줄을 몰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산속으로 해서, 벼랑으로 해서 강으로 해서 38선을 건너왔다. 한밤중에 강에 놓인 외나무다리를 건너서 오는데, 엄마가 업고 있던 아기가 울었다. 그러니까 같이 내려오던 사람들이 애를 강 아래로 던지라고 야단이었다. 아기 우는 소리 때문에 모두 죽게 생겼다고. 총소리는 뽕뽕 나고 정말로 무서웠는데, 그래도 아기를 차마 던져버릴 수가 없어서 아기의 우는 입은 틀어막고 간신히 건너왔다. 당시 내 나이는 여덟 살이어서 걸어왔고 갓난쟁이 동생은 업혀서 왔다. 다리를 건너고 다시 산을 넘어오니깐 그때서야 앉아서 쉴 수가 있었다. 그전까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잠시도 쉬지도 못하고 걸었다.

해방이 된 이후에, 평안북도 무산에서 그냥 머물러 살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이곳에 살면 빨갱이 된다고 남한으로 가자고 해서 온 가족이 내려왔다. 엄마는 당시에 임신한 상태이기도 해서 안 간다고 혼자 그곳에서 살겠다고 버티셨다. 그러나 아버지 께서 어서 가자고, 여기 있다가는 빨갱이 된다고 하도 재촉하고 서둘러서 내려오게 된 것이다.

우리가 내려올 때 더러 일본 사람들도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당시 일본 사람들도 고생이 참 많았다. 아침이면 밥을 지어서 깨소금을 섞어서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오면서 먹었는데, 다들 먹을 게 없던 시절이니깐, 일본 사람들에게도 한 덩이씩 주고 그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놈들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주면 안 된다고 야단이었다. 그러면서 발로 차고 때리고 그랬다. 이처럼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온 가족이 무사히 고향인 수원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후 수원에서 성장한 은옥화 어르신은 스물네 살의 나이로, 서른두 살의 오준일 어르신과 혼인을 하셨다. 남편은 고향이 황해도 해주이다. 두 사람은 중매로 혼인을 했는데, 당시로는 둘 다 노처녀, 노총각이었다. 슬하에는 아들 넷에 딸 하나를 두셨다.

아가씨 때까지 수원에 살다가 혼인을 하면서 시흥으로 오게 되었는데, 당시 군자역 뒤에 자리 잡은 평안촌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평안촌은 평양촌, 피양촌 등으로도 불렸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원에서 혼례를 치르고 시흥으로 올 때, 수인선이라고 해서 수원에서 동인천까지 가는 노선을 달렸던

동차를 타고 왔다. 동차는 2칸짜리 열차였다. 시집을 당시에 이 인근은 모두 염전이었고, 염전에 물을 대는 저수지도 있었다.

남편은 염전에서 노조 지부장을 맡았다. 결혼 전부터 염전에서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삼 년 있다 염부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부대장 뒀었다가 지부장 뒀고, 지부장을 하다가 퇴직했다. 남편이 퇴직하고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 염전이 폐쇄되었다. 또 군자역 일대를 개발하면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현재 정왕본동 이주민 단지로 이주시키면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예전 살던 곳에는 다 정비되고 개발되었고, 현재는 시흥교육지원청이 들어서 있다.

(3) 주씨 할머니

- 조사일시: 2017년 12월 13일(수)
- 조사장소: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373번길 9 신호APT 경로당
- 제 보 자: 주씨 할머니(여, 80세 1938년생, 범띠)²²⁾

주씨 할머니는 정왕3동 신호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다. 1995년에 오이도 일대가 매립되고 정왕동 일대가 새로 개발되면서 1996년에 한신아파트에 입주하셨다. 이 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는 1995~1996년 당시, 이 인근은 허허벌판이었다. 여기에서 안산역에서 하루에 2번 마을버스를 운행했는데, 교통이 아주 안 좋고 불편했었다. 그 당시 한신아파트에 입주해서 얼마 전까지 살다가 두 달 전에 신호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아들이 정왕동에 살아



신호아파트 경로당에서 인터뷰 중인 주씨 할머니(가운데 베이지 색 상의)

22) 주씨 할머니는 스스로가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셨다. 그래서 성씨만 알려주시고, 이름은 밝히시지 않으셔서 부득이하게 제보자 이름을 주씨 할머니라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

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다.

지금 신호아파트가 있는 정왕3동은 예전에 전부 바다였던 곳이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25살 먹은 아가씨일 때, 군자 염전에 일하러 오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 당시 염전은 대한염업주식회사였는데, 그곳에서 여비서로 근무하면서 타이핑을 업무를 맡아 했다.

주씨 할머니의 고향은 평안남도 안주시 신안주이다. 신안주는 시골은 아니고, 조금 발달한 지역이었다.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고 삼남매의 첫째였는데, 11~12살쯤 되었을 때,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월남했다. 월남해서 서울의 독립문 옆에 정착했고, 학교는 서대문에 있는 금화초등학교를 다녔다. 금화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사람들이 다녔던 학교라서 수영장이 있었고, 그래서 주씨 할머니는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다. 또 인왕산 계곡물로 빨래를 하러 다니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금화국민학교에서 인천 축현국민학교로 전학을 했다.

인천에는 인천사범학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공안과에서 간호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다. 옛날에는 간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안과에서 보조로 일을 하면서 일을 배웠는데, 간호 일을 배우는 게 어렵고 무서웠다. 눈알을 빼놓으면 접시로 하나였는데, 마치 개구리 알처럼 하얗게 생긴 것에 검은 동자가 있는데, 밤이면 그것이 생각이 나서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 간호보조로 일하던 공안과의 주인은 공병호 박사였는데, 그분은 맹인들에게 타이핑을 가르쳤다. 그 학원이 광나루 근처에 있었다. 그곳에서 타이핑을 배웠다. 주씨 할머니는 타자치는 것을 열심히 배웠고, 소질이 있었다. 오타가 없이 타자를 잘 치자, 공병호 박사가 서기를 하라고 했다. 한글날 타이핑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타이핑 대회에 나가서 5번이나 상을 탔다.

타자학원을 졸업하고, 정상천 씨가 서울시 치안국장을 할 때²³⁾ 시경에서 타이피스

23) 서울시 치안국감은 지금의 서울시 경찰청장에 해당한다. 정상천은 1970년 3월 6일부터 1971년 6월 12일까지 서울시 치안국감을 지냈다. 서울경찰청(<https://www.smpa.go.kr>) 참조.

트로 타이핑을 쳤다. 그런데 관공서는 월급이 적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은 대한염업주식회사로 이직하게 되었다.

대한염업주식회사의 전신인 군자염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운영하다가 광복 이후에는 정부에서 운영을 맡았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염전사업이 점점 시세가 없어지다가 마침내 폐업하게 되었다. 퇴직할 당시, 대한염업주식회사는 퇴직금 대신 주안염전을 주었다. 그런데 여자가 염전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염전 자리에 아파트가 생겼다.

대한염업주식회사에 비서로 근무하던 당시, 28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남편은 4살이 더 많았고, 노총각이었다. 남편은 법원에서 근무했다. 남편과 사이에서는 아들 하나를 두었다. 아이를 더 낳고 싶었지만 둘째를 자연유산하고부터는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신호아파트에 이사 온 지는 두 달이 되었다. 한신아파트에 95년에 입주해서 20년 살다가 신호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신호아파트에 이사 온 지 2달 되었다.

대한염업주식회사에 다닐 때, 염전에 현장방문 형식의 견학을 왔다. 당시에는 소금이 귀했고, 현금화하기 쉬운 수단이어서 염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일 소금을 훔쳐서 파는 일이 많았다. 그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염전을 현장방문한 것이다.

대한염업주식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뉴코아백화점에서 사감 일을 했다. 사감 일은 직원 관리를 하는데, 복장을 살피고 예절을 교육하는 것이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 파란만장했다. 평안남도 안주시 신안주에서 태어나 11~12살까지는 이북에서 살았다. 일제강점기도 겪고, 고향을 떠나 월남하고, 6.25 한국전쟁도 겪었다.

3. 오이도와 이웃 사람들이 전하는 옛이야기

1) 개요

오이도는 본래 섬이었으나 현재는 섬으로서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본래 오이도였던 곳에 새롭게 조성된 정왕동 일대에는 여전히 오이도의 숨결과 추억이 깃들여 있다. 오이도에서 대대로 살았던 토박이 사람들은 1987년부터 1994년 사이에 시화지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먼 타지로의 이주보다는 기존의 정왕본동과 새롭게 조성된 정왕 1,2,3,4동 등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왕동 일대는 시화공단의 배후도시인 까닭에 오이도에서 이주한 사람들 이외에도 타지에서 유입해 들어온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정왕동 일대는 오래된 역사와 간척지로서의 역동적 새로움이 공존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다.

오이도의 옛 흔적과 추억을 찾기 위해 정왕본동과 정왕1~4동을 현장답사를 하면서 다시금 정왕동 지역이 오래된 역사와 새로움이 공존하는 다채로움을 확인하게 되었다. 오이도의 토박이 사람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와 옛노래들은 정겹고 인근의 인천과 수원과 용인, 더 멀리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와 노래들은 다채롭다.

조사팀은 오이도 토박이 주민들의 대다수가 정왕동 일대로 이주해 살고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왕동 일대의 여러 노인정을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방문조사는 사전조사, 현장방문 면담조사, 보완조사 이상 3단계로 진행되었다.

사전조사는 2017년 12월 7일에 이루어졌으며 시흥시청을 방문하여 관광과, 사회복지과 담당자를 만나 오이도의 역사, 주요 제보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정왕동 일대의 경로당 분포와 소재,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합하였다.

현장방문 면담조사는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정왕본동 정왕큰솔경로당, 정왕본동 군서경로당, 정왕1동 그린경로당, 정왕1동 장수경로당, 정왕3동 동남APT경로당, 정왕3동 오이도경로당, 정왕3동 오이도제2경로당, 정왕3동 동보APT경로당, 정왕3동 신호APT경로당, 오이도 어촌계 등을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

시하였다.

보완조사는 12월 21일에 이루어졌는데 오이도 풍어제곳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정왕3동 오이도 경로당, 덕섬(똥섬) 등을 방문하여 세부적인 면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수차례 보완조사를 위해 여러 제보자들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조사 자료의 내실을 다졌다.

정왕동 일대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설화는 32편, 민요는 21편, 생애담 6편을 조사, 채록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32편의 설화들은 도깨비, 효자, 효녀, 꼬마신랑, 업구렁이, 호랑이 등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2편의 설화 중에서 비교적 이야기의 형태를 온전하게 갖추고 내용이 충실한 설화는 14편 정도이다. 나머지 18편의 설화 자료는 본래 이야기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들이다. 18편의 설화가 온전한 설화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구연된 것은 설화를 구연해주신 어르신들이 연로한 탓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정마다 TV와 라디오가 보편화, 일상화되면서 오랫동안 옛이야기를 구연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교적 설화의 형태를 온전하게 갖춘 14편의 설화를 효행설화, 도깨비설화, 지역전설, 그 밖의 민담들로 범주화하여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태기로 한다.²⁴⁾

2) 효행설화

① 〈개똥 씻어 밥 차린 며느리〉

최유순(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강원도 강릉시)

뭐야,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시어머니 뭐 식사 해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나?’ 하고 거실에 있는데. 옛날에 개, 개가 밭에다가 대변을 놓아가

24) 설화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음 : 조동일 외 4인, 『한국구비문학대계 : 별책부록(Ⅰ) 한국설화유형분류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1,2)』(국립민속박물관, 2012.)

지고서. 그걸 갖다가 보리쌀을 먹고서, 보리쌀이 삭아지지 않은 거 그거 쓸어다가 씻쳐가지고(씻어가지고) 밥을 지어서 자기가 먼저 한 숟갈 떠먹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드렸다(드렸대).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소나기가 퍼부으면서, ‘아유, 내가 우리 어머니를 그걸 해드려서 죄를 받아 벼락을 날 때릴라 보다.’, 해가며 생각을 한 거야. 그냥 뭐 우지끈 지끈 불을 밝히고 그래서 그냥 순간 저 까무러쳐서 놀랐다가 일어나니까. 비가 그쳤는데, 그 뒤에가 병박²⁵⁾이 요래가 요만한 병박이 걸렸더라(걸렸더라). (조사자: 귀에?) 요 귀에다 걸어놓고.



동남아파트경로당에서 인터뷰 중인 최유순 어르신

이상해서 이게 뭐하는 건가 싶어서 갖고 들어와서 거기다 동전을 하나 요렇게 넣으니까, 십 원짜리를 하나 넣으면 십 원짜리 하나 가득되고, 백 원짜리 넣으면 백 원짜리 하나 가득 되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 얘기겠지. 그래가지고서 그 부자가 되서 그냥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다고.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있더라고).

[해설]

〈개똥 씻어 밥 차린 며느리〉 설화는 몹시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개똥의 보리를 씻어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복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가난 때문에 끼니를 마련하지 못한 며느리가 지령이로 국이나 반찬을 만들어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는 이야기와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효부담(孝婦談)이다.

며느리는 집안에 먹을거리는 없고 시어머니는 봉양해야겠기에 개똥에 삭지 않은 보리쌀이 섞여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씻어 밥을 지어 시어머니에게 대접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오고 벼락이 쳐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는 것으로 착각하여 기절

25) 조롱박의 방언.

했다가 깨어보니 조롱박(병박)이 하나 내려졌다고 한다. 조롱박 안에 동전을 넣었더니 동전이 가득 붙어서 부자가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았다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2가지 조건이 갈등을 일으킨다. 끼니조차 이룰 수 없는 극한의 가난과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며느리의 임무가 상충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며느리가 개똥 속의 보리를 씻어 밥을 지어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 이면에는 며느리의 심리적 갈등이 매우 치열하게 작동하고 있다. 개똥 속의 보리로라도 시어머니를 봉양해야만 하는 며느리의 무거운 임무와 개똥은 매우 더러운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오는 죄책감의 상충이 심리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그런 점에서 소나기와 천둥 번개는 며느리의 증폭된 심리적 갈등을 외형적으로 표현한 상징으로 읽혀진다.

며느리가 도덕과 인륜, 임무와 양심, 윤리와 죄의식 사이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이 이 한편의 설화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며느리 자신이 개똥보리밥을 먼저 한 번 떠먹고 시어머니에게 올렸다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심리적 면죄부를 얻고, 더 나아가 하늘로부터 무한히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화수분’과 같은 조롱박을 얻는 것으로 보답을 받는다.

그러나 〈개똥 씻어 밥 차린 며느리〉는 최유순 어르신의 개인적 신념 또는 윤리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조금은 특별한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이 유형의 효부담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똥보리밥을 대접한다고 할 뿐, 며느리 자신이 먼저 개똥보리밥을 시식하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최유순 어르신은 며느리의 효심을 좀 더 부각하고자 하는 의식, 곧 효와 효심, 효부에 대한 최유순 어르신의 강력한 지지의식이 반영되어 며느리가 먼저 시식하는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가 끼니가 없어 개똥보리밥을 시어머니에게 대접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첫째는 가난의 정도가 극함을 나타내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그럼에도 왜 누구나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개똥 속의 보리밥일까라는 의문으로부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모든 며느리는 시부모에 대한 효와 봉양이 필수적인 의무이다. 고부 사이가 순탄하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대체적으로 고부사이는 결끄러운 관계였다. 따라

서 개똥보리밥은 가난한 집안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성을 상징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고부사이의 존재하는 영원한 갈등을 상징적으로 내포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지렁이로 효도한 며느리①〉

조명순(여, 90세, 1928년생, 용띠, 고향 : 서울시 중구 수표동)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눈이, 눈을 못 떠 장님이야. 근데 이제 뭘 잡수는 걸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드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 눈을 못 뜨니까 못 보잖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이 자꾸 뭘 맛있는 걸 해드리라고 그러는 거야.



동남아파트경로당에서 인터뷰 중인 조명순 어르신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렁이(지렁이)를 잡아다가 이제 그걸 과서 자꾸 드렸어.

그러니까 잡수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끄내(꺼내) 가지고 십자리²⁶⁾ 밑에다 넣었어, 맨날 그거를. 하두(하도) 맛있으니까 넣었어.

넣는데, 이제 아들이 와 가지고, 타지에 갔다 와 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살이 통통히 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머니 뭘 그리 잡쉴서.”

“내가 며느리가 이렇게 해줘서 잘 먹고, 내가 뭘 줬나²⁷⁾ 하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다.”고 그랬대.

26) 돛자리의 방언.

27) ‘먹었냐’를 잘못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할머니가 끄내서 보여주니까 지렁이거든? 그니깐 놀래 가지구서는 아들이 놀래서,

“어머니, 그 지렁이라고. 지렁인데, 그거 잡수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가 눈을 떴대.

③ 〈지렁이로 효도한 며느리②〉

홍웅자(여, 79세, 1939년생, 토끼띠, 고향 : 용인시 남사면 창리)

어머니가 장님이 되었어, 시어머니가. 그런데 며느리가 보신을 해 드려야 되는데, 세상 보신 할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지렁이를 잡아다가, 말려가지고 어머니를 갖다 드린 거야. 그러니까 맛있게 잡수시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이 과거 보러 갔다나, 뭐 하러 갔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해다 드리니까, ‘아!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우리 며느리가 해 오냐.’고, ‘우리 아들 좀 오면 주리라.’고, 자리 밑에 다가 그걸 한 때를 안 먹고 두었더랍니다.

그랬는데, 두었는데 아들이 오니까

“아휴!”

아들을 반가워하면서,

“아이코! 세상에.”

만져 보면서,

“밖에 나가서 고생했다.”고,

“나 맛있는 거, 우리 며느리가 해 준 것 좀 준다.”고.

꺼내서 주니까, 지렁이잖아.

그래 가지고서, 저기가, 아들이,

“어머니 그거 지렁이예요.”

그러니까, 눈이 딱 떠 진거야, 장님이. 그 얘기이고, 허허허허. (조사자 : 어쨌든 결말은 행복하네요?) 그렇지. 눈이 떴으니까, 효부는 효부지, 허허허허.

[해설]

〈지렁이로 효도한 며느리①〉와 〈지렁이로 효도한 며느리②〉 설화는 어느 마을에 사는 며느리가 가난 때문에 지렁이를 요리해서 눈먼 시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오랫동안 떠나있던 남편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놀란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며느리는 눈먼 시어머니에게 지렁이를 고기로 속여 먹게 했다는 점에서 못된 며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4가지 설화적 장치를 통해 이 이야기 속의 며느리는 효부라고 판명된다.

첫째, 며느리들의 선한 의도가 주목된다. 각각 시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해드려야 되는데 가난 때문에 해드릴 것이 없다거나 눈먼 시어머니에게 무엇으로 보신할지를 궁리하다가 지렁이 고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둘째, 지렁이 요리의 맛과 효능이 놀랍다. 시어머니는 눈이 먼 관계로 지렁이를 고기라고 착각하며, 맛있게 먹고 살도 찌게 된다. 지렁이로 만든 요리가 맛있다는 것도, 또 그 지렁이 요리를 먹고 시어머니가 살이 찌게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반전이다.

셋째, 시어머니는 의도치 않게 며느리의 비밀을 아들에게 폭로하는 주체가 된다. 시어머니는 맛있는 지렁이 요리를 아들에게 주기 위해 몰래 돗자리 밑에 보관했다가 출타했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맛보게 한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아내가 어머니에게 지렁이로 봉양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 지점은 장차 아내에게 떨어질 도덕적 비난을 예비한다는 점에서 극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불러일으킨다.

넷째, 시어머니는 자신이 먹었던 맛있는 고기가 실제로는 지렁이였다는 사실을 아들로부터 듣고 놀라 눈을 번쩍 뜬다. 이야기는 아내에게 도덕적 책임이 묻는 비극적 방향이 아니라 어머니의 감긴 눈이 뜨는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이러한 4가지의 장치를 통해 이 설화는 시어머니에게 지렁이 고기를 대접하는 며느리의 부도덕함을 비난하는 관점에서 시어머니의 눈을 뜬 며느리의 효심을 칭찬하는 것으로 주제가 전화된다. 우리 설화에서 주인공의 선한 의도와 행복한 결말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동일한 서사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설화도 존재한다. 남편이 부재중에 자신은 고기를 먹으면서 눈 먼 시어머니에게는 지렁이를 고기라고 속여 대접하던 못된 며느리가 결국 벼락을 맞아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과정은 동일하지만 의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묘미는 며느리가 눈 먼 시어머니에게 대접한 것이 왜 하필 지렁이였을까 하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렁이는 눈이 없는 동물이다. 눈이 없는 지렁이의 어둠과 며느리의 정성과 결합되어 시어머니의 눈픔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이 설화가 지닌 숨겨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④ 〈시어머니와 며느리 화해시킨 아들〉

조정자(여, 80세, 1938년생, 쥐띠, 고향 : 충청북도 청주시)

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의가 안 좋고, 맨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그랬다(그랬대). 그러니까 아들이 중간에서 그 거북하잖아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니까 아들이 연구하다 말고 며느리 보고,

“여보 밤을 삶아서 매일 어머니를 드리라.”고.

“그걸 잡수면 부어가지고서는 일찍 못 살고 돌아가신다.”고, 인제 그랬어.

이 며느리가 듣기가 좋잖아. 노인네가 맨날 싫은데. 그래 밤을 맨날 사다 열심히 삶아서 시어머니를 준 거야. 그 시어머니가 먹으니께, 통통하게 밤살이 올라서 살이 찌는 거야.

근데 며느리는 죽을 지만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마음이 달라진 거야. ‘야, 우리 며느리



동남아파트 경로당에서 인터뷰 중인 조정자 어르신

가 이렇게 나한테 잘하고 이렇게 밤을 삶아서 매일같이 챙겨주니까 얼마나 착하냐!’고.

그냥 며느리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시키던 걸 며느리한테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사이가 좋아졌대.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어.

[해설]

〈시어머니와 며느리 화해시킨 아들〉 설화는 고부갈등을 소재로 한 설화이다. 시어머니와 아내의 사이가 좋지 않아 불편했던 한 남자가 아내를 속여 거짓 효행을 하도록 이끌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고부갈등이 해소되고 행복한 결말을 맺고 있다.

남편이 제시한 방법을 살펴보면 매우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고부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도록 매일 밤을 삶아 드린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매일 삶아주는 밤을 먹고 살이 찌게 되고, 더 이상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고부갈등은 해소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질적 충족과 봉양이며, 며느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시어머니의 너그러운 이해와 사랑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늙어 쇠잔해가는 시어머니와 시집이 낯설고 어려운 며느리의 갈등이 서로의 결핍을 충족시켜주면서 궁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남편의 지혜로 사건이 극적으로 전화된다는 점에서 설화적 재미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며느리의 거짓 효행이 결과적으로는 참 효행을 실현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우리 조상들의 윤리관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⑤ 〈시어머니 속여 벌 받은 며느리〉

박승자(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전남 나주군 완곡면)

옛날에, 인제 할머니가 혼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 할머니가 시골은 명 짓고 이렇고 일하면 혼자 답답하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뵈이여, 명 짓으면서 인자, 노래

할 것이 없으니까, 한번은 중이 왔어. 중이 와서,

“할머니 염불 한 가지 것 가르쳐 줄게 허시오. 아들 하나가 잘 될 거라.”고 인자.

아들 하나 키우고 산 게, 염불을 가르쳐 주면 잘 될 것이라고 가르쳐 하라고 한 게, 할머니가 아들 하나를 할아범도 없이 딱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그런 게, 나무아미타불을 가르쳐 줘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런 게, 날마다 ‘나무아미타불!’, 명 잤을 때도 돌아다니며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아들이 인제, 며느리가 있지 인제. 장가 간 아들이. 그런 게, ‘나무아미타불’을 잊어버렸어. 하다가 하도 하다가, 깜박 잊어버린 게, 며느리 보고,

“아야! 며늘아가, 내가 날마다 뭐이라고 하더냐? 내가 날마다 뭐이라고 맨날 하더냐?”

그런 게, 선생님 들으니까 어렵네요. 그런 게, 며느리가 뭐라고 하냐면, 효부가 아니고 불효자여! 허허허. 뭣이라고 하냐면,

“박서방 좋다고. 김서방 좋다고. 이서방 좋다고.”

이렇게 가르쳐줬어, 하라고 늙은이를, 어매를.

아, 그런 게 이 늙은이가 뜬금없이. 아들이 밖에 나갔다 온 게, ‘김서방 좋다.’고 해. ‘박서방 좋다.’고 해. 날마다 이런 게 부르고 있어. 그런 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소실 때 혼자되어서 연고가 되었다.’

인제, 그 박서방한테 가서 말을 했어.

“할아버지, 우리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옆에 가서 이야기 좀하고 담배 좀 한 대 피우고 오쇼. 그래 갖고 가라니 게, 노인 옆에서 노인이 담배하고, 명 잤으면서, 담배랑 준 게 영감탱이가 담배랑 먹고는, 아들이 한 말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따뜻하니 이불을 깔아 놓았으니 이불 속에 들어가서 놀다 오쇼.” 그랬어.

그런 게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 간 게, 영감 할머니가 담뱃대를 갖고 와서 막 두드



신호아파트경로당에서 인터뷰 중인 박승자 어르신

려 갖고 쫓아내 버렸어. 그런 게, 뒤지게 문 열고 내뺄 갖고는 그 다음날은 아들한테 그랬어.

“자네 어머니한테 나 맞아 죽을 뻔 봤네. 아니 어저께 방에 앉아서 아무 것도 않고 이야기하다가, 아니 담뱃대를 들고 나를 어떻게 후드려²⁸⁾ 패서 죽을 뻔 봤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아닌가봐.”

그리고 인제 김서방한테 갔어, 김서방 영감한테.

“아저씨!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 혼자 심심한 게, 오늘 저녁에 가서 같이 말동무 좀 하쇼!”

그리고 시키고 했으니까, 또 그 영감도 그대로 했지, 어매한테. 그런 게, 담배를 피면서.

“뭘 할머니 방에 이불에 발을 넣느냐?”고.

세 놈들이 다 쫓겨 가 버렸어, 하나도 못하고.

그런 게 인자 끝에 가서는,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놓아두어서 안 되겠다.’ 돈하고 쌀하고 딱 짊어지고 인자 절에로 갔어. 절에로 가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 한마디 절에서 하는 말을 하는데, 한번 잊어버린 게, 이상한 말씀을 하더라고, 그런 게 내가 절에서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갖고 왔소.”

그리고 보여주면서, 그런 게 거기에다 놓아두니까, 쌀 갖고 왔지, 돈 갖고 왔지, 밥해서 먹여 가지고 꽃방석에 할머니를 앉혀 놓았어. 너무 절에 갖고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꽃방석에 앉혀 놓고, 세상에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살지.

그런 게 이 며느리가 인자 몇 살이나 되었던가? 신랑한테,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우리 한번 가 봅시다. 어머니가 어찌고 계신가? 그 똥하고 말라 갖고 있는가? 밥이나 먹고 사는가? 가 보자.”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봉덕각시²⁹⁾ 되어 갖고 꽃방석에 가 앉아 있어. 그런 게,

“당장 나도 우리 어머니를 모셔다가 갖다 놓으면 어떠냐?”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니까,

28) ‘두들겨’의 방언.

29) 봉덕각시 : 원래의 뜻은 막 결혼한 새댁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뜻이 변하여 보기 좋게 통통한 여자아이나 아가씨를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신랑이 장모 데리고 똑같이 갔어. 갔다가 거기다 모셔 놓고, 또 몇 달 있다가 가 본 게, 그 장모는 큰 구렁이가 여기를 다 감았어. 그래 갖고 목을 감고 여기다 턱에다 대고 있어.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저래 놓고 우리는 이래 놓았냐?”고 하지.

“당신이 당신 시어머니한테 무슨 죄를 지었냐? 죄가 한 가지가 아니다. 그렇게 나쁜 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당신 어매를 이런데다 모셔 놓겠냐?”고.

어매 죄로 그렇게 뱀이 잡아먹어 죽었는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

[해설]

〈시어머니 속여 벌 받은 며느리〉 설화는 시어머니께 불효한 며느리가 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주제로 한 이야기이다. 일찍 과부가 된 시어머니에게 한 스님이 찾아와 아들이 잘 되게 하는 주문이라고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알려 준다. 늘 주문을 외우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주문을 잊어버려 며느리에게 자신이 평상시 외우던 주문을 물어본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주문이 ‘박서방 좋아, 김서방 좋아, 이서방 좋아’라고 가르쳐준다. 시어머니가 외우는 주문을 우연히 들은 아들은 어머니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박서방, 김서방, 이서방을 차례로 어머니방에 들여보내지만 모두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쫓겨난다. 아들은 어머니가 실성했다고 여기고 절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곳에서 어머니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잘 지낸다. 이를 부러워한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절에 모셔다드렸는데,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친정어머니는 뱀에게 잡아먹혀 죽게 된다.

이 설화에는 유교적 윤리관, 불교적 세계관, 권선징악적 주제, 주술적 사고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유교적 효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매우 단순한 주문으로 일체의 번뇌를 벗고 궁극적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불교적 세계관, 딸이 지은 죄가 친정어머니의 비극적 죽음으로 귀결되는 권선징악, 죄를 지은 사람은 뱀과 같은 동물에게 잡아먹힌다는 주술적 사고 등이 그것이다.

결말에서 며느리가 저지른 불효가 친정어머니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효를 중시하고 불효를 경계했던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 윤리관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는 설화이다.

3) 도깨비 설화

① 〈도깨비에 홀린 사람〉

최유순(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강원도 강릉시)

우리가 사당동 살 때, 그 남태령 알거야. 그지? 우린 고 밑에 사당사거리 살았거든. 그러면 거기를 옛날에는 그냥 다 농사짓고 농촌이었어. 아주 농촌이었어.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고 밑에 신당뜰이라는 데 가서 술들을 먹고, 고 남태령 사는 사람들이 거길 올라갔는데, 그게 도깨비 홀린 거야 이제. 올라갔어.

술도 잔뜩 채해가지고(취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산 비탈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덩불 있고, 나무 덩불 있고 그랬거든? 그니까 그게 무슨 가시덤불 그런 걸로 안 보이고 도깨비한테 홀려가지고. 아주 그냥 요정도 술집. 아주 기와집 잘 차려놓은 기와집 그렇게 보이는 거야, 홀려서. 그래 예쁜 색시들이 나와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산비탈 거기 이제 올라가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우(바위)가 이렇게 넓게 깔린 바우가 있어. 근데 그게 바우가 아니라 술집으로 보이는 거야 홀려서.

보이는데, 앞아가지구서 색시들하고 이제 이렇게 앉아서 ‘둥다라, 둥딱둥딱’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거기서 막 노래하는데. 같이 술 먹으러 갔던 친구들이 뒤따라 섰다가 이제 올라가서 들으니까, 그 친구의 목소리가 산비탈에서 나거든?

그러니까 이상해서.

“야! 아무개야 거기서 뭐해!”

이랬을 거 아녀?

“어, 여기와 술 한 잔 먹고 가.”

인제 대답을 하더라. 그니까 인제 거기를,

“저게 뭐 하러 저기 올라가서 저러지?”

이러면서 올라가보니까, 이런 바위 위에 그냥 혼자 앉았지 뭐 인제. 그 사람 노는 사람은 이제 재미가 나서 색시들하고 놀았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안 홀렸으니까 바위 위에 가 앉아서 이제 장단을 치면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가지구선 이제 가서 왼뺨을 그냥 여지없이 흠쳐 갈졌대, 정신 차리라고.

“여기가 어딘데 여기 앉아서 그러냐?”고.

“이놈이 그냥 도깨비한테 흘렀다.”고.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남태령 이제 자기네 집 거기로 올라간 거야. 집으로 온 거야.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지. (조사자 : 안 만났으면 큰일 났겠네!) 그것들한테 흘려서 어디로 끌려 댕겼겠지. 이제 그 소린 내가 도깨비 흘린 거 거기서 들었어. (조사자 : 아유 참.) 아주 신나서 여기서 혼자 노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여기 아가씨들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데리러간 사람은 친구가 돌바우(돌 바위)에 혼자 앉아서 그러잖아. 그게 도깨비에 흘려서. 옛날엔 거기서 그렇게 도깨비한테 잘 흘렀다(흘렀대), 남태령에.

② 〈홀치기에 흘린 사람〉

김용길(남, 78세, 1940년생, 범띠, 고향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우리 아버지가 하도 이제 내가 의사 부르러 갔다가 안 오니깐 마중을 나오셨나봐. 우리 형들은 고등학교 다니고, 큰 형은 군대 가고. 내가 막내니깐 나무 해다 드려야 하고 하니깐 집을 지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

“어디 가셨냐?”니깐,

“너 마중 간다고 가셨다.”

근데, 얼마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셔 가지고 땅에 이렇게 주저앉으시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깐, 뭐 홀치기한테 흘렀다 그러던가. 홀치기라고 하든가 그래. 그냥 뭐가 길이 흰하게 뚫려있더라. 그래서 그 길로 쪽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앞에 서계시더라. 근데 동네에서 닭 우는 소리가 나더라. 닭 우는 소리. 그런데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깐 낭떠러지 바로 옆에 서 있더라, 당신이. 그래가지고 땀이

쪽 흘러가지고 오셨어. 그래,

“가시지 말라.”고.

그 6.25 때 우리 동생이 죽어가지고 공동묘지에 묻었는데, 거길 자주 가셨대, 아버지.

한번은 가니까는 키가 9척이나 되는 놈이 서 있더라. 그래가지고 놀래서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산소를 안 가시더라고, 그 동생 산소에. 그전에는 그런 게 무서웠어. (조사자 : 그럼 그게 여우에 홀린 거예요, 도깨비에게 홀린 거예요, 귀신에 홀린 거예요?) 근데, 도깨비도 아니고 빗자락³⁰⁾, 빗자락 몽둥이 하나밖에 없더라. (조사자 : 어디에?) 그 옆에. 그 저 화장실 잣더미 쓰는 빗자락, 대빗자락 하나 밖에 없더라. 귀신도 없고.

③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박승자(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전남 나주군 다시면)

장에 갔다 오다가 돌이 싸우고 있으면 그 도깨비, 사람을 퐁퐁 나무에다 묶어 놓고 그 다음날 가 본 게, 빗자루 땅에서 부엌에서 쓰는 모든 빗자루에 피가 찌개 묻어 놓은 게, 그것이 도깨비³¹⁾가 되어 갖고, 장에 갔다 오면 그런다고, 나는 보든 앓았어도,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해.

아니, 술 먹고 오다가 도깨비 앵겼다³²⁾고 현 말을, 그런 말을 들어, 그 말 뿐이여. 근디 돌이 막 싸우다가 소나무에다가 묶어 놓았는데, 사람을.

자기가 이겨 갖고, 이겼으니까 살아와. (조사자 : 사람이 이겼구나?) 사람이 이겼어, 이겨서 살아.

그래 갖고 퐁퐁 묶어서 거기다 놔두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그 자리에 가 본 게,

30) 빗자루의 방언.

31) ‘도깨비’의 방언.

32) ‘달라붙다’의 전라남도 방언.

빗자루를 묶어 놔더라고. 빗자루가 불에 여기, 피 쪼까³³⁾, 옛날에 수수 빗자루 있잖아? 빗자루 그런 놈이 피 묶으면 도채비로 변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도채비가 그래서 만들어진다고 해.

④ <도깨비불>

홍복선(여, 84세, 1934년생, 개피, 고향 : 충남 서천군 마산면)

그전에 모시하고 나서 비는 축축이 오는데, 그 대나무 옆에 가 대나무 밭이 있었어. 그런데 줄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 근데 뿔이 뿔적하고 지나가 왔다 갔다 했어. 근디, 그때는 몰랐지. 그게 도깨비불이라고 하더라고. 비 축축이 오는데 말여, 대밭에서 이렇게 바지랑대³⁴⁾ 같은 줄 같은 것이 이렇게 하면. 뿔적하니, 뿔적하니 오고, 불 쪼그만 이만한 것이 뿔적 뿔적 뿔적 돌아다니면, 그것이 도깨비불이라고. 도깨비불인줄 알았으면 감수하지. 그게 도깨비불이라고 (조: 나중에 그래요?) 응 나중에 그때,

“아휴! 나 어제 저녁이 뭐 아무개네 집에서 모시하고 오는데, 새벽이지. 모시하고 오는데 말이야, 비는 오는데 말이야, 그 대밭 거기서 불이 뿔적뿔적, 꺼먼 것이 왔다 갔다 하네. 커다란이 시커먼 것이 왔다 갔다 하네. 불이 뿔적뿔적하네.”

“어머, 그게 도깨비불이야.”

말은 그런데 도깨비불인 줄 알았으면 감수해서 오도 못 해. 허허허. 감수하지. 도깨비불, 그때 도깨비불이 어찌고 얘기는 했었어. 어려서 들었는데, 도깨비불인줄 알았으면 감수하지. 집에 찾아갔겠어?

[해설]

정왕동 일대의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도깨비 관련 설화가 4편 조사되었는데, 최유순

33) ‘조금’의 전라도 방언.

34) 빨랫줄을 받치는 긴 장대.

구연의 <도깨비에 홀린 사람>, 박승자 구연의 <도깨비와 씨름하기>, 김용길 구연의 <홀치기에 홀린 사람>, 홍복선 구연의 <도깨비불>이 그것이다.

정왕동 일대에서 조사된 도깨비와 관련한 4편의 설화는 우리나라에 전승되고 있는 전형적인 도깨비 설화와 상통하는 자료들이다.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내용의 도깨비 설화가 전승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도깨비와 씨름하기’, ‘도깨비에 홀려 끌려 다니기’, ‘도깨비불’, ‘도깨비감투’, ‘도깨비와 사귀어 덕 보기’ 등이다.

최유순 어르신이 구연한 <도깨비에 홀린 사람>과 김용길 어르신이 구연한 <홀치기에 홀린 사람>은 ‘도깨비에 홀려 끌려 다니기’ 유형에 해당하며, 박승자 어르신이 구연한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은 ‘도깨비와 씨름하기’ 유형에 속하고, 홍복선 어르신이 구연한 <도깨비불>은 ‘도깨비불’ 유형에 속한다.

‘도깨비에 홀려 끌려 다니기’ 유형은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구연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 친척, 동네 사람 등이 겪은 것을 직접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또는 동네 사람이 이웃동네, 장터 등을 다녀오다가 밤이 늦었는데,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과 어울려 여기저기 다니다가 날이 썰 무렵 온몸에 흙이 묻고 상처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는 내용이다. 다음날 대낮에 자신이 해매던 곳을 찾아가보니 낡은 싸리나무빗자루가 버려져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도깨비에 홀린 사람>는 주인공이 무언가에 홀려 산비탈의 가시덤불과 바위 등으로 끌려 다닌다는 점에서 ‘도깨비에 홀려 끌려 다니기’ 유형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주인공을 유혹한 주체가 술집 색사이며, 바위가 술집처럼 보였거나 친구가 주인공의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는 설정이 들어가서 매우 실감나고 흥미로운 도깨비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홀치기에 홀린 사람>은 김용길 어르신의 부친께서 직접 겪은 도깨비 체험담이다. 김용길 어르신의 고향은 시흥시 정왕동과 멀지 않은 인천시 동구 화수동인데, 그 지역에서는 도깨비를 ‘홀치기’라고 칭하고 있다. 부친이 9척 장신의 홀치기에 홀려서 낭떠러지까지 이끌리어 갔다가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 살아 돌아왔다고 하는 내용이다.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9척 장신이라고 여겼던 존재는 화장실에서 재를 치우는 데 사용하는 대나무빗자루 몽둥이였다고 한다. 부친은 평소엔 6.25 때 죽은 동생이 묻힌 공동묘지를 자주 찾아갔기 때문에 홀치기를 만나게 된 것 같다고 김용길 어르신

은 나름의 개연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부친이 귀가한 상황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하면서 부친이 땀에 흠뻑 젖어 돌아와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생생히 묘사함으로써 이야기의 사실성을 극대화하며 극적 재미를 고취시키고 있다.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은 박승자 어르신이 구연한 이야기이다. 장에 갔다 귀가하는 길에 도깨비가 달려들어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전형적인 ‘도깨비 씨름’ 유형 설화이다. 달려든 도깨비와 씨름하다가 도깨비를 나무에 묶어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와서 확인해 보니 수수깡빗자루였다고 한다. 이야기의 말미에는 빗자루에 피가 묻으면 도깨비로 변한다고 믿었던 옛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도 덧붙여보고 있다.

〈도깨비불〉은 홍복선 어르신이 구연해준 도깨비 체험담으로, 전형적인 ‘도깨비불’ 유형의 설화에 속한다. 젊은 시절, 이웃집에서 모시 길쌈을 하고 돌아오다가 도깨비불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때는 새벽이었고 비가 축축하게 내리고 있었는데 대나무밭 사이로 번쩍번쩍 하면서 긴 줄과 같은 형태로 이리 저리 날아다녔다고 도깨비불을 묘사하고 있다. 홍복선 어르신이 직접 체험한 도깨비불의 형상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구전되는 ‘도깨비불’ 체험담과 대체로 일치한다. 도깨비불은 비가 오는 날씨가 자주 출몰하며, 인적이 드문 숲이나 아기무덤터, 공동묘지 등에서 자주 목격된다. 하나로 나타날 때는 비교적 크기가 크며, 여러 개로 나타날 때는 줄을 지어 날아다니는 특징을 보인다. 때론 도깨비불을 ‘호랑이불’, ‘혼불’과 혼동해서 인식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호랑이불은 호랑이의 커다란 눈빛이 어둠 속에서 등잔같이 밝게 비추는 것을 의미하며, 혼불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 생기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도깨비불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목격되고, 따라서 주로 여성 화자들에 의해 구연되는 특징을 보인다.

〈도깨비에 홀린 사람〉, 〈홀치기에 홀린 사람〉,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 이 세 편의 이야기는 전통사회에서 민중들이 생각하는 도깨비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보여준다. 우선 도깨비는 아리따운 여성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며, 반면 강인하고 건장한 남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을 매혹하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바위를 술집으로 변신시켜 사람을 유혹하기도 한다. 또 도깨비는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도깨비와 몸싸움이나 씨름을 하게 된다.

도깨비를 겪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날이 새거나 닭이 우는 즈음에 도깨비로부터 풀려나서 혹은 도깨비를 제압하고 집으로 귀가하게 된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간밤에 만났던 존재에 대한 궁금증으로 지난밤의 현장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수숫대, 대나무, 싸리나무 등으로 만든 빗자루의 형상을 발견한다. 그러한 빗자루들은 대체로 낡고 피[血]가 묻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곤 한다. 또한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빗자루에 피[血]가 묻으면 도깨비로 변한다고 여겼던 전통적인 사고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도깨비에 홀린 사람>, <홀치기에 홀린 사람>, <도깨비와 씨름한 사람>에서는 전통사회에서 인식하는 도깨비의 외형, 행동, 정체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깨비는 술 취한 사람, 밤늦게 길을 가는 사람, 우환이 있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며,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지만 치명적이거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도깨비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자주 나타나며 대체로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여 착각, 환각에 빠지게 하는 위력을 보인다. 결국 도깨비에게서 풀려나거나 도깨비를 제압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이 도깨비의 장난, 또는 환영(幻影)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조사된 네 편의 도깨비 설화에 나타난 이러한 생각은 이곳에서만 확인되는 특수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는 도깨비에 관한 다양한 설화들에서도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공유해온 사고가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도 확인되며, 그런 점에서 문화적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4) 전설

① <생금정 유래>

김용길(남, 78세, 1940년생, 범띠, 고향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가난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가 병아리를 몇 마리 샀다가 길렀어.

길렀는데, 그 딸들이 시집갈 때가 됐잖아. 그 병아리를 길렀는데, 어느 날 병아리가 알을, 닭이 알을 낳아서 가보니깐 그 헛대 안에서 금빛이 나더라. 그래서 그 엄마가 소중하게 꺼내보니깐 그게 금알이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보일까봐 보에 싸가지고 가져가 어따 팔았 나봐. 근데 금알이잖아. 그러니깐 그걸 팔아가지고 딸들 시집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딸이 보니깐 엄마가 닭 우리, 닭장에서 알을 꺼내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니깐 따라가 본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반다지 안에 누니깐



생금우물³⁵⁾

35) 옥구도자연공원(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58) 안에 위치.

이 딸이 그걸 궁금해서 본 거야. 보니까 금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도 반지들을 꺼서 금은 알잖아.

그러니까 이 딸이 시집 가가지고 지 남편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친정에 와서 그 닭을 훔쳐간 거야.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욕심이 나서, 지네가 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훔쳐갔는데 알을 낳는데, 그냥 일반 알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갖다 도로 던졌다 그랬는데. 그건 얘기가 전설이야. 생금집의 전설이야. 그 얘기가 계속 있어.

(조사자 : 딸이 못됐네.) 근데 딸도 인간이니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조사자 : 엄마가 잘 사는 것보다 자기가 잘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엄마가 차라리 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래서 우리 닭이 금알을 난다. 그래서 우리 다함께 잘 살아보자’ 했으면 되는데 딸한테도 말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도 당신 욕심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화를 부른다.

[해설]

〈생금정 유래〉 이야기는 〈생금집 전설〉³⁶⁾의 변이형에 해당하는 설화이다. 〈생금집 전설〉은 시흥 죽율리에 살던 김창관이라는 노인이 옥구도에 나무를 하러 가서 우물가에서 쉬고 있다가 황금닭을 발견해 집으로 가져왔고, 그 닭의 털이 진짜 황금이어서 이것을 조금씩 팔아 큰 부자가 되었는데, 친정에 놀러왔던 딸이 닭을 훔쳐 도망쳤으나 도중에 닭이 돌덩어리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친정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았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현재 김창관 노인이 살던 죽율동의 집은 ‘생금집’이라고 불리고 있다.³⁷⁾

그런데 김용길 어른신이 구연하신 〈생금정 유래〉 이야기는 〈생금집 전설〉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변이형으로 보인다. 〈생금집 전설〉에서 아버지와 시집 간 딸이 주인공인데, 〈생금정 유래〉에서는 어머니와 시집 간 딸로 바뀌어 있고, 〈생금집 전설〉에서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요소가 닭의 황금 깃털인데, 〈생금정 유래〉에서는 닭이 낳은 황금

36) 박갑록 구연, “생금집 전설”, 『시흥군지』(上)(시흥군지편찬위원회, 1988.)

37) 김창관이 살던 집은 ‘생금집[生金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1994년 10월 20일 시흥시의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알로 바뀌어 있다. 또한 <생금정 유래>에서는 아버지가 옥구도에 나무하러 갔다가 황금닭을 얻은 내력이 제시되어 있는데, <생금정 유래>에서는 친정 엄마가 닭을 얻게 된 내력이 밝혀져 있지 않다. 결말에서도 <생금집 전설>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딸에게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생금정 유래>에서는 딸이 훔쳐간 닭이 황금알이 아니라 평범한 알을 낳았다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생금정 유래>와 <생금집 전설>이 제시하는 주제는 공통된다. 닭이 제공하는 황금으로 부모님이 부자가 되자 딸이 욕심을 내서 부모님의 닭을 훔치게 되지만 닭은 더 이상 황금을 제공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생금정 유래>가 <생금집 전설>과 다른 내용으로 변이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정왕동 옥구공원에 위치한 생금정과 죽율동에 위치한 생금집은 일정한 거리가 있으며 서로 별개의 지역이다. 생금정은 김창관 노인이 황금닭을 발견한 장소이며, 생금집은 김창관 노인의 가택이다. 따라서 생금정과 생금집이 위치한 옥구도와 죽율동 지역의 주민들은 각각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적인 관점에서 황금닭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전승을 이어와 지금과 같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생금정 유래>를 구연하신 김용길 어르신이 옥구도나 오이도와 같은 시흥지역 토박이가 아니고 인천광역시에서 출생, 성장하다가 시흥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오신 것에서 설화의 변이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추정해보면 본래 시흥지역에서 전래되던 황금닭과 관련한 이야기는 <생금집 전설>이 원형에 가까운데, 이주민인 김용길 어르신이 황금닭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새로운 요소를 가미해서 <생금정 유래>를 구연하게 된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생금정 유래>, <생금집 전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별개로 발전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황금닭과 관련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전승되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 기록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우화작가인 이솝(Aesop, ?~?)이 지은 <이솝우화집>에 실려 있는 것이다. 한 농부가 우연히 거위 한 마리를 얻게 되었는데, 거위는 황금알을 낳아 부자가 되었다. 농부는 한꺼번에 더 많은 황금알을 얻고 싶어서 거위의 배를 갈랐으나 보통의 거위와 다름이 없었고, 그제야

농부는 자신의 욕심이 지나쳐 복을 잃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생금정 유래>와는 매우 유사하며, <생금집 전설>은 조금 더 변이양상이 크다. 따라서 <이솝우화집>에 실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유형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고 각각 <생금정 유래>와 <생금집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발전하고 전승하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그 밖의 민담들

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제보자 : 조정자(여, 80세, 1938년생, 범띠, 고향 : 충청북도 청주시)

어, 떡 팔러 갔는데. 호랭이가 그 안에, 그동안에 엄마 오기 전에 호랭이가 와서 애들만 있는 걸 알고.

“아가~ 아가 문 열어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 목소리 아닌 걸?”

이제 애덜이 그랬다. 그러니까

“느 엄마다.” 이러니께.

울 엄마면 손 좀 디밀어 보라니께. 옛날에는 문풍지를 이렇게 했잖아. 창호지를 발랐잖아? 손을 푹! 디미니께 털이 송송 나고 이상해잖아. 그러니께,

“우리 엄마 손 아닌데.” 그러니께,

“저~ 앞집에서 베 매다 와서 풀 발라, 풀 붙어서 그렇다.” 그러드래.

그전엔 베 매고 그랬잖아. 베 매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베 짜서 옷 해는 거 무명하는 거. 베를 이렇게 매면 풀질하면 손에 풀 묻어서 이제 그렇다고.

“앞집에서 베 매고 와서 풀이 묻어서 그렇다.” 이러드랴.

그러가지고서는, 나도 그걸 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서는 근데 자꾸 문을 열라 그래서 애들이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 같걸랑, 짐승 같걸랑.

그러니까 애들이 뒷문을 열고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서 거기 샘이 있는데. 샘 동천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 그 애들이.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밑에는 이렇게 둥그런 샘이 있고. 옛날엔 모두가 샘이 있어 공동우물을 먹었걸랑? 샘에 올라가서, 무서워서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

그랬더니 이 호랭이가 문을 열어보니까 애들이 없걸랑? 그래서 쫓아 나와서 ‘이놈의 애들이 저기 우물에 빠졌나?’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그 나무에 올라섰으니까 우물 그림에서 다 보이걸랑? 그러니까 호랑이가,

“야야, 너네 거기 어떻게 올라갔냐?” 이러니까,

앞집에서 참기름 은어 바르고, 뭐 그래서 올라왔다 그러더라. 애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호랭이가 참기름을 구해 가지고 거길 올라가니까 미끄럽잖아? 그러니까 팍! 떨어가지고서는 그 옥수수 끝에 뭐가 옥수수. 그 수수 있지? 수수나무 끝에 탁! 걸려서. 통구녕이 찢려서 죽었대 호랭이가.

그래서 수수대봉이 호랭이 피가 묻어서 빨ջ대. 그게 빨ջ빨ջ 하걸랑? 수수대봉이. 그런 얘기 들었어. (조사자 :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애기들은 이제 살아서 내려왔지. 그 소리만 들었어.

[해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 분포를 보이는 민담이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호랑이가 출타했다가 귀가하는 엄마를 잡아먹고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오누이는 하늘로 승천해서 해와 달이 되고, 호랑이는 지상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지역에 따라 혹은 전승집단에 따라 결말부분에서 오누이의 행방, 호랑이의 죽음 이후 등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오누이의 행방의 경우, 오누이가 속임수 또는 하늘의 도움으로 호랑이를 죽인 이후 지상으로 내려와 잘 살았다거나 하늘에 올라가 해와 달이 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변이를 보인다. 호랑이의 죽음 이후의 경우, 호랑이가 우물 옆 나무를 타고 오르다 떨어져 죽었다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오르다 줄이 끊어져 죽었다고도 하며, 호랑이가 수수밭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수수대가 붉은 색을 띠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조정자 어르신이 구연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소박하면서도 웃음과 재치가 풍부히 넘치는 특징을 보인다.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는 내용,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호랑이가 자신의 손에 털이 많은 것을 아이들을 의심하자 베를 매다가 풀이 묻어 지저분하게 되었다고 둘러대는 내용에서 실생활을 소재로 하면서도 이야기적 재미와 웃음을 끌어내는 재치가 돋보인다.

② <꼬마신랑①>

박승자(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전남 나주군 다시면)

누룽지를 훑어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게(하니까), 신랑을 보듬어서 지붕으로 던져 분게(버리니까).

지붕에 가서 박이 주렁주렁 열었는데, 인자 사람들이 보니까, 지붕 위에서 너무 부끄러운게,

“박 이놈 딸까? 저놈 딸까?” 했다고, 신랑이.

마누라가 던져 버렸는데, 애기 꼬마라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런 말이 있더라. (조사자 : 신랑이 똑똑했네요. 마누라 안 혼 내려고) 그런 게 그래서 지붕 위에 던져 놓았는데, 그 지붕 위에서 호박 이 놈, 박인게(박이니까),

“박 이놈 딸까? 저놈 딸까?” 하고 다녔대.

③ <꼬마신랑②>

홍웅자(여, 79세, 1939년생, 토끼띠, 고향 : 용인시 남사면 창리)

꼬마 신랑을 박 있는 데 갖다가 휘덕 던져 놓았더니, 시어머니가 마침 오더라네. 시장 갔던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니! 왜 거기에 가서 올라가서 앉아 있느냐고, 위험하게.”

그러니까,

“아휴! 우리 저기 박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보느라고 올라왔어, 엄마.”

그래서 각시가 엮어 놓았다면, 각시가 떨어져 나게 생겼으니까. 꼬마지만 자기 부인을 그만큼 저저 했다는 거지. 보호를 한 거지.

그래서 모면을 해 가지고 잘 살았대잖아. 허허허.

[해설]

〈꼬마신랑①〉, 〈꼬마신랑②〉는 새신부와 어린 꼬마신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소재로 꼬마신랑의 재치와 인품을 강조하는 내용의 설화이다. 이 두 설화는 3자간의 갈등이 3단계를 거쳐 해소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꼬마신랑①〉에서 1단계에서는 꼬마신랑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꼬마신랑은 아내에게 누룽지를 긁어달라고 조른다. 할 일 많은 새댁에게 간식을 요구하는 꼬마신랑의 철부지 같은 행동이 갈등 유발 요소이다. 철없는 꼬마신랑이 귀찮았던 아내는 꼬마신랑을 들어서 지붕에 엮어놓음으로써 아내가 꼬마신랑을 절대적으로 압도한다. 2단계에서는 지붕에 엮힌 꼬마신랑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이 발생한다. 부부사이의 갈등이 외부로 전이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꼬마신랑이 지붕 위에 있는 것을 의아해하고 꼬마신랑은 자신의 상황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한다. 3단계에서는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는 국면을 맞이한다. 꼬마신랑은 자신이 아내에 의해 지붕 위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호박을 따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온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이로써 일차적으로 마을 사람과 꼬마신랑 사이의 긴장감을 해소되고, 이차적으로는 아내가 꼬마신랑의 재치와 인품에 감탄해 부부 사이의 갈등도 해소된다.

〈꼬마신랑②〉도 〈꼬마신랑①〉와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갈등과 긴장이 발생, 전이, 확장, 해소되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꼬마신랑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긴장은 꼬마신랑과 어머니 사이의 긴장으로 대체되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다. 자칫하면 꼬마신랑과 어머니 사이의 긴장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고부갈등으로 전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꼬마신랑의 재치로 꼬마신랑과 어머니 사이의 긴장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이 중단된다. 이때의 꼬마신랑의 처신은 재치 또는 비상한 머리라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갓 시집온 아내를 감싸서 아내와 어머니가 갈등할 수 있는 요소를 일거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넉넉한 인품과 지혜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나이 어린 꼬마신랑의 몸집은 새신부가 지붕위로 던져버릴 수 있을 정도로 왜소하지만 그의 지혜와 인품은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몸집도 좋은 아내를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빛나고 넉넉한 것임을 이 설화가 보여주고 있다.

④ 〈호랑이가 데려다준 사람〉

홍웅자(여, 79세, 1939년생, 토끼띠, 고향 : 용인시 남사면 창리)

우리 당숙 어른은 술이 딱 얼큰하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얼큰해 가지고, 고개 너머를 넘어오는데, 저기가, 호랑이, 그 아저씨가 호랑이띠야.

그런데 호랑이가 그냥 불을 환히 비추더라. 그러더니 술이 체서(취해서) 어혈어혈 노래를 해 가면서 오니까, 딱 호랑이가 다리를 무릎을 꿇고, 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탔대. 술김에 탔더니, 그냥 집, 막 달려와 가지고 자기 집 앞에 턱 내려 줘서 들어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거짓말!”

그러니까, 우덜이,

“아녀! 진짜야!”

허허허. 진짜가 어디 있겠어? (조사자 : 호랑이가 뭘 잘해서 데려다 주웠대요?) 그 아저씨가 호랑이띠라, 같은 띠라고 호랑이가 자기 띠를 알아봤대.

아저씨가 얘기를 하시면, 우덜이(우리들이),

“아저씨,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

[해설]

〈호랑이가 데려다 준 사람〉 이야기는 전래되는 호랑이에 관한 많은 설화 중에서도 ‘호랑이 도움을 받은 효자(효부)’ 이야기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 이 유형 설화는 어떤 효자 또는 효부가 부모님을 위한 과일 또는 채소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길을 잃고 밤이 늦어지자 호랑이가 나타나 등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또는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가 친정집에 갔다가 부모가 재혼시키려는 것을 알고 밤에 몰래 친정집을 빠져나와 시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태워서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도 이 유형에 속한다.

홍웅자 어르신은 자신의 당숙되시는 분의 일화라고 하면서 〈호랑이가 데려다 준 사람〉 이야기를 구연해주셨다. 본래 우리 민속에서 호랑이는 영험한 동물이라서 아무의 눈에나 쉽게 띄지 않으며, 아무나 잡아먹지도 않는다. 앞서 ‘호랑이 도움을 받은 효자(효부)’ 이야기 유형처럼 효심 깊은 인물들에게 나타나 도움을 준다거나 장차 큰 일을 할 인물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산신령의 현신으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호랑이가 데려다 준 사람〉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홍웅자 어르신의 당숙이 호랑이 띠라서 그를 등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 속 호랑이의 모습에서는 특별한 영험함이나 신령스러움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당숙 어른의 호기로움을 부각시켜주는 부차적인 요소로 변모되어 나타나고 있다. 호랑이 이야기가 후대로 올수록 점차 비범성을 잃고 평범해지고 속화(俗化)되는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현상은 당숙 어른이 들려주는 호랑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홍웅자 어르신을 포함한 아이들이 외경심을 갖기 보다는 “아이고, 아저씨!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치는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오이도 사람들과 이웃들이 전하는 옛노래

1) 개요

오이도에 살았던 토박이 어르신들과 오이도와 정왕동 일대로 이주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총 21편의 민요가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 비교적 가사와 가락이 온전한 자료는 13편으로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민요는 일반적으로 기능에 따라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동요,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유희요, 의식을 치르기 위한 의식요로 구분된다. 오이도와 정왕동 일대에서 조사된 민요는 주로 노동요와 유희요가 조사되었다. 특히 제보자들이 모두 여성분들로, 어릴 때 동무들과 어울려 놀면서 부르던 놀이요가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기능별 유형	세부 유형	제목	구연자
노동요	농업노동요	논매는 소리	윤영자
	길쌈노동요	시집살이 노래	박승자
		물레 노래	윤영자
		진주낭군	윤영자
유희요	동작유희요	다리세기 노래 ①	조명순
		다리세기 노래 ②	김영자
		다리세기 노래 ③	박옥분
		다리세기 노래 ④	윤영자
	도구유희요	고무줄놀이 노래 ①	최유순
		고무줄놀이 노래 ②	윤영자
	자연물유희요	대추노래	조정자
		방아깨비 부리는 소리	박옥분
	놀림유희요	영감 놀리는 노래	김영자

자료의 소개는 노동요와 유희요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며, 노동요는 다시 농업노동요와 길쌈노동요를 구분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유희요는 동작을 이용한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동작유희요와 도구를 이용해서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도구유희요, 그리

고 자연물을 부리면서 부르는 자연물유희요, 사람을 놀리면서 부르는 놀림유희요의 순서로 소개하기로 한다.³⁸⁾

2) 노동요

① 〈모심는 소리〉

윤영자(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경북 함창군 덕통1리)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처녀야
연밥 줄밥 내 따줄게
내 품 안에 잠들어라

[해설]

〈모심는 소리〉는 〈논매기 소리〉와 함께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농업 노동요 중의 하나이다. 모심기와 논매기는 벼농사에서 핵심을 이루는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모심는 소리〉와 〈논매기 소리〉가 반드시 불려졌다.

그러나 〈모심기 소리〉와 〈논매기 소리〉가 본격적으로 불리기 시작한 시기는 차이가 난다. 먼저 논매기의 경우, 논매기 행위는 벼를 심은 이후 잡초를 제거하여 벼의 생장을 돕는 활동으로, 벼농사의 핵심적인 노동이다. 통일신라시대를 전후로 쌀농사가 농업의 근간을 이루면서 논매는 노동과 더불어 〈논매기 소리〉가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심기는 볍씨를 물에 담그고 모판에서 일정 기간 길러 무논에 옮겨 심는 노동 행위이다. 고려 말기 이전에 모심기(모내기), 즉 이앙법(移秧法)이 본격화되었을 것이나 조선에 들어와서 이앙법이 금지된다. 비가 오는 때를 맞춰 모내기를 해야

38) 민요의 기능별 분류와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음 : 박경수, “민요편”, 『한국구비문학대계 : 별책부록(Ⅲ) 한국민요·무가유형분류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가에서 이양법을 금지시키고 직파법(直播法)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어 이양법 금지가 풀리면서 <모심기 소리>도 본격화되고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논매기 소리>가 전국적으로 200여종에 이를 만큼 다양하게 발달한 것과 달리 <모심기 소리>는 전국적으로 20여종에 불과한 노래를 지역적 권역을 이루며 독점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윤영자 어르신이 구연한 <모심는 소리>는 경상북도 상주, 함창지역에서 모내기할 때 부르는 대표적인 노동요이다. 4글자씩 2개의 구가 한 짝을 이루며, 메나리토리 음조로 노래가 불린다. 노래의 가사는 남녀의 애정,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인생의 희로애락, 자연의 풍광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래의 가사에 등장하는 공갈못은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에 있는 공검지(恭儉池)를 지칭하는 것으로 삼한시대에 조성된 저수지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모심기 소리>에는 공갈못이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며, 연꽃과 연밥, 이를 매개로 한 남녀의 애정 등의 내용이 가사로 읊어지는데, 윤영자 어르신이 구연한 <모심기 소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 <모심기 소리>는 달리 <상주 모심기 노래>, <상주 연밥 따는 노래>, <상주함창 공갈못> 등과 같이 불리기도 한다.

② <시집살이 노래>

박승자(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전남 나주군 다시면)

15살에 머리 걷어
 16살에 신행 한 게
 나 작다고 흥일래라
 키 작다고 흥일래라
 키 작아서 한 몫이요.
 나 작아도 한 몫이요
 장차 8년을 살고 난 게

바늘 같은 어린 몸에
 실날 같은 병이 들어
 학절 없이 나는 가네.
 (또 신랑한테 하는 편지 말이 있는데?)
 살 때는 못 봤어도,
 죽을 때는 보고 간다고
 아랫방에 종아그³⁹⁾야
 서울 선배 오시 거는
 백지 셋 장만 보라 해라
 (백지 셋 장에 다, 그 말을 다 썼지 자기 말을 시집살이 한 말을, 그런 게)
 살았을 때는 못 봤어도,
 죽을 때나 보고 가자고
 (오라고 인자 그렇게 한 게, 죽었어 인자, 그 서울서 편지를 갖고 간 게, 신랑이
 금방 뜬어서 본 게)
 어매어매 우리어매
 바늘 같은 저 내 몸에
 실날같은 병이 들어
 (저렇게 생겼어도 가만 두었냐)
 저 모양이 되었어도
 그래도 가만 두었냐.
 지 명 잘라(작아) 저 죽는 것을
 누구한테 원망하내고,
 (그런 게)
 앞 등 말은 니가 타고
 뒤 등 말은 내가 타고
 산천초목이 내 땅이다.

39) 종, 하인을 가리킴.

[해설]

〈시집살이 노래〉는 한 인물이 겪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엮어 부른다는 점에서 서사민요의 한 종류에 속한다. 기능적으로는 주로 여성들이 실짓기, 베짜기 등과 같은 길쌈노동을 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길쌈노동요로 분류한다. 따라서 길쌈노동과 관련한 〈시집살이 노래〉는 달리 〈베틀노래〉, 〈베짜기요〉, 〈길쌈노래〉 등으로 불린다.

박승자 어르신이 구연한 〈시집살이 노래〉는 힘겨운 시집살이 끝에 병이 들어 죽은 며느리의 신세를 노래하는 내용이다. 이 노래의 시적 화자는 15살에 시집온 며느리인데, 시집 식구들로부터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다고 구박을 당하지만 스스로 당당히 한 몫을 한다고 하면서 힘겨운 시집살이를 겪어낸다. 그러나 남편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고, 시집온 지 8년 만에 몸에 병이 들어 죽게 된다. 그녀는 남편에게 3장의 편지를 남긴 채 죽고, 서울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정을 묻지만 며느리가 명이 짧아 죽은 것을 누구에게 원망하냐는 핀잔만 듣게 된다. 남편은 불쌍하게 죽은 아내의 시신을 말에 태워 산천초목에 묻으러 가면서 노래가 끝이 난다.

15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온 신부에게 시댁 어른들의 처사는 너무도 가혹하다.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다고 감싸고 보호하기보다는 핀잔과 구박을 하며, 시집살이의 힘겨움에 며느리의 몸이 바늘같이 비쩍 말라 병이 들어 죽어가는 데에도, 며느리의 명이 짧아 그런 것이라며 일망의 동정도 주지 않는다. 오직 남편만이 병들어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동정을 표시하지만 수천리 떨어진 서울로 공부하러 간 남편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박승자 어르신의 고향인 전라남도 나주군 다시면 일대는 조선시대에서부터 질 좋은 무명베의 산지로 유명했다.⁴⁰⁾ 박승자 어르신은 어려서 동네의 아낙들이 모여서 길쌈하는 곳에 놀러 가면 동네분들이 여러 가지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노래를 잘 한다고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무명베 짜기는 오로지 여성들의 노동에 의

40) 현재도 전라남도 나주군 다시면에는 ‘나주 셋골나이’라고 해서 무명베를 생산하는 전통기술 보유자를 중요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하여 보존, 전승하고 있다.

해서 진행되며, 농사일 못지않게 한 집안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나주군 다시면 지역 여성들은 농사일, 집안일과 더불어 길쌈노동까지 하느라 노동의 강도가 매우 고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집살이 노래〉와 같은 길쌈노동요를 부르면서 길쌈노동의 힘겹고 지난함을 묵묵히 감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승자 어르신은 수십 년 만에 어려서 배운 〈시집살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서, 비록 음조를 거의 잊었어도 길 사설의 노래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차분히 들려주셨고, 소중한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

③ 〈물레 노래〉

윤영자(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경북 함창군 덕통1리)

물레야 물레야
 실이 벨벨 돌아라
 시어머님 잔소리에 내 늙는다.

[해설]

〈물레 노래〉는 물레를 이용해 무명실을 뽑는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민요로, 삼삼기와 관련한 〈삼삼기 노래〉, 베짜기와 관련한 〈베틀노래〉와 함께 대표적인 길쌈노동요이다. 〈물레 노래〉는 지역에 따라 〈물레질 소리〉, 〈명(미영)짚는 소리〉, 〈실 짚는 소리〉, 〈물레타령〉 등으로도 불린다.

〈물레 노래〉는 여성들이 주로 부른 노래이다.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하루는 몹시 분주하고 고되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등의 집안일을 감당했다. 이 모든 일을 끝낸 밤에는 동네 아낙 여럿이 모여 삼을 삼거나 물레를 돌리거나 베틀을 이용해 삼베와 무명을 짜는 길쌈노동에 매달린다. 한 집안의 경제적 원천과 집안 식구들의 의복 마련을 위해서는 모든 여성이라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노동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까지 길쌈노동이 이어지기도 했다.

삼삼기, 실짓기, 베짜기 등과 같은 길쌈노동은 큰 힘이 들지는 않지만 노동 시간이 길고, 반복되는 노동이라 지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잠과 지루함을 쫓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길쌈노동요를 지어 불렀는데, 대체적으로 그 노래의 내용은 시집살이의 어려움이나 물레, 베틀과 같은 길쌈노동에 소요되는 기구나 장치를 소재로 한 것들이다.

윤영자 어르신이 구연한 <물레 노래>는 물레를 이용해 목화솜에서 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물레가 순조롭게 잘 돌고 실 뽑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그래야만 시어머니의 핀잔을 모면할 수 있다고 하여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의 힘겨움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④ <진주난봉가>

윤영자(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경북 함창군 덕통1리)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을 삼 년을 살고 나니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느리 아가
날씨 좋은 오늘 날에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라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
진주 남강에 빨래를 가니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빨고
하늘 같은 서방님이
구름 같은 말을 타고
기생첩을 옆에 끼고

똥똥 (똥똥이나 똥냐. 똥 하고) 지나간다. (지나갔어)
 (그래 그걸 보고 속이 상한데, 집에 빨래를 해가지고 오니깐 시아버지 하는 말씀이)
 아야, 아가, 며느리 아가
 (어쨌는데, 하도 억울해서)
 (조사자 : 아랫방에 내려가라)
 (맞아, 아랫방에 내려가라. 그것도 했어. 잊어버렸어. 그 소리 들은 며느리는 가슴
 이 아파서)
 석자 석치 명주에다
 목을 매어 죽었다네.

[해설]

〈진주난봉가〉는 달리 〈진주 낭군〉, 〈진주 남강〉이라고도 불리는 민요로, 바람을
 편 남편에 상처받은 아내가 자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사민요이다. 노래의 배경으
 로 진주 남강이 제시되어 있듯이, 이 노래는 주로 영남지역에서 폭넓게 구전되며, 길
 씹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길쌈노동요이다.

〈진주난봉가〉는 대체적으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가 며느
 리에게 진주 남강에 빨래를 하러 가라고 권하고, 며느리가 진주 남강에서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는 검게 빠는 동안 남편이 기생을 데리고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자신을 못 본 척 무시하며 지나간다.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에게 시어머
 니 또는 시아버지가 사랑방에 가보라고 권하고, 며느리를 사랑방에서 남편과 기생이
 좋은 술과 음식으로 즐기는 모습을 목격한다. 며느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건넌방으
 로 가서 무명천으로 목을 매어 자결하게 되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첩 사랑은
 삼 년이고 본처 사랑은 백 년인데, 뭐가 그렇게 서러워죽었냐며 아내에 대한 책망과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끝을 맺는다.

윤영자 어르신이 구연한 〈진주난봉가〉 역시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공유한
 다. 다만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남편과 기생첩의 나누는 술자리 여흥
 을 목격하는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윤영자 어르신은 고향을 떠나온 이후로 거의 불러
 볼 기회가 없었던 〈진주난봉가〉를 수십 년 만에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비록 온전한

음조를 잊었어도 거의 완벽하게 긴 사설을 기억하고 구연해주셨다는 점에서 운영자 어르신은 비상한 기억력과 더불어 우리 민요가 갖는 깊은 울림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3) 유희요

⑤ 〈다리세기 노래①〉

조명순(여, 90세, 1928년생, 용띠, 고향 : 서울시 중구 수표동)

한알대 두알대
사마중 날대
영낭 거지
팔대 장군
고드레 뽕

⑥ 〈다리세기 노래②〉

김영자(여, 95세, 1923년생, 돼지띠, 고향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득이
이득이
삼득이
사득이
오득이
육득이
칠득이



동남아파트경로당에서 인터뷰 중인
김영자 어르신

팔득이

구득이

⑦ <다리세기 노래③>

박옥분(여, 81세, 1937년생, 소띠, 고향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한알 때

두알 때

성난 거지

팔대 장군

고드려 뽕

⑧ <다리세기 노래④>

윤영자(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경북 함창군 덕통1리)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전두 만두 도만두

찌루 찌루 꾸뽕구

나그네 먹던 김칫국

진네 만네 흘쩍 꺾

[해설] _____

<다리세기 노래>는 다리세기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민요로, 기능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노는 놀이와 수반되는 노래라는 점에서 동작유희요로 분류되며, 달리 <다리뽕기

놀이 노래》라고도 불린다. 다리세기 놀이는 청소년기 이하의 여자아이들이 방안에서 노래와 동작을 함께 갖추고 승부를 가르는 전래놀이이다. 여러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앉아서 엇갈려 다리를 낀 상태에서 노래의 박자에 맞춰 손으로 다리를 순서대로 짚으면서 나아가다가 노래가 끝날 때 손으로 짚어진 다리가 빠지게 되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다리의 주인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놀아진다.

다리세기 놀이는 전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다리세기 놀이〉가 전해지는데, 지역에 따른 노래 가사의 차이가 주목된다.

정왕동 일대에서 조사된 다리세기 놀이 관련 노래는 총 4편이다. 4편을 구연한 제보자들은 고향이 서로 다르다. 어려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우고 즐겼던 노래이기 때문에 4분의 제보자가 구연한 〈다리세기 노래〉는 서로 다른 가사일 수밖에 없다.

서울 중구 수표동이 고향인 조명순 어르신이 구연한 〈다리세기 노래〉의 가사는 ‘한알대 두알대’로 시작해서 ‘고드레 뽕’으로 끝난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이 고향인 김영자 어르신이 구연한 〈다리세기 노래〉의 가사는 ‘일득이/ 이득이’로 시작해서 ‘구득이’로 끝난다. 숫자 1부터 9까지 순서로 잇는 내용의 가사이다.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이 고향인 박옥분 어르신이 구연한 〈다리세기 노래〉의 가사는 ‘한알 때/ 두알 때’로 시작해서 ‘고드려 뽕’으로 끝나는데, 조명순 어르신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경북 함창군 덕통1리가 고향인 윤영자 어르신이 구연한 〈다리세기 노래〉의 가사는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로 시작해서 ‘진네 만네 훌쩍 꺾’으로 끝난다.

이상과 같이 각기 고향이 다른 4분의 제보자가 구연해준 〈다리세기 노래〉는 노래의 가사가 서로 달라도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노래의 가사가 매우 짧다. 둘째, 노래의 박자가 짧은 호흡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노래의 처음은 ‘한알대 두알대’,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등과 같이 규칙적인 음절을 반복하면서 시작하지만 노래의 끝은 ‘고드레 뽕’, ‘훌쩍 꺾’과 같이 전혀 엉뚱하고 맥락이 닿지 않는 가사와 된소리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공통점은 비단 조명순, 김영자, 박옥분, 윤영자 네 분이 구연한 노래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전승되는 〈다리세기 노래〉 전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동작과 노래를 통해 승부를 가르기 위한 것이기에 노래의 가사와 호흡이 짧고 긴박할 수밖에 없다. 또 노래가 끝날 때마다 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래의 끝말은 규칙이 아니라 변칙을 줌으로써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기 위

한 장치로 ‘뽕’, ‘꼭’과 같은 된소리 외자로 끝을 맺도록 장치를 한 것이다. 아이들이 노는 아주 소박한 놀이에도 우리 조상들의 재치와 멋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81세에서 95세에 이르는 제보자들은 어려서 즐겨 논 놀이와 노래를 여전히 간직하고 서슴없이 구연해주셨는데, 제보자들 모두가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 기능보유자라고 할 수 있겠다.

⑨ 〈고무줄놀이 노래①〉

박옥분(여, 81세, 1937년생, 소띠, 고향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와까이
지씨오노
요까레은노
나나스
보다은가
사그라
니힛까리

⑩ 〈고무줄놀이 노래②〉

최유순(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강원도 강릉시)

이찌까라 니뽕
사기다라 새도도
고수고수 먹자

⑪ 〈고무줄놀이 노래②〉

윤영자(여, 85세, 1933년생, 닭띠, 고향 : 경북 함창군 덕통1리)

아름답다 삼천리
희망이 넘친다
서른 고개 넘어 서니
자유의 종이 울린다
일어나라 모여라
삼천 만 동포들아
건국의 발맞춰 싸워나가자.

[해설]

〈고무줄놀이 노래〉는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발에 걸고 채주부리듯 놀면서 부르는 노래로, 유희요 중에서 도구유희요에 속한다. 우리나라에 고무줄이 전래된 것과 관련해서 1764년 숙종대왕 당시 청나라 상인에 의해 고무줄이 소개되었고, 숙종이 고무줄을 널리 사용하게 하는 칙서가 내려졌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고무줄이 일상에 까지 널리 활용된 것은 일제강점기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서 높이 뛰어오르고 다리에 감는 방식의 고무줄놀이의 역사는 그리 길다고 할 수 없다. 다만 1895년에 스튜어트 컬린(Stewart Culin)이 우리나라의 놀이를 소개한 책자에 ‘줄 뛰어 넘기’라는 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무줄 이전에 새끼줄이나 칩닝쿨을 이용한 놀이가 이미 존재했으리라 추정된다. 전통적인 줄놀이 문화가 전승되다가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고무줄로 놀이 도구가 대체되면서 고무줄놀이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옥분 어르신, 최유순 어르신, 윤영자 어르신이 구연한 〈고무줄놀이 노래〉 3편은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고무줄놀이 노래〉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박옥분 어르신이 구연한 〈고무줄놀이 노래 ①〉는 일본어로만 구성된 고무줄놀이 노래이다. 이 노래를 구연한 박옥분 어르신은

1937년 생으로 해방이 되었을 때 9살 소녀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고무줄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일본어 가사 노래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최유순 어른신이 구연한 <고무줄놀이 노래②>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혼재된 노랫말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최유순 어른신은 1933년 생으로 해방 당시 12살 소녀였다. 일제강점기 때는 대다수 아이들이 그러했듯이 최유순 어른신 역시 일본어 가사 위주의 고무줄놀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놀이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래의 1행과 2행은 일본어 가사이지만 마지막 3행에서 ‘고수고수 먹자’라고 한국어 가사가 등장하고 있는 변화가 주목된다. 해방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하듯 아이들이 놀던 고무줄놀이에서도 점차 왜색이 쇠퇴하고 있는 정황을 노래의 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윤영자 어른신이 구연한 <고무줄놀이 노래③>은 한국어로만 구성된 노랫말 가사이다. 이 노래에는 왜색이 완전히 제거되고 광복 이후 새롭고 힘차게 나라를 건국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

박옥분, 최유순, 윤영자 세 분은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과 1937년에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해방이 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셨다. 세 분이 구연한 <고무줄놀이>는 아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하면서 부른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무심코 부른 노래를 통해 우리민족이 겪은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아픔, 변화와 희망이 교차되는 과정이 고스란히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⑫ <대추 노래>

조정자(여, 80세, 1938년생, 범띠, 고향 : 충청북도 청주시)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떨어져라
애덜아 애덜아 주서라
어른아 어른아 먹자

[해설]

〈대추 노래〉는 대추가 익을 무렵 바람이 불어 대추가 많이 떨어져 어른과 아이 모두 맛있고 배불리 먹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깃든 민요이다. 자연물을 대상으로 완상하거나 주술적 바람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자연물유희요 또는 자연물대상유희요, 자연물완상유희요라고 분류된다.

〈대추 노래〉는 전국적 분포를 보이며 전승되고 있는데, 전반부 가사는 대체로 유사하나 후반부 가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전국적으로 전반부 가사는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떨어져라’를 공유하는 반면, 후반부 가사는 ‘아해야 아해야 조아라/ 어른아 어른아 묵어라’(부산), ‘할아버지 할아버지 잡श्य요/ 에끼눔 침주자’(강원도), ‘애들아 애들아 주서먹어라/ 어른아 어른아 말려라’(충북 제천), ‘아이야 아이야 주워라/ 어른아 어른아 잡수시라.’(경기도 김포) 등등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조정자 어른신이 구연한 〈대추 노래〉도 전국에 전승되는 〈대추 노래〉와 전반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별다른 간식이 귀하던 시절,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익은 대추가 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대추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⑬ 〈방아깨비 부리는 소리〉

박옥분(여, 81세, 1937년생, 소띠, 고향 :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아침 방아 짙어라

저녁 방아 짙어라

아침 방아 짙어라

저녁 방아 짙어라

[해설]

〈방아깨비 부리는 소리〉는 아이들이 방아깨비놀이를 하면서 부르던 민요이다. 여

름철, 아이들은 들판에 지천인 방아깨비를 잡아서 그 뒷다리를 손으로 잡고 방아깨비가 까딱까딱 방아를 찢듯이 움직이도록 유도하면서 <방아깨비 부리는 소리>를 부르면서 놀았다. 방아깨비 말고도 가재, 잠자리, 개미 등을 잡아 자신의 뜻대로 부려지도록 다양한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는데, 이러한 노래들은 자연물유희요 또는 자연물대상유희요, 자연물완상유희요로 분류된다. 장난감이 많지 않던 시절 방아깨비, 잠자리 등은 아이들의 주요한 놀이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방아깨비 부리는 노래>는 전국에 걸쳐 전승되고 있다. 방아깨비를 부르는 명칭이 지역마다 다르고, 또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아찌야 방아 찢어라/ 아침방아 찢어라 저녁거리 찢어라/ 덩커덩 쿵덕쿵 방아 찢어라’(경기도), ‘앞집 방아 딸깍딸깍/ 뒷집 방아 딸깍딸깍/ 찢어 내니 쌀이요/ 하여 내니 밥이요/ 먹고 나니 잠이요/ 누고 나니 똥이요’(함경북도), ‘콩방아 찌이라 물방아 찌이라/ 콩방아 지이라 물방아 찌이라/ 콩방아 찌이라 물방아 찌이라’(경북 칠곡), ‘방아찌라 어서어서 방아찌라/ 쌀 나오른 밥먹자/ 어서 어서 방아찌라/ 쌀 나오른 밥먹자/ 땅개비야 땅개비야/ 어서 어서 방아찌라/ 쌀 나오른 밥먹자’(전남 곡성)⁴¹⁾ 등과 같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방아깨비에게 방아를 찢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박옥분 어르신이 구연한 <방아깨비 부리는 소리>는 이 유형 노래의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침 방아 찢어라/ 저녁 방아 찢어라’라고 해서 매우 소박한 형태의 가사를 갖추고 있다.

41) 산림청(<http://forest.go.kr>) 휴양·문화·복지 항목 참조.

⑭ 〈영감 놀리는 노래〉

김영자(여, 95세, 1923년생, 돼지띠, 고향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달 따라가자
별 따라가자
두부집의 영감
불알 따라가자

[해설]

〈영감 놀리는 노래〉는 아이들이 동네의 노인을 놀리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유희요 중에서 놀림유희요에 해당하며, 달리 〈영감 놀리는 소리〉라고도 불린다. 아이들은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은데, 여럿이 어울리다 보면 이러한 호기심과 장난기가 발동하고 겁도 없이 어른을 놀리는 장난까지 감행하게 된다. 이렇게 장난꾸러기 아이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연애를 하는 남녀를 비롯하여 떠돌이 등짐장수,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여인, 연로해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행동이 굼뜬 노인 등에 이르며, 곰보, 봉사와 같은 장애인, 앞니 빠진 아이, 오줌싸개 아이, 콧물 흘리는 아이와 같은 또래 친구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김영자 어르신이 구연한 〈영감 놀리는 노래〉 역시 전형적인 놀림유희요이다. 첫 행과 둘째 행은 달, 별을 따라가자고 해서 평범하고 건전한 가사로 시작되지만 세 번째 행에 이르면 두부집 영감이라고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된다. 그리고 마지막 행에 이르면 두부집 영감의 은밀한 신체 일부를 거론하며 그것을 따라가자고 해서 노래의 내용이 골계적으로 흐른다. 아이들이 성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영감의 은밀한 신체를 거론했다가 보다는 금기를 발설하거나 위반하면서 오는 긴장감과 상대의 반응에 따른 재미를 추구하기 위한 소박한 마음이 깃든 노래 가사라고 할 수 있겠다.

(집필: 김혜정)

오이도 인근 지역 민속의 가치와 내일

우리는 오이도와 그 인근 지역의 민속에 대한 전통과 실상을 무형문화유산의 각도에서 심도 있게 현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실상과 가치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제 진부한 말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말이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법고창신(法鼓昌新), 계왕개래(繼往開來), 오래된 미래 등이 그러한 말이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결국 미래를 여는 지혜는 과거에서 찾아야 하고, 과거의 기반과 바탕 위에서 참으로 가능한 미래가 열린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미래를 여는 예지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오이도는 단순한 섬이었으며, 고립된 장소였다. 인간들이 과학적 사고와 지혜가 넘쳐나서 이제 자연을 개조하고 그 자연의 전통을 일구어서 섬이 물이 되게 하는 위대한 전통을 수립하고 유산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는 길을 열었다. 오이도의 섬문화적 유산과 장차 관광문화적 자산이 만나야 할 관점이 여기에 있는 셈이다. 오이도의 전통 속에서 이러한 유산을 관리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미래의 대책이나 전망이 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이들의 전통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게 된다. 그 점을 찾아서 정리하면서 우리는 오이도의 가치와 자산으로서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오이도의 물적 토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해온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오이도의 생태적 특성은 섬의 전통과 섬을 연결한 시화호의 유산을 정확하게 관리

하는 것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오이도, 시화지구, 배곧신도시를 경제적인 체인블록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삶 속에서 패총으로 확인되는 문화 시원지로서의 면모와 봉수대의 지리적 가치와 군사역사를 통해 형성된 전통유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오이도의 지리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근간이 전통에 바탕을 두고 마련되었다고 할 때 오이도의 생태적 경제를 이룩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이도 사람들이 이룩해낸 위대한 유산과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신세계의 유산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오이도 섬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신앙의 결집체로 된 공동체의 유산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이도 도당곳의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오이도 도당곳은 각별하게 주목되는 것으로 본래 오이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 곳을 당산이라 이르며, 그곳에 봉수대가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시기의 세종기에 조선의 봉수로가 1로에서 5로로 확장되고, 바닷가나 국경의 해안선을 따라 전달되는 연변(沿邊)봉수가 설치된다. 즉 오이도에 이러한 연변봉수가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자 곧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위치라는 이유로 그 위치에 레이더 기지가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 소중한 유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금번의 정리과정을 통해 당산과 봉수대, 도당곳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로 전통의 큰 상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회복하고 오이도 공동의 유산으로 관리하면서 공동체의 기억과 전망으로 기능을 살리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화급한 일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지점에서 오이도의 전통적 자산인 오이도 도당곳이 정신적 기저에 흐르고 있으므로, 오이도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풍어제의 원형적 성질을 되살려야 한다.

과거 오이도에 거주하던 300여 세대를 하나로 연결한 것은 바로 도당곳이었다. 오이도 도당곳에서 지켜낸 것은 정말로 소중한 유산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이로 음력 이월 영등달에 한 것이 핵심이다. 밀양 박씨와 함께 각성받이들이 모여서 굿을 하면서 이들을 단합하게 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오이도 전통문화 자산의 준거를 이룩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이도의 도당곳이 지역적으로 오이도에 한정되지 않고, 인근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여러 섬과 해안지역의 어업민들에게 주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전통은 다시 한 번 오이도 도당곳의 가치를 빛나게 한다. 그리고 이 도당곳의

전통은 우리가 아는 한 서해안 지역의 원형적인 면모를 간직하고 있었던 특별한 곳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영등달인 영등굿의 전통처럼 서해안 지역 삶의 주기와 관련된 유산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한 점에서 오이도 도당굿을 통하여 이를 승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봉수대의 설정과 레이더 기지의 건설이 서로 맞물리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설정일 수 있다. 오이도를 옥죄고 있던 레이더 기지가 불필요한 우리의 유산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봉수대의 전통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봉수대의 전통을 도당굿과 연계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미래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오이도 도당굿의 가능성은 당집과 같은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전통을 일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고 있는 데서 미래를 여는 가능성도 갖게 된다. 원래 규모가 큰 곳이었고 소를 희생수로 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서해안의 많은 섬지역에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제사의 한 절차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역시 서해안의 지역적 전통과 연관시킬 수 있다. 291세대를 하나로 단합시키고 이것을 섬 전체의 축제로 4년마다 한 것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오이도 도당굿이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마련되었고, 삼일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등의 형태를 다시 조성하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현재 남아 있는 소중한 기억의 역사를 찾았으므로 도당굿의 전통을 재현하고 있는 기억의 전승이 망실되기 전에 이를 부활하고 이들을 준거로 하는 전통을 지켜내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찾는 것을 찾고 부활할 것을 부활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하지 않고 망설이게 되면 자칫 실기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는 잊혀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누백 년에 걸친 과거를 이 시대에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말이다.

이제 오이도를 중심으로 하는 당굿의 전통은 서해안 일대의 굿 전통과 긴밀하게 맥락이 닿아 있는 점이 드러났다. 상당굿과 하당굿을 맥락으로 연결하고, 이를 물의 굿으로 정의한다면 이 굿의 전반부를 갯가의 용왕굿으로 이어지는 점을 볼 수가 있다.

물에서 바다로, 산에서 육지로, 다시금 육지의 산신에서 바다의 용신으로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이를 대동축제의 장으로 풀어헤치는 것은 오이도와 인근 어촌지역에서 잃어버린 전통을 되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기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오이도 전통의 곳을 인식하고 이를 재화로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시급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이도 도당곳의 전통을 확인함으로써 새삼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에 의지해서 살아남은 유산을 미망의 관점에서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본다.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켜내 온 도당곳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것에 대한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 오이도와 오이도 인근을 살리는 운동의 결과로 되살아나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이도 도당곳의 전통은 자연에 순응하고 인간의 존중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근대적 관점, 과학의 관심사가 증대하면서 인간의 가치는 나날이 타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오이도 사람들이 이룩한 정신세계가 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이 없어지고 있는 점은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특히, 구비적 전통과 관련된 문화적 유산의 측면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유구하게 이어져 온 지역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도구로서의 말문학들이 더 이상 옛이야기나 옛 노래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거의 한 쪽을 고스란히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 조사보고서를 통해서 시흥문화의 자산과 오이도의 정신적 삶을 중시하던 사람들의 면모를 재발견하고 이들의 삶을 이룩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것은 지켜져야 하고 이어져야만 한다.

프랑스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가 한 말을 음미하면서 오이도의 전통적인 삶이 왜 중요한지 반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디언 침시언 부족이나 틀린지트 부족의 신화와 예술 작품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말을 아프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새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술품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이룩한 것들에 대한 열정적 사유의 결과를 망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을 한데 묶어보면, 인간의 열정들은 서로 뒤섞여 있다. 시간은 인간들이 경험한 사랑과 증오, 맹세와 투쟁, 희망 따위에 그 무엇을 보태지도 빼지도 않는다.

과거이든 현재이든 다 똑같다. 인간 역사에서 우연히 10세기 또는 20세기를 들어낸다 해도 우리가 인간 본성을 인식하는 감각적 방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손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세기에 탄생했던 예술 작품들의 상실이라. 왜냐하면 인간들은 예술품을 통해서만 변화하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무를 출산했던 목각 조각과 마찬가지로, 예술 작품들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들 사이에 무슨 일인가가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길 것이다.¹⁾”라고 하는 말을 떠올려야 마땅하다.

이제 더 이상 오이도를 유지하고 삶을 살았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을 개간하고, 동시에 이들을 통한 일련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 대한 외경감을 저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고 섬과 물을 하로 유지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생태론적 관심이 순식간에 망실되는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바이다. 나날이 타락하고 망실되고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일구는 좋은 방법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유일하게 견지해온 전통을 개발하고 이 시대에 가능한 범위에서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오이도라고 하는 곳의 삶을 해적이면서 아픈 반성과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인간의 문화적 발전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만 한 때 우리의 삶이 이룩한 것들의 전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절감하게 된다. 오이도에서 이룩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이도를 탐나게 하고 참되게 하는 첩경이 되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오이도 섬의 영원성을 믿으면서 인간보다 위대한 오이도의 영원성을 기억하는 방법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집필: 김현선)

1) Claude Lévi-Strauss, *Regarder, écouter, lire*, Plon, 1993.

시흥 오이도 민속조사를 위한 조사·면담 자료

조사개요

오이도는 1920년대 초 군자염전 개발을 시작으로 육지와 연결되면서 온전한 섬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염전건설을 위한 이주민의 유입으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는 등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시화방조제 건설과 그에 따른 간척과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육지화되었다.

현재 오이도는 오이도선사유적공원과 오이도 이주단지를 중심으로 ‘오이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발 이전의 민간신앙과 마을신앙, 농업·어업·염업 등의 생업, 오이도 주민들의 이야기와 노래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해안지역으로서의 ‘오이도다운 오이도’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오이도 이주단지와 오이도 주민들이 상당수 이주한 정왕동을 중심으로 오이도 민속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오이도 민속 조사는 2017년 12월 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2일까지 총 9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 횟수는 16회이다. 조사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조사일	조사장소	주요 면담자	주요 면담내용
2017.12.07	시흥시청	관광과, 사회복지과	오이도 관련 자료와 토박이 거주지 현황
2017.12.12	정왕3동 동남아파트 경로당	윤팔희, 조정자, 조명순, 김영자, 최유순	옛이야기와 노래
	정왕3동 오이도 2경로당	이성분, 김연하	오이도 당고사

2017.12.13	정왕3동 동보아파트 경로당	이분남, 김금자, 이귀상	옛이야기와 노래
	정왕3동 신호아파트경로당	박승자, 주씨 할머니	옛이야기와 노래
2017.12.14	정왕본동 군서경로당	은옥화, 박옥분, 안중례, 안영림	옛이야기와 노래
	정왕본동 정왕큰솔경로당	김용길, 윤영자	옛이야기와 노래
2017.12.15	정왕1동 그린경로당	홍복선, 김순금	옛이야기와 노래
	정왕1동 장수경로당	홍용자, 오영화	옛이야기와 노래
2017.12.18	정왕3동 오이도 1경로당	김영웅, 정용택, 예현규	오이도 당굿, 건강망
2017.12.20	팔도횃집	강범모	오이도 개발과 변천
	팔도횃집	김연하	군자염전, 살막
2017.12.21	오이도어촌계 사무실	김성용	군자염전, 건강망, 갯벌
	정왕3동 오이도 1경로당	김영웅, 정용택	오이도 당굿, 건강망, 오이도 음식
2017.12.22	월곶어촌계 사무실	송선일	군자염전, 어업, 어촌계
	덕섬 조개구이집	박용덕	오이도 당굿, 건강망

주요 조사내용이 옛이야기와 노래인 경우 면담자들이 오이도 출생이 아니거나 오이도 거주기간이 길지 않은 면담자들이 많아 오이도의 민속이나 전래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사에서 면담자들과는 주로 옛날 이야기와 민요 구연을 부탁하여 구비문화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모두 설화 32편, 민요 20편이 조사되었으나 온전한 형태를 지닌 설화 14편과 민요 13편을 선정하여 4장의 ‘3) 오이도와 이웃 사람들이 전하는 옛이야기’ 수록하고 해설을 실어놓았다.

면담을 하면서 오이도에서 태어나 오이도에서 거주하는 면담자 또는 오이도로 시집을 왔거나 이주해 와서 오랜 시간 오이도 생활을 하여 오이도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애담 형식으로 정리하여 4장의 ‘2) 오이도와 이웃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에 실었다. 모두 여섯 분의 생애담을 실었는데 토착민의 삶으로 덕섬의 박용덕 어르신, 김성용 오이도어촌계 체험사무장, 송선일 전 월곶어촌계 사무장의 이야기를 세 편, 고향을 떠나 오이도로 시집을 와서 염전이나 갯벌 작업으로 생활을 꾸려갔던 생애담으로는 정왕3동 오이도 2경로당에서 만난 김연하 할머니, 정

왕본동 군서경로당에서 만난 은옥화 할머니, 정왕3동 신호아파트경로당에서 만난 주씨 할머니의 이야기 세 편을 실었다.

옛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오이도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생애담을 구술하신 분들 외에, 오이도 민속에 대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을 한 면담자들이 있었다. 오이도 당곳에 대해서는 특히 덕섬의 박용덕 어르신, 오이도의 건강망과 갯벌 등 어업에 대해서는 오이도 1경로당의 김영웅·정용택 어르신의 이야기로 이전 조사 내용의 많은 부분이 구체화되었다. 김영웅·정용택·예현규 어르신은 오이도 당곳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기억을 살려 진술하였다. 김성용 오이도어촌계 체험사무국장과 송선일 전 월곶어촌계장은 군자염전과 오이도 어업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 현재적 시점에서 진술하였다.

이에 덕섬의 박용덕 어르신, 오이도 1경로당의 김영웅·정용택·예현규 어르신, 김성용 오이도어촌계 체험사무국장, 송선일 전 월곶어촌계장과의 면담 자료를 정리하여 실는다.¹⁾

1) 면담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윤정귀, 지연화, 김호성 보조연구원을 중심으로 경기대 국문과 대학원의 오정아, 윤동은 박사 수료생과 신소연, 김현수 박사과정생의 수고가 있었다. 자료에 대한 재정리와 편집은 연구원 시지은, 김혜정, 김은희가 담당했으므로 면담자료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연구원에게 있음을 밝힌다.

1. 오이도 1경로당 김영웅·정용택·예현규

- 제 보 자: 김영웅(金英雄, 남, 76세, 1942년생, 말띠 / 군자면 정왕리 내오이도 140번지 출생)
정용택(鄭龍澤, 남, 80세, 1938년생, 호랑이띠/ 군자면 정왕리 내오이도 172번지 출생)
예현규(남, 87세, 1931년생, 양띠 / 오이도 안말 출생)
- 조사일시: 2017년 12월 18일(월) / 2017년 12월 21일(목)
- 조사장소: 시흥시 오이도1길 30(정왕동 2040번지) 오이도 1경로당



갯벌

- ▶ 오이도가 지금도 조개구이가 유명한데, 예전부터 오이도 갯벌에 조개가 많이 잡혔지요?
- ▷ (김영웅) 많이 잡혔죠. 동죽, 맛살, 가무락. 가무락은 모시조개라고 그러지. 함박조개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어. 여기는 새조개는 안 나오고 동죽은 바지락보다 조금 크고 통통하죠. 바지락도 나오고, 우리는 주로 그런 걸 해서 먹고 살았어. 또 삻쪽이라고 있어. 약간 삻쪽하고 납작한 게, 그 조개 삻죽이는 아려서 날로 못 먹어요. 그렇지만 떡국 끓이는 데는 최고죠. 감칠맛이 좋아서 옛날에 미원 없을 때 그거를 미원으로 삼아 썼어요. 국물이 뭐랄까 지금 해장국 국물같이 시원하고 아주 담백한 맛이 있어요.
- 삻죽이는 납작해요. 이렇게 얇고 까만데, 그 전에는 미원이 없을 당시에 국에다가 그거 몇 개만 집어넣으면 국이 그렇게 시원하고, 삻죽이가 그렇게 맛이 좋았어. 패류가 다 좋은데, 조개국물이 다 맛이 시원하고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삻쪽이야. 또 모시조개라고도 하고 가무락이라는 조개도 맛내기가 좋은데 까맣고 반들반들해요.

그때 당시에는 뼈쪽이하고 가무락이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원이 나왔어. 미원 대용품으로 했어. 옛날에 수원 인천간 협궤열차 다닐 적에 이 뼈쪽이가 인천 수인역으로 다 갔어.

- ▷ (정용택) 여기서는 그런 거를 패류라고 그러는데 패류 종류가 몇 가지 내가 불러 줄게. 감 맛이라고 있어 감맛. 횃집들 가면 둥그랗고 쪼꼬마한 거 있어요. 고저 감맛이라고 그러고. 가리맛이라고 기다란 거 있어요. 충청도에서 소금 넣고 잡는 거 기다란 거 있어요. 그걸 가리 맛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새끼 종류가 있어요. 그건 쪼꼬만 데 피땃맛이라고 그래요. 맛 조개도 3종류나 되는데, 감맛, 가리맛, 피땃맛 3가지야. 굴도 많았죠.

그리고 소라도 있고 함박조개라는 것도 있는데, 함박조개는 뭐냐면 조개는 엄청 큰 데 껍질이 무척 얇고 빨가면서 속이 얇고 깊이 들어가 있어서 땅을 더 깊이 파야 잡을 수 있어. 죽갑도 나오고. 바다 패류로는 여기가 첫째일 거야. 웅피는 색깔이 노랑고 옥이라고 그랬지. 우리 어려서 잡을 적에 동죽도 좀 나오고 소라 나오고 새조개, 피조개, 할미조개도 있는데, 할미조개가 새조개야. 피조개를 갖다가 여기서는 할미조개라고 그랬어.

- ▷ (예현규) 요 근래는 개불도 생겼어. 예전에 저수지에 고동도 많았고.

▶ 까막조개가 모시조개하고 같은 거예요?

- ▷ (김영웅) 네, 그거는 깨끗한 조개야. 또 상합이라고 있죠. 상합조개는 길이 반질반질하고 껍질 두껍고 단단한 상합이 있는데, 그거는 해금을 안 해도 되요. 일본사람들이 패류 중에서 제일 인정해 주는 것이 상합이고 대합이라고 그러지. 대합이 작은 것도 있어. 작은 거부터 크면 이만하게 손바닥만 하게 크는데, 이게 몇 년 묵은 거지. 바다에 다니면서 작업을 하다가 그런 거 하나 나오면 굉장히 기분 좋게들 생각하지 어민들이. 전부 요만한 것들인데 그런 거 하나 나오면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집에서 먹기에 도 한 3인분 되고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좋아요. 그 조개 중에서 그것도 고급 조개예요.

▶ 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조개를 얼마나 많이 캘 수 있었어요?

- ▷ (김영웅) 지금도 계절적으로 조개 캐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면적이 적어서 양도 적죠. 예전에는 패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가지 수도 다양하고 소라, 굴, 맛살, 동죽, 가무락 등이 나오는데 그 중에 동죽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우리 어른제

가 있지만, 어촌계 조성되고 80년도 그 무렵에는 동죽이 1년에 한 2억씩 했어. 그제 동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80년도 그 무렵에 까무락도 많이 나오고, 까무락은 많이 나와서 당일에 다 못 실어 내 갔지.

- ▷ (예현규) 우마차 달구지로 소 5~6 놈이 하루에 끌어내면 250푸대씩 끌어내고 그랬어.
- ▷ (김영웅) 상인들이 가져가는 양이 있어서 오늘 5톤이 필요하다면 깐 걸로다가 5톤을 맞춰 주고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주는 거야. 그러면 잡는 양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날 딱 배당을 주는 거지. 상인들이 주문한 양 만큼 오늘 50키로 잡아라, 30키로 잡아라, 100키로 잡아라. 어촌계에서 그렇게 각각 배당을 주면 각자 잡아서 자기가 잡은 거는 자기가 까서 납품을 해요. 그러면 까는 공전까지 다 나와요. 상인들은 어촌계하고 상대를 하고 우리는 어촌계에서 돈을 받는 거지.

까무락은 워낙 많으니까 배당을 못 맞출 수는 없고 만약에 욕심내고 배당받은 거보다 더 많이 잡아도 배당 받은 것만큼만 돈을 쳐 주지. 더 잡아도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잡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요 그릇으로 잡으면 이만큼이면 몇 킬로가 될지 다 알죠. 손이 저울보다 나아요. 몇 키로 나온다는 거 딱 알거든. 그래서 많이 잡아도 이고 나오기만 힘들고 소용없어요.

- ▶ 동죽, 까무락이 제일 많이 잡히는 거네요?
- ▷ (정용택) 여기는 원래 배지락이 안 나오고 저 서산 저쪽에서 나오던 건데, 이리 이주가 되면서 바지락이 나왔지. 저 너머 있을 적에는 바지락이 안 나왔어요.
- ▷ (김영웅) 예전에는 바지락이 없었어.
- ▷ (정용택) 방조제 막기 전에는 바지락이 안 나오고 빼죽이하고 동죽, 동죽이 많았지. 1년에 동죽하고 모시조개라고 그러는 게 원래는 까무락인데, 이런 걸 잡아서 어민 소득이 1년 소득이 2억 됐어요. 밑천 없이 자연 서식하는 거 잡아서 벌어들이는 소득이죠.
- ▷ (김영웅) 노동 인력만 가면 되니까.
- ▷ (정용택) 바다에 가면 그냥 자연 서식이 돼서 동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동죽을 이렇게 굵어서 50키로, 어촌계서 잡아라 그러면 50키로에 한 6만 원 되거든요. 6만 원이면 이틀에 한 번씩 잡거든. 그러면 좀 소득이 많아요?

- ▶ 갯벌 중에도 조개가 많이 사는 곳이 따로 있나요?

▷ (정용택) 물이 6시간 들어오고 6시간 나가고 그래요. 24시간 중에 두 번 나가고 두 번 들어오고 4번 반복하는 거지. 그러면 물이 나갔을 때는 조개를 캐고 물 들어오면 나오는 거지. 그런데 조개는 바다 끝까지 아무데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조개 잡는 위치가 있어서 그 범위에서 잡는 거지 아무데나 간다고 다 잡는 거는 아니에요.

▷ (김영웅) 육지 제일 가까운 데는 거는 동죽이고, 그 다음엔 삐죽이는 좀 먼 데 가도 있어요. 그리고 맛살 같은 거는 한쪽으로 몰려있어, 바다에 쪽 깔려 있지 않고. 서식지가 따로 있으면서 굉장히 깊어 들어가 있지. 맛살은 맛 성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꼬챙이나 철사로다 조개 구멍에다 집어넣고 잡았지. 화살 식으로 만들어서 고거 들어가서 걸리면 그렇게 나왔는데, 맛살에 모래 같은 게 들어가서 해금이 안 되는 거야. 그 모래나 뿔을 조개가 게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맛이 죽어서 금방 상해. 그래서 지금은 전부 파서 잡죠. 그리고 그 꼬챙이, 성에가 이제 다 없어지고.

▶ 그래서 이 맛을 먹으면 유난히 찌그덕 거리는 게 많았군요?

▷ (김영웅) 오~ 맞아요. 그거는 잡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파서 잡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잡으면 팔아먹지도 못해요. 그 맛살이 살아 있으면 해금을 하는데, 잡으면서 꼬챙이로 찌르니까. 지금 동죽이나 바지락 같은 거는 살아 있을 때나 해금을 하지 죽으면 해금을 못해요.

▶ 갯벌 말고 좀 멀리는 안 가셨어요?

▷ (김영웅) 옛날에는 여기 황새바위라고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안에 또 서말바위라고 있어. 굴이 많아서 여기서 굴을 따서 농촌에 가면 쌀 서말하고 바꾼다고 해서 서말바위야. 그만큼 굴이 많은 곳이지. 또 서말바위는 바위가 널찍한 게 조개도 있고 낙지도 많이 나오지.

황새바위는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섬인데, 사람이 안 살고 황새들이 엄청나게 거기를 싸고 앉아 있어서 황새바위야.

▶ 조개 씨를 뿌리고 양식을 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 (김영웅) 우리가 지난년도에도 대합을 여기다 양식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합을 양식하기에는 여기가 지형 조건이 많이 바뀌어서 안 맞더라구. 그러

니까 오이도, 대부도 매립공사를 했고 여기 공단이 많이 들어섰고 또 하루 인천에도 공사를 많이 했고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뻘이 안정이 안 돼 있어.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없을 적에는 물이 들어왔다 나가고 바람이나 세게 불면 파도나 많이 쳐 가지고 일부만 변경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뻘이 변동이 많이 생겨 가지고 안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것도 돈 많이 들었었어요. 삼, 사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 양식을 시작해 봤는데, 그물도 한 1미터씩 쳐 줬었고 망을 쳐 줬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돈만 없앤 거지. 우리가 경기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돈 한 사, 오천만 원 정도 들어서 양식 사업을 했었는데.

한 3해배 정도를 했는데, 평으로 따지면 약 한 만평 정도 했었어요. 그 종패 값하고 못 끌려 나가게끔 시설을 해야 되잖아. 그거하고 인건비하고 수송비 다해서 한 4~5천만 원 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게 없으니까 그걸 한 번 해보자, 소득이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촌계에서 201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에 실패 했어요.

- ▷ (김영웅) 뻘이 좁아졌잖아요. 이제 저기 나가 보면 LNG 가스라고 있어요. 인천에서 그거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원체 뻘이 좁아져 가지고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동죽이라고 그 종패를 사다가 씨를 종패를 사다가 좀 했어요. 그래 고거는 그래도 좀 남아 있어요. 그 동죽은 그 조개 중에서 제일 값이 싼 조개가 동죽이야.

▶ 어민들이 조개를 잡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팔아야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 ▷ (정용택) 어떻게 하느냐하면 어민들한테 방송을 해요. 어촌계원이 250명인데, 250명이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모두 나와서 잡으면 과잉생산하면 안 되니까 A, B조로 나뉘어요. 그래서 오늘 A조는 동죽 잡는 날인데, 방송으로다가 50키로 동죽을 채취한다 그러면 B조는 가무락을 몇 키로 채취한다 그렇게 해서 할당을 받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포구에서 50키로를 담아서 모자라면 그대로 하지만, 남으면 덜어내고 50키로를 달아서 그 자리에서 차에 실어버려요.

- ▷ (김영웅) 달고 남은 건 주지를 앓아. 공동기금이야.

- ▷ (정용택) 우마차가 있어서 조개를 캐놓으면. 우마차로다가 돌아다니면서 다 싣는 거지. 싣고 포구에 와서 계원, 그 작업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울에다가 50키로 딱 올려놓고서는 저울 딱딱 달아서 상인, 그 중매인에게 넘겨주죠. 중매인들이 미리 이십 푸대 갖고 와라, 사십 푸대 갖고 와라, 오십 푸대 갖고 와라 주문을 했으니까 우리가 맞춰서 잡고 그 자리서 바로 분배를 하지.

- ▶ 정해진 양이 50킬로인데 그걸 다 못 캐는 사람은 어떡해요?
- ▷ (김영웅, 정용택) 왜 못 캐? 하도 많아가지고 못 캐지 않아. 예를 들어 25키로 짜리 쌀 푸대 하나씩 주는 거야. 이거는 매일 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남아야 1~2키로 남고 모자라는 건 없다시피 하지.
- ▷ (정용택) 자루는 그 상인들이 사다줘요. 사다주면 들어갈 때 우마차가 한 열대 되는데, 마차로 황소가 끌어내는 거야, 사람이 안 끌어내. 우마차 타고 다니면서 푸대 하나씩 다 줘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써 놔요. 우마차 가진 사람이 누구네 꺼다. 어촌계에서 전표를 떼어 주잖아요. 전표를 떼어주면 내가 이제 전표를 열흘이면 열흘 전표를 받아요. 그러면 우마차가 다 돌려 준 다음에 돈을 주죠. 그러면 스무 푸대면 어촌계 가서 말일이면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열흘 만에 돈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을 어촌계에서 다 받아오는 거지.
- ▶ 소가 우마차를 끌고 들어갈 정도로 뺨이 단단했어요?
- ▷ (정용택) 그러믄요. 단단했죠. 우마차 다니는 길이 또 있어요. 바다가 이렇게 뺨이지만 이 길로 계속 다니기 때문에 탄탄하지. 우마차도 땡기고.
- ▷ (김영웅, 정용택) 그럼요. 사람이 다니고 오며가며 몇 번만 다니다 보면 딱딱해져. 그 원래가 그 입구만 빠지지, 조개 잡는 데는 딱딱해요.
- ▷ (정용택) 그 개시모래라는 데는 모래와 뺨이 겹쳐 있는 것을 보고 개시모래라고 하는 건데 동죽은 거기서 갈퀴로다가 잡지, 길쭉하잖아. 그리고 얇게 있어서 갈퀴로다가 긁어서 잡으니까 아무리 못 잡는 사람이라도 한 시간이면 다 잡아요. 그 조개는 여자들이 주로 하는 거야. 남자들은 바다, 염전, 날일 이런 거를 하고 주로 여자들이 조개 캐고, 여자가 못 가는 데는 남자가 가고 그런 거야.

건강망과 살막

- ▶ 오이도 안말에는 몇 호정도 사셨어요?
- ▷ (김영웅) 250호 정도 살았는데, 염전에 다니는 분이 한 50가구 되고 나머지는 어업하구 농사하고 겸업들을 했죠.

▷ (정용택) 염전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만이 아니라, 옥구공원 쪽 마을 사람들하고 군자 역전, 본동, 죽울동, 정왕 1동 2동에는 염전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지.

▶ 어업을 하시면 바다에서 주로 뭘 잡으셨어요?

▷ (김영웅, 정용택) 대하, 꽃게, 전어 등. 주로 값비싼 거는 대하하고 꽃게하고 주로 잡고 그 나머지는 잡어죠, 잡어.

▷ (정용택) 어업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해업이 있고 건강망 어업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있었다고.

▷ (김영웅) 배하고 건강망이라고 바다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쭉 박고 거기다 그물을 쳐요. 그러면 물이 위로 들어왔다가 나갈 적에는 고기가 밑으로 깔리죠. 이제 물이 나가면 고기를 잡아 오는 거야. 그것도 하고 또 물 빠지면 바다에서 조개잡고, 조개는 바다에 가서 캐는 거지.

▶ 건강망이 전통적인 어업인가요?

▷ (김영웅) ‘살’이었어요, 살. 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수숫대나 싸리나무 뗏가지 등을 촘촘하게 엮어서 울타리 식으로다가 살을 그렇게 땀어. 그 후에 우리가 할 때는 긴 나무를 말뚝으로 박아가지고 그물을 밑에 매고 위에도 매고 그렇게 해서 그걸 건강망이라고 그랬어.

▶ 안말에 250호 중에서 건강망은 얼마나 있었나요?

▷ (정용택, 김영웅) 건강망은 자기들 거 내려오던 거지. 각각 발주인이 있어요.

▷ (정용택) 그러보면 요기가 한 바탕 있고 요기가 1번. 요기가 두 바탕 있고 여기가 다 둘러 썼어요. 여기가 다 바다라면 요기가 둘, 요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둘러싸서 건강망 하나에 6백 미터에서 8백 미터까지 되는 것도 있고, 한바탕이 3백 미터 되는 게 있고 4백 미터 되는 게 있고. 우리 김희장네(김영웅 어르신을 가리키며) 같은 경우에는 7백 미터 정도 되고.

▶ 건강망 아홉 집 옛날 주인 이름 좀 다 가르쳐 주세요.

▷ (정용택) 첫 번째 박용문, 이진성, 정영, 최선봉, 김계창(김영웅 부친), 박갑록, 박봉길, 박용현, 박오득.

▶ 그런데 박씨가 왜 이렇게 많아요?

▷ (정용택) 여기가 밀양박씨 종중이야. 3백년 됐어.

▶ 그럼 건강망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집이 많은 것 같은데, 중간에 다른 집이 하던 걸 살수도 있었겠네요?

▷ (정용택)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요것이 음력 정월 15일부터 5월 5일 단오까 지 하면 끝이야. 생선이 산란을 하러 여기에 왔다가 물 수심 온도가 맞지 않으니까 음력 5월 5일 정도면 다 빠져 나가요. 생선이 그때면 끝나죠. 한 4개월 정도로 짧어.

▶ 이게 농사로 치면 큰 땅을 갖고 있는 건데, 농사는 한 여름에서 추석 때까지 짓는 거라면 이거는 정월 대보름에서 단오 때까지인 잡는 거네요? 이때 주로 뭘 잡나요?

▷ (정용택) 정월달에는 주로 송어를 잡아요. 3월 달 쯤 돼서는 대하, 꽃게, 전어, 농어, 민어, 갑오징어 뭐 많이 잡아요. 붕매이 새우라고 순정파리 같은 것도 잡는 거지. 5월 단오 때에 일을 끝을 내고 여름에 쉬죠.

옛날에는 그 면사그물이라 해 갖고 뜨거워서 그물이 바다에서 썩어요. 그리고 말장(말짚)이라고 참나무로 높이가 12미터야, 굉장히 높죠. 그거를 2백 미터, 3백 미터 뻗려면 10미터에 하나씩 박아서 나무가 큰 게 한 4~5백 개 정도 들어가요. 말뚝으로 왜 참나무를 쓰냐하면 참나무는 물에 뜨지를 않아서 참나무 쓰고, 그리고 밑에를 깎아야 해요. 참나무는 강원도나 저런데 어디 가서 사 오는데 보통 둘레가 굵은 거는 30센티 이상 될 거야. 둘레가 굵은 거로 박아야 뜨지를 않아요. 이런 소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는 물에 떠서 다 빠져나가는데 그놈은 박아 놓으면 빠져나가거나 그러지 않고 단단해요.

▷ (김영웅) 그때가 재밌었지요. 그때 그거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데로 정월달부터 오월 단오 정도까지만 하면 1년 농사꾼으로 말하면 1년 농사는 다 짓는 거야. 가을 그물은 별로 소득이 없는 거고. 그때 4개월 하는 영업으로 인해서 금년에 농사를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농사꾼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되요.

▷ (정용택) 단오 지나면 이제 물이 뜨겁잖아요. 여름에는 물이 더워서 못하고 음력 7월 달 되면 이제 큰 그물을 매요. 이거는(봄 그물을 말함) 보통 7백 미터, 8백 미터, 4백 미터, 5백 미터 그렇게 매지는데, 이때 매는 그물을 가을 그물이라고 그래. 가을 그물은 한 2~3백 미터씩 맨다구. 그래서 뭘 잡느냐하면 그때는 게랑 잡어를 좀 잡지, 망둥어,

새우 뭐 이런 잡어를 좀 잡아요.

그전에는 김영웅 씨 아버님 김계창 씨가 했을 때는 쪼꼬마면서도 대하, 원대하라고 그 대하를 밤에 4~5백 개, 낮에 4~5백 개, 한 15일 간을 그렇게 잡아냈어. 대하가 작으면서 부피도 작으면서 값도 비싸고 서울서 제일 선호하는 게 대하였어. 옛날에 고기 중에 최고급이에요. 다른 거는 뭐 무겁기만 하고 잡을 때도 힘들고.

▶ 바다에 박는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 (정용택) 말장이라고 그래. 5월 단오 때쯤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음력 5월 그때 되면 적이라는 게 이렇게 참나무에 매달려 있어. 그 따개비 정도죠. 바다 가장자리 보면 요런 따개비처럼 나와 있는 게 있죠. 그게 말장에 다 붙는다고. 여기서는 적이라고 많이 그래요. 그게 쇠뿔처럼 단단하고 만지지도 못해요. 그 적이 매달려서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말장을 다 뽑아야 되요. 단오 지나고 한 유월 달 좀 되면 그물을 다 걷어내고 말장을 다 뽑지. 뽑아서 바깥에 끌어내면 그 구적이 다 죽어요. 죽으면 낫이나 호미 같은 걸로 긁어내지. 그 말장 한 번 구입을 하면 한 3년까지는 써요.

▶ 그럼 말장을 5월에 빼 냈다가 7월에 다시 박는 거예요?

▷ (정용택) 그 말장으로 안 박고 두 가지 말장이예요. 앞에 매는 거는 12미터 정도 되고, 그 뒤에 박는 거는 한 8미터 정도 되는 작은 말장을 하는 거지. 그 앞에 매는 거는 그물이 얇기 때문이지. 그 그물은 무슨 그물이라고 하느냐 하면 앞에 매는 그물을 칠절이라고 그래. 그 전어가 딱 끼이기 쉬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물이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된 이게 칠절이라 그러고 그 구멍 간격이 칠절이에요. 후망에 매는 건 십이절이라고 촘촘한 그물이죠. 잔고기 빠져 나가지 말라고 십이절짜리 매죠. 모양은 똑같은데 그물코가 촘촘해요. 모기장 같이 촘촘하지.

▶ 전어도 건강망으로 잡는 거예요?

▷ (정용택) 그럼요, 건강망으로 잡지. 배로는 꽃게하고 대하를 많이 잡지. 전어 같은 거는 건강망으로 다 잡았어요.

▷ (김영웅) 전어는 값이 싸 가지고 사람 하나 사 가지고 가면 가지고 나오는 양으로 그 사람 품값 값어치밖에 안 돼. 그렇게 썼었어.

▷ (김영웅) 그렇게 마차로 갖고 오면 작업도 다 해야 되잖아. 고기를 따 가지고 거기까지

싹고 어찌고 사람 손이 많이 가지.

▶ 가을 그물하고 대보름에 거는 그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정용택) 가을 그물은 7월에 삼복이 지난 후에 다시 생선을 잡으려고 그물을 매요. 음력 7월 중순 경에 걸고, 시월 초에는 날이 춥고 그러면 고기가 없어. 그리고 정월달에도 가을 그물처럼 그렇게 매요. 그걸 큰 그물이라고 그러지. 처음에는 음력 2월 초가 돼서 날 좀 따뜻해지면 자기네 바탕에 딱딱하게 표적이 나 있는 뚝 다리 밑에 그물이 들리지 않게 끈으로다가 다 붙들어 댔던 끈을 주욱 자리가 난다고. 이렇게 그 원돌레로 되어 있어요.

그물이 앞에서 시작하는데 물이 쓸려 내려가는 쪽을 아랫젓이라고 그리고 쓸려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곱장이라고 그리고 고거를 2월 초순께 12미터 짜리를 우마차에 싣고 사람을 얻어다 박는 거지. 보름 때는 8미터 짜리 말장을 우선 송어잡이 할려고 매는 거거든. 정월달에 꼬꼬망게 그걸 매고 큰 바탕을 매고 이걸 뽑아서 큰 바탕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위에다는 큰 그물을 치고 큰 그물은 칠절인데, 칠절은 그물망이 커서 웬만한 물고기는 거의 다 빠져 나가거든. 그래서 십이절 짜리를 한 5백미터 정도를 뒤에다 요렇게 두르지. 두 겹으로 치는 거예요. 말장 간격은 다 10미터로 같아요. 물 빠져 나가면서 자잘한 거 순정파리, 봉덕이, 새우, 중하, 빠리 이런 거는 여기서 다 건지는 거지.

▶ 여름에서 가을 사이 그물이 없을 때는 염전일도 하셨어요?

▷ (정용택) 그림, 나도 염전을 3년 다녔는데 무척 힘들어. 소금 목도를 하고, 밤에 비가 오면 자다가도 나가서 비 설거지 해야 하는데, 염판에 있는 물을 다 모아야 되고, 염전이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염전에 다니고 싶은 사람은 염전에 다니고, 배하고 싶은 사람은 배를 하고 또 농사짓고. 나는 나중에 농사만 짓고 또 마누라가 바다에 나가서 조개잡고 농사하고 겸업을 한 거지. 농사도 하고 뱃일도 하고 건강망도 동사로다 다녔지. 건강망 주인이 사람을 한 달 동안 사는 거를 ‘그물 동사’라고 그래. 같이 종사 한다 ‘그물동사’라고 그래

▷ (김영웅) 건강망도 힘들어요.

▷ (정용택) 건강망은 전어 딸 때는 초저녁에 가면 날이 새야 나와요. 6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데, 말장 10미터 높이의 칠절인 3합 그물에 전어가 다 끼어요. 전어가 대가리 중간

에 다 꺼 서 물속에서 빠져 나가려고 막 흔들다보니 중간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걸 밤에 가서 흔들어야 되요. 그때는 장갑도 없이 손을 모아잡고 그냥 흔들면 흔들리기만 하고, 전어가 그물에서 안 빠지니까 흔들다가 탁 쳐야 돼. 그래야 그 반동으로 이게 떨어지지. 털다가 전어에 얼굴도 맞아서 상처 나게 다치기도 하지.

그물 고기 털이를 밤에 하니까 아침에 보면 다 풍비박산 났죠. 그러면 물고기를 다 주워야 되요. 주워서 그걸 개흙이 잔뜩 묻었으니 개골창에다 이걸 흔들어서 씻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지게에다 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는 마차에다 싣고 가고 그 다음에는 리어카에다 끌고 다니고 무척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봄에 바람이 불면 말장이 쓰러지고 뽑혀요. 그러면 그물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이걸 다 뜯어가지고 말장을 빼서 다시 박아야 해. 한 두 개도 아니고 20개, 30개 할려면 엄청 힘들지. 그물을 정상으로 매려면 한꺼번에 못 올리고 사닥다리타고 올라가야 해요. 사닥다리도 웬만한 사람은 못 타지. 열 두자짜리 사닥다리 만들어서 말장 꼭대기 올라가서 끈을 밑에서 그 그물을 쪽 핀다고. 이렇게 쪽 펴서 잡아당겨서 40~50미터 되는 그물을 늘어지지 않게 말장에다가 기타 줄처럼 탱탱 하게 다 붙들어 댔려니까 무척 힘들지.

▶ 그물이 많이 무거운 텐데 그걸 혼자 해요?

▷ (정용택) 무거운 거보다도 팽팽하게 해야 하니까. 나일론이라 무겁지는 않는데 맨 꼭대기에다 끈으로 말장에 쪽 다 매죠. 무척 힘들다고. 그걸 혼자 못하죠, 여럿이 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키가 크고 하니까 내가 해야지. 사닥다리 이렇게 놓고 밑에서부터 끌고서 올라가야 되요, 줄을.

▶ 그물을 걸면 어떤 것들이 잡히나요?

▷ (김영웅) 계절별로 다르지. 꽃게, 전어, 민어, 송어, 밴댕이 뭐 등등 고급 어종이 많이 나왔어요. 아홉 개 지역 건강망에서 그물을 지우면 물이 이렇게 들어 왔다가 고기가 위로 들어 왔다가 물이 나갈 적에 고기가 밑에 깔리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아홉 명의 주인이 뺨 둘러가며 잡는 거지.

▷ (정용택) 그 당시는 송어도 많이 잡았어요. 송어잡이를 음력 정월 보름날이 지나면 송어 그물을 매요. 건강망을 맨다고 그러면 송어가 떼로 몰려와서 다섯 명이 가서 송어를 다섯 짐을 지고도 그 밤에 다 못 갖고 와. 그래서 바다 갯벌을 파 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뒀다가 그 이튿날 가서 잡아와요. 묻어놓으면 물이 들어와도 안 떠내려가. 땅을

파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가서 파서 지고 오지.

▶ 뽕 속에 묻어 놓으면 그 고기들이 살아 있는 거예요?

▷ (김영웅) 살기는 뽕 살어, 다 죽는 거지. 여기 살았다는 거는 없어요. 잡으면 바로 죽는 거야.

▷ (정용택) 여기서 잡는 것도 배로 잡아오는 고기도 그렇고 건강망에서 잡는 고기도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고기도 회 떠먹고 다 그랬어요.

▶ 자연부락 이름 중에 살막이 있던데요, 살막이 뭐예요?

▷ (김영웅) 예전에 우리 동네가 250세대인데 자연적 부락 이름이 고주리, 신포동, 골말, 가운데살막, 안마을, 언덕밑, 작은소라폴, 큰소라폴, 배달이, 칠호 이렇게 10개 동네가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황해도 사람들이 신포동이 6.25사변 때 황해도 웅진에서 여기로 피난 온 사람들이야. 그 신포동 지역이 그렇게 해서 조성된 자리야. 그 아랫살막이라는 자리는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부락을 조성한 사람들이라고.

‘살막’이라는 데는 아침, 저녁, 낮이고 밤이고 바다에 드나들 때면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는데, 물때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서 물때가 될 때까지 살막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물 때 맞춰서 들어가고 그런 데가 살막이야.

▷ (정용택) 살막이라는 데는 물살막이라고 옛날 할아버지들은 ‘살’이라고 그랬어. ‘살’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물이 없어가지고 거 싸릿대 같은 것으로 율타리 치듯이 엮어서 그 거를 뺑 돌아서 해 봤었지. 그러면 바다 고기가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름이 살이야.

▶ 마을 이름에 가운데살막이 있던데요?

▷ (정용택) 마을 이름이 아니라 가운데살막이라는 그 입구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지.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지. 여기 세 개는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살막, 여기는 아랫살막, 여기 네 바당은 다 아랫살막. 여기 최선봉네 꺼, 가운데살막 세 개가 제일 좋았어. 정영 씨네, 최선봉, 김계창(김영웅부친), 박갑록 여기가 제일 많이 잡았지.

▷ (김영웅) 그쪽 방향에 어장이 3개가 있다 이거지.

▷ (정용택) 사람이 살기 전에 이 그물이 다 조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바다를 해 먹으려고 가운데 살막에 살았으니까 누구네, 누구네 그러는 거지, 몇 집 되지도

않았어. 여기 가운데 살막 같은 경우는 잘 해야 한 열 뗏 가구 그 정도 됐던 거지.

▶ 그러면 살막이 마을이 아니라 그냥 바닷가에 사람이 모여사는 곳이에요?

▷ (김영웅) 가운데 살막이라는 데는 동네에서 볼 때에 거기가 가운데라서 그런 거예요. 뒷살막도 있어요. 동네에 뒤에 있다고 ‘뒷살막’, ‘아랫살막’도 있고. 그 살막 세 군데로 다가 아홉 바탕으로 들어가는 데를 구분해 났지. 살막이 바다에 들어가는 출입구야.

▷ (정용택) 거기가 건강망으로 고기 잡으러 가는 출입구라고.

▷ (김영웅) 지금은 그 살이 건강망이고 살막이 건강망으로 가는 출입구뿐만 아니라, 조개 잡이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3군데 살막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래요.

▷ (정용택) 조개를 잡으러 간다든가 낙지를 잡으러 간다든가 굴을 따러가도 그 세 군데가 바다로 가는 입구이면서고 바다로 가는 길이야.

▷ (정용택, 김영웅) 그렇기 한테, 살막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고 그래요. 거기 입구에 막을 조그맣게 비 가림식으로 움막을 짓는데 땅을 파고 양쪽으로다 흙을 돋웁니다. 거기다 8미터 되는 말장을 박고 위에다 짚으로, 이엉으로 지붕을 해서 지어놓지. 거기는 사는 게 아니고 비 피했다가 가고 그런 데니까. 물때 따라서 밤에 12시에 가기도 하고, 1시에 가기도 하고, 새벽 3시에도 가고 그러는데, 가서 한테 있으면 추워요. 그러니까 12시에 봐야 되는데 가면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살막 안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물 나가는 거 봐 가면서 1시간이나 30분 있다가 바다에 나가는 거지.

▶ 그럼 바다에 가려면 반드시 꼭 살막을 거쳐야 되는 거네요?

▷ (김영웅) 그렇지 판 데로 갈 수는 없어. 그 옆이나 판 데로 가면 빠져요. 그 길은 사람들이 사뭇 다니는 길이라서 다져져가지고 단단하고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월 달에 안 다닐 적에는 눈이 온다든가 안개가 끼면 잘 안보여서 못 찾는다고 소나무를 째개다 등대처럼 쪽 거 가운데까지 길을 표시해 두죠.

▶ 살막에서 고사를 지냈다고 하던데요. 언제 지냈나요?

▷ (정용택) 개별적으로는 서멧날에 지내지. 달력을 보면 1, 2, 3, 4, 5, 6, 7, 8일이 있어요. 8일은 조금이야, 음력 8일. 그리고 9일 날은 무시, 10일 날은 한메, 12일 날은 두메. 13일 날은 서메. 이 서멧날, 그때 그물을 매요. 서멧날 그물이 말장하고 물 끝이 거기까지 나간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물을 맨다고. 그러면 그물 가진 사람들은 서멧날

첫물 그물을 매 놓고 떡을 찌 놓고 숭어 같은 거, 잡은 거 갖고 가서 용왕님한테 고사지 내는 거지.

▷ (정용택) 그건 ‘서만날 고사 지낸다’ 하지. 살막에서 할아버지들이 했어요.

▶ 서매가 보름에 한 번 돌아오는데 매번 서매 때마다 고사를 지내요?

▷ (김영웅) 아니야. 매 번 하는 게 아니고 첫 그물 났을 때 주로 다 하고, 다음 사리 때는 정성이 아주 지극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지. 하는 사람은 서멧날, 8일날 조금, 스무 사흘이 조금, 이렇게 보면 딱 보름 간격이야. 물 들어오는 시간이 8일 낚하고 23일 낚하고 15일 차이가 똑같아요. 그것은 좌우간에 변동이 없어.

▶ 살막고사는 어떻게 지내요?

▷ (정용택) 살막에 가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하나 지정해서 터주가리를 만들어. 그물 가진 사람들은 짚으로 터주가리를 만들어서 나무에 붙들어 매. 그렇게 해 놓고 그 나무에다 지내면서 용왕님한테 여기 잘 지내니 잡숫고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 달라고 하지.

▷ (김영웅) 살막이 세 군데가 있는데, 터주가리가 두 군데 있기도 하고, 세 군데 있고 네 군데가 있기도 하고. 모두 한 군데다 고사를 같이하는 게 아니고, 터주가리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 만들어 놓고 해서. 내 꺼 터주가리, 내 나무가 있어서 내가 거기다 하고 다른 사람은 또 자기 터주가리 나무에다 하고 그러지.

오이도 특산 음식

▶ 김치찌개에 조개를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 (김영웅) 그 뼈쪽이를 넣으면 엄청 시원하지. 예를 들어 김치국 끓일 때 깨끗이 씻어서 그냥 몇 개 집어넣으면 화학조미료 이상으로 참 맛있지. 어려서부터 우리가 보고 배운 거라서 자취할 때도 많이 해 먹었어. 뼈쪽은 돼지고깃국 끓이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고.

▷ (정용택) 김치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거 끓이는 데 뼈쪽을 넣고, 요 근래는 배지락들

많이 쓰는데 배지락은 바지락이야.

▶ 물고기하고 조개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 젓갈도 많이 담그셨겠어요?

▷ (정용택) 여기는 건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망 뒤에 그물에 또 새우그물을 매요. 그걸 후망이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잡는 거는 대하, 꽃게 전어 이런 거친 고기를 잡고, 후망은 뒤에 빠져 나가는 고기를 잡는 건데, 새우하고 순정파리, 빠리라는 게 있어요. 순정파리는 어떻게 생겼냐하면 전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등이 퍼런 게 납작스럽고 작아요, 새끼야 아주 작어. 그걸 절이면 기름도 없고 국물이 달아요. 그런데 빠리는 순기름이야. 한 10센티나 7센티 정도 되는데 그거로다가 젓을 담지.

▶ 순정파리, 빠리, 새우 이 세 가지로 젓갈을 담아요?

▷ (정용택) 새우는 안 담지. 새우는 동동새우라고 대하보다 좀 적어요. 중하새우라고 그래요. 중하는 잡으면 팔고, 김장 담글 때 순정파리하고 빠리로 젓갈을 담가요.

▷ (김영웅) 순정파리는 기름기가 없는데 빠리는 기름이 많아서 젓을 담그면 잘게 썰어서 무쳐 먹는 거야. 김장할 때는 순정파리 젓국을 넣고.

▷ (정용택) 우리가 어려서 자랄 적에는 순정파리젓을 양은쟁이에다가 떠서 밥에다 찌면 그거만 먹어도 꿀맛이야, 맛있어요. 젓갈 국물이 달아요. 젓갈이 다니까 잘 절여야지, 싱겁게 하면 구더기 나고 변해요.

▶ 오이도에서 여기서 최고로 치는 생선은 뭐였어요?

▷ (정용택) 대하, 꽃게, 민어, 농어. 그게 최고 값비싼 고가 생선이지.

▷ (김영웅) 옛날에 민어, 농어 많이 잡았어. 옛날에는 민어가 어린애만 했어요. 보통 10키로나 15키로 나갔죠. 그때는 웬만하면 우리 키에 콩지가 닿았는데.

▷ (정용택) 근데 그 민어가 그때는 비싸게 안 팔렸어요. 옛날에는 그거 잡으면 바로 죽잖아. 지금도 죽어요. 죽으면 시세가 없잖아, 죽으면 매운탕감이야. 그냥 말리거나 매운탕이나 끓여 먹어야지, 죽은 거 집에 갖다 주면 회로도 안 써.

▷ (김영웅) 잡으면 서울로 갔어요, 다 싣구서. 옛날에 여기서 다 서울 인천 여기 갖다가 팔지. 지금은 잡아도 고기가 다 살지만 그때는 살릴래야 살릴 길이 없었어요.

▶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회도 많이 드셨겠어요?

- ▷ (정용택) 죽은 걸로 다 다 먹었어요.
- ▷ (김영웅) 그 회를 많이 먹었어. 죽은 거 가지고 다 먹었어,
- ▷ (정용택) 뱀뱀이를 많이 잡았어요. 여기서 뱀뱀이를 언제까지 많이 잡았느냐 하면 60년대 이전에, 60년대 이전에도 뱀뱀이를 많이 잡았어요. 뱀뱀이가 40마리가 한 꼭진데 그 뱀뱀이로 회 먹으면 참 고소하지. 여기 뱀뱀이가 진짜 뱀뱀이에요. 뱀뱀이가 이만한데 왜 그렇게 크냐하면 건강망에 끼이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 뱀뱀이는 치지도 않았어.
- ▷ (김영웅) 넘적넘적한 게 컸지.
- ▷ (정용택) 옛날에 노인네들이 부엌칼 시켜면 거, 무쇠로 만든 그걸로 다가 향아리다가 덕덕덕덕 해서 그걸로다가 회 잘 쳤지 뭐야.
- ▷ (김영웅) 포를 뜨는 거야. 잘게 썰어서 고소하지 뭐 뱀뱀이.

- ▶ 뱀뱀이를 그렇게 회로 드시고 뱀뱀이 무침은 안 해 드셨어요?
- ▷ (정용택) 무침은 안했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고추장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뱀뱀이가 없어지면서 전어회로다 들어갔어요. 육십 한 오륙년 됐을 거야. 그 당시 전어도 소달구지로다가 한 마차씩 싣고 왔어요. 소로다 끌어 왔어요. 처음에는 지게로 저 나르다가 나중에는 소로다.

- ▶ 뽕쪽이나 동죽 같은 조개류를 늘 드시는 것처럼 뱀뱀이도 밥상에 자주 오르는 생선이었겠네요?
- ▷ (정용택) 밥상에는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강망 하는 사람들이 아홉 집인데, 일반 사람들은 어촌계가서 한두 번 사다가 먹지. 늘상은 먹기가 힘들지.
- ▷ (김영웅) 건강만 하는 사람들은 매일 먹지.

- ▶ 큰 생선들은 회로 안 드셨었어요?
- ▷ (김영웅) 지금도 그때도 민어나 송어 같은 거는 포 떠서 초고추장에 찍어가지고 먹었어. 많이 먹었어요.
- ▷ (정용택) 대신에 뭐를 많이 먹었느냐 하면 소주를 많이 먹었어요. 소주, 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사람들이 소주 힘이 그래서 세다는 거야.

- ▶ 오이도를 대표하는 특산 음식으로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 (김영웅) 동죽회무침이 있어요. 동죽을 생으로 까 가지고 시금시금한 속백이 김치를 잘게 썰어서 꼭 짜가지고 양념 잘 해서 무치면 맛있어요. 동죽을 생으로 까서 일단은 깨끗이 씻어야 해. 그리고 물을 꼭 빼고, 물 꼭 빼서는 잘게 썰어요. 배추도 김치도 양념된 그대로 잘게 썰어서 꼭 짜고 김치가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마늘이나 좀 넣고 식초도 조금 집어넣고 설탕, 참기를 좀 집어넣고 고춧가루나 좀 첨가하고 초장만 조금 더 첨가해요. 그러면 맛이 기뻍합니다.

▶ 동죽회무침은 신김치, 익은 김치를 넣는 거예요?

▷ (김영웅) 그럼 익은 김치로 하는 거지. 새금새금한 김치로 해야 돼요. 겨울철이나 봄, 가을 요때 해야죠. 여름에는 좀 그렇고 찬바람 있을 적에 그렇게 하면 좋아요. 제정구 의원이라고 아시나? 내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그때 뭐 당에서 이렇게 사람이 서민적이고 그래서 그 양반 참 좋아하고 그 양반도 나를 참 그렇게 좋아했어.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이제 고향에 가서 매장하고 돌아왔어. 여기 과림동 쪽에가 집이에요. 여기 저 복음자리라고 있어. 은행동에 복음자리마을에 전부 판자촌 같은 마을에 그 양반이 서울에서 여기 와 가지고서 블록을 짚어가지고 그 복음자리를 확대한 사람이 제정구 의원이야. 거기 살다가 이제 이 양반이 국회의원 생각하면서 과림동 산 밑에 주택을 하나 지었어. 마당도 좀 넓어.

그 양반 삼우젓날 누구는 소주 한 박스, 누구는 돼지 한 마리 뭐 해 가지고 당직자들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잔치처럼 삼우제를 모시기로 했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 동죽 무침을 김치 넣고 다 해가지고 이런 들통에다 두 개 해 가지고 내가 들고 갔어. 그냥 난리 났지, 뭐. 돼지고기다 뭐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먹고. 들어 번쩍 해 가지고 말이야 그냥.

▶ 오이도에 조개구이가 유명한데, 옛날에도 조개구이를 드셨어요?

▷ (김영웅) 옛날에 조개구이 같은 것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게 조개구이예요. 맛도 좋고 뭐 옛날에 집에서는 뭐 삶아 먹고 그랬지요.

▷ (정용택) 옛날에 안했어요. 그거 여기 와서 알지, 옛날에는 조개구이라는 걸 몰랐어. 삶아먹지도 않고, 주로 찌개 해 먹고 그런 걸 했지, 조개 잡아다 파느냐고. 조금이라도 돈 해야 하니까. 상인이 날개로 사 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장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다가 있으니까 어촌계가 있어서 어촌계장

이 있고 이장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라든지 패류 이런 거는 어촌계에서 다 관장해서 어촌계로 다 들어가고 행정구역상에 행정일은 이장이 했고 그랬어요.

농사 관련

▶ 농사는 주로 뭘 하셨어요?

- ▷ (김영웅) 밭하고 논하고 일부 조금씩 했어. 그리고 패류라고 조개 잡으러 다녔어. 쌀 그 다음에 보리, 콩, 수수, 밀도 밭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했지. 서숙 좁쌀도 있고.
- ▷ (정용택) 밭 할 적에 그런 거를 많이 했지.

▶ 이쪽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됐어요?

- ▷ (정용택) 여기는 논밭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논 밭 있는 사람이 그제 250가구에 쪼끔 썩이지 별로 없어. 대농으로다가 크게 짓는 사람은 몇 없어, 열 집 미만이야. 대농이라야 논 4천평, 천섬지기 고거이 대농이라고 그랬지.

▶ 모내기하면 소리도 하고 그러셨어요?

- ▷ (정용택) 그거는 북한사람들이 좀하고 그러지, 여기 경기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 모내기하고 김매기는 몇 번 했는지요?

- ▷ (정용택) 처음에 모내고 한 15일에서 20일경에 못 논매고 그 다음에도 딱 그 정도 모가 다 자라서 벼가 알이 배기 전에, 그때 복 때니까 아마 초복쯤이니까 6월 달이나 피살이를 해요.

모내기는 언제쯤 했냐 하면 예전에는 비닐이 없을 때니까 곡우 때 씨를 뿌리는 못자리를 해서 40일 정도 기르지. 음력으로 5월 초에 모내기를 하지. 그러구 나서 15일에서 20일인데 호미로다 애벌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흙친다고 그래. 풀 골고루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호미가 다 있잖아. 팽팡하게 풀 뽑으면서 하고 음력 7월 달에 피사리하고 그러지요.

처음에 모내고 그 다음에 호미로 한번 매고 그걸 못논매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흙친다고 그러는데 맨손으로다 풀을 손으로 뽑아내는 걸 논 흙친다고 그랬어. 논을
 흙쳐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못논을 매면 그 다음에 풀이 또 나와요. 그러면 쪽 다니면서
 손으로다가 주물러 주는데 그걸 논 흙친다고 그러지. 그리고 6월에 피살이 한다고 하는
 데, 이제 벼가 다 자라면 벼에 피가 섞여 있는데 그걸 뽑아 주는 거를 피살이라고 그러
 지. 피가 모낼 적에 같이 섞여 들어가요, 피가 벼하고 똑같아 몰라요.

▷ (김영웅) 그 피씨 들어가면 그 이듬해 논을 버리걸랑요. 그 피살이라고 그걸 뽑아줘야
 내년도에 괜찮으니까.

▶ 김멜 때 할 때 소리하고 악기 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정용택) 김멜 때는 소리 안 하는데 상여 나갈 때는 선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은 다 죽었지. 그리구 여기는 농자지대본이 없었어요. 여기가 왜 그런가 하면 논이
 잘 있어봐야 한 4천평 가진 사람이 제일 많아요. 논 4천평 가진 사람이 한 두 서너
 집 될 거야. 보통 1500평, 2천평 뭐 3천평 뭐 이정도 밖에. 섬이니까 섬에 농사가 얼마
 나 되요?

▶ 그럼 여기 장구치고 쟁과리 치는 분 없었어요?

▷ (정용택) 여기 약방하시던, 대통수라고 우리 집 옆에 박용선이라는 사람이 태평소를
 불었지. 당굿할 때는 안 불고, 그냥 심심해서 불고 동네에 유물치고 그러면 좀 땡겼지.
 서유봉이라는 분도 태평소 불고.

그리구 여기도 농악이 있었지. 해방되고 나서 농악 쳤어. 해방되고 나서 47년도에는
 정월달에 보름까지 집집이 땡기면서 고사했지. 47년도에 그때하고 안 했지 뭐.

▶ 마을 지신밟기는 없었어요?

▷ (정용택) 지신밟기 아냐, 그냥 동네 축원 드렸지. 쌀 한 말씩 갖다놓고 상쇠잡이가 축원
 하고, 그때 상쇠잡이가 예정봉 씨라고, 여기 예현규 씨 작은아버지가 축원 드리고 했는
 데. 47년도 그때가 마지막이야.

▶ 그런 악기 유물이라고 하네요, 그 악기를 정월 말고는 안 치셨어요?

▷ (정용택) 그 유물 친다고 그랬지. 그걸 유물이라고 그랬지. 정월 때 말고는 다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유물 칠 시간 없었어요. 그때 한 번 해방되고 나서 해방됐다고 즐거운 마음에 그걸 했던 거지.

간척과 개발로 인한 오이도 변천

▶ 군자염전은 어디에 만들어진 건가요?

▷ (정용택) 동네 앞에 군자염전이 있었는데, 교과서에도 나왔어. 당시에 우리나라 염전이 서산염전, 군자염전, 남동염전, 주안염전 소래염전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 군자염전은 바닷물이 끝까지 들어가서 제일 컸어요. 그 다음에 서산염전이 있었고 당시 우리는 전라도 염전은 몰랐어. 전라도는 신안염전 이런 거 있었는데 몰랐지. 염전이 군자동, 본동부터 정왕 4동, 정왕역, 오이도역, 그리고 저쪽에 부터 이쪽으로 다야. 공단 있었는데 이쪽으로 다 땅 만들었지.

▷ (김영웅) 정왕본동이 그 이주민 단지가 정왕 본동인가? 그게 저수지야. 저수지가 다 들어간 거야. 그 공단 역전 그 동네 컸는데, 역전 사람들을 그리 이주 시킨 거지.

▶ 군자역전 사람들을 왜 이주 시켰어요?

▷ (김영웅) 군자역은 지금 다 없어졌는데, 그쪽까지 다 개발을 시켜야 되니까 개발을 하려니 이주를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 저수지 본동 지역을 매꿔서 그리다 이주 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시킨 거지. 옛날에는 그 자리가 군자역이었고 거기가 지금은 정왕역이야.

▷ (정용택) 당시 군자역에는 수원, 인천 간 다니는 조그만 기차로 석탄 태워서 일곱 여덟량 되는 협궤열차가 다녔어요. 다음에 그거를 교체하고 다섯 개씩 달고 동차가 땡겼어.

▷ (김영웅) 협궤열차는 일본 놈들이 소금 운반용으로다가 맨든 거야. 군자염전, 소래염전, 남동염전,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이 생산된 것을 운반하기 위한, 수인선이 애당초 그런 선로였지. 그러다가 서서히 화물차를 이용하니까 그 협궤열차가 없어지고 동차만 2~3량씩 땡겼지. 그리고 소금은 배로다가, 큰 배로다가 아니면 화물차로다가 운반하는 거였지. 소금은 기차로 많이 실어갔어. 옛날에는 수원으로 또 저 아랫녘으로 소금을 많이 실어 갔어요. 협궤열차는 사람 타는 칸도 몇 량 달고, 화물칸도 몇 량 달고 그렇게

다녔어요.

- ▶ 오이도 개발되면서 안말과 소래포리 분들은 이쪽으로 언제 이주하신 거예요?
- ▷ (정용택) 안말과 소래포리 사람들만 여기로 이주를 받았지요. 1999년도에 온 사람들도 있고 2000년도에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 동네가 원래 오이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 너머에 250세대가 살았는데. 황해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살던 곳은 새로 조성이 됐다고 해서 신포동이라고 그랬는데 신포동하고 고주리하고는 포구에서 1차로 안산으로 나갔고, 안말하고 소래포리는 이곳으로 다 온 거지. 동네 저 너머는 안말도 있었고 소래포리라고도 있었지. 소래포리라는 데는 모래땅에다가 집들을 짓고 살았어요.
- ▶ 오이도에 살던 250세대 중에 안산으로 가신 분들은 몇 년도에 가셨어요?
- ▷ (정용택) 그 사람들은 90년도에 가셨을 거예요. 1986~87년도에 조사를 했으니까, 1990년도 초반에 갔지. 우리가 86~87년도까지 한국농어촌개발공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농어촌개발공사가 수자원공사에 뺏겨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시작을 한 거지. 당시 동네 이장 일을 보던 한구가 88년도에 죽었는데 그때는 신포동이 있었으니까. 89년도나 시작을 했을 켜야. 이장이 이주 신청자들 통장을 관리했으니까.
- ▶ 안말하고 소래포리 사시던 분들이 혹시 배도 타고 염전에서 일 하셨어요?
- ▷ (김영웅) 나는 옛날에 굴 껍데기를 뺏아갖고 골분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조개껍질을 건조해서 분쇄를 하면 닭 사료나 가축 사료에다 섞어 넣으면 칼슘제야. 그 공장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거, 도서지방에서 나오는 거. 굴 껍질을 수집해서 분쇄하여 배합 사료 공장에 납품을 하는 그런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검도화학은 직원을 한 5~6명만 썼어요. 그리고 염전 좀 했었고. 농사가 조금 있었고 막일을 했었지.
- ▶ 그럼 여기 나중에 사고팔고 할 때도 꽤 비쌌을 텐데, 개간 할 때 싫어들 하셨겠어요.
- ▷ (김영웅) 아, 그야 말 할 것도 없지. 비싸지, 그럼.
- ▷ (정용택) 싫다고는 안 그랬지.
- ▷ (김영웅) 보상 다 줬는데 뭐.
- ▷ (정용택) 처음에 오이도하고 대부도 방조제를 막으면서 다 보상을 줬고, 또 싫다고 안 한 이유가 옛날에는 여기 배가 없었어요. 여기 배가 없이 그냥 요것만(건강망) 할 적에

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나일론 그물이 아니고 면사 그물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일론 그물이 형성되고 전라도 사람 몇 사람이 와서 그 꼬리만 0.5톤짜리 배들로 유자망을 흘리면서부터 고기가 자꾸 씨가 마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별로 걸리는 게 없어가지고.

오이도 도당굿

- ▶ 예전에 오이도에서 도당굿 같은 거 했다고 그러던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 (김영웅) 옛날에 도당굿이라고 했어서. 여기 제일 높은 산이 당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2년에 한 번씩 소도 잡아놓고 나중에는 돼지도 잡고 모시고 그렇게 정성을 드리고 그랬었어요. 도당굿이라고 그랬어요.
- ▷ (정용택) 레이다 기지에 당집도 있었어요. 지금은 레이다 기지 세우느냐고 허물고 아래로 조그맣게 옮겼어. 예전에는 당집이 크게 있어서 당집 앞에서 삼현육각을 치더라고. 그래서 깃발을 가져와서 거기다 꽂아놓고 그 아래서 삼현육각을 잡히고 소머리 삶아서 당고사 지내지.
- ▷ (정용택) 당나무도 있었는데 당나무는 죽었어. 뱃가죽나무²⁾ 같은 그걸 당나무라고. 그 나무는 속이 하얗고 그래요. 당나무가 옛날에 뱃가죽나무데 외래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 ▷ (예현규) 내가 이사 오니까는 부지깽이만한 거를 거기다가 심어놓고 터주ग�리를 엮어서 매 달아 났더라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게 너보다 한 살 더 먹은 거다’ 그러시더라고. 지금 내가 87세니까 그 나무는 88년 된 거죠. 엄청 컸는데 당나무가 이렇게 벌어져도 함부로 자르지도 못해. 그나마 고사지내는 날 자르든지 제사 지내고 잘라야지 가지치기 하는 것도 암대로 자르지도 못해. 함부로 자르면 죽을까봐.

²⁾ 정용택 제보자의 경우 뱃가죽나무라고 하고, 박용덕 제보자의 경우 참죽나무라고 한다. 참죽나무가 본디 가죽나무의 일환으로 ‘참죽나무’와 ‘개가죽나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당나무의 수종은 가죽나무과 인 것으로 추정된다.

▶ 도당굿하는 날짜를 어떻게 정했나요?

▷ (김영웅) 도당굿할 적에는 당주를 하나 만들어. 누가 당주가 되어 하느냐. 그러니까 날 잡는 거는 당골네 만신하고 협의를 해서 잡는 거지.

▶ 도당굿은 언제 마을에서 어떤 분들이 준비하시나요? 혹시 그분들을 뽑는 기준이 있나요?

▷ (정용택) 당주는 뽑는 게 아니고 생기복덕한 사람 즉, 첫 아들을 낳았다든지, 가정이 다 편안하고 또 그 사람이 정성을 좀 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를 찾아서 원로 할아버지들이 당사자한테 ‘자네는 깨끗하고 하니 이번에 당주한 번 해 보게’라고 당사자에게 말하면 큰 탈이 없으면 당주를 하게 된다. 그리고 노인네들이 ‘날을 잡아 왔으니 며칠날이다’ 하면 당주로 지목된 사람은 합작굴이라고 당물이 당하고 연결이 된 거기서 새벽에 물을 떠다가 목욕재계를 하고 부부관계도 안하고 당고사 지내는 동안은 아무것도 안하는 거지.

▷ (김영웅) 우선 연세가 많아야 되고 깨끗한 어른 이런 사람들이 당주를 봤어요. 부락에서 의견을 내는데 ‘누가 당주를 하시오. 그 사람이 괜찮지 않느냐 집안도 다 포근하고 생기복덕하니’ 이런 사람들 정해 주면 그 사람이 이제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달에 동네 유지 어른들이 날을 잡고 당주를 선정을 하면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는 거지. 저기 당 밑에 가면 합작굴이 있는데 거기서 샘물이 나와요. ‘합작굴’은 옛날 노인네들이 이름을 지은 건데, 당주로 정해지면 깨끗하게 매일 목욕하고 해야 되요.

우리 아버님이 한 번 당주 하시는 걸 봤는데요. 그 전에 목욕탕 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매일 큰 솥에다가 물 데워가지고 매일 씻고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당주는 깨끗한 몸으로 정성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주하면 합작굴 당물에 가서 물 떠다가 며칠 동안은 이것저것 다 조심해야 되고 그 끝날 때까지 3~4동안은 동네에서 할 일은 추진위원들이 뒷바라지를 다 해 주지만, 집에서 뒷바라지를 다 해야 하고 거기 매달려 있다는 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돌아가면서 하려고 들지. 연속으로 당주할 생각들은 안하죠. 내가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하시는 걸 한 번 봤어요.

▶ 2년에 한 번씩 당산을 모셨다고 했는데, 어느 시기에 며칠 동안 했어요?

▷ (김영웅) 정월달에 보통해요. 곤충들 벌레들 나오기 전에 그렇게 일찍해요. 정월달에

땀 나오기 전에, 모든 곤충이 나오기 전에 삼사일씩 했죠. 그전 옛날에는 일주일씩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는 광대가 줄도 타고 뭐.

- ▷ (정용택) 대체로 정월 그믐께 2월 초나 정월 그믐께 그때 한다고 추위 그때 할 적에. 그것이 예전엔 그랬는데 나중엔 몇 년에 한 번씩도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59년도에 군인 나갈 적에 그 해가 마지막이야. 우리 당골네가 지내는 당곳은 59년도 그때가 마지막이야. 59년도 봄에.

▶ 도당곳을 하던 당집은 어떤 곳인가요?

- ▷ (정용택) 그전에 봉화 올리던 자리도 돌도 동그랗게 쌓아 놓고 그랬었던 곳인데 그 자리가 당집이 있었어요.

그 당집에는 당기가 있어. 그리고 뭐가 없어요. 당 안에 올라가면 만신들 집에 가면 모셔놓는 거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모셔놓은 게 일부분 그렇게 정리가 돼 있었어.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그게 서서히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나중에는 깃발. 그거 하나만 있고 다 그냥 없어졌어. 대나무하고 깃발만 이렇게 당고사 지내면 그대로야.

▶ 도당곳은 어떻게 진행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 ▷ (정용택) 그럼. 당고사는 삼부예요. 동네 안녕고사, 당고사, 용왕님제사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날은 동네 안녕을 위해서 삼현육각을 잡히고 동네 우물고사를 지내는데 우리 동네 당골네인 지경래 씨를 불러와서 피리 장구 등 삼현육각을 잡혀서 동네 안녕을 위해서 먼저 우물고사를 지내는 거지. 첫째 날에 낮에 우물고사를 지내는데 그 전날에 먼저 우물을 다 치워요. 대동 우물이 있어요. 동네 큰 우물 그제 한 100세대 가까이 먹었을 거야. 그 우물을 다 퍼내고 돌로 전부 쌓아 으니까 그거를 싹 깨끗하게 씻어서 다 해 놓고, 새물을 받아요. 아마 도당곳하기 한 삼일 전에 물을 푸는 것 같아요.

그 다음날에 낮에 동네 안녕을 위해서 공동으로 먹는 동네 우물고사를 지내죠. 아 우리도 거기서 물 퍼내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거 퍼 내느라하면 초롱으로 퍼노라면 그 무척 힘들어요. 물이 한 반통 있으면 그거 그래 동네사람들 뵈서 젊은 사람들.

- ▷ (김영웅) 우리동네 안녕을 비는 거를 거기서 했다는 거지. 우물 옆의 공터 마당에서 깨끗하게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당에서 기 있는 거 모셔서 갖고 내려오는 거지. 이제 갖고 와서 이제 개비를 하는 거야. 옛날 기는 떼어 내 버리고, 다 만들고 새로 할 적에는

삼현 육각을 잡게 해요. 깡깡이 키고 해금 치고 피리불고 장구치고 그게 삼현이지 아따.
 ▷ (정용택) 처음에 무당이 마당에서 예운식 씨 그 양반네 마당에서 하루 그걸 하는 거지. 원래는 장군님 땅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건데, 따로 이름은 없고, 그냥 장군님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 앞집에서 하는 거예요. 하루를 장군님 당에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삼현육각을 앞세워서 당깃발을 들고 그걸 앞잡이를 해서 삼현육각을 쳐주면서 이제 당산으로 차고 올라가. 깃발을 세우고 당으로 올라가서 밤새 도당굿을 지내요.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계시는 데서. 당깃발에는 지금 같으면 쓰인 글씨를 유심히 볼 텐데 옛날에 글씨가 뭐라고 크게, 지금 ‘농자지대본’처럼 그런 깃발 있잖아요. 거기서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당고사를 지낸다. 낮부터 시작하면 하루저녁하고 당 안에는 노인네들이 사와서 삶은 소머리를 놓지. 안에서다 소머리랑 고기 몇 근 더 사다가 같이해서 올려놓고, 고사만 지내는 것 같고, 당집 앞에서 굿을 밤새 한다고. 나중에 우리 작은아버지 또래 되신 분들이 그 고기를 막 훔쳐 먹고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고기 삶은 국물로 끓인 국을 나중에 다 노나 먹죠. 근데 돼지고기는 안썼어요. 소 잡을 돈이 없으니까 소머리만 쓰는 거지.

세 번째는 공터만택에서 공태라고도 하는 거기서 줄타기를 해요. 줄타기를 할 때면 외부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많이 와요. 이제 내려와서 공태라고 공지(空地)가 있어서 그 곳에서 광대들을 불러다가 하루 종일 줄타기를 하고 놀아요. 그 공지에서 구경꾼이나 외부 인사들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당산에 올라가서 제사지냈던 제물인 소머리로 국을 끓여서 전부 나눠 먹고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어장고사 지내는 거야. 어장고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면 그 짚으로다가 배를 두서너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도당굿한 떡, 사과 꽃감, 산자 같은 제물을 집어넣어서 실려가지고 용왕님한테 용왕제사 지내는 거야. 제물을 담아서 용왕님한테 바다에다 띄우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 달라고 기원을 하지. 그게 용왕님제사야.

여기 어장이 여덟 바탕인가 아홉 바탕이 있어요. 그걸 건강망이라고 하고, 바탕이라는 거는 바다를 뱅 돌아서 치는 거물을 건강망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 많이 잡히게 해 달라고 용왕님한테 고사를 지내는 거죠. 바다 아홉 바탕에 주인이 있어서 그분들 준비를 다 해서 용왕님 고사를 지내는 게 마지막이야.

▶ 마지막날 용왕제에서 용왕님한테 띄워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용택) 무당들이 당굿이 끝나고 용왕님께 용왕제를 지낸다고. 용왕제는 ‘오이도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십사’라고 해서 짚으로다가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 도당굿한 제물을 떡, 사과, 산자 뭐 이런 거를 거기다 집어넣고 물이 들어 왔을 적에 그거를 용왕님한테 띄워 보내는 거야. 거기에 여러 나물이나 고기 같은 거는 안 넣고, 사과, 배, 떡 이런 거해서 고사 지내는 것처럼 고사물을 거기다 다 싣지. 하나로는 안 되니까 짚으로 한 서너 개 만드는데, 배를 따로 이름 지어서 부르지는 않았어. 그렇게 굿한 제물을 실어서 배를 띄워 보내면, 용왕제로 당굿이 끝나는 거야. 마지막이야.

▶ 오이도 앞 바다에 아홉 바탕의 주인 분들이 추렴을 더 많이 해요?

▷ (정용택) 아~ 그렇지는 않아요. 동네에서 일제히 쌀 있는 사람은 쌀 내고 돈 내는 사람은 돈 내고 재물을 각자 저거 하지. 그 당주가 그걸 다 총괄을 하는 거지.

▶ 당집에 있다는 당깃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용택) 당굿을 할 때 당깃발은 대나무에 매달아서 동네를 한바퀴 돌아. 그리고 나서 당으로 갖고 올라와. 당집 밑에 장군님 땅이라고 있어. 장군님 모시는 데가 당나무 밑에 장군님 모시는 땅이라고. 여기는 어떤 장군님인지는 모르고 그냥 장군님이라고 해서, 그 당 이름이 장군님 땅이야. 거기다가 터주들만 만들어 달아놨지. 거기[선사유적지 위쪽]에 지금 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당나무지.

그 당기는 내버려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나까 이제 버리고 하지. 예윤식 씨라고 그 양반이 붓글씨를 잘 썼거든. 아주 명필이야 그분이 글을 쓰지. 기다랗게 크게 써서 깃발을 만들어서 대나무에다 붙들어 매 가지고 다니고. 그래 소나무 가지 갖다가 깃봉을 만드는 거지. 당고사(도당굿) 지낼 적에만 새로 만드는 거야. 기는 당고사 지내고 당집의 처마 안쪽 천정 석가래 옆으로 길게 올려서 묶어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또 올리고 하지. 기는 그냥 광목하얀 데다가 뭐라고 썼고 지네발 그런 거 없었어. 이 양반[예현규] 할아버지가 기를 형짚 떠다가 그 양반이 썼어. 그런데 그 뭐라고 썼는지 우리는 모르지. 그 기에다 한문으로 뭐라고 쓴 것을 몰라서 그 뜻을 모르겠어. 깃봉에다가 꿩깃털 같은 거는 안 달고 그냥 솔가지에다 ‘농자천하지대본’같이 그와 똑같이 대나무에다 달아서 그 위에 솔가지 달고 글씨를 쓰셨는데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우리

가 애들 적이라 모르겠어. 여기다가 도당할아버지에 대한 그것을 썼을 텐데, 이 양반 [예현규] 일가 되시는 분이 예운식 씨라고 그 양반이 썼지 붓글씨를 참 명필이야. 지금은 다 없어지고 당집도 없어졌고.

- ▷ (정용택) 당집 옆에 팽나무가 있었는데, 이거는 당굿이랑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당집 옆에 있는 것이었고, 불탄 나무가 당고사 지내는 당나무예요.
- ▷ (김영웅) 거기 그 나무에다가 고사를 지내면 터주가리라고 그러지 항상 그 터주가리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게 당나무야.

▶ 당나무 옆의 터주가리는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 ▷ (정용택) 쪼그마하게 고사 지내는데 짚으로다 요만하게 해서 당나무에다 붙들어 매.
- ▷ (김영웅, 정용택) 터주가리에 있는 짚은 당고사할 때만 새로 바꾸는 게 보통이고, 또 누가 와서 정성 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바꿔주기도 하고.
- ▷ (김영웅, 정용택) 터주가리는 세워두면 안 되고, 당나무에다가 붙들어 매달아뒀어. 새끼줄은 원새끼로 꼬고 창호지로다 해서 요렇게 살 끼워서 해 가지고, 나무가 있으면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바짝 붙잡아 매는 거야.

▶ 당나무가 지금 타버렸던데 왜 그렇게 된 것이에요?

- ▷ (정용택) 그 나무가 타기 전에 먼저 죽었는데, 그 나무가 왜 죽었냐 하면 우리가 거기 (오이도)서 살다가 이주를 해 오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거기다 공단을 만든다고 포크레인으로 뚫나봐. 그 사람들이 우리 우물도 끌어 메우고, 그 나무 뿌리 쪽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뿌려져서 그 나무가 그렇게 죽은 거야. 아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원래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나무가 불에 탔어.
- ▷ (김영웅) 원래 다 죽었는데 불까지 난 거지 그것도 누가 정성을 드리러 왔다가 촛불을 거기다 놔 둔 것이 바람이 불면서 초물이 흐르면서 탔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난리났었잖아. 누가 실수로 그랬지.

▶ 오이도 도당이 영험했나요? 당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 (정용택) 그러게 이 미신이 없다고는 못 해요. 이 군사 레이더 기지 만들 때 군인들이 일어나 죽었어. 당집 철거할 때. 그러니 그 하나는 어떻게 하다가 죽었냐 하면 레이더 기지를 만들려면 시멘트도 실어 와야 하고 나무도 싣고 와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데 인천서 배로다 싣고 왔다고. 배로다 싣고 와서 그 가운데 살막 거기가 모래장골이에
요. 모래 백사장이야. 백상인데 백사장에다 배를 대고 군인들이 올라가서 그걸 풀었다
고. 시멘트고 나무고 그런데 군인 하나가 내려 와 갖고 그 물결이 이렇게 치잖아. 이러
게 파도에 휩쓸려 내려갔다고 거기에서.

그 저 배를 약간 경사에다 뒀어요. 이렇게 모래사장에다 배를 대고 물건 풀고 내려
왔는데 이 군인이 내리다 거기서 물속에 떨어졌다고 그런데 물이 잡아 땡기면서 끌고
갔어. 그런데 깊지도 얕은데 거기서 죽었잖아. 당집을 건드려서. 레이더 기지 만드는
정상에 당집이 있었잖아. 그래서 요걸 치워 버려야 거기다 레이더 시설을 하지. 기지를
아주 봉우리다 지은거야.

▷ (김영웅) 원래 자리는 다 허물어 버렸고 그 밑에다가 쪼꼬맴게 만들어 뒀는데, 그래도
누가 와서 정성을 드릴사람들은 와서 정성을 드리라고 거기다 그렇게 해 놓은 거지.

▶ 만신이나 굿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 (김영웅) 거무개 거무동 금호동 사람인데, 지광옥이 할아버지 지경래 씨예요.

▷ (정용택) 남자도 무당인데, 여자(부인)도 무당이고, 지경래 씨는 부부가 무당이었는데,
노래 잘하는 지화자씨 할아버지야. 그이가 거무개 살던 지경래 씨, 그 양반이 경기
만신(무당)이라고. 그 양반이 옛날에 오이도에 당굿을 아주 당골로 했다. 그 일정 때부
터 해 내려온 거지. 그래서 명칭을 ‘당골네’라고 불렀어요. 지경래 씨 마나님은 이 동네
당골네니까 동네 누가 돌아가시면 와서 3일 풀이를 해줘요. 3일 풀이라고 그랬어, 3일
에 자리건이 하면서 동고리라고 고리짝 굽어가면서 3일들이 풀었다고. 지경래 씨 마나
님 성함은 모르고 아들은 아는데 지왕건이야. 예비군 중대장 했는데 죽었어.

그 사람네가 당굿도 다 주선을 하고. 무당이고 뭐고 순서도 그 양반이 다 해서 하는
거야. 그 양반이 당굿하는 데는 당골네가 돼서 광대 데려오는 거니 뭐니 그런 것도
다 그 양반이 주선을 해서 데려오는 거지.

▶ 정월달에 도당굿할 때 풍물패도 부르고 그랬어요?

▷ (정용택) 동네서 그런 거는 안했어. 당에 올라갈 때 기 들고 올라갈 때는 징은 쳤지.

▶ 당굿을 할 때 오는 광대들이 와서 뭘 하나요?

▷ (김영웅) 줄 타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오면 여관 살이를 했어. 당골네가 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 오는 거야. 그러면 육지에서 걸어서 다 구경들 오고 그러잖아.

▶ 당집은 어떻게 언제 옮기게 되었나요?

▷ (김영웅) 옛날 사람들 같았으면 반대를 했겠지.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 저 레이더가 수도권 방위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 심한 반대 없이 수용했어. 레이더는 김신조 들어왔을 적에[김신조 사건은 1968도이다.] 그때 동네에 해군 레이더가 들어왔어요. 레이더가 들어오면서 오이도 맨 꼭대기 거기다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당집을 허물고 거기다가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어요.

해군에서 처음 들어 올 때는 컨테이너로 들어왔는데 해군이 나가고 육군이 들어왔어요. 육군이 벽돌로다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 육군에서 레이더 기지를 짓느라고 다 허물어 버렸다고. 원래 봉화대도 있었는데 다 허물어버렸죠.

그때 동네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 ‘당집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그 벽돌 남은 것으로 그 밑에다가 다섯 평인가 여섯 평 정도 지어 났어요. 당집을 꼬꼬맴게 블록을 찍어서 레이더 기지 바로 아래다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게 옮기고 원래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안 지냈어요. 우리가 원래 살던 마을이 개발 돼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지가 벌써 17년이에요. 저쪽 넘어 살적서부터 25년 전에 레이더가 들어왔으니까. 그때까지는 도당곳을 지내지는 않았어도 당집이랑 다 보존하고 있었지.

▶ 도당곳은 당집을 새로 지은 후에는 도당곳을 안한 것인가요?

▷ (정용택) 그렇지요.

▷ (김영웅) 1959년도까지는 계속 지경래 씨가 와서 지내고 끝냈고 쪽 안하고 있다가 부락에서 우리 할아버지 또래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손들이 ‘우리가 동네에서 당고사를 한번 지내야 되지않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1977~8년도에 김금화 만신이 와서 딱 한번 지냈어요. 그때는 레이더 기지 있었는데도 지냈다.

▷ (정용택) 김금화 만신이 와서 했는데 그 양반이 황해도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해도 사람이 여기서 사니까 이양반[예씨 할아버지] 처갓집이 그 양반하고 연결이 되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황해도 식으로다가 한번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지.

▶ 혹시 만약에 여기 오이도에 옛날 문화를 다시 찾겠다고 해서 문화원이나 시에서 옛날식으로 당곳을 다시 한 번 복원을 해 보자고 의견이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용택)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십 칠 팔년돈가 그 정도까지는 기독교가 없었어. 여기. 기독교가 없어가지고 원 동네사람들만 이렇게 어업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난데없는 기독교가 들어 와 가지고 그 나중에 김금화가 그 사람이 낫할 적에 말썽이 많았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자고 그래도 할 수 없는게 뭐냐 하면 여기 다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오이도 본동 사람들이 한 영점 일 프로(0.1%)나 사나. 우리 여기 몇 사람밖에 여기 와서 지금 있는 그전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냥 다 벌어먹고 사느냐고 신경을 하나 쓰지를 않아요.

〈마침〉

2. 덕섬 조개구이집 박용덕

○ 제 보 자: 박용덕(朴龍德, 남, 75세, 1944년생, 원숭이띠)

○ 조사일시: 2017년 12월 22일(금)

○ 조사장소: 시흥시 덕섬 조개구이집 가게 홀

○ 할아버지 박은봉(恩奉)

○ 아버지 박갑록(鉉綠)



덕섬 조개구이집 앞에 선 박용덕 어르신

▶ 성함과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 박용덕, 용 용(龍)자에 덕 덕(德)자 쓰고, 44년생, 원숭이띠예요.

▶ 본관이 어디신가요?

▷ 밀양 박씨 충헌공파예요. 내가 오이도에서 머문지 14대이고 우리 아들이 15대, 손주가 16대인데 촌수 빠른 쪽은 20대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600년 가까이 살아왔어요. 원님네 자손으로, 동네에서 제일 부자로 잘 살았어요. 아마 또 대대손손이 큰 기와집을 가지고 있으니, 원님네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들 한 거 같아요.

▶ 오이도에서 계속 나고 자라셨나요?

▷ 아니요. 초등학교부터 서울에서 다녔으며 아현초등학교 나왔죠. 대학교는 고려대학교.

▶ 말씀하신 밀양 박씨 충헌공파 어르신이 어떻게 오이도에 처음 입도하시게 된 것인가요?

▷ 우리 선조는 아홉집이 600년 전에 처음 오이도라는 곳에 들어왔지.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 출발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듣기에는 내명, 내명이면 여기 남양을 보고 내명이라고 말하더라고. 아무튼 내명(남양)이라는 데서 오셔서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살아왔어. 집안에 축문이 있어서 1대에서부터 13대까지 다 나오는데, 축문에는 420년이고 그게 내 대까지야. 그런데 약 600년이라고 한 것은 축문 기록 이후 3대가 늘어서 600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우리 동네에 타성들도 사는데, 대개 이 타성은 딸을 물으로 출가시켜 사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이지. 사위들에게 땅을 주면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타성이 늘어나서 우리 동네만 290세대였는데, 1986년도에 수용 되면서 흩어졌어.

▶ 그럼 오이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두 일가친척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 그렇지요. 다 친척이죠. 사위들이 와서 손을 뻗고 했으니까. 예전에 우리 오이도는 전체 약 3백 몇 세대야. 이북 웅진반도에서 피난오신 분들이 큰소라펄에 100여 세대가 살았고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우리 일가친척이 290세대 정도였지.

▶ 이 인근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 근처는 오이도에 뚝을 막기 전에는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당시에 군자면 초지리는 현재 안산시이며 안산 고대병원이 위치하고 있지. 지금 정왕역 있는 곳에서 보면 28개의 섬이 보였고, 안산과 시흥의 바다도 보였는데 안산만이라고 했지요.

웅섬, 제우리도 있었고, 잔머리랑 가까이 우섬이 있고, 거기서 좀 떨어진 데 쌍섬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무튼 이 28개 섬 중에서 오이도가 컸던 것 같아요. 제우리가 좀 컸었고, 웅섬하고 제우리하고 비슷하게 20호 정도 살았어요.

지금 28개 섬 중에 웅섬과 제우리는 살아남았고, 쌍섬 하나는 도로를 놓는 바람에 없어지고, 지금은 하나만 남게 된 거요. 그리고 여러 섬들이 있었는데, 매립되면서 이제 육지로 돼서 사라진 곳도 많아요. 물론 이 섬들도 컸지만 시화호, 대부도, 잔머리섬, 웅섬, 제우리섬이가 다 섬이었는데 매립해서 안산시가 되었지요.

옛날 할아버지들이 말씀에 의하면 일본사람들이 염전 만들 때 여기 거북섬을 포함해서 많은 섬들을 다 깎아 없앴다고 해요. 땅을 다 깎고 염전을 만들었죠. 내가 어려서 본 것은 가운데 섬에 사내감독실이라고 있었는데 섬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때가 왜정 때죠.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도 직접 봤어요.

여기 덕섬 앞의 뚝은 100년 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 졌고, 동시에 ‘군자염전’도 만들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행정총독부는 서울에 두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염전을 관리하는 총독부는 일본말로 약소라고 불렀고, 지금 옥구공원 자리에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590만 정보의 엄청난 넓이의 소금밭을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 병원도 있고 전기불도 들어와서 굉장히 변화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일본사람들은 일 년에 4번 계절마다 운동회를 가졌고 구경하는 이들에게 모찌떡도 나눠주었어요.

근처에 있는 뚝은 일본사람들이 삼백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다 모래섬이었어요. 오이도 삼백정이라고 해서 모래밭이 길게 있었고, 그 밑으로는 사백구, 오백구, 육백구라고 부르는 데 까지 있었지.

그러다가 1986년에 국가에서는 시화공단 사업을 하며 수용하여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 세기가 넘는 긴긴 세월의 변화를 짧게 압축하기는 광범위하고 방대해요. 여기 내가 갖고 있는 옛날 항공사진을 보면 [휴대폰에 저장된 항공사진을 보여주면서 직접 짚어가면서 설명한다.] 여기가 덕섬이고 여기서 저기까지가 백사장이고 여기가 해양단지이고, 여기가 우리 동네지요. 이 큰소라펄 백사장이 수도권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었을 텐데, 대부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굉장히 아름답고 멋졌는데 개발(開發)한다고 다 파헤쳤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까지 전해진 이야기들은 수 백 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여 누적 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옥구공원은 ‘덕물도’였어요. 여기가 이조사(조선)의 군부대로 처음으로 서해안을 지키는 군부대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사실은 시흥시에서도 모르며 부대가 있던 그곳이 덕물도며, 그 덕물도에서 당시는 포패류가 제일 많았죠. 매일매일 돈을 버는 곳이 여기였기에 여기를 덕머리라고 했어요.

▶ 오이도는 어떤 곳이었나요?

- ▷ 오이도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옥귀섬인데. 옥귀를 ‘까마귀 오’를 쓰는데 아마 갈매기들이 많아서 ‘오’자를 붙인 것 같아요. 이름의 변천사는 옥귀섬-옥귀도-오이도로 바뀌었죠. [종이에 직접 오이도와 주변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한다.]

여기가 오이도죠. 오이도 주변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모두 염전이이 있었어요. 이게 안동네, 여기는 소라펄, 여기는 고주리. 이 안에서도 고주리는 끝 쪽이고 섬의 끝이에요. [위치를 지정하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우리 동네이고 안동네라고 불렀지요.

오이도 형태는 안동네가 제일 크고, 200여 세대가 살았어요. 나머지 세대는 큰소라 펄에 살았는데, 지금 해양단지 지은 곳이며, 배가 닿는 곳이라고 해서 배다리라고 했어요. 수많은 배들이 들어와서 물물교환도 하고 아주 대단했지요. 거기 배다리에 상업이 성해서 나무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 장작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 쌀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등 물물교환이 거기서 다 이루어 졌어요. 배다리가 구 선착장이고, 지금 복원 했어요.

▶ 오이도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 오이도 주변에는 일본사람들이 염전을 만들기 전에는 28개의 섬들이 있었고 그 후에는 15~6개의 섬이 1986년 매립 전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 섬들은 채우리웅섬, 쌍가락이, 여기 옥구공원, 황새바위, 오이도등이 있었지. 그렇지만, 다 없어지고 바뀌다보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어려서 보면 이쪽에 있는 모든 섬에 배가 있어도 우리 선대는 배가 없었어.

나는 원님네 집안의 자손이면서 내가 시흥시 시의회의장을 오래도록 한바 있어서 마을의 큰일들을 잘 알고 자세히 알고 있어요. 당시에는 배가 있으면 뱃놈소리를 듣는데, 배가 없었기 때문에 뱃놈 소리를 안 들었죠. 우리는 배 없이 건강망을 했는데, 말뚝을 박아 그물을 치고 물이 빠지면 잡는 것이지. 다른 곳에 배 있는 사람도 다 이 운수를 받으려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들었고 도지사, 군수, 면장까지도 왔었지.

내가 7~9살 때가 오이도는 전성기였다. 그때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었는데, 내가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시대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리 집안네가 원님네 자손으로, 아마도 여기 온 아홉 형제 중 우리 할아버지대에는 우리집이 가장 잘 살았어. 우리가 작은집인데 왜 잘 살았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 덕분이죠.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키타쿤테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 인디언 추장 있잖아, 키타쿤테. 다른 형제 집안 분들은 술과 계집에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어른들이 있었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못 살았지만은 술과 담배, 계집을 도외시하고 오직 잘 살아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셨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건을 지고 서울, 경성의 서울역까지 갔어. 서울역이 바로 중립동인데 거기가 바로 일본사람들이 형성한 어장, 생선도매상이 있었

어요. 거기를 할아버지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돈을 버셨거든. 당시에는 교통이 없었는데, 우리가 배는 없고 건강망만 했어요.

▶ 할아버지가 건강만을 하시면서 장사를 하신 건가요?

▷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 박은봉. 은혜 은(恩)자에 받들 봉(奉)자 쓰시는 어른이었는데, 우리가 건강망을 했어요. 건강망은 뽕에 말뚝을 박아 들 물에 고기가 들어와서 썰물에 잡히는 것을 말하죠. 그때는 고기가 워낙 많아서 좋은 것만 잡았다. 민어, 농어 등 일본 사람들이 회로 먹기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들만 잡아 팔았는데, 그때는 교통이 없어서 어려웠어요. [그림으로 그리면서 지게 위에 얹는 발채 같은 종류를 그림으로 그린다.] 이런 것만 쪽지게에다 쏙어지시고 저녁물에 잡은 것은 썰물이니 물이 빠져서 걸어서 육지를 갈 수 있었고, 그때는 정왕역 바로 정동 위에 우피양촌이 있었어요. 거기가 함줄이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함줄이를 지나 사마일을 걸어서 가면 소래가 나오는데, 포리라는 곳이 있어서 포리를 통해서 뱀내장터로 가죠. 뱀내장터로 가서 바로 넘어가면 소사가 나오는데, 거기가 지금의 부천이죠. 거기 소사에서 바로 가게 되면 오류동이 고, 오류동 오목내 고개에서 아침식사를 한 다음에 영등포로 내달리죠. 거기 영등포 뒷길로 가면 서울역 봉천동인데, 거기 서울역 뒤가 봉천동이라고 했죠. 그 봉천동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중림고개, 아현동 가는 중림동이 나와요. 나도 학교를 여기서 다녀서 잘 알아요.

그때 그 중림동에 일본사람들이 지금 노량진 시장처럼 한국에 가장 큰 어시장을 만들었대요. 그 시장에서 할아버지가 일본사람을 만났는데 일이 잘 풀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인격이니까, 워낙에 조선인이 잘생기고 젊고 힘도 좋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쪽지게에 민어를 지고 오니 일본사람들이 감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잘 풀리게 됐는데, 그 유래로 이야기하면 ‘너 집이 어디냐?’ 물으니 원님네라도 한문 배웠지 언문을 안 배웠으니 여기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재네 집을 한 번 가봐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좋은 생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민어만 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냐? 한 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더니 정말 우리 오이도엘 와서 본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일본 사람이 와서 보니까 섬이고 배도 없고 물이 나가야만 고기가 잡히니 일본사람들도 황당했던가 봐요. 와서 ‘박은봉 씨네 집이 어디냐?’ 하고 찾아가 보니, 집은 다 쓰러져가고 너무 가난해서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너 내가 500원을 빌려줄 테니 이거 가지고 장사를 크게 해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남의 돈 빌리고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일본사람이 돈을 주니 괜히 꼬투리 잡을까 봐 처음에는 ‘내가 왜 남의 돈을 쓰냐’고 거절하셨대요. 그런데도 자꾸 옥신각신하다가 일본 사람이 주는 돈 200원 정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할아버지가 형님네들이 사는 땅을 다 사버렸대요. 그래서 땅을 사서 사촌, 오촌 친척 형님들에게 농사짓고 사시라고 드리고, 명의만 당신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잘살게 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서양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도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 성함이 박갑록, 갑옥 갑(鉀)에 푸를 록(綠)이신데, 아버지는 지역을 위해서 일평생을 보내셨어요. 우리 오이도 지형이 삼태기 모양인데, 오이도가 삼태기로 끌어들여서 잘 사는 동네로 평이 났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서 동네를 위해 일하셨어요. 우리 동네는 나가면 고생은 하지만 사시사철 별이가 되니까 2시간만 일해도 남들 1년 농사짓는 만큼 벌죠. 그래서 우리 동네가 예전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잔돈도 받지 않고 ‘그냥 갖고 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어요. 그런 오이도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역을 위해서 도, 군, 면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태준 게 많았어요. 나중에는 군부대도 도와주셨어요. 군인들도 와서 우리 땅에 있었지만, 돈을 안 받지요. 우리 아버지가 개인 땅을 나라를 위해 사유지를 그냥 빌려준 거죠. 철조망이나 군인들 먹는 버너, 막사까지 다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이 이렇게 지금과 같이 덕섬(통섬)에다가 돈을 놓을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우리 땅이 수용을 당했기 때문에 명분이 서기도 했죠.

여기 덕섬에 제일 처음에 다리 짓기 위한 명분은 이 정부에서는 평당 만구천팔백원씩 내 땅을 수용해 갔기 때문에 이 땅이라도 활용하라는 뜻에서 허가를 내준 거였어요. 그때 돈 20억 원이면 군자면을 사고도 남는 그 많은 돈이었다는데, 여기에 투자했어요. 그리고는 시흥시에서 2000년도에 한화매립지와 덕섬, 오이도를 매립을 하기로 했고, 우리는 2차로 수용을 다시 한 것이죠. 당시 정언양 시흥시장이 처음으로 민선시장이 되었을 때 공증을 했죠. 여기에 60%가 법적으로 대토(代土)였던 거지요. 그니깐 우리 땅이 삼천평을 수용하게 된다면 상업지로 시흥시에게 똑같이 삼천 평을 받는 것이었던 거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내 땅이지만... 그때 평당 만구철팔백원씩 받았어요. 그때는 공시지가가 없어서 딱 한 배만 줄 때였다. 너무 적게 보상을 받았더니 여기 식당을 내고 사업을 하는 걸 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허가만 줬지 덕섬을 재정비하고 지금처럼 꾸미는 데는 다 내가 돈들여서 만든 거예요. 이 섬 앞에 들어오는 길이 280m인데, 바다에다가 돌을 모두 채워서 길을 만들고 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매립을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여러 해 동안 기다리면서 마음 고생이 많았어요. 이제는 뭐 배곧이 개발되고 하면서 거의 포기상태예요.

▶ 사실 저희가 도당곳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하는데, 혹시 언제 처음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 4살 때 봤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7~8살 때는 행사가 워낙 커서 도지사, 군수 이런 분들이 다 오셨기에 기억이 생생해요. 한 1950년도 정도 돼지.

그때는 당곳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사당곳이라고 했어요. 병곳이 아니라 재수곳을 한다는 뜻이에요.

▶ 당이 있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 나도 그림으로 그려봐야 정확한 위치를 짚을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한다.]

현재 레이더 기지 있는 그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덕섬이고 옛날에는 '덕머리'라고 불렀지요.

[그림 속의 장소를 짚으면서 설명한다.] 여기가 당산이고, 우리가 어려서는 여기 팽나무랑 그 옆에 큰돌이 있었는데, 어머니들 말씀을 들으면 쌀로 고사떡을 찜는데 새들이 쌀알을 쪼아 먹으러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고 해요. 신이 강하고 당산신이 영험해서 새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대요.

1970년대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군부대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요. 한번은 폭탄이 잘못 터져 군인 3~4명이 죽은 일도 있었고 우리 당산의 신을 밀어내고 저걸 짓다보니 저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서 우리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의 힘이 컸겠냐. 우린 어려서부터 그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아니냐. 그러면서 지내 왔어요.

▶ 옛날 도당곳할 때 꼭대기 당집에서 당곳을 안했나요?

▷ 꼭대기에서는 당굿을 안 하고 끝에 깃발가지고 굿하던 만장기만 거기에 걸었지요. 그 당집은 우리 신의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집이고 현재 당집은 시멘트로 만들어졌지만, 나 어렸을 때는 나무로 길게 만들어져서 사람이 한 40~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집이 이렇게 길게 있고 그 옆에는 팽나무도 있었고 옆에 있던 돌은 지금도 있는 것을 봤어요.

당굿을 하게 되면 여기서 떡방아를 찧고 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팽나무 위에서 떡방아를 찧는데 고물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러는 말이 있겠지? 거기서 했을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면 군부대 고갯길이 있는데 여기에 큰 소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에서는 자신의 재수소망을 비는 소원지를 걸어두죠. 그 모습은 울긋불긋하며 엄청나죠. 지금도 이 소나무는 남아있고 이 길을 통해서 가면 대동우물로 있고 참죽나무가 있어요. 이 참죽나무는 신성이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니까 참죽나무는 원래는 그냥 비어있는 나무인데, 굿할 때만 거기다 굿당처럼 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무 주변에 돌바위가 세 덩어리가 있었어요. 여기에 굿당을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 광목으로 만든 차일막을 치고, 2박 3일 동안 굿을 했어요.

▶ 당집에 모셨다는 깃발은 어떤 것이었나요?

평소에 당집에는 깃발만 있었고, 또 동네에서 만든 만장기가 있어서 그것만 당에 걸어두었죠. 우리 아버지, 우리 동네 어른들이 만든 것만 당에다 걸어두었어요. 모양은 그냥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오색으로 해서 길게 되어 있는데, 4년 지나서 신사 드릴 때 다 태우고 쓸어내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죠.

▶ 굿을 할 때 기는 어디에 위치하나요?

▷ 그 만장기들은 활 마냥으로 그냥 거기에 있고, 밑에서 굿을 할 때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만든 깃발 가지고 굿이 시작되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만든 깃발을 밑에서 굿을 할 때는 밑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굿을 하고, 팽과리, 징, 장구 치면서 올라와서 할 때는 들고 올라와서 당집에서 걸고 굿거리를 하죠. 다른 만장기들은 당에 안 올라가고 밑에다 두죠. 당집에서 굿을 마치면 소나무가 있는 데로 내려와서 소나무에서 삼현육각 하면서 1박하면서 재미있게 놀죠.

첫날 여기 참죽나무가 있는 밑에서 시작해서 당집에 올라와서 굿을 하고, 다시 소나

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1박하고 마무리 하는 거죠.

▶ 그럼 소나무 있는 곳에 임시 굿하는 공간을 만드나요?

▷ 만들기는 만드는데, 여기 소나무 말고 우리 선조님들 시제땅에 마당이 넓고 놀기가 좋으니 삼현육각 하고 먹고 놀고, 굿당도 여기다가도 작게 만들죠. 이진 용왕굿이고 용왕에게 가는 물건들로 굿을 하고 그 이튿날, 굿이 끝나면 물건 전부를 띄우는 거죠.

▶ 굿을 할 때 주변 바다에 배를 띄워놓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 오이도 주변이 바다였지만 깊은 바다가 아니라서 오이도 주민들은 배를 주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 그림을 그릴게요. [오이도의 섬 구석구석을 그림으로 그린다.] 여기에 뒷살막, 가운데살막, 아랫살막이고, 여기가 고주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앙에서 굿당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타지역에서 온 배들이 많고 그들도 만장기 죄다 꽃아놓고 대단했는데, 배는 항상 가운데살막에서 남쪽방향으로 백사장이 길게 있어서 거기다가 띄웠어요.

▶ 날 잡는 것은 누가 주도하나요?

▷ 우리 집에서 주도를 하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날짜를 잡지요.

▶ 굿이 처음에는 밀양 박씨 중심으로 하는 밀양 박씨 도당굿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쪽 섬에서도 오고 나중에는 도지사, 군수도 오고 커진 거군요.

▷ 밀양 박씨 충훈공파가 동네의 지주들이라 시작을 하고 주도를 했지만, 이 굿의 개념은 풍어제예요. 우리는 배는 없어도 건강망에 대한 축원을 한 것이고 ‘물고기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라는 기원이죠. 또 인근의 배들이 와서 한 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죠. 여기가 조기배도 많았는데, 지금은 조기를 보지도 못 해요.

▶ 풍어를 위한 도당굿을 4년에 한 번씩 지냈나요?

▷ 이게 워낙 큰 대동굿이라서 해마다 하면 없이 사는 사람은 거덜나죠. 소도 세 필 잡고, 돼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다가 마을 291세대가 모두 참여하는 품앗이예요. 누구네 누구네 삼십집이 감주, 누구네 누구네가 두부, 누구네 누구네가 콩나물 기르기, 누구네 누구네가 숙주나물 등으로 일을 분배해서 참여하죠.

당시에 그렇게 진행한 걸 따로 장부로 기록해서 남은 것은 없지만, 내가 본 것은 우리 집이 가장 잘 살아서 보면 우리가 돈을 내고, 다른 분들에게는 품앗이로 일을 나눴죠. 술 열 집, 감주 열 집, 콩나물 열 집, 숙주나물 열 집, 두부 열 집 이렇게 일을 나눴어요. 그럼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도지사, 군수, 영감님, 면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기부를 했어요.

인근의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돈다발을 들고 왔어요. 오이도 신사 드릴 때면 돈을 자루에 담아 배에 실고 운수 받으려고 오는 거죠. 운수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12마당 중에서 끝 마당에 작두 타는 마당이 있는데 작두 탈 때 작두 위에서 운수를 받아요.

잘 맞추기도 하고 그게 맞아 들어가요. 이 동네 젊은이들이 올해 수가 나빠서 가는 수가 있구나 하면 젊은 사람이 죽어요. 이렇게 잘 맞추니까 그게 신주이고 신이에요. 무당의 말씀이 곧 신이죠.

▶ 할아버지, 할머니께 언제부터 도당굿을 지내기 시작했는지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 그건 몰라요. 600년 안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거기서 또 우리가 실제 탐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들은 해를 보고 그해 일기를 보고, 달을 보고 그해 운수를 봤대요. 해와 달을 보고 정확하게 일기를 보고 1월 달에는 무슨 바람이 불고, 뭐가 불면 나쁘고 어느 바람이 불면 풍년이 들고 그런 것이 정확했대요. 할아버지들이 건강 망을 하니까 풍어를 하는데 정월보름날 당에 올라갔고 섬은 정월초하루보다 보름이 더 굉장하고 중요한 날이에요. 보름날이 되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당에 올라가요. 단골네가 없어도 누구나 그런 말을 듣고 자라 왔고, 형제들이 그런 말을 듣고 해왔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1년 운수를 보기 위해 해질 녘 쯤에 당에 올라가는 것이예요. 단골네가 없어도 누구나가 그런 말을 듣고 오고, 형제들이 그런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1년 운수를 보기 위해 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음식이나 뭐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뛰어 올라가서 당에서 보면 각 집의 어망들이 보이죠. 그럼 거기서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그땐 우리가 어린 애들이고 귀신도 많을 때이니, 무서워하면서도 도깨비불을 보려고 위해서 어른을 따라 당산을 올라가는 것이죠. 당산에 올라가면 어망이 있는데를 뚫어지게 보면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게 신기하죠. 도깨비불이 무슨 불이냐면 파란데 자주 보면 초록색이 나지. 아주 파란데 한참

을 지나면 초록색이 되기도 하는데, 그 도깨비불이 여기저기로 옮겨다니기 때문에 눈이 뚫어지도록 쳐다보다가, 어느 그물바탕으로 가는지 확인해요. 그러다가 어느 그물로 들어갔다하면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고기가 많이 들어. 도깨비불이 든 날 그 날만은 썰물이 나갈 때 보면 그물이 터져나가고 이를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도깨비불이 든 집은 전체적으로 다른 집보다 잘 된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보름날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꿈이야. 그러니까 이걸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할아버지들이 나름대로 달을 보고 올해의 운수를 보기도 하죠. 올해는 달머리가 크다던지, 작다던지, 달이 맑다던지 하면서 그해 운수가 몇 월달이 좋고 나쁘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때는 어른들 말을 듣고 자라서 애나 어른이 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 들었어요.

- ▶ 생각하시기에 예전 당에 모셨던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 ▷ 당집에는 갓발만 있었고, 따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를 비유하자면 내 마음에 친가보다 외갓집이 더 가깝고 그런 것처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같아요. 외가집에 가면 두 분은 늘 쓰다듬어주고 예뻐해 주셨는데,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도 마치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처럼 친근하게 느껴져요.

- ▶ 도당굿은 어떻게 진행했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도당굿은 음력 2월 달에 잔디가 나오기 전에 지내요. 2월 초순으로 2월 초순이면 2월 1일에서부터 10일 안에 지내는 것이에요. 날씨는 매해 달라지지만 2월 초는 분명하지요. 2박 3일 동안 두드리면서, 삼현육각까지 하면서.

옛날에 봤을 때는 돈이 하늘로 날아다녔어요. 돈다발이 날아다녔다니깐. 무당 한 번 껴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어려서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무당 한 번 껴안고 놀면 돈다발이 주춧돌 못 하지. 우리 동네 신사라는 곳이 이랬던 곳이지요. 신사 한 번 들이면 인근 각처의 섬에서 배 있는 사람들이 다 운수를 받으려고 온다. 잔머리는 게임도 안 돼요. 잔머리굿하는 것은 저희 도당이 있으니까 한 것이지 큰 곳이 아니고,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이 신사굿이 있으면 여기로 모여 왔었고, 배 하시는 분들도 왔었지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단한 행사를 한 거죠.

어려서 기억으로는 우리동네 여기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참죽나무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당신주나무라고 했어요. 2박 3일 굿을 하면 징, 팽과리를 치고 만장기가 수백 개, 수천 개 걸렸지요. 잔머리, 웅섬, 제오리 이런 섬에서 배의 망주들이 플랜카드를 해가지고 와서 전부 걸어두는데, 자기 배 이름을 쓰고 풍어를 그려서 걸어 두죠. 그런 것이 오색기로 대단했는데, 그걸 첫 번째로 여기 참죽나무 있는 데다 대나무로 해서 걸어요.

여기다 빙 둘러서 나무를 위시해서 두고, 한쪽에는 동네 사람들이 밤 세울 굿당을 하나 지으면 여기서부터 12마당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니까 굿을 하는 것이 12머리라고 하고 그걸 보고 12머리 마당이라고 한대요.

거기가 지금의 선사유적지예요. 그런데 어떤 놈들이 이 당신주나무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옛날 우물터를 복원한 것 뒤에 불타다 남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 누가 와서 고사 지내고 가다가 촛불이 옮겨 붙어서 탔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너무 미안스럽지요. 그동안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우리 당신주나무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보고 왔었어요.

▶ 3일 동안 12머리 마당을 하는 거죠?

▷ 네, 여기 참죽나무 있는 데서 4마당을 한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니까 만약에 새로운 무당이 오면 조율이 되겠죠.

특히 여기(참죽나무 앞)는 만장기가 대단했어요. 각처에서 오고, 그때는 우리가 굿당을 써 붙이면 잔머리, 웅섬, 제오리 이런 곳에서 배하는 사람들이 참죽나무 주변에 만장기를 가져다가 많이 걸었어요. 우리가 잘 보이라고 하듯이 보기 좋도록 걸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죠. 그날 아침에 지내고 이 길을 통해 올라가는데, 무당에서부터 만장기를 들고 고개를 올라가는 거예요.

첫날 아침이 되면 밑에서 4마당을 하고 올라가는데 여기 참죽나무에서부터 치면셔도당까지 올라가고 위에는 그 이전에 떡방아니 뭐니 다 찌고 만들어놨을 거예요. 당집(도당)에서도 당굿을 하는데, 여기 도당에서 도당굿은 몇 마당 안 하고 다시 내려와서 소나무 있는 데로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돈 버는 굿을 하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놀죠.

굿 시작할 때는 소머리도 올리는데, 머리는 잘라서 이미 굿당에 올려두죠. 그리고 소머리는고아서 우물을 만들어서도 올려요. 감주, 술등 모든 음식을 여기다 놓고 올려가서 여기서부터 굿이 시작하는 거예요. 첫 굿머리 할 때 음식도 다 가져다 놔야 해요.

곳을 처음 시작할 때는 소나무[참죽나무의 오류]에서 4마당을 하고 여기서 다 지내고, 당집에 가서 하는 것을 도당굿이라고 말해요. 도당굿을 지내고 내려와서 여기(소나무 앞) 와서부터 1막2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소나무가 있는 곳에서 굿을 하다가 마지막에 무당이 작두 타고, 작두에서 다 자기 운세를 무당에게 들어요. 그리고 나서 용왕님에게 띄우는 배를 크게 만듭니다. 거기서 하는 것을 용왕굿이라고 했어요. 그 배에다가 모든 음식, 먹을거리를 실어서 들물, 물이 밀었을 때 만들어서 썰물, 물이 빠질 때 띄웁니다. 아마 그 배가 크게 하나만 짚으로 만든 거예요. 폭이 1m정도이고 길이가 2m정도 되니까. 거기에 음식을 다 실어서 띄워서 용왕님께 바치는 거죠.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배 하시는 분 전부 가서 비손하고 그래요. 굿할 때 올리는데, 소고기, 넓적다리, 돼지고기 해서 띄우는 배에다 올리죠. 돼지는 통 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올렸어요.

▶ 오이도 도당굿은 크게 3개 절차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굿당에서 하는 굿, 도당에서 올라가서 하는 굿, 내려와서 소나무에서 넓게 마무리하면서 하는 용왕굿인가요?

▷ 그렇지요. 그 중에서 용왕굿을 제일 오래합니다.

제가 이렇게 굿을 한 걸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아마 50년대 쯤에 본 거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도당굿도 끊기게 되고, 그 많던 조기배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끊기게 된 거겠지요.

도당굿이 끊어지니까 우리 집안 자체 내에서 신사를 했어요.

▶ 어르신 집안에서 따로 신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네, 어머니가 대를 이어서 하시게 된 것이죠. 그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각출을 안 하고 우리가 돈 들여서 한 거죠. 우리 집안에서 고사는 매년 하죠. 매월 고사를 초하루에 드렸지요. 집에서 개별적으로 지내고 비손은 우리 안사람이 할 때도 있고, 내가 할 때도 있어요. 워낙 그걸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배웠기 때문이죠. 비손할 때는 ‘그냥 미물의 짐승이 뭘 압니까. 그저 조상님들, 대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돈 이야기는 안 해요.

우리 집에 터주가리도 많았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신이죠. 우리는 부잣집이라 토지 신부터 터주가리만 28개였어요. 터주가리가 많아서 만드는 것만 해도 이를 전부터 사

람을 사서 만들어야 했어요. 우리집은 정미소도 하고 그래서 많았고 크기도 꽤 크게 했어요. 지금도 나는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봉건주의 이념과 사상을 가졌지만 도깨비불도 실제로 체험했고 또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꿈에도 여러분들이 나타났는데, 꿈에서 서너 분이 오셨는데 딱 맞잖아요. 꿈이 이렇게 맞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꿈이 나쁘면 문 닫고 절대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가 ‘이제 우리도 뭔가 한술 얻어먹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1986년도부터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지금 어느 누구 한 사람...

며칠 전에 초하루에 징, 팽과리를 울렸어요. 초하루에 한 해가 지나고, 마지막 갈 때 울려주는 것이죠. 나는 징, 팽과리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 굿할 때 마을에서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분들도 있었나요?

▷ 있었어요. 동네에서 그런 진행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은 장례식이나 결혼식을 하면 과방주예요. 결혼식 하면 과방에서 음식이 다 나오니까 과방주가 제일 세죠.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고 박복일 씨라고 그분이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가 귀할 때 고기 한 접시를 더 타고 싶어서 달라고 하면 어디냐고 묻고 확인하고 내어 줬죠. 그냥 평범한 분이셨는데 일을 잘 했어요. 손 벗고 나서서 동네일을 잘 하신 분이었죠. 우리 집안 어르신인데 동네에서 신뢰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 과방주 말고 축문 읽고 하려면 제관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

▷ 박복일 씨 그분이 도당굿할 때 축문 읽는 것은 봤어요.

▶ 도당굿할 때 오는 무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 당골네 무당이 있는데 거무개 살던 지경래 씨예요. 당시에 할아버지셨고 그분이 당굿을 하는 당골네 무당이었어요. 무당님들도 큰무당, 작은무당 해서 많이 왔는데 남자 박수는 못 봤고 여자 무당만 왔어요. 한 칠, 팔분이었어요. 내가 10살까지 지경래 씨가 도당굿을 했죠. 그 후로는 모르겠어요. 지경래의 손주가 지연화, 지화자 씨고 무당에서 유명한 명창들이 나왔죠. 지경래 씨가 1960년대 초까지도 왔다고들 하던데, 그 양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양반 아들이 단골네여서 왔던 거겠죠

▶ 옛날에 도당굿하다가 남자무당이 서서 부채나 뿔 들고 춤추거나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 그건 박수인데, 우리집에 신사할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박수무당을 불러서 했어요. 그때 내가 스물 대여섯 살 정도였어요.

▶ 혹시 굿할 때 삼현육각 말고 농악 같은 거 치는 사람은 없었나요?

▷ 있었지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징, 팽과리 치는 사람이 다 있었어요. 굿할 때는 안치고 여기서 놀 때 쳤어요. 돌아가신 박성천 씨는 태평소를 하셨고 박남성 씨가 팽과리를 치고 김천용 씨가 북을 쳤어요. 그 다음에 통수 부는 양반이 장구도 잘 쳤고 태평소도 불고, 이진성 씨도 장구를 쳤죠. 그 어른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 머리에 쓰고 돌리는 벅구 같은 것도 있었고, 술 드시고 와서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네들이 노시다가 굿 끝날 때쯤 와서 삼현육각하고 같이 쳤어요.

▶ 동네 어른들이 농악 노는 것을 도당굿할 때 말고 다른 때도 보신 적이 있었나요?

▷ 응, 그냥 동네 분들이 노는 거예요. 그냥 평복으로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 치는 형태였어요. 그렇게 노는 걸 우리가 어려서는 ‘야 저 징, 팽과리 친다’ 그랬어요. 보름에 지신 밝기라고 해서 그때 놀았어요. 팽과리도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쳤는데, 성천이 양반, 진새 양반 이렇게 불렀고, 그래도 제일 먼저 시작하고 나이가 많이 잡수신 그분들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 없는(가난한) 집부터 갑니다. 왜냐 하면 먹을 것을 못 내놓으니까 그 북을 받으라고 가는 거죠. 그게 비나리고 한 해 운을 달아서 달라고 해서 없는 집부터 보름동안 계속하다가 끝에 가서 우리 집으로 오죠. 우리는 먹을 것을 좀 내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본 것 같아요.

▶ 예전에 댁에서 따로 고사를 지내거나 하셨나요?

▷ 옛날에는 매월 고사는 떡 해놓고 비손을 했어요. 마을 대동굿 사라지고 나서는 집안에서 비손만 했죠. 우리는 아직 따로 신사는 못 드렸어요.

예전에는 집에 터주자리가 여러 개 있고 했는데, 뭐 지금도 모실라면은 모실 수야 있지만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니까 안 해요. 그 전에는 집에 대감독도 있고 했는데, 옛날 사진만 있고 이제는 마음속에만 그런 것들을 담고만 있죠.

▶ 말씀 듣기로는 어르신께서 오이도 도당굿을 복원을 한 번 해보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 예. 내가 몇 백억을 손에 쥐면 1억이든 2억이든 들어서 하고 싶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여기서 살고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 내로라하는 무당님들을 모셔다가 삼현육각하면서 열고 싶죠.

▶ 옛날 오이도 도당굿이 밀양 박씨 중심으로 하는 마을 대동굿이었고 여기 아직도 밀양 박씨가 많이 살고 있으니까 예전 오이도 동네분들이나 친인척 중에서 도당굿을 다시 해보고 싶거나 도당굿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 없어요. 못 사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서 이거 자체를 모르지요. 옛날에 계신 분들은 벌써 다 돌아가시고, 내 나이 또래도 많이 돌아가셔서 그 밑에 아이들은 아예 그것 자체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자고 하면 내 의사를 전적으로 따르죠. 그리고 이 고향 부근에 이거 해놓은 것만으로 해도 개네들은 날 존경할 거예요.

▶ 옛날 오이도 살았던 분들 친목회 같은 모임이 있고 하던데, 어르신이 만약에 오이도 당굿을 다시 옛날식으로 하고 신식으로 구경거리도 넣고 해보자 의견을 내면 어르신 말씀에 동참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으실까요?

▷ 한참 전에 내가 그렇게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시흥시 체육회장도 오래하고, 새마을사업서부터 시흥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80년대 개발이 되면서 옛날 모습이 사라지고 점점 변해갔지. 그래서 사실 우리는 따로 신사를 4년에 한 번씩 드려요.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고사도 지내고. 개발된 후에는 당에 올라갈 수는 없어도 매일 초하룻날 잔을 다섯 개 놓고 고사를 드리지. 첫 번째가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두 번째가 용왕님, 세 번째가 산신령님, 네 번째가 대감님, 마지막은 조상님. 이렇게 모셔요. 거긴 여러 가지 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대감이 내 대감’ 어려서부터 무당이 하는 걸 보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간단하게만 하죠.

나는 새롭게 복원한다는 의견에 100% 긍정적이예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라며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하죠. 안산의 잔머리굿(젓머리굿)은 작아도 성황을 이루는 걸 보고 4~5년 전에 시의장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당산굿을

복원하면 좋겠다고 안을 내기도 했어요.

아버지, 할머니, 아저씨들이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서 늘 아쉽죠. 그러나 이제 우리 나이 위는 없고,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이 있지요. 우리 밑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위의 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피난민이나 타지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도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음식점)을 한 지 24년이 되었는데, 배곧신도시가 생기면서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작은 것도 커졌어요. 지금 저 위에 지은 당집이 18평밖에 안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1억 정도 들여서 크게 지어서 옛날식으로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께 드리는 것은 나의 신주니까 돈에 관계없고, 옛날식으로 삼현육각서부터. 우리는 황해도굿을 안하고, 경기굿을 해요. 경기굿으로 12마당 풀이를 옛날처럼 하고 싶어요. 그럼 2박 3일을 하게 되겠지.

▶ 만약에 도당굿을 다시 복원한다면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 할까요?

▷ 첫 번째가 단골네 무당이고, 두 번째가 삼현육각이죠. 세 번째가 집행위인데, 우리 동네는 시장이 집행 위원장이 되고 고문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들어가고. 나는 어른으로 컨트롤만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행위는 내가 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아마도 내가 전체 흐름을 아는 몇 안되는 사람일 테니까. 또 이것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구 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구요.

내가 그래도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단골네 무당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지금 같이 배를 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기 월곳에 배가 200척이라니, 그분들을 움직여 볼 수도 있겠죠. 배 하는 분들은 예수고 뭐고 따질 필요 없이, 굿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을 테니 아마도 스폰은 걱정 없지 않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동네 옛날 주민들 약 100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전수는 아니라도 아는 것을 동원해서 진행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삼현육각 할 때는 놀이같이. 지금 말하면 페스티벌, 쇼 이런 것처럼 하려면 옛날식하고 현대식을 접목 시켜야 하겠죠. 거기에다가 각종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유관 기업체들. 우리 공단이 4400개 기업체들이 있으니... 엄청나죠. 우리 테두리 안에만 따져도 남동 공단이 1200개, 안산이 2200개, 우리 시흥이 4400개로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엔 시화호도 팔고 많은 회사들이 들어왔으니, 이런 것들을 스폰만 해도 엄청나지 않을까요.

▶ 만약에 단골네 무당을 찾는다면 어떤 분들을 불러야 할까요?

▷ 그렇지요. 그러니까 단골네를... 이제 지경래 그 양반 단골네도 알지 못 할 거예요. 어느 무당이 괜찮은지 또 삼현육각은 안성 가면 있어요. 이광수가 비나리의 주인공인데, 체질 좋고 목청 좋고 많은 것을 잘 해요. 단골네 무당이나 그런 것이 지금은 없지만, 이광수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굿거리장단이나 그런 것을 다 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시흥시의 잔머리굿을 봤지만 그건 우리네에서 하던 굿이 아닌 거 같아요. 보진 않았지만 옛날 잔머리 굿은 우리에게 비하면 작은 굿이었죠. 우리같이 대동굿이란 것이 없었다고 봐야지요. 저기 군자봉도 명산인 줄은 알지만, 배하고 육지하고는 다르죠. 군자봉은 육지굿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배굿을 하니까, 배하는 사람이 군자봉굿 한다고 해서 군자봉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 지금 도당굿 복원을 한다고 해도 옛날처럼 당집이 레이더 기지 바로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거기서 굿을 한다거나, 그 아래가 선사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옛날 장소에서 굿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 그러게요. 그냥 거기는 우리가 일을 맡아서 모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체만 여기에 모셔둬야죠.

〈마침〉

3. 김성용 오이도어촌계 체험사무국장

○ 제 보 자: 김성용(남, 62세, 57년생, 닭띠, 고향: 시흥 오이도 고주리)

○ 조사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 조사장소: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135번길 39 수협은행 2층 오이도어촌계 사무실



오이도어촌계 사무실의 김성용 체험사무국장

▶ 고향에 어디신가요?

▷ 제 고향은 오이도 고주리예요. 오이도에는 안마을, 소라펄, 신포동, 고주리 이런 자연 부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주리가 제 고향입니다. 지금 시화공단 하수처리장 있는 곳이 신포동이었고, 산이 좀 있고 그 나머지가 고주리예요. 고주리는 앞쪽으로 군자염전 저수지를 끼고서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정왕역 앞까지가 모두 군자염전이었죠. 어릴 때, 고주리 앞쪽에 있는 저수지에서 매일 망둥어도 잡고 수영도 하고 놀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군자염전 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수인선 열차를 타고 다니던 그럴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이도 사람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주민들 간의 정이 굉장히 좋았죠. 이웃 간에 정이 깊어서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시화공단,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주민들끼리 갈등도 생기고, 보상 문제 때문에 마찰도 있게 되었죠. 그러다가 갯벌이 매립되면서 정왕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예요.

▶ 오이도에서는 도당굿을 지냈나요?

▷ 오이도에서는 도당굿이 아니라 대동굿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오이도 안말에는 큰우물이 있고 그 앞에는 당나무가 있었고, 오이도 산 정상에는 당산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레이더 기지 있는 곳에 있던 당산나무를 군부대를 지으면서 잘라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병사가 그 나무를 자르다가 바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로 죽은 건데 동네에서는 ‘그 왜 당 그런 걸 마음대로 건드리냐? 그러니까 그런 사고 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런 말들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현재 당집이 있는 위치도 본래 자리는 아니에요. 원래는 현재 레이더 기지가 있는 자리에 당집이 있었는데, 레이더 기지를 지면서 밑으로 조금 내려서 현재의 위치로 당집을 이전한 것이죠. 그 당집은 당집 겸 상여 보관소예요. 예전에 당집과 당산나무는 둘로 주변에 제단 같은 것을 해 두었어요. 강화 마니산 가면 봉화 하는 그 제단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군사목적으로 봉화 불 하던 곳인데, 나무 큰 게 있고 하니깐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제를 지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이도에서는 대동굿을 하기 위해 타지에서 만신을 불러서 했어요. 매년 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때까지 봤었던 것으로 기억돼요. 그러니까 1967~8년도 까지는 대동굿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동굿을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돼지도 잡고, 며칠에 걸쳐 제를 올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대동굿은 오이도에 사는 만신들이 하지 못했어요. 대동굿도 급수가 있어야 해요. 높은 신, 잘하시는 분들이 오는 거니까 조금 높은 만신들이 와서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김금화 만신이라고, 이분이 원래 소래에 살았다가 신이 내린 이후로는 안산인가에 가서 살았는데, 지금 레이더 기지 있는 군부대 밑에 있는 당에 와서 굿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동굿과는 별개로 오이도에도 만신이 몇 분 살았는데, 그분들은 칠월 칠석이나 정월 그믐 때가 되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제단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오이도 산 정상에 있는 제단에 가서 정성을 들이고는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곳에 군인들이 들어와 레이더 기지를 만들면서 없어졌어요. 그때가 1969년도 정도 되었는데, 오이도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유일한데, 그것이 없어져서 참 아쉽더라고요. 뱃일하는 분들이 제를 올리기도 했는데, 다 없어져버렸어요.

▶ 그러면 우물고사도 지냈나요?

▷ 오이도에 안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던 마을이 있었는데, 그 안말에 당나무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당나무가 남아있어요. 오이도 사람들이 정왕동 이주하고 난 뒤에 벼락을 맞은 것인지, 누군가가 불을 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에 탄 채로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 가면 오이도 산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그 불에 탄 당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당나무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도 그대로 만들어 두었다고요. 그 우물은 안말에 살던 사람들은 다 공용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다른 곳의 우물은 다 없어졌는데, 안말의 우물은 현재처럼 남아있어요. 안말은 한 200호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당나무 앞에 지금 남아있는 그 큰우물이 있고, 그 좌우로 작은 우물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가정집에서 개인적으로 우물을 파서 쓰다가 더 나중에는 기계로 관정을 파서 모터로 끌어 올려서 물을 썼어요.

어릴 때 기억이라 자세하지는 않지만 만신들이 와서 우물고사를 지내는 것을 봤어요. 살던 곳은 고주리지만 안말은 큰말이라 자주 놀러왔었는데, 우리들은 어렸을 때니까 먹는 재미로 우물고사를 지내는 것을 구경하다가 떡 같은 것을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물고사와 당산제를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만신들이 많이 오고 줄타기 같은 공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정월 보름, 그러니까 음력 1월 10일에서부터 15일까지 했던 것 같아요.

▶ 오이도에서는 풍어제를 지냈었나요?

▷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마을에서 크게 하는 것이 있었죠. 오이도에서는 배를 타는 사람이 없었고, 건강망을 많이 했는데, 망주들이 개인적으로 풍어제식의 제를 올렸죠. 건강망은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방식인데, 건강망마다 주인이 있어 망주라고 했어요. 망주들은 바닷가에 추위도 피하고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어구도 놓아두기 위해 제각기 살막을 지어두었어요. 일종의 움막이죠. 망주들은 정월 대보름에 그 살막에서 제를 올렸어요. 제물은 시루떡하고 과일하고 북어포 같은 것을 차려놓고 제를 지냈는데, 주로 한 해 동안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또 물때가 있잖아요. 조금이라고 있고, 무시라고 있는데, 이때는 고기가 없을 때예요. 물 흐름이 약해서 고기가 안 걸릴 때인데, 보통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면 살막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고기가 없을 때니까 용왕님한테 고기 좀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축문이나 비넌 같은 것은 없고 절을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지냅니다.

오이도 일대가 매립되면서 1998년 즈음에 살막도 다 없어지고 풍어제도 없어졌죠. 그래서 오이도어촌계에서는 오이도 박물관 끝 쪽에 갯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인데, 살막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설명도 해주려고 계획 중이에요.

크게 하는 풍어제는 일 년에 한 번씩 마을에서 대동굿이라는 것을 했어요. 대동굿은 풍어도 기원하고 잡귀를 몰아내기 위해서 마을 공동으로 크게 했어요.

▶ 오이도 주민들의 생업은 무엇이었나요?

▷ 오이도 사람들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포패업에 종사하거나 건강망을 쳐서 고기를 잡거나 노를 젓는 작은 어선을 가지고 가까운 바다에 나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방식,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생업에 종사했어요.

물이 빠지면 갯벌에 조개들이 많으니깐 그 당시에는 주로 포패업(捕貝業)을 했죠. 동죽조개, 가무락 조개 등을 잡았는데, 가무락 조개가 주 수입원이고 동죽도 많이 잡았어요. 가무락 조개는 조금 더 비싼데, 마을 공동으로 종패(種貝)를 뿌리고 출하할 정도로 크면 공동으로 채취해서 팔았죠. 또 비지락이라고 해서 뼈쪽이라고 하는 조개도 있었고, 맛, 피조개 같은 것도 많이 잡혔죠.

또 갯벌에서 건강망을 했었어요. 건강망은 두 길 정도로 크고 높은데 길이가 보통 한 500m정도 되요. 거기가 5월이면 전어가 하얗게 걸렸어요.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망주들은 그 당시에는 판로가 없으니깐 많이 잡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건강망에 걸린 고기들은 우마차에 실어 날랐는데, 판로가 많지 않으니깐 크고 좋은 것, 쓸 만한 것만 골라오고, 나머지는 다 그냥 버리고 오고 그랬죠. 그렇게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5월이면, 전어를 많이 잡아 구워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맛이 안 나요. 그리고 꽃게, 농어, 망둥어,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수수망둥어 등도 많이 잡혔어요.

오이도에도 배는 있었는데, 동력선이 아니라 무동력선이라고해서 손으로 노 젓는 배가 있었어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인근에도 고기가 많으니깐 동력선이 필요 없었죠. 또 동력선 같이 큰 배를 살 돈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조그만 배를 타고 가깝게만 나가도 고기가 워낙 많으니깐 팔 수 있을 정도만 잡아오는 거예요.

우리 오이도 사람들은 이주하면서 손해가 많죠. 갯벌이나 인근 어장에서 나오는 어패류들이 전부 돈인데, 직장을 다니지 않고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잡혔어요. 매일 갯벌에 나가기만 하면 잡혔으니깐 매일 나가면 돈인 거죠. 그런데 오이도가 매립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거죠.

지금은 오이도 인근에는 전어나 동족이나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오이도에 살다가 1995년도경에 정왕동쪽으로 이주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동족이 많았었어요. 근데 시화호를 만들면서 대부도까지 간척사업을 했잖아요. 또 송도 신도시를 만들면서 또 인근 해역을 매립하고, 송도, 인천, 남동공단이라고 있는데 그 앞까지 전부 바다였었는데 이 앞바다까지 전부 매립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근방은 전부 모래벌이에요. 동식물들은 모랫벌에 산란을 하는데, 그런 장소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조개며 고기들도 다 씨가 말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이도어촌계에서도 지금 오이도 사람들이 시·정부 보조를 받아서 동족 종패, 조금만한 새끼들 그런 걸 살포를 해서 어장을 살려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종패가 여기서 적응을 하면서 성장 하고 산란을 할 수만 있으면 갯벌이 살아나는데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말에 사는 사람들은 간척을 해서 군에서 불하받은 농토가 조금 있어서 먹고 살 정도의 농사는 짓기도 했죠. 그래도 오이도는 워낙 농지가 적어서 대부분이 육지에 가서 쌀을 전부 사다가 먹고 그랬죠.

▶ 오이도의 교통수단은 어땠나요?

▷ 예전에는 수인선 기차가 있었고, 나중에는 기차가 없어지고 동차가 다녔는데 오이도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군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정왕역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오이도 사람들은 군지역까지 걸어가야 기차나 동차를 타고 인천이나 수원이나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975년 정도에 안양에서 군지역까지 다니는 버스도 마을버스도 생겼어요.

▶ 인근에 갯벌이 있던데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잡히나요?

▷ 요즘에는 갯벌에서 낙지도 잡고 굴도 따요. 올해(2017년)에는 낙지가 많더라고요. 굴도 많이 나고요. 작년만 해도 굴도 상품이 안 좋았는데 올해 굴도 좋고 많이 땀죠. 굴이 자연산이라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썩, 개불 같은 것도 잡힙니다. 그렇지만 썩은 돈이 안 되니까 주로 낙지 위주로 잡습니다. 굴은 날 따듯하면 수온이 올라가면 못 먹으니깐 보통 9월 하순에서 4월 말까지만 채취합니다.

예전에 시화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굴을 참 많이 채취했었어요. 예전에 겨울이면 ‘해초 간다.’고 해서 굴을 따러 갔었어요. 당시에 비교적 큰 배인 동력선을 타고 쌍섬에

갔어요. 대부도 가는 전망대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걸 쌍섬(큰가리섬, 작은가리섬)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두 개였는데, 2002년 정도에 시화방조제를 만들면서 섬 하나(작은가리섬)가 없어지고, 지금은 하나(큰 가리섬)만 남았어요. 거기까지 가서 굴을 따오고 했어요. 쌍섬 주변에 물이 빠지면 굴 돌이 있어서 굴을 채취해 오는 것이었죠. 또 갯벌에 돌을 깔아놓고 석화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굴을 따기도 했었어요. 돌을 깔아놓으면 굴 포자가 앉아서 굴이 성장하게 되고, 어느 정도 굴이 크게 자라면 그것을 채취했어요.

〈마침〉

4. 송선일 전 월곶어촌계장

- 조사일시: 2017년 12월 21일(목)
- 조사장소: 경기도 시흥시 월곶해안로 205 월곶어촌계사무실
- 제 보 자: 송선일(남, 54세, 64년생, 용띠, 고향: 경기도 시흥 군자 정왕5리 옥구도)



송선일 전 월곶어촌계장



웅진수협 월곶어촌계

- ▶ 고향이 어디이신가요?
 - ▷ 옥구도가 고향이에요. 옥구도 옛 지번은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5리 옥구도예요. 지금의 옥구 공원 자리가 예전 옥구도가 있던 위치예요.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옥구도라고 했고, 또 산에 돌이 많아서 어른들이 돌주리, 돌주리 해서 돌주리라고도 불렀다.
- ▶ 옥구도에는 몇 가구나 살았나요?
 - ▷ (송선일) 한 90호 정도 살았어요. 거기는 뭇 먹고 살았냐 하면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섯 분은 어업을 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염전 일을 하셨어요. 옥구도에는 일제강점기 때 염전을 관리하던 일본인들이 살던 사택이 있었어요.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떠난 후에 염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사택에 들어가 살았어요.
- ▶ 염전에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군자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염전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난치반장까지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염전구역은 100구, 200구, 300구, 400구, 500구, 600구까지 있었어요. 100구에 감독이 한 사람씩 있어요.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맨 말단부터 따지면 C급, 그 다음이 B급, A급, 난치 반장, 부반장, 반장, 감독으로 구분했어요. C급은 가장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삼질해서 소금만 담아주면 되는 일이라서 주로 아줌마들이었고, B급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간에 일할 수 있는 젊은 애들이었으며, A급은 젊은 청년이나 일 잘 하는 사람, 그 위에 난치반장이 있고, 부반장, 반장, 감독이 있었습니다.

월급도 차이가 나서 C급 월급이 제일 적고 급이 올라갈수록 월급이 높아져요. 내 기억으로는 난치반장을 할 때 9만 원 받은 것 같아요. 반장이 왜 있냐면 100구, 1호, 2호, 10호예요. 그러면 100구 1호에 두 개가 있어 오반씩이 나누워져 있어요. 그러면 한 반을 관리하는 게 한 반은 반장, 부반장이 나누지만 총 관리는 반장이 해요. 열 명의 부반장, 반장을 관리하는 게 감독이에요. 감독이 제일 무서워서 술 먹다가 감독이 자전거 타고 순시 온다고 하면 전부 다 일하는 척 했어요.

▶ 염전에서 난치반장을 맡아서 일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 난치반장은 소금이 맨 밑에서 형성될 수 있게끔 바다에서 물을 들이대 가지고서 졸여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난치반장이예요. 난치는 염전의 토바닥을 얘기하는 건데 일본말인지 모르겠어요.

토판이 위가 천 평이면 맨 밑에는 열 평이에요. 천 평에서 물을 계속 증발 시키다 보면, 바닷물이 2도인데, 3도, 6도, 10도로 올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27도인가 29도가 되어야 소금이 형성이 돼요. 물꼬를 여닫고 소금물을 모았다 아래로 넘기는 걸 결정하는 사람이 난치반장이예요.

난치반장이 제일 바쁜 보직이어서 거의 쉴 틈이 없었어요. 판사람들은 소금이 오후 늦게 썸 형성되는데, 그때까지 할 일이 없어서 점심시간이 3시간이나 되었어요. 그 동안 잠도 자고 술도 실컷 먹고 집에 가서 할 거 다 하는데 난치반장은 계속 염전을 돌아다니며 물을 대야 해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염전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좋게 보고 난치반장까지 맡겨주셔서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 당시 염전은 옥구도와 오이도 쪽이 100구, 지금 시화공단 뒤쪽으로 200구, 300구 쪽 돌면서 오이도역이 400구 돼요. 지금은 다 매립됐지만 정왕역 쪽이 500구, 600구. 그렇게 염전 구역이 나뉘져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리 때 난치반장 20명이서 교대로 이틀을 와서 수문을 열어 저수지에 물을 가둬요. 사리는 15일에 한 번씩 오는데 조금 사리 말고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리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 물 가둔 걸 가지고서 한 달을 써요. 물이 들어오면 그 날부터 계속 그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요. 맨 처음에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가장 위에 있는 천 평에 물을 대고, 그 다음 구백 평으로 가고, 칠백 평으로 가고, 이렇게 쪽쪽 아래로 다음 단계 증발지를 거쳐 바닷물이 내려가면서 점점 염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증발지를 다 거쳐 맨 마지막 결정지에 이르면 소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똑같은 양의 소금이 나와요. 대신 날이 흐리면 속금 결정체가 덜 단단해서 죽소금이 나오고, 날이 좋으면 결정체가 크고 단단하죠. 두 종류의 소금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창고에 저장해두었다가 출하할 때는 섞어서 포장을 했습니다. 당시 소금을 내는 날이면 B급이나 C급이 인부를 시켜 자전거 타고 가서 고기를 외상으로 사오게 해서 인부들이 모두 모여 고기를 구워먹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소금을 출하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월급을 받게 되는 날이기도 해서 모두들 신이 나서 쇠삽 위에 삼겹살 올리고 소금 뿌려가며 구워서 함께 즐겁게 나눠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 염전에서 군자역(현재 정왕역)까지 꽤 먼데, 어떻게 소금을 운반하셨나요?

- ▷ 가시령차를 소금을 날랐습니다. 소금을 나르는 차를 가시령차라고 했는데, 맨 앞에는 앞머리가 있고, 그 뒤로는 바퀴 네 개가 달린 화물칸이 열두 개가 이어져 있어요. 그 화물칸에 소금을 싣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시령차 12칸에 소금을 다 싣게 되면 군자역전으로 가요. 당시에 군자역에는 소금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금을 다시 정리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도시로 내보내지게 되는 거예요. 소래포구역 앞에도 소금 공장이 있었는데, 두 공장 모두 사장은 같은 사람이었어요. 군자역 소금공장에서 가공된 소금은 수인선 협궤열차를 통해 수원을 거쳐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여 팔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 염전에서는 언제까지 일하신 것인가요?

▷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길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2~3년 정도 염전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배를 타게 돼서 현재까지 37년 동안 배를 탔습니다. 그래도 이후에도 염전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부탁하면 비설거지를 도와주러 염전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비가 오면 염전에 소금을 만들던 바닷물들을 해구에 모아 두었다가 비가 그치면 물레방아 모양을 수차로 해구의 소금물을 염전에 다시 퍼 올려놓는 일 등을 비설거지라고 하는데, 그 일을 도와주러 가기도 했었어요.

▶ 최연소 농어민 후계자여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 저는 옛날에 4H클럽 청년 클럽회장을 했어요. 그때는 어민회장이 아니라 농민하고 어민하고 같이 농어민 회장이 있었고, 면장이나 주변 어른들이 내가 배를 타고 그러니깐 기특하다고 추천을 해줬어요. 추천을 받아서 부산에 가서 6일 동안 교육을 받고 새마을 중앙연수원 가서 3일을 받아야 지원금이 나오는데 내가 최고 어린 후계자로 되었어요. 83년도가 그랬던 것 같아요.

▶ 염전 일을 하시다가 배를 타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 부친께서 어부셨기에 자연스럽게 배를 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배를 직접 사서 운영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염전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의 배를 타면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덕적도에서 홍어가 터졌어요. 홍어는 원래 흑산도 쪽에서만 나던 건데 덕적도 앞바다에서 하루에 홍어 수백 킬로씩 잡는 걸 보고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샀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게 5톤짜리 목선 배를 사게 되었습니다.

▶ 배를 사신 이후 뱃일은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 여러 가지로 경험이 부족해서 뱃일이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은 처음 산 배를 3년 만에 다시 팔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구입한 배는 괜찮았는데, 함께 구입한 어구들이 문제였어요. 키쟁기라고 그물, 쇠 줄, 이런 게 너무 약해서 조업이 실통치가 않았어요. 덕적도 앞바다는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센 데 내가 구입한 어구들은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만약 경험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따져서 구입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삼 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빚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배를

팔아서 빚을 청산하게 되었어요. 이후 다시 돌주리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92년 전후해서 돌주리, 오이도 일대 매립이 진행되면서 이주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 다시 자가 배를 마련하신 것은 언제이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 돌주리에 들어간 이후, 계속 남의 배를 탔고, 개인적으로는 작은 나룻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으로, 허가 없이 조업하는 영세어민들을 조업 허가권을 양성화 시켜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그전에는 무적 나룻배로 조업을 했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허가를 얻어서 내 배를 갖게 된 것이에요. 사실 어족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조업허가권을 쉽게 내줄 수가 없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조업허가권 받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조업허가권을 얻어서 이후 쪽 뱃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월곶어촌계에 소속된 회원들은 주로 어디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선박 규모는 어떤가요?

▷ 예전에도 그랬지만 조업하는 경계구역이 명확해요. 시흥이나 인천, 월곶 등에서 조업하는 배들은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조업해야 합니다. 백령도며 인천이며 평택까지는 괜찮지만 충청도로 못 넘어간다. 그러나 보통 월곶이나 시흥 쪽에는 규모가 작은 배이기 때문에 백령도나 충청도 경계지역 바다처럼 멀리까지는 못 가지요.

배 종류 둘이서 마주 보고 노를 저어 가는 것을 예전에 뗏마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발전돼서 한강이나 강에서 타는 쾌속정이라고 하는데, 기계가 밖으로 나와 있어서 선 외기라고 해요. 이것은 보통 6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망, 복합, 낭장망, 통발 등등 조업 방식에 따라 배의 규모나 종류가 달라요. 5톤 미만은 자망이나 복합, 통발 등으로 구입하고 허가를 받아요. 자망어선은 여러 가지 조업을 할 수 있어서 가장 비싼 편이죠. 또 허가받은 방식으로 조업을 해야지 만약 자망으로 허가받았는데, 복합 방식으로 조업하거나 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조업하다가 걸리면 60일 조업 정지를 당하고, 면세유 공급을 받지 못해요. 만약 세 번을 여기게 되면 조업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죠.

5톤 정도 규모의 배를 중선배라고 합니다. 5톤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배는 허가를 낭장망으로 받아요. 소래포구 배들은 대부분 낭장망 어선이죠. 낭장망은 고기들이 다니는 길목에 일정기간 동안 설치해 두는데, 큰 닻을 양쪽에 놓고 낭장망 그물 띄워가지고 항상 그물 입구를 벌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가운데로 고기들이 들어가면 그물의

꼬리를 끌어 올려서 배에다 털고 다시 그물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조업하는 것이죠. 중선배는 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지나해처럼 먼 곳까지도 조업을 나갔어요. 보름 일정으로 가게 되면 조업은 딱 3일 정도만 하는데, 주로 갈치를 잡게 됩니다.

예전에 인천 연안부두에는 조금 때 중선배가 들어오고, 사리 때에는 쌍저인망배인 쌍대구리배가 들어왔어요. 사리 때에는 나가서 작업하는 게 중산배이고, 또 조금 때 나가서 작업하는 거는 저인망배입니다. 그래서 연안부두에 가면은 밤에 불야성을 이루었어요. 근데 어족 자원이 고갈이 되면서 그 배들이 하나도 안 남은 거지요.

▶ 현재도 소유하신 어선을 이용해서 조업을 하고 계신가요?

▷ 현재는 시흥과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전부 같은 해역을 쓰는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 항만청, 인천 항만공사 등에서 각종 사업으로 매립 내지는 준설을 하면서 인근 해역에서 510척의 어선이 다 폐업을 하게 됐어요. 2001년부터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마지막으로 보상받고 이제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요. 나를 비롯해서 510척 어선의 선주들은 평생 배만 타던 분들이라 어선을 폐업하면 생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상을 거쳐 송도에 준주거 용지를 공동으로 불하받게 되었는데, 그것을 발판으로 생계나 보상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마을에서 풍어제를 지내거나, 뱃고사를 지냈나요?

▷ 마을 단위로 풍어제나 뱃고사를 지낸 기억은 없고, 각자 알아서 지냈어요. 옥구도 경우는 5집 정도만 뱃일을 했는데, 집집마다 각자 알아서 지냈어요. 일 년에 한 번, 정월 대보름 무렵에 지내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지내는 사람도 있고 제각기 다릅니다. 예전에는 금기가 많아서 아버지께서는 미신이지만 뱃일을 나가려고 하다가 여자가 그 앞을 지나면 그 날은 뱃일을 나가지 않았어요. 옥구도와 다르게 소래포구의 경우에는 무당을 불러다가 매년마다 크게 풍어제를 지내죠.

우리는 뱃고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 막걸리, 시루떡, 과일, 북어포 등을 차려놓고 지냅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옥황상제, 용왕님 등에게 절을 하면서 안전과 풍어를 기원합니다. 한겨울에는 조업을 쉬었다가 정월 보름 때쯤 뱃고사를 지내고 그 이후 조업을 나가는데, 고기들도 정월 보름이 지나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뱃고사를 지낼 때 상기도 걸어놓습니다. 상기는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걸어놓는데, 그 이후로는 상기를

내려 조타실 안 서랍에 잘 모셔둡니다. 상기는 보통 배를 처음 마련할 때 함께 구비하게 되는데, 저 역시 올해(2017년) 배를 새로 지어서 상기를 한 달 정도 걸어놔었어요. 상기는 배가 폐선하기 전까지 잘 간직해 두는데, 그것 역시 일종의 미신이죠.

▶ 옥구도에서는 마을제를 지내기도 했나요?

▷ 옥구도에서도 마을제를 지냈기도 했어요. 지금 옥구공원에 가보면 돌줄이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돌로 쌓은 제단이 남아있어요. 그곳에서 매년 크게 지냈어요. 일 년 중에 언제 지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정월 보름쯤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을 전체가 단합해서 지낸 것 같지는 않고, 동네에서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가서 지냈어요. 돌주리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큰 바위가 있고, 그 앞에 정면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돌주리산을 섬기는 제사였어요. 돌이 많아서 돌줄이라고 불렀는데, 옛날에는 돈이 많아서 돈줄이라고 그랬대요. 지금은 전혀 하는 사람이 없죠.

▶ 옥구도에서 명절이면 놀았던 풍습이 있었나요?

▷ 어릴 때 정월 대보름에 불깡통 돌리면서 놀았어요. 옥구도에는 일제강점기 때 나무로 지은 염전 관사가 많았는데, 그것 뜯어서 불깡통 불쏘시개로 쓰다가 아버지한테 걸려 혼나기도 했었죠. 당시에는 학교 끝나면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솔방울 따고 했는데, 그래서 산에 남아있는 땔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불깡통은 놀려야 되는 데 나무가 없으니까 염전 관사를 뜯어서 썼다가 혼나면서도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또 불깡통 돌리려다 맨 마지막에 하늘에 돌리면 다 터지는데, 그것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녀석들도 있었죠. 지금도 술 먹으면 그때 그 시절 얘기를 하곤 합니다.

▶ 옥구도와 인근 지역 사람들과 싸움놀이도 하곤 했나요?

▷ 당시에는 옥구도 돌주리와 오이도 지역 젊은이들은 군자역 일대 젊은이들과 경쟁관계가 굉장히 세었죠. 그러니깐 쉽게 말해서 오이도나 돌주리가 군자역전을 못 나가. 군자역전을 나가야만 통학열차를 타거나 타지로 외출을 하게 되는데, 옥구도나 오이도 젊은이들이 군자역 쪽으로 나가면 그쪽 젊은이들과 시비가 걸려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일종의 힘자랑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만약 옥구도나 오이도 쪽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하면 또 복수하러 간다고 몇 명 끌고 밤에 쳐들어가고 그랬는데, 다 옛날일이죠. 또 옥구도 안에서도 아랫말, 윗말 아이들끼리 장난하고 경쟁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지금도 옥구공원 안에 돌주리산에 올라가면 우리들이 지은 본부가 몇 개 있어요. 한 번은 궁금해서 가봤는데 여전히 있더라고요. 또 이쪽에서 지은 본부를 밤에 저쪽 애들이 올라와서 허물어트리고 그러면서 노는 게 재미였죠. 화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서로 쏘면서 놀고 그랬어요.

▶ 옥구도에 전기나 상수도는 언제 들어왔나요?

▷ 옥구도에 버스는 1975년 전후로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엄마 없는 하늘 아래’(1977년)라는 영화를 옥구도에서 찍었거든요. 그 후로 버스가 들어왔을 겁니다. 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년)이라는 영화도 돌주리에서, 우리 동네 염전 사택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전기는 그 전에 들어왔구요.

상수도는 예전에도 없었어요. 우물 파서 사용했어요. 우리 사는 데는 한 열 가구가 위쪽 지대에 땅굴을 파두었어요. 그 땅굴에 물이 고이면 당번을 정해서 아침마다 올라가서 마개를 열어주고 몇 시간 있다가 닫아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 가정은 물 받은 통에 물을 받아두었다가 썼어요.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약수우물이 있어서 그곳에서 각자 떠다 먹었어요. 그래서 상수도가 필요 없었죠. 그런데 그 약수우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마을에서 잠금장치를 해서 관리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 약수우물은 옥구공원에서 돌주리산 올라가는 곳에 있어요. 생금우물이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은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에 따라 수도를 잠그고 풀고 하더라고요. 이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대략 90년도 초에 상수도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 원래 옥구도나 오이도 쪽에는 살이나 건강망은 많아도 배를 이용해서 조업하는 분들은 얼마 없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배들이 지금처럼 많아졌나요?

▷ 옛날에는 배가 없었죠. 소래에 있었고, 뒷방울 월곳에 네 개, 우리 돌주리에 다섯 개, 오이도에 세 개가 있었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으로 영세어민들 조업허가권을 내주면서 이 일대에 배들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죠. 그리고 IMF가 발생하면서 배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배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다들 망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도 배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배들이 늘어나면서 매매하고 거래하면서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5톤 미만의 배들이 신규로 받아 조업권을 얻었어요. 대부분은 0.1톤에서 0.2톤 미만 사이의 배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5톤 이상은 신규가 없어요. 가장 큰 배가 793급이고, 977급은 전국 허가권을 가진 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큰 배들은 이 인근에는 없어요.

월곶어촌계는 회원이 153명인데,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회원들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한 10년째 150분 정도의 회원이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실제로 어업하시는 분들이 선주인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보상 때문에 다 탄 사람들이 사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조업하는 배는 한 20척 돼요. 또 어촌계원에 속한 선주이면서 횃집이나 매운탕집을 운영하며 장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잡아서 도매로 팔기만 할 뿐이죠.

소래에는 배도 부리고 장사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는 장사할 데가 없기 때문이죠. 소래와 월곶은 서로 마주 보고 있지만 소래는 배들 규모가 크고 생산량도 많아서 어촌계가 돈이 많아요. 소래 어촌계원들은 한 350명쯤 될 거예요. 폐업이 되면 200명 명 남을 거고요.

- ▶ 월곶항이 다시 살아나고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이나 정부의 시책이 있나요?
- ▷ 월곶항이 국가항으로만 지정되면 상황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돼요. 아직 주민설명회도 진행해야 하고 여러 절차도 남아있지만 거의 국가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2~3년 뒤에는 지금과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현재는 갯벌 흙이 밀물 때 포구로 밀려들어와 쌓여서 배들이 포구에 들고 날기가 영 불편해요. 국가항이 지정되면 정부에서 그 갯벌 흙을 파서 없애줄 것이고, 그러면 24시간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들도 24시간 들고 날 수 있어서 항구도 살아날 수 있죠. 애초에 월곶은 포구가 아니고 그냥 바다였어요. 그런데 시흥 신도시를 만들면서 97년도에 처음 포구를 만들어서 24시간 물이 들어오는 포구였어요. 그렇게 2003년까지 한 6년 정도는 24시간 물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공판장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고 활기가 있었죠. 그런데 갯벌 흙이 들어와서 침적이 돼서 막혔어요. 여기가 국가항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포구 아래 쌓은 갯벌 흙을 파주고, 배들도 많이 들고 날고, 공판장이며 좌판도 서서 상권도 살아나고 그러면 포구가 다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5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침〉

참고문헌

- 간행자미상, 『기전읍지(畿甸邑誌) 第2冊: 竹山, 南陽, 富平, 始興, 安山, 高陽』,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강범모 외 13인, 『오이도 마을 이야기』, 하이비전, 2016.
-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Ⅱ. 신앙편』, 1999.
-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 보고서)』, 시흥시, 2000.
- 경인일보사, 『(경기기행) 역사·문화 4 - 안양·시흥·광명·고양·김포·부천』, 경인일보사, 2010.
- 국립민속박물관, 『석남 송석하(石南 宋錫夏) - 한국 민속의 재음미, 상·하』, 200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1, 2』, 2012.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2010.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200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1권. 서울·경기도편』, 1995.
-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 김현선,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연구』, 집문당, 1995.
- 박경수, “민요편”,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 Ⅲ). 한국민요·무가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1988.
- 시흥문화원, 『시흥시 지명유래』, 2006.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1. 시흥의 환경과 문화유산』, 시흥시, 2007.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2. 시흥의 전통시대』, 시흥시, 2007.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3. 시흥의 근현대』, 시흥시, 2007.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5.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시흥시, 2007.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 6. 시흥 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시흥시, 2007.
-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1. 시흥의 역사와 행정』, 시흥시, 1997.
-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2. 시흥의 어제와 오늘』, 시흥시, 1997.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3. 시흥의 사람들』, 시흥시, 1999.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시흥 100년, 4. 시흥의 생활문화』, 시흥시, 2001.

시흥아카이브, 『낮은 기억을 기록하다』, 시흥시청, 2016.

시흥자치신문, 『평생 꼭 가봐야 할 秘境: 시흥시 역사·문화·관광』, 2005.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 1~8』, 안산시, 2011.

장주근, “가신신앙”, 『한국민속대관 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정승모, “의례에 나타나는 의미의 상징적 표현과정에 관한 일연구”, 『인류학논집』 5, 서울대 인류학연구회, 1979.

조동일 외 4인, 『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 I).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村山智順 편, 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鄉土娛樂)』, 집문당, 1992.

최남선, 『조선상식: 풍속편(朝鮮常識: 風俗篇)』, 동명사, 1948.

秋葉降, 심우성 역, 『조선민속지(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한국종교문화연구소 편, 『시흥역사문화총서 3. 시흥 포동 새우개 당제』, 시흥시, 2010.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오이도 역사공원(전시관) 특화전략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시흥시, 2016.

홍태한 외, 『바다, 삶, 무속』, 민속원, 2015.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9책 - 경기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한국지리총서, 邑誌 10: 경기도 1』, 아세아문화사, 1985.

인터넷 자료

《뷰티플시흥 179호》(<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ausiheung&logNo=>)

경기일보,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교통 ‘환골탈태’」, 2017년 12월 07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20987>)

경기통계 홈페이지(<http://stat.gg.go.kr/>)

경인일보, 「시흥 배곧신도시에 600석 공연장 짓는다」, 2017년 12월 21일.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22001000621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인터넷 원문 서비스, 『세종실록』 지리지 권 148.
(http://sillok.history.go.kr/id/kda_40004003_002)

국토지리정보원(www.ngii.go.kr/)

네이버 뉴스, 프레시안, “안홍량이 잔잔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2016년 5월 2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02&aid=0002015168>)

산림청 홈페이지(<http://forest.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문 이미지(<http://kyudb.snu.ac.kr/>)

시흥시 사이버역사관(<http://history.siheung.go.kr/cybr/MainIndex.jsp>)

시흥시오이도문화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oidocommun.org>)

중부일보,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지하철 4호선 ‘배곧역’ 건립 본격 추진」, 2017년 12월 24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6795>)

한국경제, 「신세계 시흥 아울렛...“쇼핑센터 아닌 가족 휴식공간”」, 2017년 4월 5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057019g?nv=o>)

한국고전 종합DB 인터넷원문서비스 고지도 관련(<http://db.itkc.or.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화성시향토문화연구(<http://cafe.daum.net/hsculture>)

연구 및 협조

책임연구원 김현선(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구원 시지은(경기대학교 강사)

김혜정(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김은희(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보조연구원 윤정귀(경기대학교 국문과 박사수료)

지연화(경기대학교 국문과 박사수료)

김호성(경기대학교 국문과 석사수료)

협조 김치성(시흥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이병권(시흥문화원 사무국장)

시흥 오이도와 인근 어촌 민속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발행인 정원철

펴낸이 시흥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3번길 3 조은프라자 4층(하중동 875-1)

031) 317-0827

글 김현선 외

편집·제작 보고사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7-15

031) 955-9797

[비매품]

본 책자는 시흥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